장편력사소설

숙적

(제1부)

김정민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9(2010)

장편력사소설

승적 (제1부)

김 정 민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9(2010)

차 례

제 1 장 갑오년 정월대보름 ……(2)
제 2 장 왕관없는 녀왕 ……(60)
제 3 장 거마리 ……(111)
제 4 장 《정한론》의 유령들 ……(143)
제 5 장 《천우협》 ……(190)
제 6 장 록두장군 ……(238)
제 7 장 풍운아의 최후 ……(280)
제 8 장 전주입성 ……(322)
제 9 장 새야 새야 파랑새야 ……(365)
제10장 왕궁습격 ……(400)
편 집 후 기……(456)

제 1 장

갑오년 정월대보름

1

모든것이 어둠속에 묻힌 어슴새벽이였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도 흐려있어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인정(새벽 4시)이면 큰 쇠종을 서른세번 쳐서 단잠에 든 사람들을 깨우고 성문도 열게 하는 파루도 아직 울리지 않아 사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끝모를 어둠과 싸늘한 추위와 불안한 정적을 깨뜨리며 갑자기 언땅을 구르는 말발굽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서울의 남대문인 숭례문에 다달은 파발말은 급기야 멈춰섰다. 앞발을 쳐들고 호용소리를 지르는 말의 주둥이에서 허연 입김과 코김이 뿜어나왔다.

장승들이 우뚝우뚝 서있는 눈덮인 산속의 고샅길이며 얼음이 갓 풀린 강을 뛰여건너 며칠만에 서울에 당도한 파발말과 그우의 파발군은 둘 다 줄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거렸다.

무거운 대문이 굳게 닫겨있어 젊은 파발군은 문루에 대고 소리쳤다.

《문을 열어주!》

문루에서 석쉼한 소리가 날아왔다.

《파루를 칠 때까지 기다리게.》

《그럴새가 없소.》

《제길, 오늘은 작은보름날인데 무에 바빠서 그러나?》

젊은 파발군이 짜증을 부렸다.

《파발이요!》

《뭐, 파발? 좀 기다리게.》

좀이란 잠간이란 소리겠는데 한참이나 걸려서야 대문옆의 작은 나들문이 열리더니 한손에는 창대를 또 한손에는 등롱을 든 파수군이 파발

말곁으로 지척지척 다가왔다.

어깨가 구부정한 파수군은 등롱을 쳐들어 파발군을 비쳐보더니 앞이가 빠진 입을 열었다.

《파발인가?》

《보면 모르겠소?》

젊은 파발군은 어깨에 걸멘 방울이 세개 달린 가죽가방을 두드렸다. 방울이 세개면 지급파발이였던것이다.

늙은 파수군은 절랑거리는 방울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요즘은 세상이 개명해서 전보를 치면 순식간에 그곳 사정을 알텐데 왜 상기 파발인가?》

《전보국이 고장나서 그러오.》

《그래, 어디서 오는 파발인가?》

《전라도 전주요.》

《무슨 장계인가?》

《전라감사의 장계요.》

나배기 파수군의 눈이 근심어린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웨, 란리가 터졌나?》

《란리도 이만저만한 란리가 아니요.》

《응? 왜놈들이 쳐들어왔나, 민란이 터졌나?》

젊은 파발군이 버럭 짜증을 냈다.

《젠장, 늙은이와 기닿게 얘기할 새가 없소. 빨리 문이나 열어주.》

《그럽세.》

늙은이가 황황히 물러가고 이윽고 성문이 쩡 열렸다.

파발말은 네굽을 놓고 성문안으로 빠져들어갔다.

건청궁은 경복궁의 제일북쪽 북악산아래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지만 국왕 고종과 왕후 민비의 침전으로 쓰이는 곳이므로 지엄하게 취급되고있었다. 건청궁에는 록원이라고 불리우는 소나무가 우거진 정원도 있고 향원이란 못도 있어 퍼그나 아름다운 곳이다. 게다가 향원못에는 향원정이란 아담한 정각도 있고 그 정각과 물을 이어주는 취향교라는 무지개다리까지 있어 고종과 민비가 즐겨찾군 한다. 너무도 평화롭고 아늑하고 고요한 정원이다.

건청궁의 록원에 함박눈이 내린다. 록원의 나무들도 기암괴석들도 전부 하얗게 단장되였다.

한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온화하여 오늘 민비는 아들인 세자 척과 며느리인 세자비 민씨와 함께 설산을 펼쳐든 궁녀들을 시동하고 이곳을 거닐고있었다.

민비는 43살의 중년녀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젊고 요염해보였다. 진주분을 바른 그의 낯색은 눈보다 더 희고 백자기마냥 반들거렸다. 그는 평상복인 당의를 입고있었는데 안에 호백구(여우겨드랑이의 흰털.)를 댄 초록색의 거죽에는 룡이 수놓아져있었다. 당의 아래로는 땅에 철철 끌리는 진홍색적의를 입고있어 록의홍상이란 말처럼 색갈이 조화되여 자못 화려하고도 우아하게 보였다. 더우기 머리에 난모로 쓴 암갈색의 수달피로 만든 아얌은 웃부분을 각종 보태로 장식하고 뒤에는 댕기를 늘어뜨린것이 여간만 호화롭고 사치해보이지 않았다.

《참 푸근한 날씨구나.》

민비가 하늘을 쳐다보며 감회롭게 말하였다.

세자도 즐겁게 입을 열었다.

《어마마마, 금년의 첫눈이오이다.》

고개를 끄덕인 민비가 시녀에게 나직이 일렀다.

《설산을 치우거라.》

고개를 쳐든 민비가 두손바닥을 펴들었다. 손바닥에 차분히 내려앉는 눈송아리들, 소리없이 녹아버리는 그것들이 간지럼스럽기도 했다.

《정갈하고 소담하고 차분두 하구나. 금년엔 풍년이 들려나.》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린 민비가 아들 세자를 정겨운 눈길로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윽한 모성의 정이 함뿍 어렸다.

《동궁, 아바마마께서 동궁이 올해에 만 20살이 되기에 생일연회를 특별히 차려주어 기쁨을 표시하시겠다는 하교를 내리셨소.》

허약하게 생긴 세자 척의 눈빛이 기쁨으로 빛났다.

《소자도 들었소이다. 그날 색동옷을 입고 술통사이로 춤을 추며 아바, 어마 두분 전하를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세자보다 두살 우인 세자비 민씨도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그는 갑신정변때 개화파들에게 참살당한 세도재상 민태호의 딸이다.

《소첩도 그러겠나이다.》

《그리하오.》

이렇게 대꾸한 민비는 혼자소리마냥 시름겹게 뒤를 이었다.

《금년엔 세손을 보면 좋으련만…》

그 말에 세자비 민씨가 죄송스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시어머니 민비를 염라대왕처럼 두려워하였다. 평소에도 사무러운 성미인 민비라 3년째나 세손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온곱게 볼리 없었다.

이제는 조정은 물론 항간에서까지 세는 나이로 21살인 세자 척이 생식불능아란것을 다 알고있지만 그럴수록 왕위를 계승할 손자를 보고싶은 민비의 욕망은 더 불타오르기만 하였다. 여북했으면 언젠가는 짐승을 쌍 붙이듯 아들과 며느리를 이불속에 몰아넣고 온밤 지켜보았겠는가. 젊은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도 수통스러워 얼굴을 붉히다못해 눈물까지 흘렸으나 랭혹한 민비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독촉하고 훈계하였다. 아무튼 여직껏 왕손이 없는것이 그 녀자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요, 불행이 아닐수 없었다.

이때 여기로 급히 다가온 승지가 민비에게 허리를 굽히고나서 아뢰였다.

《중전마마, 입조하시라는 상감마마의 어지옵니다.》

《입조?… 알겠다.》

민비는 머리를 끄덕였으나 세자와 세자비는 명절날인데 웬일인가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큰머리를 얹은 민비가 고종과 함께 나라의 정사가 거론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서니 《상감마마 납시오!》 하는 소리가 울렸다. 환관과 궁녀들의 부액을 받으며 국왕 고종과 함께 문무백관들이 손에 홀을 쳐들고 읍을 한 자세로 서있는 전각안에 들어온 민비는 고종의 옥좌 옆자리인 발을 드리운 옥탑에 가앉았다.

월대우에 선 인의가 읍을 한 자세로 길게 소리쳤다.

《숙배, 4배ㅡ》

인의의 말을 받아 찬의가 또 소리친다.

《국, 구ㅡ웅ㅡ》

조정의 중신들이 바닥에 꿇어앉는다.

《바이ㅡ》

찬의의 소리에 따라 중신들이 고종과 민비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

을 했다.

《흐－응－》

문무백관들이 고개를 든다.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찬의가 다시 소리쳤다.

《바－이－》

중신들이 다시금 절을 했다.

《평, 시－인－》

찬의의 호소에 따라 비로소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허리들을 완전히 펴고 일어섰다.

국왕 리형은 12살에 왕위에 오른 후 30년동안 계속된 이 지루한 놀음에 저으기 지친듯 한 기색으로 앉아있었다. 그는 운두가 삐죽한 검은 익선관을 쓰고 가슴과 량어깨 그리고 등에 다섯마리의 룡을 수놓은 붉은 곤룡포를 입고있었다.

비서장격인 도승지가 임금에게 아뢰였다.

《상감마마, 오늘 새벽 전라감사 김문현이로부터 장계가 올라왔소이다.》

얼굴이 둥실한 고종이 심드렁하게 뇌였다.

《읽어라.》

《예이.》

도승지가 두루마리장계를 펴들고 읽어내려갔다.

《돈수백배.

전라감사 신 김문현이 삼가 이 글월을 올리옵니다. 금 음력 정월열흘날 새벽 전봉준이를 수괴로 하는 고부백성 천여명이 저마다 참대창을 들고 고부읍에 밀려들어가…》

《가만.》

문득 발뒤에서 민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열흘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왜 이제야 품하는거요?》

《저, 파발이 련 사흘을 달려왔으나 전라도 전주읍이 워낙 멀다보니…》

《멀긴 뭐가 멀어요? 전보국은 뭘하고있어요? 그 즉시로 알 일을…》

《저, 고장이 생긴 모양이옵니다.》

도승지가 송구스럽게 변명했다.

《우리도 개화하자고 말들은 잘하면서 노는 꼴들이란…》

민비의 야멸찬 소리에 문무백관들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서 읽으세요.》

민비의 분부에 도승지가 장계를 계속해 읽었다.

《삼문을 깨뜨리고 관청을 타고앉은 후에 토지문서와 노비문서 등 공문서를 불살라버렸으며 무기고를 짓부시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행패를 무수히 한 끝에…》

장계를 읽던 도승지가 흘끔 민비와 고종의 기색을 훔쳐보았다.

고종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장계를 읽는 도승지를 내려다보고있었으며 령의정 심순택이며 우의정 조병세들은 모두 기겁한 기색으로 서로 흘끔흘끔 쳐다볼뿐이였다.

도승지가 계속 장계를 읽었다.

《민란이 일어난지 며칠후에는 란민의 수가 무려 1만여명으로 되였삽고 더우기 고부의 이웃고을들인 태인과 금구, 정읍, 부안, 무장 등지의 백성들도 들고일어날 기세를 보여 그 형세가 장히 불온하온데…》

문득 신경질을 부리는 고종의 목소리가 장계를 읽던 도승지의 입을 다물게 했다.

성정이 유약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고종은 신경질을 곧잘 부렸다.

《듣기에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번 민란의 까닭이 어데 있다더냐?》

도승지가 다시 황송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무도에 있다 하옵니다.》

고종이 격분하여 부르짖었다.

《도적놈, 날도적같은 놈!》

도승지가 다시 아뢰였다.

《이번에 고부백성들이 들고일어난것은 조병갑의 학정때문만은 아니옵니다.》

《그럼 또 무슨 까닭이 있느냐?》

《고부의 동진강에는 줄포, 염소, 동진, 사포 등 포구들이 많사온데 일본상인들이 성냥이며 비누따위 항아물건짝들을 싣고 들어와서는 고부농군들이 뼈빠지게 지은 곡식들을 헐값으로 빼앗아가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그들의 살림이 더 어렵게 되고있다 하옵니다.》

《일본상인?… 그놈들도 순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내뱉은 고종은 다시 골살을 찌프렸다.

민비가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의 기색을 슬쩍 살핀 도승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기에 란민들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었사온데 〈왜놈들을 몰아내자!〉는 함성이 드높았다 하옵니다.》

발뒤에 앉은 민비의 기색이 신중해졌다.

왜놈들을 몰아내자는 함성이 높았단 말이지… 십이년전 임오군란때에도 폭도들이 일본놈들을 몰아내자고 웨쳐대지 않았는가.

민비는 이 시각 지난 임오군란시기를 회억하는듯 옥문 입술에 눈을 간잔지런히 뜨고있었다.

고종이 발뒤의 민비를 돌아보았다. 시립한 중신들도 일제히 민비쪽에 눈길을 주었다.

발뒤에서 침착하면서도 무게있는 민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우리의 내란이 적국의 행운으로 될수 있습니다. 전라도민란으로 하여 렬국들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독수에 대해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종이 머리를 끄덕이고 중신들도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민비의 의사를 따르는것이 국왕 고종의 습관으로 되였고 중신들의 인습으로 된지 오래다. 이것이 이른바 고종 친정의 실태요 실모습이였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습과 부패한 봉건의 질곡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황혼기에 처했던 갑오(1894)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던 조선은 대국들의 틈바구니속에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있었다.

이 다난하고 격동적인 시기에 삼천리강토와 천여만민중우에 군림하여 이 땅에서 리권쟁탈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유미렬강과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리는 일본, 청국, 로씨야를 가냘픈 녀인의 손으로 쥐여흔든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리왕조 26대임금 고종의 왕후인 민비 명성황후(죽은 후에 주는 칭호인 시호)였다.

《령상, 저 고부민란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고종이 한숨쉬듯 묻는 소리였으나 늙은 령의정 심순택은 눈만 꺼벅거릴뿐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민비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마치도 어머니에게 구원을 청하는 어린 아이의 모색같았다.

민비가 침착하고 오연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고부민란이 더 퍼지기 전에 미연에 눌러버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민란의 장본인인 탐관오리군수 조병갑이를 의금부로 잡아올려야 합니다. 하오면 고부백성들은 원망이 사라지고 흩어져갈것이옵니다.》

그러자 민씨일족의 우두머리인 간사하게 생긴 40대의 병조판서 민영준이가 제꺽 호응해나섰다.

《지당합신 하교옵니다.》

이렇게 말한 민영준은 고종의 눈치를 살피며 뒤를 이었다.

《그리고 후임군수로 박명원이를, 장흥부사 리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고부백성들을 위무함이 어떠하올지?…》

민영준의 이 말에 여러 관료들이 입을 비쭉거렸다. 고부에서 란리가 일어난 기회에 제 심복들에게 리득을 주려는 그의 약은꾀가 빤히 들여다보였기때문이였다.

원래 민영준은 살줄 아는 인간이였다. 그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 일이다. 그는 부임하여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빚어 임금 고종에게 진상하였다. 그후로 민영준은 《금송아지대감》으로 불리우며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게 되였다.

《그리하도록 합시다.》

임금의 분부에 백관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임은 끝을 보게 된셈이였다.

하지만 이때 발뒤에서 민비의 말소리가 또 울려 안도의 숨을 쉬려는 문무백관들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래일은 정월대보름이라 연석(연회)을 차리고 외국인들을 초빙합시다.》

《아니 곤전, 민란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이 위란한 때에?…》

고종이 의아한 표정으로 발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일본이나 렬강들이 우리의 민란을 두고 신경을 도사리고있을텐데 우린 더 태연해야 하옵니다.》

중신들이 민비쪽에 찬탄의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곤전의 결심대로 하시오.》

고종의 말이 떨어지자 민비는 곧 도승지에게 각 공사관의 공사부

인들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도록 하라고 분부했다.

《알아모셨소옵니다.》

도승지의 대답을 들은 민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조정에서의 회임을 마치고 자기 처소인 건청궁으로 돌아온 민비는 승지를 시켜 병조판서 민영준이를 불러오도록 분부하였다. 별안간 지난 임오군란때가 상기되면서 이제 전라도의 민란이 커져 한양으로 밀고 올라오면 어쩌랴 하는 공포감이 전신을 휩쌌던것이다. 설사 그들이 한양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우리 민란을 구실로 외국군대가 서울에 들어오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쨌든 그에 대한 방비책을 미리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다행히 얼마전에 민영준이를 시켜 청나라로부터 총을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다그쳐야 했다.

민비를 집안의 맏누이처럼 섬기는 마흔두살난 민영준은 그를 가장 공경스럽게 대하였다.

민영준이 나타나자 민비는 직방 무기구입건부터 물었다.

《청나라에서 사들여오기로 한 총 2천자루는 어찌되였소?》

《마마, 래달까지 청국기선으로 실어오기로 원대인(원세개)과 약정이 되였소옵니다. 인천까지 실어온 다음 인천에서 한강을 통해 룡산까지는 소형기선으로 나르기로 하였소옵니다.》

민영준의 자신심에 넘친 대답을 듣자 민비는 얼마간 마음이 놓였다.

《쓰다버린 총들이 아니요?》

《아니옵니다.》 민영준이 펄쩍 뛰듯이 두손을 내저었다. 《덕국(도이췰란드)에서 만든 신식모젤총 천정에 레밍톤, 마르티니, 게베르, 엔힐…》

《호호…》

갑자기 유쾌하게 뿜어대는 민비의 웃음소리에 말을 끊은 민영준은 어

리둥절한 표정으로 민비를 쳐다보았다.

《돈밖에 모르던 〈금송아지대감〉이 병조판서가 되더니 병기문세도 퍽 유식해졌소그려, 호호…》

그제야 민비가 웃어댄 까닭을 알게 된 민영준은 게면쩍어했다.

여하튼 일에 드팀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한 민비는 지금처럼 군사가 허술해서야 나라는 고사하고 궁성도 지켜내지 못할것 같다고 탄식하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민비는 민영준에게 나가던길에 상감마마께 들려 무기구입건에 대해 상주하라고 당부하였다. 자기가 나라정사를 독판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민영준은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왜, 무슨 할말이 있는가, 민비는 그를 의아쩍게 여기며 말없이 건너다보았다.

《중전마마.》

민영준이 드디여 갈린 목소리를 터치였다.

《저 갑신의 란이 있은 때로부터 금년은 꼭 10년이 되는 해옵니다. 하온데 상기도 갑신의 역적들인 옥균이며 영효가 일본땅에서 활개치며 다니고있으니 이런 통분스러운 일이 어데 있겠나이까. 이제 그 역적놈들이 기여들어 남도의 민란을 부채질하면 어찌하겠소이까!》

웃음이 떠돌던 민비의 낯색이 싸늘해졌다. 자기의 수족같던 사람들이 수많이 살해된 갑신의 란, 절치부심할 그 일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싸늘한 눈길을 허공에 박은채 민비가 이새로 내뱉듯이 뇌였다.

《일본에 리일식이며 홍종우같은 자객들이 가있으니 이제 소식이 올겁니다.》

《금년엔 기어이 우리 민씨일족의 원한을 풀도록 해주옵소서, 마마!》

《그만 물러가세요.》

민영준이 합문밖으로 나가자 진령군대감이 대령하였다고 아뢰는 소리가 울렸다.

《들라 해라.》

밖에 대고 나직이 소리친 민비는 입가에 가는 웃음발을 띠웠다.

진령군 박소사, 민비의 개인무당이며 점쟁이인 그 녀자는 민비에게 있어서 입안의 혀같고 수족같은 존재였다.

어딘가 한들거리는듯 한 걸음으로 방안에 들어온 진령군은 민비앞에

못미처 납죽 엎드렸다.

《곤전마마, 상원절(정월대보름)문안드리오이다.》

《진령군인가, 이리 가까이 오게.》

《황공하오이다, 곤전마마.》

《편히 앉게.》

《황공무지로소이다, 곤전마마.》

문무백관들이나 백성들은 민비를 가리켜 중궁 또는 중전마마라 했으나 유독 진령군만은 여느 사람들과 달리 민비를 곤전마마라 불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비에 대한 자신의 친근감, 숭모심을 나타내려 했는지도 모른다. 중전 혹은 곤전이라 함은 민비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인데 임금을 대전, 세자를 동궁이라 부르는것처럼 곤전은 민비가 거처하는 건청궁의 곤녕합에 비겨 이르는 말이였다. 항간에서 우물집이요, 배나무집이요 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것이였다.

박소사는 12년전 임오군란때 민비가 몸을 피해 충주 장호원에 있던 민응식의 집에 잠시 은거해있을적에 사귄 무당이였다.

그 녀자는 불안과 고독감에 잠겨 피로운 나날을 보내고있던 민비를 시종 즐겁게 해주었고 민비가 상경할 날까지 점찍어놓고 고무해주었었다. 그런데 그가 점찍어놓은 그날에 바로 환궁하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의 신통력에 감동되고 감탄한 민비는 환궁할 때 그를 서울로 데리고왔을뿐만아니라 자기의 개인무당으로 삼았으며 진령군이란 높은 칭호를 안겨주고 온갖 총애를 다 베풀어주었다.

민비의 신임과 총애를 한몸에 모은 진령군은 갖은 전횡을 다 부리며 매관매직을 일삼는가 하면 궁성안에 온갖 무당, 점쟁이, 광대들을 끌어들여 매일과 같이 떠들썩하게 놀아대군 하여 조정의 관리들은 물론 항간에서까지 악녀, 마녀로 지탄받고있었다. 하지만 민비의 신임을 받고있기에 누구도 내놓고 욕하지는 못하였다.

《그래, 오늘 점괘는 어떤가?》

민비는 습관처럼 입가에만 웃음을 담고 물었다.

민비는 원래 미신이 심한 녀인이였다. 그런것만큼 신령과의 중개자인 무당 진령군에 대한 믿음도 컸다. 분독이 올라 퍼릿퍼릿한 볼의 반점을 가리우느라 분을 회박같이 바른 진령군은 웃음을 흘리며 가살을 부렸다.

《아주 좋소옵니다. 더우기 얼마후에 맞을 세자마마의 생일점괘가 보기 드문 명점, 복점이오이다.》

《오, 그래.》

민비의 얼굴에는 다시 기쁨이 실리였다. 이런 경우에도 그의 눈만은 여전히 예리한 빛을 잃지 않고있었다.

진령군은 한무릎 다가앉으며 더욱 간사하게 여쭈었다.

《마마, 소인이 조상궁과 함께 계원사의 부처님께 상원절시주를 가야겠소옵니다.》

《금년엔 세손을 보아야 할텐데…》

《계원사의 부처님은 령험하다는데 시주에 각별히 정성을 기울여야겠소옵니다.》

《그래야지.》 하면서도 민비는 한숨을 쉬였다.

《이제 강녕전에서 벌릴 세자의 생일 외진연연회와 내진연연회 그리구 또 청국에서 무기도 구입해야 하고… 참으로 돈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세. 한데 설상가상으로 남도에서는 민란이 터지고…》

《민란이 터지다니요?》

진령군은 부지불식간에 낯색에 긴장한 빛을 띠웠다.

민비는 전라도 고부민란으로 하여 심사가 울적하던차에 말동무를 만나게 되니 자기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대보름인데도 어전회의를 열었소옵니까?》

민비의 말을 들은 진령군은 여전히 긴장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소리하듯 중얼거렸다.

《임오군란때처럼 비도들이 대궐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이렇게 뇌이는 민비의 안색에는 우려의 빛이 짙었다.

《설마 그렇게야…》 진령군은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참, 곤전마마, 지금 한양에 전라도광대패가 왔다는데 래일 대보름달맞이뒤끝에 그들을 불러들여 놀이판을 벌려야겠나이다.》

놀이판을 좋아하는 민비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진령군은 이런 말로 그를 꼬드겼다.

《전라도광대패?》

《네에, 듣자니 여간 구경스럽지 않다 하옵니다.》

민비의 낯에도 화색이 돌았다.

《마침일세. 래일 외국녀인들을 위해 연석을 열기로 했는데 그 뒤끝에 놀이판을 벌리면 안성맞춤일세그려.》

그러자 진령군은 굿 들은 무당처럼 큰 입을 벌리고 좋아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표정, 몸짓 섞어가며 민비에게 발라맞추었다.

《아, 노래가락, 춤가락도 볼만 하지만 마상재 비수던지기는 너무도 아슬아슬해서 손에 땀을 쥐다못해 눈까지 감게 된다 하더이다.》

《그래?… 임자 그 일이 튀지 않도록 잘 신칙하게.》

《네에, 여부 있소옵니까. 가부간 래일 전라도사당패의 놀이를 보옵시고 고부민란으로 인한 마마의 심뇌 홀 털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가살을 떨고 자리를 인 진령군은 급급히 민비의 편전을 벗어났다.

3

얼음이 채 풀리지 않은 계곡으로 흐르는 찬물에 배추를 씻던 홍아정은 가끔 산중턱의 계원사쪽으로 눈길을 주군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함지에 담은 배추를 다듬군 하였다.

손도 볼도 빨갛게 얼었으나 아정은 배추다듬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 가을에 아정이가 움속에 보관한 배추는 아직 어찌나 싱싱한지 방금 밭에서 캐온듯싶었다.

겉잎을 뜯어버린 하얀 배추속은 처녀의 살결처럼 희고 정갈했다.

별안간 휙휙 바람소리가 나며 눈가루가 날렸다. 누군가 나무가지를 잡고 날아다니더니 아정의 앞에 뚝 떨어져내렸다.

온몸에 흰눈을 뒤집어쓴, 보매 젊은이같은 사람을 보고 아정은 진정 까무라치게 놀랐다.

《아이 깜짝이야!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 말에는 대꾸없이 젊은이는 시조라도 읊조리듯 넉살좋게 시까스르는것이였다.

《배추 씻는 그 아가씨
겉대나 떡잎은 다 제치고

속에나 속대를 나를 주오》

어처구니없는 속에서도 아정은 웃음이 나갔다. 그런데 어느새 머리며 옷에서 눈가루를 다 털어버린 젊은이의 용모는 참으로 준수하였다. 장난꾸러기같지도 않고 더구나 불량기라군 조금도 없는 그의 모습을 할끔 훔쳐본 아정의 입에서도 저도 몰래 시조조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언제나 보던 님이라고
속에나 속대를 달라시오》

그러자 젊은이의 대꾸가 또 걸작이다.

《인제 보면 초면이요
이따 보면 구면이지》

시작한바치고는 끝장을 보자는 심산으로 아정이도 또 대척을 했다.

《초면 구면은 다 그만두고
부모님 무서워 못 주겠소》

생면부지의 젊은 사람과 이런 수작을 한 아정은 그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미를 푹 수그렸다.

그런데 아정이보다 총각이 더 점직해하는것이 아닌가. 아마도 처녀의 미모와 당돌한 태도에 주눅이 들어버린지도 모를 일이였다. 실상 순박한 젊은이는 아정이앞에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처음엔 그저 용모가 단아한 처녀라고 여겼는데 다시금 찬찬히 보니 그는 어쩐지 속세의 인간같지 않았다. 미인도나 비천도(녀인이 하늘로 날아가는 불교그림.)에서나 볼수 있는 미녀라 할가. 백옥같은 살결에 붓으로 그은듯 한 가는 눈섭이며 영채로운 눈빛, 맹주(맹산) 먹처럼 까맣고 윤기흐르는 태머리는 그저 곱다는 범상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리지적이고도 우아한 모색이였다. 연두빛깃에 자지삼회장을 대고 자지고름을 맨 저고리우에는 팔배에 소매없는 남색털배자를 입은것이 여간만 맵시있지 않았다. 무릎을 휩싸고 앉은 다홍색치마단끝으로 흰 버선에 신은 수를 놓은 당혜의 신코가 살짝 엿보였다. 어느모로 보든지 고명한 집안의 규수가 분명했다.

그는 두손을 모두어잡으며 어줍게 사과하였다.

《아가씨, 초면에 실없이 굴어 죄송하기 그지없소이다. 하 적적한 빙천설지에서 선녀같은 아가씨를 문득 대하고보니 저도 모르게 망발을 했

소이다.》

할 말이 없는 아정은 쭈그리고앉아 그저 배추만 씻었다. 그는 부끄러움으로 귀뿌리뿐만아니라 하얀 목덜미까지 익은 꽈리마냥 새빨갰다. 젊은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오늘은 작은보름이여서 약밥과 함께 검정나물을 먹어야 하는데 아가씬 햇배추를 다듬고있소이다.》

정월대보름은 보통 이틀을 명절로 삼았는데 대보름의 전날인 열나흘을 작은보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날에는 검정나물이라고 하여 고사리며 두릅과 같은 묵은 나물을 먹어야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선한 배추가 있는데 굳이 묵은 나물을 먹겠나요.》

아정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고운 소리로 대꾸했다.

말문이 막힌 젊은이는 사이를 두었다가 또 말을 걸었다.

《아가씬 대보름불경 드리러 왔소이까?》

그러자 아정의 입에서는 돌연 꿰진 소리가 튀여나왔다.

《흥, 불경… 흙으로 빚은 부처 개떡같사와요.》

젊은이는 놀라는 기색이였다.

《보아하니 아가씬 개명한분이시구려. … 하오면?》

《우리 어머님대신 시주왔소이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활기를 띠였다.

《감사덕분에 비장이 호사라구 오늘부터 부처님덕에 내가 배터지게 됐소이다.》

젊은이의 씨원씨원한 성미에 아정은 또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던 아정은 불현듯 그의 정체에 호기심을 느끼고 영준해보이는 젊은이의 모습을 은근살짝 훔쳐보았다.

《도련님은 예서 뭘하시오이까? 스님같지는 않고…》

《도를 닦지요.》

《예, 그러니 가람에서 과거급제공부를 하시는 량반댁도련님이시군요.》

젊은이가 코웃음을 쳤다.

《량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반이외다.》

《무반은 뭐 량반이 아닌가요?》

《문존무비, 문관만 존대하고 무관을 천시하는 이 세상에서 무반이야 량반대접을 못 받지요. 하오나 군사가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법, 그래서 시생은 이 산속에서 무예를 닦고있소이다.》

잠시 말을 끊은 젊은이는 주먹을 흔들며 격동된 어조로 시조를 외웠다.

흉중에 피가 뛰고
벽상에 칼이 운다
시절아 너 돌아오거든
왔소 말을 하여라

젊은이의 담찬 기상과 억센 기백에 아정은 무척 감동되였다. 그러나…

《아이참, 내 정신두.》

아정은 그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나서 배추함지를 들고 총총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젊은이가 그에게 소리쳤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우.》

눈덮인 바위등에 힘겹게 올라서는 아정을 미타하게 바라보던 젊은이가 그만 달려가 그의 함지를 빼앗아들었다.

아정은 저고리고름을 입에 문채 헌걸차게 걷는 그의 뒤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계원사뜨락에 올라가자 뜻밖에도 가마 두채와 교군들 그리고 짐군들이 있었다.

마침 법무승이 불당에 대고 소리치고있었다.

《대궐에서 진령군대감과 조상궁께서 나오셨소이다.》

법당(불교의식을 벌리는 방.)이며 판도방(불교를 공부하는 방.)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더니 주지를 비롯한 여러 중들이 허겁지겁 뛰여나왔다.

흰장미가 수북한 늙은 주지가 진령군의 가마곁에 다가가 공손히 여쭈었다.

《원로에 수고로이 오셨소이다.》

그제야 가마문이 들리며 진령군이 땅에 발을 짚었다. 나이지숙한 조

상궁도 가마에서 나왔다.

《성불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례불하는 주지에게 진령군도 두손바닥을 붙였다 뗐다.

《성불하시오, 관세음보살.》

법당쪽으로 걸어간 진령군과 조상궁은 높은 돌층계우에 덮인 얼음버캐와 눈을 근심스럽게 바라볼뿐 오를념을 못했다.

그들을 부축할 녀인이란 아정이 자기 하나뿐이여서 그는 서둘러 돌층계쪽으로 걸어갔으나 진령군곁에는 다가서고싶지 않아 조상궁쪽에 가붙어섰다.

《상궁님, 소녀가 부축해드리겠나이다.》

늙은 조상궁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요. 저 미끄러운 얼음이…》

그의 우려를 알아차린 아정은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는 어디론가 뛰여갔다.

잠시후 소금바가지를 들고온 아정이가 돌계단의 얼음버캐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조상궁은 물론 진령군과 여느 중들도 그의 거동을 의아쩍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계단에 땅땅 얼어붙었던 얼음들이 녹아버리는것이 아닌가.

엄병무(청년의 이름이였다.)도 아정이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정이가 조상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젠 올라가십시다.》

아정이의 부축을 받으며 돌계단을 올라가는 조상궁의 뒤를 따라 진령군도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기보다 조상궁을 더 섬기는 아정이를 아니꼽살스러운 눈길로 흘겨보군 하였다. 자기는 가슴에 쌍학흉배를 붙인 1품관이고 조상궁은 쌍봉흉배를 단 5품녀관이니 응당 지체높은 자기부터 모셔야 할것이 아닌가.

아정의 부축을 받으며 돌층계를 다 올라선 조상궁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고맙소. 한데 규수는 어데서 사는 뉘댁의 따님이시오?》

《소녀는 안국동에 있는 홍역관의 딸이옵니다.》

아정의 공손한 대답에 곁에 있던 진령군이 낯색이 쌀쌀해서 빈정거렸다.

《역관?… 그러니 중인이군.》

조상궁이 그런데 재예는 뉘게서 배웠는가고 여전히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소녀 중전마마께서 편액을 하사하신 리화학당을 다녔소이다.》

리화학당이란 선교의사로 서울에 온 스크랜튼이란 미국녀인이 9년전에 세운 녀학교였다. 여기서는 조선소녀들에게 영어며 종교, 현대지식을 배워주었다. 그런데 리화(배꽃)란 학당의 이름은 민비가 지어주었고 또 편액까지 자기가 써서 내려보내주었던것이다.

《오, 그랬군. 어쩐지…》

조상궁이 감동되여 머리를 끄덕거렸다.

병무도 놀라며 례사롭지 않은 아정의 모습을 다시금 그윽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진령군과 조상궁, 스님들이 들어간 법당에서 목탁과 광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정구업진언》을 외우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

법당을 한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정이에게 병무가 고개를 돌렸다.

《아가씨, 우리 집도 안국동에 있는데 가실 때 동행하지 않겠소?》

아정이에게 반해버린 병무는 그와 헤여지고싶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

주저하는 아정이를 보고 병무가 비위살스럽게 한마디 더했다.

《아따, 내가 하인처럼 뒤에서 따르면 되지 않겠소이까?》

그제야 아정이도 방싯 웃었다. 뇌살시키는듯 한 처녀의 그 웃음에 병무는 세상이 녹두알만 해졌다.

례불을 끝낸 진령군과 조상궁이 법당에서 나왔다.

그런데 저쪽모퉁이에 서있던 젊은 중이 진령군에게 흘깃흘깃 눈길을 주군 하였다.

그를 본 진령군이 조상궁에게 여느때 달리 은근스럽게 말하였다.

《조상궁, 나는 전라도광대들에게 들릴 일도 있고 하니 먼저 가보게.》

《네.》

머리숙여 대답한 조상궁은 젊은 중쪽으로 걸어가는 진령군을 수상쩍게 바라보았다.

계원사뒤의 음침한 곳에 외따로 떨어져 암자가 있었다. 예전엔 녀승들이 거처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빈집으로 퇴색한지 오랬다.

젊은 중의 안내를 받아 암자에 이른 진령군은 사위를 둘러보고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중이 밖에서 망을 보았다.

좁고 음침한 암자에서는 일본랑인(무직자)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진령군을 기다리고있었다.

일본내각 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의 심복으로서 서울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의 우두머리노릇을 하고있는 오까모도는 40대의 사나이였다.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장발의 서양식하이칼라머리를 하였으나 유독 오까모도만은 짧게 깎은 상고식머리를 하고있었는데 그것이 탐탁한 체구며 날카로운 눈초리, 꾹 다문 얇은 입술과 어울려 매우 날파람스럽고도 흉맹스러워보였다.

음충스런 표정으로 잠시 진령군을 바라보던 오까모도가 입을 열었다.

《무슨 새 소식이 없소?》

오까모도의 물음에 진령군이 목소리를 죽여 수군거렸다.

《지금 전라도 고부에서 민란이 터졌어요. 오늘 새벽에 전라감사의 장계가 올라왔어요.》

진령군의 말에 오까모도는 대뜸 얼굴에 긴장한 빛을 띠웠다.

《언제?》

《며칠 되였다나봐요.》

《사실인가!》

《그 일때문에 오늘은 명절날인데도 상감이하 원로중신들이 회임을 했어요.》

《요시(좋다)!》

오까모도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그의 눈빛이 별안간 류다른 광택으로 번쩍거렸다.

《민란의 추이를 제때제때에 통보하시오.》

오까모도의 거동과 말투에서 그 어떤 위협기와 강박감을 느낀 진령군은 얼른 대척했다.

《알겠어요.》

진령군이 오까모도의, 일본놈들의 간세(첩자)가 된것은 얼마전부터였다. 물욕이 강한 진령군의 성미를 알게 된 오까모도는 그에게 여러가지 귀한 물건과 돈을 안겨주면서 일본의 강대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로대국 청나라도 우습게 여기는 일본이 함선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조선을 먹어치우는것은 시일문제이니 조선이 망한 다음에 진령군은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겠는가, 그때도 민비에게 의지하겠는가.

그랬어도 망설이는 진령군에게 오까모도는 최후타격을 가했다. 서민들은 물론 조정의 량반관료들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는 진령군은 언제 동포들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 살수 있을뿐만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다는 오까모도의 말에 진령군은 간이 한줌만 하게 졸아드는듯싶었다. 작년 7월에도 이전 정언(임금에게 충고를 주는 사간원의 정6품벼슬아치.) 안효제란 사람이 궁중의 부패타락한 정사를 신랄히 단죄하고 궁중부패의 상징인 진령군을 시급히 처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는데 이 사실을 상기한 진령군은 모골이 송연하였다. 마지막깃털 하나가 말잔등을 부러뜨린다고 그는 끝내 오까모도에게 기울어지고말았다.

이리하여 진령군 박소사는 민비와 오까모도사이에서 두길보기를 하게 되였다.

오까모도가 진령군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한것은 그가 민비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무당, 점쟁이이므로 그를 통해 민비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장악할수 있다고 타산하였기때문이였다. 게다가 진령군은 물욕이 강하고 속이 검은 협잡군이였다. 오까모도의 타산은 틀리지 않았으니 늘 민비의 측근에서 맴도는 진령군을 통해 그는 조선왕후 민비며 조선정부의 동태를 제때에 알수 있었다.

오까모도가 음험하게 뇌까렸다.

《민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시오. 특히 그와 외국사람들의 접촉에 대해 철저히 살펴야겠소. 그러니 각별히 눈을 밝혀야 하오.》

오까모도의 공갈하는듯 한 말에 진령군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유, 무서워요.》

《나는 전라도민란에 대해 외무대신에게 시급히 보고하여야겠기에 먼

저 자리를 뜨겠소.》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까모도를 진령군은 겁에 질려 바라보았다.

4

《나으리! 나으리!…》

미닫이밖에서 하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히 찾는 소리에 일본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가 대답이라도 하듯 별안간 요란스럽게 기침을 깊었다. 폐결핵환자인 그는 요즘 신열이 나서 며칠째 집에서 앓고있었다.

그의 안해 기노가 밖에 대고 소리쳤다.

《좀 기다려라.》

기노는 기침을 깊는 남편의 잔등을 쓸어주었다.

무쯔가 타구에 가래를 뱉았다.

그것을 들여다본 기노가 락심하여 중얼거렸다.

《또 피가 나오는군요.》

무쯔는 안해의 말에는 대꾸없이 밖에 대고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나리님, 외무성에서 관리가 오셨습니다. 급한 일이라기에…》

밖에서 송구스럽게 아뢰는 하녀의 말에 기노가 신경질적으로 종알거렸다.

《못살게 구는군. 가뜩이나 편치 않은이를……》

무쯔는 벌거벗은 웃몸을 일으켜 앉으며 유까다를 달라고 안해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노는 제가 나갔다오겠다고 했으나 무쯔는 언성을 높였다.

《어서!》

창백한 낯색, 우묵한 눈확에서 번뜩이는 눈빛, 일본인치고는 특유한 고수머리… 이럴 때의 무쯔는 남편이라기보다 랭정한 정치가였다. 여북했으면 정계에서나 항간에서 그를 두고 《면도칼 무쯔》, 《면도칼대신》이라고 하겠는가.

기노는 낯을 찌프리며 유까다를 집어 남편의 벌거벗은 여윈 몸에 입혀주었다.

유까다의 허리끈을 매며 응접실로 들어서는 무쯔를 보고 늙수그레한 외무성관리가 급히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각하,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요?》

《저 조선에서 급한 전보가 왔기에…》

무쯔는 말없이 희고 여윈 손을 내밀었다.

전보문을 받아든 그는 무표정한 기색으로 그것을 읽었다.

《지급, 일본 도쬬, 내각 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각하 앞. 오까모도 류노스께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남. 조선에서 내란이 일어난 이 기회를 잘 리용해주기 바람. 차후 행동지시를 요함.

조선주재 일본림시대리공사 서기관 스기무라 후까시.》

이 순간 무쯔의 우묵한 눈확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는것을 보고 늙은 관리는 긴장한 자세를 취했다.

잠시 응접실을 거닐던 무쯔가 관리쪽으로 돌아섰다.

《조선내란의 정황에 대해 제때에 통보하라고 우리 공사관에 지시하시오. 그리구… 중요하게는 조선왕후 민비의 동태와 함께 조선에 있는 청국관리 원세개의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라고 답전을 치시오.》

《하.》

허리굽혀 인사하고 뒤로 돌아서는 관리를 무쯔가 멈춰세웠다.

《조선에 있는 오까모도 류노스께더러 급히 귀국하라고 하시오. 나도 곧 내각으로 나가겠소.》

이렇게 말한 무쯔외상은 전화기가 있는 탁자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총리와 내무상을 찾았다.

아직 겨울이 한창인 2월이라고 하지만 도쬬의 날씨는 봄날처럼 훈훈하였다.

총리의 응접실에 외투며 모자를 벗어놓은 무쯔는 총리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집무실에는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안락의자에 앉아있었고 방주인인 총리대신 이또 히로부미는 주단우를 거닐며 열변을 토하고있었다.

방에 들어선 무쯔가 두 선배에게 목례를 표시하자 이노우에는 저

빠듬히 앉은 자세로 머리를 끄덕였으나 이또총리는 두팔을 벌리며 반색했다.

《오, 외상 어서 오시오. 당신의 전화를 받고 지금 조선문제를 의논하던중이요.》

무쯔는 이노우에의 곁에 자리를 잡으며 고수머리를 비다듬었다.

머리가 일찍 벗어진 이또총리는 53살이였고 폐결핵환자특유의 창백한 낯색과 우묵한 눈확에 눈빛이 날카로운 무쯔는 갓 쉰살이였다. 그리고 얼굴의 칼자리로 하여 험상궂어보이는 내무대신 이노우에는 그중 년장자로서 59살이였다.

하지만 이또와 이노우에는 같은 쵸수출신으로 일찍부터 《존왕양이》파(천황제를 지향한 반막부파)로서 막부타도를 위해 싸웠고 또 밀선을 타고 영국류학도 함께 떠난것으로 하여 상당히 막역한 사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나이를 초월하여 언제나 너나들이로 말하군 하였다.

그리고 이또와 이노우에의 후원으로 외무대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무쯔는 그들을 선배로서 존경하고 섬기였다.

아무튼 정치가로서 가장 로회하고 정력적인 시기라고 할수 있는 50대의 사나이들인 이 세사람은 일본정계의 거물이자 조선침략의 원흉들이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군들인데 구태여 개성을 찾는다면 총리 이또 히로부미는 보다 음흉하였고 내무상 이노우에 가오루는 파렴치하였으며 외상 무쯔 무네미쯔는 교활하였다.

이노우에가 습관처럼 낯의 상처자리를 쓸어만지며 입을 열었다.

《에, 우선 조선에 우리의 손발노릇을 할수 있는 친일정부를 시급히 세워야 하네.》

팔짱을 낀 이또는 《음.》 하며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으나 무쯔는 대뜸 손을 내저었다.

《청국세력이 조선을 지배하고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선을 독점하려면 조선에서 청국세력을 결정적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 길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군부도 지금 청국과의 전쟁구실을 만들려고 애쓰고있습니다. 일청전쟁은 청국뿐만아니라 만주와 조선을 노리는 로씨야의 남하정책을 저지시키고 우리 일본이 동양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치르지 않으면 안될 거사입니다.》

이또가 만족스러운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무쯔, 자네더러 〈면도칼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연한 소리가 아니군그래, 허허…》

이노우에도 무쯔의 말을 긍정했다.

《외상의 말이 옳소. 그러자면 지금 우리 정부를 무능하다고 탄핵하고있는 야당이나 국회를 누르고 또 국민여론을 동일시하는것과 함께 유미렬강의 간섭이나 압력을 피해야 하오.》

《그것도 그래, 우리가 동양의 맹주가 되는것을 렬국이 달가와하지 않을테니까.》

단도직입적인 무쯔는 총리의 이 말도 부정해나섰다.

《아무튼 그건 후의 일이고 당장은 어떻게 일청전쟁을 일으키느냐가 문제입니다.》

로회한 이또가 턱을 쓸어만지며 생각에 잠겨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은 이렇네. 조선의 내란이 커져 조선정부자체로써 그것을 수습할수 없게 되면 불피코 임오년의 군인폭동때처럼 청국에 원병을 의뢰하게 될게고 그러면 청국이 출병할거란 말이요. 이때 우리도 〈천진조약〉을 등대고 조선에 파병하잔 말이요.》

《천진조약》이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듬해인 1885년 4월 청국의 천진에서 리홍장과 이또 히로부미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조선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일청량군이 동시에 출병하며 내란이 평정된 후에는 량국군이 동시에 철병한다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조약이였다.

이노우에가 제꺽 찬성했다.

《아주 그럴듯 한 묘안이요. 외상, 조선의 내란이 어떻게 될것 같소?》

《두고보아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내란이 커져야 하오.》

한손으로 팔굽을 다독이던 이또가 또 턱을 쳐들었다.

《가만, 도야마 미쯔루의 〈현양사〉가 있지? 언젠가 듣자니까 국수주의단체인 그 〈현양사〉가 일청전쟁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일청전쟁의 도화선이 되겠다고 날뛴다던데?》

이노우에가 또다시 이또의 제안에 호응해나섰다.

《옳소. 그 도야마의 〈현양사〉를 내세웁시다. 이럴 땐 정부관영의 단체보다 그런 사설단체들이 한몫 해제낄수 있소. 돈만 좀 쥐여주면 죽을둥살둥 모르고 날뛸테니까.》

무쯔는 일본정계의 원로로 자처하며 코대가 높은 이노우에가 이또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쌍수를 드는것이 가소로와 알릴듯말듯 한 비양기어린 웃음을 띠웠다.

《그럼 〈현양사〉를 내세워 조선의 내란이 커지도록 부채질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무쯔에게 낯을 돌린 이또는 서울공사관을 통해서 조선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일에 힘을 넣도록 하라고 지시하고나서 물었다.

《현재 조선의 실권자는 누구요?》

《왕비 민씨이지요.》

무쯔가 시푸녕스럽게 내뱉았다.

《아직도 그 녀자인가?》 이또도 쓰거운 웃음을 흘렸다. 《어쩐지 우리 동양은 녀인천하같구만. 청국은 서태후, 조선은 민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이제 청국이나 조선이 그 녀인들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거요.》 하는 이노우에의 말에 무쯔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조선에서 그 지위나 지모, 수완에 있어서 민비를 당할자가 없습니다.》

《인물 또한 절색이라지?》

이또가 흥미있게 물었다.

서양사람들 흉내를 내기 좋아하는 이노우에가 어깨를 으쓱했다.

《동남경녀라구 미인이 많다고 하는 우리 경도(도꾜)일대에도 민비같은 미녀는 없다고 합데.》

《그렇게 경국지색인가. 한번 보고싶은걸.》

《참게. 이제 조선이 몽땅 우리것이 되면 민비도 총리, 자네의것이 될수 있지. 허허…》

이또와 이노우에의 롱담을 듣고있던 무쯔가 자못 신중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민비를 녀인이라고 숙보다간 큰코 다칩니다.

더구나 민비는 배일적입니다.》

무쯔의 말에 이또는 정색해졌다.

《배일적이라?… 그럼 친일적으로 돌려세워야지.》

《쉽사리 돌아설 녀인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고 묻는 이또의 물음에 무쯔는 조선대리공사인 스기무라서기관에게 민비를 감시하고 장악할 임무도 주었고 또 조선에 가있는 랑인들의 두목인 오까모도가 민비의 측근들속에 첩자를 박아넣고있다고 말했다.

《외상, 그런데 조선엔 왜 우리 공사가 없소?》

이또가 무쯔에게 낯을 찌프렸다.

《청국주재공사인 오또리 게이스께가 조선공사를 겸임하고있는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무튼 민비가 우리 벗이 되면 좋지만 적이 되면…》

이또는 치째질사한 눈에 사무러운 빛을 띠우며 한손을 칼처럼 휙 내리그었다.

《…제껴버려야지.》

이또는 뒤짐을 지고 방복판에 버티고 서더니 정색하여 뇌까렸다.

《서양보다 후진국인 우리 일본이 선진국대렬에 하루빨리 들어서려면 반드시 조선을 정복해야 하오. 조선을 수탈하여 우리 자본의 시초를 축성해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 조선은 우리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앓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민란과 관련하여 오늘 즉시로 대책을 취하도록 한 무쯔외상을 높이 평가하는바요.》

이또의 열기와 광기에 넘친 말을 이노우에와 무쯔는 군인들처럼 차렷자세로 들었다.

5

서울종로의 종각앞공지에서 정월대보름명절놀이가 벌어지고있었다.

집으로 오던길에 홍아정과 엄병무도 구경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틈

에 끼여들었다.

녀인들모두가 장옷이나 쓸치마로 얼굴을 가리우고 눈만 빠금히 내놓고있었는데 홀로 장옷도 쓰지 않고 얼굴을 환하게 드러내놓은 아정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희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하는 축들도 있었다. 남녀유별이라 아직 봉건이 심한 때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머리에는 복건을 쓰고 솜을 두고 누빈 두루마기를 입고나선 병무도 한다하는 량반세가집도련님행색이다.

공지에서는 전라도광대패가 놀아대고있었다.

명절비음을 한 술한 사람들이 담을 쌓고 그것을 구경하고있었다. 맨앞에는 박쥐저고리(색동저고리)를 입고 조바위를 쓰고 당혜를 신은 녀자애들과 전복에 복건을 쓰고 태사혜를 신은 사내아이들이 줄느런히 앉아있었고 그뒤에는 중치막이나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들이 서있는데 그들도 신분구별이 엄격하여 선비는 푸른빛이요 평민은 흰빛이였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는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실띠를 띤 량반관료들이며 심의에 큰 띠를 띠고 복건을 쓴 점잖은 유생들도 끼워있었다. 년중 큰 명절이라 녀인들도 많았는데 치마저고리에 행주치마를 걸친 려염집아낙네들은 물론 삼회장저고리에 털배자를 입고 조바위나 남바위를 쓰고 손에는 털토시를 낀 량반대가집 귀부인들도 보였다. 그들은 대개 사람들 뒤전 멀리에 서있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흥겨워했다. 해정술에 낯색이 불카해진 사내들이 껄껄 웃기도 했다.

이런 놀이판이면 응당 나타나기마련인 장사치들의 싸구려소리도 제법 높다.

《싸구려. 깨엿이요, 깨엿.》

《자, 군밤이요, 군밤. 어서 싸구려.》

왜놈장사군들도 뒤질세라 소리친다.

《모찌(일본떡), 모찌, 맛이나 좋소다.》

《히로시마 미깡(귤), 미깡…》

지금 반반하게 닦아놓은 공지에서는 초록색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우에 자주바탕의 사로 만든 쾌자를 입고 꿩깃을 꽂은 전립을 쓴 사당들이 량손에 칼을 갈라잡고 《강강수월래》의 음악에 맞추어 절칵절

칵 검기무를 추고있었다. 명절비음을 한 구경군들도 볼만 하지만 울긋불긋한 광대들의 현혹적인 차림새는 더욱 미관이요 경관이요 장관이였다.

어린 소녀들과 젊은 처녀들은 물론 모든 녀인들이 음악반주에 맞추어 손벽을 치면서 《강강수월래》의 노래를 불렀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동해동천에 달떠온다

《강강수월래》는 지난 임진왜란때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과 행복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여 부른 민요로서 삼남지방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었다.

이제는 흥취가 고조되여 녀인들뿐아니라 남정들도 걸걸한 소리로 노래에 합세하였다.

호미 쥐면 농군이요
총을 메면 수군일세
강강수월래
…

흥겹고도 경쾌한 노래가락과 씩씩하고도 절도있는 춤가락에 사람들은 얼친 모양인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거리는 구경군들도 있었다.

춤을 끝낸 사당들이 림시로 쳐놓은 막뒤로 사라지자 초록석죽화전복을 입고 어리광대의 표식인 금초관을 쓴 키가 작달막한 사내가 재주넘기를 하며 공지복판으로 나왔다.

그의 우습강스러운 거동과 익살스러운 언변이 또한 사람들의 흥취를 돋군다.

《다음은 전라도의 특기인 마상재를 보시겠소이다. 하오나 담이 작은 사람은 아시예 볼 생각을 마시오. 그리구 앞으로 조여들지들 마시오. 말발굽에 채일수 있소이다. 자, 그럼 손에 땀들을 쥐여봅시다. 거사 천태봉!》

어리광대가 입에 손가락을 넣고 《휘익—》 휘파람을 불자 늘씬한 공골말을 탄 젊은 거사 천태봉이가 공지에 나왔다. 그는 융복에 속하는 남천릭을 입었는데 진홍관대를 띠고 사동개, 화동개, 환도를 허리의 뒤와 옆에 차고 머리에는 붉은 대갓에 공작깃을 꽂아쓰고 발에는 흑화를 신고있었다.

광대패에서 녀광대는 사당이라 했고 남자광대는 거사라고 했다.

태봉이가 우묵한 눈확속의 매눈처럼 예리한 눈에 긴장한 빛을 띠우며 말의 배허벅을 걷어차자 공골말은 공지를 원을 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말우에서 태봉이는 곧추 일어서기도 하고 배밑에 난짝 들어붙기도 하며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그때마다 관중들은 《어이쿠》, 《저런!》 하고 탄성을 지르군 했다.

드디여 태봉은 공지에 말을 세웠다.

어리광대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특기중의 특기를 보시겠소이다. 재삼재사 말씀드리지만 담이 작은 사람은 가시든지 눈을 감고계시든지 하시오. 까무러치는 것까지는 침으로 고칠수 있으나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기면 야단이외다.》

그가 사설을 늘어놓는 사이 광대들이 한쪽가녁에 문짝만 한 널판자를 세워놓더니 그앞에 붉은 치마에 황초삼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쓴 젊고 예쁜 사당을 세우는것이였다. 도대체 어쩌자는건가? 사람들은 변옥절이라고 하는 각시사당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공골말이 다시금 원을 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어리광대가 한손을 힘있게 쳐들며 웨쳤다.

《비수던지기!—》

태봉이가 굽을 놓고 달리는 말등에 우뚝 일어섰다. 그는 허리춤에서 비수들을 뽑아들었다.

병무도 아정이도 아니, 관객모두가 숨을 죽였다. 성냥을 그어대면 당장 불이 확 일듯싶은 긴장으로 팽배해진 분위기가 공지에 꽉 들어찼다.

드디여 태봉이가 널판자앞에 세운 사당 옥절이를 향해 비수 하나를 뿌려던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관을 얹은 옥절의 머리정수리 바로 우에 비수가 푹 꽂혔다.

관객속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굽을 놓고 달리는 말우에서 태봉이가 또 비수를 던진다.

이번엔 옥절의 귀우에 꽂힌다.

또다시 날아가는 비수, 옥절의 얼굴옆에 꽂혀 부르르 떠는 비수…

그러나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앞을 주시하고있는 옥절은 침착하고도 태연한 자세였다.

사람들속에서 아우성, 비명 지어 그만두라는 소리까지 터져나왔다.

너무 가슴이 떨려 아정이도 이미 눈을 감아버린지 오랬다. 잠시후 살며시 눈을 뜨고보니 젊은 사당의 몸을 따라가며 비수들이 주런이 박혀있지 않는가! 아정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병무를 훔쳐보았다. 그런데 입을 꾹 다문 병무는 두눈을 쪼프리고 마상의 광대만 지켜보고있었다.

드디여 비수던지기가 끝났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안도의 숨소리들이 길게 뿜어나왔다.

《아이쿠, 간이 콩알만 하게 졸아들었구먼.》

《에이, 십년감수했수다.》 하는 소리들과 함께 땅에 풀썩풀썩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얼마뒤 마상재를 논 태봉이가 패랭이를 들고 사람들앞을 지나갔다. 모두 칭찬과 함께 아낌없이 돈을 던져주었다.

태봉이가 병무와 아정의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병무도 아정이도 주머니에 엽전 한푼 없었던것이다.

태봉이가 조소와 랭소를 띠우며 그들의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아정이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이보세요, 잠간만!》

아정은 손가락에서 옥지환을 뽑아내더니 태봉이의 패랭이속에 떨구어넣었다.

《아가씨, 고맙소이다. 길이 복락하십시오.》

태봉은 아정이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더니 병무한테는 비양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거지량반두 잘 가시우.》

《뭐야?!》 병무가 대뜸 욱해서 태봉이에게 접어들었다. 《임마, 이자 그 소리 다시 해봐! 뭐, 거지량반?!》

《내 말이 잘못되였소? 실컷 구경하고도 돈 한푼 안 내면야 거지량반이지 별게요?》

태봉은 씨물씨물 웃으며 빈정거렸다.

《이짜식!》

병무는 주먹을 부르쥐였다.

그러자 울상이 된 아정이가 병무를 만류했다.

《도련님, 제발 그만두세요.》

병무는 단숨을 훅 내뿜었다.

《야 이 광대자식아, 이 아가씨가 아니면 너 오늘 내 주먹에 골통이 박살났을줄 알아라.》

이 순간 태봉이의 눈에서 불이 펄 일었다.

《내 골통이 박살나기 전에 내 칼이 먼저 네 염통을 맞구멍냈을게다. 야! 이 고라리생원자식아!》

마주 노려보는 병무도, 태봉이도 숨소리들이 몹시 거칠었다. 당장 무슨 일이 부르터질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앞에서 두 처녀, 아정이와 옥절이는 어쩔줄 몰라 그저 울상이 되였다.

마주선 병무와 태봉은 나이며 키가 둘 다 엇비슷한데 병무가 어깨가 넓고 체구도 다부지다면 태봉은 갸람한 몸이 날파람스러워보였다.

그래도 랭정한것은 병무였다.

《우리 저쪽으로 좀 가자.》

병무는 울뚝거리는 태봉이를 끌고 공지의 변두리 으슥한 곳으로 걸어갔다.

아정이는 어쩔줄 몰라 그대로 서있었으나 옥절이는 발벰발벰 그들의 뒤를 따랐다.

얼마뒤 병무가 범상한 기색으로 걸어오더니 아정의 앞에 멈춰섰다.

《집으로 갑시다.》

너무도 태연자약한 병무의 태도와 말투에 아정은 어느 정도 속이 풀렸으나 그래도 걱정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없었나요?》

《일은 무슨 일…》

그들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큰길과 여러개의 골목을 지나 자기 집 대문앞에서 발길을 멈춘 아정

이가 미안스러운 어조로 다 왔다고 말했다.

병무는 아정이네 집오래를 둘러보았다. 아정이가 차린 명절비음에 비해서는 대문도 크지 않은 보통기와집이였다. 명절인데도 집안으로 초대하지 못해 송구스러워하는 아정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명절을 잘 쇠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넨 병무는 오늘 명절이 자기에게도 그리고 아정이에게도 별로 즐겁지 못하리라는것을 느꼈다.

그들은 둘이 다 어쩐지 헤여지기가 서운했다. 그러나 먼저 몸을 돌린 병무가 골목길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대문앞에 오도카니 선 아정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래웠다.

이윽하여 그가 대문을 열려는 순간이였다.

문득 《아씨.》하고 찾는 소리가 뒤전에서 울렸다. 아정이 몸을 돌리니 예쁘장하게 생긴 처녀가 급히 다가서는것이였다. 가까이 온 다음 다시 보니 비수던지기를 할 때 황초삼을 입고 널판자앞에 서서 태연히 칼을 맞던 사당이였다.

《웬일루?》

의아쩍어하는 아정의 물음에 처녀는 성급히 대꾸했다.

《아씨, 도련님더러 밤에 종각에 나가지 말라고 일러주어요.》

영문을 알수 없는 아정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통…》

처녀는 좀 오연한 태도로 오늘 밤에 병무와 태봉이가 종각에서 싸우기로 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였다. 그제야 어렴풋이 영문을 알아차린 아정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처녀가 다시금 랭랭하게 내뱉았다.

《우리 태봉이는 예사내기가 아니니 살인이 나지 않게 잘 조처하시라요.》

《?!…》

아정은 느닷없이 가슴이 활랑거렸다.

처녀는 인사도 없이 홱 돌아서더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아정은 불현듯 소스라치듯 놀라며 두손을 맞잡았다.

《어머, 도련님 집을 모르니 이를 어쩌나?!…》

6

방 한가운데 오도카니 앉아있는 아정은 몹시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다. 그는 지금 날이 어두워지기만 기다리는중이였다. 그래야 종각으로 나가 병무더러 광대인 태봉이와 싸우지 않도록 말릴수 있기때문이였다. 병무의 집을 모르니 그렇게 할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문득 《뻐꾹.》하고 울리는 소리에 흠칫 놀란 아정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벽시계의 웃머리에서 튀여나온 뻐꾹새가 세번 울었다. 그러니 3시, 아직도 한낮이다.

《빨리 어두워져야 종각으로 나가볼텐데…》

아정은 한숨처럼 조용히 뇌였다.

이때 아래방에서 그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정아, 뭘하니?》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제 심정을 아는것 같아 아정은 얼른 머리를 매만지고나서 사이방문을 열었다.

《아니, 방에 있으면서도 기척이 없었느냐?》

가볍게 지청구를 한 어머니가 다시 부드럽게 일렀다.

《사랑방에 최도고어른께서 오셨다. 어서 건너가 인사를 드려라.》

《그래요?》

일순 반가와하는 기색이 아정의 얼굴에 떠올랐다. 최도고란 자기 아버지가 사역원훈도(외국어통역원양성기관의 하급관리.)를 할 때부터 자별한 사이로 지내는 최일이란 사람인데 아버지가 통역관으로 일본으로 건너다닐 때에 따라다니며 장사물계를 배우더니 이제는 한양은 물론 조선적으로 손꼽히는 도고(갑부)가 되였다. 의리심이 깊은 그는 홍역관을 스승이나 형님처럼 섬기면서 아정이네 집에 쌀이나 땔감 같은 것을 푼푼히 대주군 하였다. 그래서 아정이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귀인처럼 대하였다.

아정이가 사랑방에 들어가니 회색깁바지저고리를 입은 키가 후리후리한 아버지와 역시 흰깁옷을 입은 최도고가 명절교자상을 가운데놓

고 마주앉아있었다.

《아저씨, 문안절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아정이가 한쪽무릎을 세우고 나부시 절을 하자 호인형인 최도고의 입이 당장 헤벌쭉해졌다.

아정이가 최도고의 놋잔에 술을 따르자 그는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선생, 금년엔 아정이를 출가시켜야 하지 않겠소? 생선과 딸은 끼고있으면 안된다는 말 모르시우?》

《그래야 할가분데 애가 어디 말을 들어야 말이지. 자기는 꼭 학문을 배워 세계적인 녀의나 녀학자가 되여 나라를 빛내겠다는구려. 꿈에 네뚜리같은 소리지.》

홍역관은 입맛을 다시였다. 홍역관의 이름은 홍학규인데 역관으로 오래 있다보니 홍역관이란 말이 이름처럼 되여버렸다. 학식이 많고 점잖은 그에 대한 친근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른다. 그는 개항 이후로 점점 강화되는 왜놈들의 침탈로 나라의 형세가 기우는것을 보고는 왜말을 배운것을 수치로 여기고 회한하면서 지금은 역관노릇을 그만둔 사람이였다.

최일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하여 다시 입을 열었다.

《아정이 생각이 기특하외다. 홍선생, 아정이 뜻이 정녕 그렇다면 우리 이 애를 류학보냅시다. 알겠소, 우리 아정이가 이제 참말로 나라를 위하는 대학자가 되겠는지 말이요.》

《에에, 꿈같은 소리,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소만 학비를 어떻게 당한단 말이요. 게다가 아직 우리 조선서야…》

《개화했다는 홍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시오? 지금 세상에 유명짜한 녀류명사들이 얼마나 많소. 우리 조선에도 응당 있어야 하오. 학비는 내가 대겠으니 걱정마시우. 그리구 신랑감도 고릅시다. 인물곱겠다, 똑똑하겠다, 재주 또한 비상한 아정이같은 규수는 한양은 물론 세상천지를 뒤져도 없습니다. 길일을 택해 성사시킵시다.》

최도고의 말에 얼굴이 활딱 붉어진 아정은 《아이참, 아저씨두…》 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다.

밖으로 나가는 아정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던 최일이가 반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정인 개명한 규수외다. 모두가 빨리 저렇게 개명해야 할텐데…》

홍아정의 성장에는 아버지 못지 않게 장사군인 최일의 관심과 도움이 자못 컸다. 홍역관의 영향으로 남먼저 개화한 그는 녀자를 천시하고 지어 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사회풍조에 반발하는 사람이였다. 하기에 그는 아정이가 신식녀학교인 리화학당에 다니는것을 적극 장려했고 그런 심정으로 리화학당에 적지 않은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어 최일이가 화제를 돌렸다.

《홍선생, 내 오늘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그는 홍역관에게 권연을 권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김홍집대감에게 다리를 좀 놓아주시오.》

《김홍집대감?》

홍역관은 김홍집이 제2차수신사로 일본에 갈 때 그의 통역관으로 동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그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았다.

《조정의 중신들중에 나라의 개화문명에 관심이 큰 사람이야 그래두 김홍집대감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내 상업자금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생각이외다.》

《음.》

홍역관도 생각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원래 그는 같은 역관인 오경석과 함께 외국으로 다니면서 서양문물과 접촉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도 빨리 근대화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개화의 선구자였다. 하기에 오경석이나 중인인 류홍기의 영향으로 개화파의 령수가 되여 갑신정변을 단행한 김옥균이와도 자별한 사이였다. 나라의 모든것을 근대적, 부르죠아적기초우에서 변혁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자는것이 바로 이들, 개화운동가들의 사상이였다. 10년전인 갑신년에 홍역관이 일본에 가있지 않았더라면 그도 김옥균이와 손잡고 정변에 참가하였을것이다. 다행히 개화파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에서 벗어나고 또 지금 역관노릇도 그만두었지만 그는 지금도 나라의 부국강병에 대한 지향만은 버리지 않고있었다.

《홍선생!》 최일이가 울기가 오른 기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도 빨리 큰 공장도 세우고 광산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철길도 놓고 해서 부국강병을 이룩해야겠는데 조정의 백관들은 상기도 태평성대

의 꿈에 취해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니요!》

홍역관은 자기와 뜻이 맞는 최일이가 만족스럽고 장해보였다.

《최도고, 생각을 잘했소. 도고도 이제는 대도고라 불리우는 부자가 됐으니 장사로 번 돈을 기업에 투자할 때가 되였소. 사실말이지 저 미국이 오늘처럼 번성하게 된것도 따지고보면 록펠러와 같은 석유왕이나 모르간같은 강철왕, 듀폰과 같은 화약왕들이 있기때문이요. 그리고 덕국(도이췰란드)의 군수업이 장성하게 된것도 크루프와 같은 강철콘체론이 있기때문이고 지어 일본이 동양의 강국으로 부상하고있는 것도 정부가 미쯔이나 미쯔비시와 같은 재벌들을 육성했기때문이요.》

홍역관의 말을 들은 최일은 흥분되여 그의 손을 덥석 쥐였다.

《옳소이다. 듣자니 일본의 신흥재벌인 미쯔비시는 순전히 정부의 뒤받침으로 몇십년어간에 오늘같은 세계적인 재벌로 되였다고 합디다. 그리구 지금 일본내각의 내무경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 미쯔비시재벌의 최고고문이라고 하던가… 홍선생,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에게도 나라의 경제를 뒤받침해줄 든든한 재벌들이 있어야 할게 아니요, 예? 홍선생!》

홍역관은 최일의 말이 백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보다는 그의 왕성한 기업의욕이 마음에 들었다. 부국이 되려면 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였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자기야 량반축에도 못드는 중인이고 더구나 이제는 역관도 못하고 의관노릇으로 호구지책을 하는 형편에…

《홍선생, 왜 말이 없소?》

최일이가 안타까움에 잠겨 부르짖었다.

홍역관은 미안스러운 웃음을 띄였다.

《재력도 권세도 없는 내가 최도고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안타까워서 그러오.》

《아따, 조정의 중신들과 맺은 줄이 상기도 빨래줄같은데.》

《모르는 소리, 내가 김옥균이네와 관계가 있다고 그들이 곁이나 주는줄 아오? 그건 그렇고, 그래 새로 벌리려는 일은 뭐요?》

《금광이요!》 최일의 눈은 열기로 번뜩였다.

《충청도 직산에 좋은 금맥이 나졌는데 거기에 돈을 댈가 하오.》

《직산금광이란 말이지. 나도 말을 들었소.》

최일의 의기와 열기에 감염된 홍역관도 저으기 흥분했다.

《나도 힘써보리다. 물론 김홍집이같은 대감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민중전이요. 나라의 대소정사는 모두 중전마마를 통해서 처결되는것만큼 그분의 재단을 받아야 하오.》

《그야 그럴테지요. 무슨 방법이 없을가요?》

《구중궁궐속에 계시는 지엄한분이라…》

홍역관은 다시 난색을 지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아정은 방금전에 사랑방에서 들은 최도고의 말이 머리속에서 윙윙거려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정말 류학을 간다면 얼마나 좋으랴. 지금 우리 나라에 와서 민중전의 전속의사가 된 호르똔도 미국녀인이고 우리 나라 각지를 탐방하고있는 영국왕실지리학회 학자인 이사벨라도 처녀가 아닌가. 자기가 그들보다 못한것이 뭣이란 말인가. 자기도 밤새워 공부하여 꼭 성공할것 같았다. 의학이든, 물리학이든, 교사든… 그 어느 분야를 선택해도 좋다. 그 학문이 내 나라에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자기, 아정이는 참말로 이 땅에 태여난 보람이 있을것이 아닌가. 그는 문득 언젠가 몰래 읽어본 《구약성서》의 한 대목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것이다.》

그렇다. 노력하자. 피타게 공부하자. 그러면 소원이 성취될것이다.

아정은 불현듯 가슴속에 스며드는 크나큰 환희를 뿌듯이 느꼈다. 이런 희망, 이런 열망은 그가 어제오늘에 비로소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였다. 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니, 학교를 다니던 그 학창시절부터 아정은 이런 뜻을 품고 꾸준히 공부하였다.

문득 뻐꾹시계가 또다시 울었다. 그 소리에 신기루와 같은 상념에서 깨여난 아정은 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아정은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것만 같았다.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아정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까부터 수틀을 펼쳐놓았으나 심정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수놓이란 재예와 함께 침착하고 찬찬하고 꼼꼼한 품성을 길러주기에 어느 집들에서나 딸들에게 반드시 배워주기마련이다. 아정은 수놓이에서도 남다른 재능이 있어 그의 수예품들은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솔거가 그린 황룡사벽의 늙은 소나무처

럼 생동하고 아름다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군 하였다. 그는 수틀에 마주앉으면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머리속은 물론이고 송학을 수놓고있는 수틀우에도 계원사에서 상면한 총각의 모습만이 어룽거렸다. 그러던 아정의 뇌리에 문뜩 표범처럼 날래고 결패스러운 태봉이란 그 광대가 떠올랐다. 아정은 온몸이 소름끼치듯 오싹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더구나 오늘 밤에 살인나지 않도록 잘 조처하라고 자기에게 신칙하던 처녀사당의 말이 상기되자 더는 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아정은 황급히 수틀을 치우고 일어났다. 홰대에서 장옷을 벗겨들었다가 그대로 걸어두고말았다. 다른 나라 녀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 나라 녀자들만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낡은 인습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는 우정 더 장옷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툼질할 때가 많았다.

아정이가 방문을 여니 아래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정아, 어데 가려니?》

《예, 잠간 나갔다와요.》

《쓸치마를 꼭 쓰고 나가거라.》

그 말에는 대척없이 문을 닫고말았다.

골목의 굴뚝들에서 연기가 오르는것으로 보아 다저녁때였다. 종종걸음치다싶이 하여 종각앞공지에 이른 아정은 사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기야 날도 어둡지 않았는데 병무가 벌써 나와있을리가 없었다. 한지에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어 그는 종각곁의 골목쪽으로 걸어가 어느 집의 처마밑에 들어섰다. 저쯤에 종각이 보였다. 그는 여기서 병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7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엄병무의 머리속에는 온통 오늘 계원사에서 만난 처녀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그는 지금껏 규방아가씨들

이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얌전데기들인 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처녀는 참으로 이채로운 아니, 희한한 존재였다. 절륜한 자색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길 없는 아릿다운 그 용모, 가람의 풍경소리같은 그 랑랑한 목소리, 선비들도 무색케 할 그 뛰여난 학식, 더우기 구습에 엇서는 그 활달하고도 도담한 태도는 진정 선망의 눈으로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덜퉁한 자기는 그 처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 다행히 집은 알고있지만 집이나 알고있은들 무슨 소용이랴. 그 처녀가 자기같은 용력군을 거들떠보기나 하겠다구, 그림속의 떡이지. …

《아니, 무슨 생각을 하기에 실없이 벌씬벌씬 웃으며 그 모양이냐?》

아버지의 시까스르는 소리에 낯색이 벌개진 병무는 잡념을 털어버리려는듯 머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고나서 궁핍한 집안살림을 측은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외다리뱅이인 아버지 엄초관은 아래목에 앉아 담배대만 뻐금뻐금 빨고있는데 그곁의 싸리로 엮은 어리속에서는 삐용삐용 울어대는 병아리들의 소리가 났다.

병무는 싱긋이 웃으며 물었다.

《아버님, 그건 무슨 병아리들입니까?》

《네 어미가 닭알장사를 해보겠다고 사다 키우는거다.》

병무는 병아리에 명줄을 걸고있는 병아리같은 집안살림이 더욱 처량해보였다. 그래도 곰바지런한 후어머니로 하여 가세가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있었다. 그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도 어서 올라오라 하십시오. 명절문안 드려야겠는데…》

엄초관은 그럴상싶어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궐두, 이젠 올라오시오.》

그러자 부엌에서 짜증을 부리는 녀인의 소리가 울렸다.

《좀 더 기다려요.》

《올라와 병무의 문안절 받으시우.》

《절은 무슨 절…》

빈정거리는 안해의 소리에 엄초관이 그만 버럭 고함을 질렀다.

《올라오라면 올라올게지 웬 잔말이야!》

그제야 엄초관의 후처 공씨가 물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대며 방에 들어섰다.

《년초부터 큰소리니 온 한해 이 성화를 어떻게 받고 사누…》

공씨는 남편의 곁에 털써덕 주저앉았다. 그러나 자기를 훑어보는 남편의 눈찌를 보자 얼른 행주치마를 벗어 구석에 팽개치고나서 몸가짐새를 바로했다. 떠돌이새우젓장사로 연명하던 젊은 과부인 공씨는 새벽마다 골목길을 누비며 《새우젓 싸구려.》하는 자기의 싸구려소리에 빈공기를 들고나와 새우젓을 조금씩 사군 하는 외다리뱅이를 처음엔 무심히 대했었다. 그러나 비록 다리병신이긴 하지만 사내싸게 생긴 인물이며 점잖은 거동에 차츰 눈길이 갔고 그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아비란것을 알고는 동정과 련민의 정을 느꼈다. 아무튼 이러루한 연분으로 엄초관의 집에 눌러앉게 된 공씨였다.

《궐두, 량반집안에 들어왔으면 체신머리를 바로허시우.》

남편의 꾸중에 공씨는 참지 못하고 또 입안소리로 종알거렸다.

《량반은 뭘 말라빠진 량반이누.》

또다시 사나와지는 아버지의 눈초리를 본 병무가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소자 문안드리겠습니다.》

병무의 아버지이름은 원래 엄형국이였으나 군정시절에 무반인 초관(중대장급)벼슬을 지냈고 더우기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다 하여 사람들은 존경의 심정에서 엄초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젠 본명처럼 되고말았다.

아들이 절하겠다니 엄초관은 빈바지가랭이우에 한쪽다리를 얹고 틀지게 자리를 잡고 곁의 공씨도 사뭇 얌전을 빼는것이였다.

병무는 손등우에 이마를 고이고 부모에게 공경스럽게 절하였다.

인사를 끝낸 병무가 자리를 고쳐앉자 공씨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젠 끝났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니 공씨는 황황히 자리를 일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후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병무는 가슴이 아릿했다. 온 한해 낡은 반물색치마 한벌로 살아가는 그의 정상이 몹시 가긍해보였

던것이다.

안해가 자리를 뜨고 아들과 단둘이 남자 엄초관은 또다시 거북스러운 기색으로 담배질만 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기마련이지만 이들 부자간은 참으로 신통히도 모색이 같았다. 굵직굵직한 뼈대도 그렇고 준수한 용모 또한 그랬다. 차이가 있다면 엄형국은 얼굴인상이 엄하고 좀 결패스러워보이는데 아들인 엄병무는 진중하고 부드러워보이는것이였다.

침묵을 먼저 깨뜨린것은 엄형국이였다.

《너 산에서 배가 고프겠구나.》

《가을철에 먹을걸 장만해두었습니다.》

《그래두 낟알이야 귀할테지?》

《스님들의 신세도 집니다.》

《그럴테지.》

또다시 대화가 동강나고 어색한 침묵이 시작되였다.

이윽하여 병아리어리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너두 닭알장사란 말을 알고있지? 옛적에 한 사람이 닭알 한알을 사들고 얼음판우를 걸어가며 궁냥에 잠겼더란다. 이제 이 닭알 한개를 깨워 병아리가 나오면 그것을 엄지닭으로 키워 닭알들을 받아내고 그 닭알들은 또 깨워 더 많은 닭을 키워 돈을 벌게 되면 송아지 한마리를 사야지, 그 송아지를 키워 암소가 되면 또 송아지를 받아내고 이렇게 키운 황소들을 팔아 이번엔 기와집을 장만할가, 논밭을 살가 하고 속구구를 하다가 그만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안고오던 닭알 한개를 깨버렸다누나. 그러니 기와집두 논밭두 다 하늘로 날아나고말았지, 허허…》

병무는 아버지가 옹색스러운 처지를 모면하려고 누구나 다 아는 우스개소리를 우정 꺼내고 또 걸맞지 않은 웃음소리를 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 자기도 재미있다는듯 덩달아 웃으려는 찰나에 다행히도 공씨가 부엌문을 열었다.

《병무야, 상 놓아라.》

《예.》

병무는 웃벽에 세워진 밥상을 가져다 아버지앞에 놓았다.

공씨가 부엌에서 개다리소반에 음식을 담아들고 들어와 밥상에 옮겨

놓았다. 그것을 보던 엄형국의 눈이 커지고 얼굴에 대뜸 화색이 돌았다. 상우에는 고사리며 산나물과 같은 검정나물은 물론 굴비(소금에 절인 조기.)며 소고기산적까지 올라있었다. 아들 병무를 위해 이렇게 차린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선은 굶주려오던 자기가 이런 푸짐한 명절상을 대하고보니 입이 벌어졌다.

《아니 부인, 이건 다 언제 장만했소? 육붙이까지 있구…》

《내가 뺑덕에미란 소린 들어두 할건 다 하우다.》

좀 으시대는 투로 이렇게 말한 공씨는 또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니 상가운데 목이 길죽한 호로병을 놓았다.

《뿌연 탁배기가 아니라 멘경처럼 맑은 소문난 공덕리쇠주외다. 대보름엔 귀밝이술을 자신다는데…》

형국의 눈굽이 불그레해지더니 걸그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인, 정말 고맙소. 실은 병무가 명절이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방금전까지 옹색해서 어쩔바를 모르던 참이요.》

《삼순구식해도 오늘이야 상원절이 아닌가요. 병무도 오고…》

여느때는 과묵한 엄초관이지만 얼굴에 술꽃만 피면 말보따리를 즐겨 풀군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인즉 술이란 대체로 사람들을 다사하게 하는 물건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어느 집을 찾은 손님이 주인이 없기에 아들애에게 《네 아버지 어디 가셨니?》하고 물으니 애녀석의 대답인즉 《울아버지 말 사줍수러 갔어요.》 했다던가. 그러나 지금 엄초관의 말이 헤퍼진것은 흔히 말하는 술주정때문이 아니였다.

《병무야, 우리 집 족보책에두 있지만 우리 엄씨집안은 대대로 무반의 록을 받으며 살아왔다. 너의 증조부께서는 정종진의 첨사벼슬을 하시였고 고조부께서는 병조좌랑을 하시였다. 그우로 쭉 병마절도사, 병조참판 등 무반직에서 뜨르르한 자리들만 차지하고계셨지. 나두 영종진싸움에서 왜놈들에게 이 다리 하나를 잃지 않았어도 지금쯤 당당한 군직에 올라있을게다. 옛적부터 상무기풍이 높던 이 나라가 본조에 들어와 문관을 중시하고 무관을 경시하는 중문경무에 빠지더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였느냐. 왜놈, 양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 울바자가 헐면 뭇개들이 드나든다고 나라의 방비가 허술하니 이 모양이 될수밖에 없지. 허어, 통탄할 일이로다.》

엄형국은 비분강개한 표정이였다.

《하온데 병무는 왜 과거급제시킬 생각않구 군정을 시키시려구 하시우, 잘살지도 못하는…》

《마누라쟁이가 뭘 안다구.》

엄형국이 핀잔을 주자 공씨는 입을 삐죽거렸다.

《궐이요, 부인이요 하다가두 술만 자시믄 마누라쟁이야.》

엄형국은 안해의 말에는 개의치 않고 혼자소리하듯 중얼거렸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인가. 백성의 도리를 다하구 의리를 지켜야 사람이지.》

엄형국은 다시 아들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너도 알지만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되였니. 그 왜놈들의 〈운양〉호의 포탄에 맞아 한다리 없는 병신이 되지 않았니. 왜놈들은 끝끝내 우리 나라를 먹자는 심보다. 그놈들에게 먹히우면 우리 겨레는 문서 없는 종이 되고만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군정을 시키려고 하는게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게 되는 법이니라.》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병무의 머리속에는 학문과 무예를 착실히 닦아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왜놈들이나 양놈들과 같은 오랑캐들과 아직 직접 맞부딪쳐보지 못한 그는 놈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 옛적 임진왜란때 왜적들을 우리 선조들이 물리쳤다는 옛말처럼 들렸을뿐이였다.

점심겸 저녁겸 명절상을 물린 병무는 웃방으로 올라와 팔베개를 베고 번듯이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다. 아래방에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불구의 몸으로 하루하루 늙어가는 아버지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득바득하는 후어머니, 조반석죽도 잇지 못하는 집안형편을 두고 병무는 생각이 많았다. 이제는 한 장정이 다된 자기가 식솔들을 돌보지 않고 계속 무술닦기나 해야겠는가. 한때는 자기 집도 량반대가집으로 떵떵거리며 잘살았다고 한다. 흥, 량반!…

그러자 문득 그의 뇌리에는 오늘 낮 종각공지에서 자기를 멸시하던 광대의 모습이 삼삼해지고 그가 던진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리였다.《거지량반!》, 《고라리생원자식!》

병무는 벌떡 웃몸을 일으켜앉았다. 그리고는 급히 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석양볕이 스러져가고있었다. 벌써 광대녀석이 종각에 나와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지 모른다. 병무는 불시에 욱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병무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청년인데 천하디천한 광대한테서 그런 모욕을 받았으니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내 이 자식을 오늘 밤에 그저!…

엄병무는 벌컥 방문을 열어젖혔다.

문득 아래방에서 코고는 소리가 멎더니 아버지의 잠내나는 소리가 울렸다.

《어데 가니, 병무야?》

《아버님, 인차 돌아옵니다.》

8

《비켜께라, 물러께라! 진령군대감께서 행차하신다. 쉬이ㅡ》

호기있게 지르는 벽제소리를 앞세우고 화려하게 장식된 진령군 박소사의 가마가 초라한 려인숙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뜨락에 웅기중기 모여있던 거사며 사당들은 물론 방안에 있던 귀얄수염쟁이 모가비까지 마당으로 황급히 뛰여나와 맨땅에 꿇어엎드렸다.

가마에서 거드름스럽게 내린 진령군이 꺾은채로 지은 초가이영인 려인숙을 시들하게 둘러보더니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전라도사당팬가?》

귀얄수염쟁이 모가비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척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임자가 모가비인가?》

진령군의 거만한 물음에 모가비는 또 머리를 조아렸다.

《예이.》

《내 존귀하신 곤전마마의 분부를 받잡고 임자한테 긴한 당부를 하려 들렸네.》

《?!…》

모가비뿐만아니라 마당의 광대모두가 긴장한 눈길로 진령군을 쳐

다보았다.

《임자네 전라도사당패에 생광스러운 일이 생겼네. 중전마마께옵서 래일 대보름밤에 임자네 사당패의 놀이를 몸소 보시겠다고 임자네를 입궐시키라는 하교가 내리셨네.》》

《예에?!…》

의외의 놀라움으로 눈이 커진것은 모가비뿐이 아니였다. 근 스무명의 거사며 사당모두가 놀란 입들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 빈틈없이 차비하고 래일 달뜨기 전에 입궐하도록 하게. 잘만 하면 후한 상을 받게 될걸세. 그래, 임자네 놀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광대들의 도장수격인 거수가 한발 앞으로 나서며 읍을 하였다.

《소인이 말씀올리겠소이다. 우리 사당패에는 소리광대와 놀이광대가 있사온데 소리로 말하오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등 판소리와 〈유산가〉, 〈제비가〉, 〈배놀이가〉, 〈긴륙자배기〉, 〈화초사거리〉, 〈흥타령〉, 〈매화타령〉 등 잡가들이옵고 춤가락으로는 〈농악무〉, 〈칼춤〉, 〈승전무〉, 〈사당춤〉, 〈학춤〉, 〈강강수월래〉 등이옵니다. 그리구 놀이광대로는 〈탈춤〉, 〈꼭두각시〉, 〈바줄타기〉, 〈택견〉…》

진령군이 얼굴을 찡그리며 거수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런것뿐인가. 그런거야 어느 사당패나 다 하는게 아닌가?》

거수가 황급히 주어섬겼다.

《예예. 소인이 방금 말씀드리려던 참이였소이다. 우리 전라도사당패의 재기는 마상재올시다, 달리는 말우에서 재주부리기, 비수던지기. 보는 사람마다 손에 땀을 쥐게 되지요.》

그제야 진령군의 낯색이 풀리며 입이 벙글서해졌다.

《응, 나두 임자네 마상재가 재기라는 말을 들었네. 중전마마께서도 무척 좋아하실거야. 그러니 마상재를 특별히 잘하도록 하게. 그러면 특별상을 하사받을지도 몰라. 알겠나?》

진령군을 말그대로 대감 모시듯 사립밖 멀리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전라도광대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들은 금년 정월대보름은 참으로 경사라고들 했다. 사실 경사라면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구경을 한것만 해도 큰일인데 래일 밤엔 구중궁궐 대궐에

들어가 지엄한 나라님과 국모님앞에서 놀이판을 벌리게 됐으니 어디 꿈엔들 생각할 일이냐고들 했다. 더우기 중전마마께옵서는 기분이 좋으면 광대들에게 돈천을 아낌없이 뿌려준다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한밑천 잘 잡게 되였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돌아갔다.

《다들 듣거라.》

흥에 떠서 돌아가던 광대들은 모가비의 소리에 진정되였다.

《너희들도 들었지만 참으로 생광스러운 경사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거수, 자네가 신칙을 잘허게.》

그의 말에 따라 광대들은 분주탕을 피우며 돌아쳤다.

광대들은 사당패라고도 하였는데 19세기 후반기 이후부터 더욱 왕성해졌다. 보통 수십명으로 구성되여 각지로 떠돌이하며 공연을 하여 벌이를 하였다. 모장 혹은 모가비라고 불리운 우두머리는 주로 재정을 장악하고 거래를 맡아보았고 녀자광대인 사당과 남자광대인 거사들을 직접 다스리는것은 거수라고 하는 남자거사인데 이 거수가 춤과 노래에 대한 지도를 맡아하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날이 어두워오는데 거사 천태봉이와 사당 변옥절이가 종적없이 사라졌던것이다.

귀얄수염쟁이 모가비는 버선발로 마루를 탕탕 구르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빨리, 빨리들 찾아라! 마상재와 비수던지기가 없으면 우리 놀이에 뭐가 볼게 있느냐! 중전마마께서도 그것을 보시자고 우릴 대궐로 부르신게다.》

거사며 사당들이 사방으로 뛰여다니며 태봉이와 옥절이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 갔단 말인가. 서울에 처음 오니 친척은 물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들이 아닌가.

《태봉이!》

골목을 누비며 거사들이 목이 터지게 소리쳐불렀다.

《옥절아!》

애타게 찾았으나 태봉이와 옥절이의 대답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모가비는 토방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바닥으로 마루를 두드렸다.

《망했구나, 망했어! 어이구…》

그의 넉두리에 뜨락에 서있던 광대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였다. 중전마마의 하사품은 고사하고 어명을 어겼으니 포도청신세를 지게 될것이 아닌가.

모두가 울상이 되여있을 때 거수가 래일까지는 옹근 하루가 남아있는데 그전에 나타날것이라고 그들모두를 안심시켰다.

9

파성관은 서울의 남산기슭에 자리잡은 일본인려관이였다. 지금 여기서는 귀국하는 오까모도의 송별연이 한창이였다. 각상을 하나씩 앞에 놓고 오까모도, 남대문의 약국주인 다까하시 외에 많은 일본인, 상인, 랑인, 자객들이 모여앉아있었다. 그들은 오까모도의 귀국을 진정으로 섭섭해하고있었다. 비록 공식 직책은 없어도 사실상 오까모도는 일본거류민들의 우두머리격이였다. 하기에 거류민들은 공사관에 제기할수 없는 문제도 그에게 제기하였고 그러면 대체로 해결되군 하였다. 이런 과정에 어느덧 그는 거류민들속에서 《사설공사》, 실제적인 공사라는 평판을 받고있었다. 그리고 오까모도가 거류민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데는 그로서의 목적이 있었다. 외무경 무쯔로부터 특별과업을 받고 조선에 파견된 그는 조선의 내정에 더 깊이 침투하고 거류민들을 쟁취함으로써 앞으로 유사시에 그들을 리용할 속심을 가지고 있었던것이다.

웬만해서는 술에 취하지 않는 오까모도는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천천히 말했다.

《나의 귀국을 위해 제군들이 이처럼 성대한 송별회를 차려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는바요.》

앞에 마주앉아있던 다까하시가 오까모도에게 목례를 하였다.

《마음뿐입니다.》

다른 왜인들도 못내 서운한 기색을 지었다.

《오까모도선생이 본국으로 가신다는것을 안 서울의 일본거류민들이 모두 섭섭해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오까모도가 방금 말한 량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지금은 외무경각하가 부르시기에 환국하지만 아마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거요.》

《꼭 다시 오십시오.》

《한성의 거류민들이 기다린다는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모두가 간절한 눈길로 오까모도를 바라보며 아첨기어린 어조로 절절하게 당부했다.

오까모도는 누비돗자리우에서 선자리걸음을 하며 의기에 넘쳐 뇌까렸다.

《다시 돌아오게 될것이요.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조선, 조선반도란 말이요. 그러니 제군들은 거류민이란 생각을 버리고 개척민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요. 에, 말하자면 조선개척의 선봉대란 말이요.》

그의 말에 흐뭇해진 일본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돌아보았다.

《내 말뜻을 알겠는가?》

오까모도의 광기가 어린듯 한 소리에 일본인들도 앉은채로 허리를 꼿꼿이 폈다.

《하!》

사무라이출신에 퇴역포병대위인 오까모도는 사람죽이기를 파리잡듯 하여 모두가 두려워하였다.

오까모도는 술잔을 높이 쳐들었다.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부릅시다.》하고 웨친 오까모도는 열띤 소리로 만세를 부르짖었다.

파성관의 송별회는 해가 인왕산으로 기울무렵에 끝났다. 모두가 얼근히 취하였고 광기에 넘쳐있었다. 그들의 안중에는 여기가 조선땅이라는것도, 자기들은 조선사람들의 적의를 받는 이방인이란 생각도

없었다. 풀어헤친 하오리자락짬으로 털가슴이 보이고 게다짝이 덜컥거리고 칼집이 막대기처럼 질질 끌렸다. 다까하시며 모든 일본인들이 취기에 겨워 몸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듯 노래를 불렀다.

10

골목에는 장작이며 솔가지며 검불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가 매캐하게 떠돌았다. 저물녘이 되니 날씨도 몹시 차졌다.

아정은 추위에 옹송그리며 종각쪽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병무의 모습은 물론 광대의 자태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추위에 쫓기는 사람들이 량겨드랑이에 두손을 지르끼고 종종걸음치고있는 모습만이 보일뿐이였다. 장옷이라도 쓰고 나왔으면 한결 추위를 덜수도 있었을걸 공연한 고집을 부렸다는 후회도 들었다.

《와 벳삔상!(야! 미인이다!)》

갑자기 울리는 사내의 음성에 흠칫 놀란 아정은 고개를 홱 돌렸다.

하오리를 입고 칼을 찬 왜놈랑인배 네댓놈이 아정이를 둘러싸고 벌쭉거리고있었다. 놈들의 낯짝은 고구마알처럼 벌겋고 술내가 확 풍겼다.

놈들은 아정이곁으로 다가서며 음탕하게 이죽거렸다. 오까모도의 송별연에서 돌아오던 다까하시패거리였다.

《미인아가씨, 우리와 좀 놀지 않겠소?》

《돈두 주겠소.》

왜놈들을 증오에 찬 눈길로 쏘아보던 아정은 격분에 넘쳐 소리쳤다.

《저리 비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다까하시가 앞의 두놈을 밀쳐버리며 뇌까렸다.

《이럴 땐 말이 필요없어!》

다까하시는 색욕으로 눈빛을 번들거리며 아정이를 무작정 껴안으려고 하였다.

아정은 놈을 밀쳐버리며 째지는듯 한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요!—》

방금 공지에 도착하여 서성거리던 엄병무가 이 소리를 듣고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절명에 가까운 녀인의 비명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잔뜩 긴장해진 병무는 소리난쪽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골목에 다달은 그는 너무도 처참한 광경앞에서 잠시 발길이 굳어졌다.

여러명의 왜놈들이 서로 밀치며 한 조선처녀를 희롱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처녀는 기절한듯 의식을 잃고 담벽에 기대여 가까스로 서있었다.

처녀를 알아본 병무의 눈이 커졌다. 계원사에서 만난 처녀가 분명했다.

《아니, 아가씨가?!》

순간 병무의 얼굴은 증오로 이그러졌다. 압축되였던 용수철이 튕겨나듯 그는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놈들아!—》

깜짝 놀란 왜놈들의 낯짝이 대뜸 굳어졌다.

병무는 발길을 날려 택견동작으로 대번에 두놈을 쓰러뜨렸다. 당황하고 불안해진 왜놈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놈들의 낯짝이 험상궂게 찌프러지고 눈에는 살기가 어렸다. 적수공권인 병무는 방어자세를 취하고 놈들을 노려보기만 하였다.

《얏!》

칼을 쳐든 왜놈 하나가 짐승같은 소리를 지르며 병무에게 달려들었다. 병무가 날래게 몸을 피하자 그놈은 헛칼질을 하고 몸을 기우뚱거렸다. 그 순간 병무가 놈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왜놈은 비명과 함께 칼을 떨구고 앞으로 쭉 뻗었다. 날래게 그 칼을 집어든 병무가 천천히 그러나 용맹스러운 자세로 놈들에게 다가들었다. 남은 두놈은 겁기어린 눈으로 서로 돌아보더니 그만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을 뒤따르려던 병무는 문득 고개를 돌려 아정이를 바라보았다.

아정은 실신한채 담벽밑에 주저앉아버렸다. 병무는 칼을 버리고 아정이한테로 달려갔다. 아정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였다. 헝클어진 머리칼, 떨어진 저고리고름…

병무는 아정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아가씨.》

깨도를 못하는 아정이를 병무는 좀더 세차게 흔들었다.

《아가씨, 정신차리오.》

그래도 고개를 푹 떨군 아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던 병무는 아정을 추슬러 업고 그의 집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줄땀이 흐르고 목에서 단내가 났으나 그는 걸음발을 멈추지 않았다.

드디여 골목길을 누비며 아정의 집앞에 이른 병무는 대문을 두드렸다.

신발끄는 소리가 찰찰 나더니 대문이 빠금히 열렸다. 등롱불을 쳐든 하녀인듯 한 어린 처녀가 깜찍하게 생긴 얼굴만 살짝 내밀고 의혹에 찬 눈길로 병무를 살펴보았다.

병무는 숨을 헐썩이며 다급히 말했다.

《문 좀 빨리 열어주시오.》

처녀는 올롱한 눈길을 쳐들었다.

《어느 댁을 찾으시와요?》

《저, 이 집이 홍역관댁이…》

《예, 맞아요.》

《아참, 이럴새가 없소.》

병무는 무작정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병무의 등에 업힌 아정을 띄여본 하녀가 안에 대고 기겁하여 소리쳤다.

《아니, 우리 아씨가… 마님! 마님!》

방문이 열리고 아정의 어머니 정씨가 밖을 내다보았다.

《밤중에 웬일이냐?》

이월네가 《마님, 큰일났사와요. 아씨가! 아씨가!》 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마루앞에 헐썩이며 서있는 병무와 그의 등에 기신없이 업혀있는 자기 딸을 알아본 정씨가 황급히 마루로 뛰여나왔다.

《이게 웬일이요?》

《빨리 방에…》

병무의 재촉을 받은 정씨는 더욱 덤벼쳤다.

《이월네야, 뭘하니?》

방에 들어선 병무는 아정이를 맨 구들에 내려놓을수 없어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정씨는 창황중에 어쩔바를 모르는데 이월네가 제꺽 이불장을 열고 눈처럼 흰 요를 내려 장판바닥에 펴놓았다.

《마님, 여기에.》

《응응.》

이월네와 함께 병무의 잔등에서 기절한 아정이를 받아내려 요우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정씨가 문을 열더니 사랑방쪽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좀 빨리 오시우. 큰일났어요!》

아정의 아버지 홍역관과 손님인 최도고가 성급하게 방으로 들어섰다.

《웨, 웨 그러우?》

남편의 묻는 소리에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딸을 가리켰다.

《아정이가, 흑…》

《아정이가 어찌 됐다는거요?》

《글쎄, 저 도령이 업구 왔는데…》

엉거주춤 서있는 병무한테 의혹의 눈길을 돌린 홍역관이 랭랭하게 물었다.

《젊은인 뉘시오? 그리구 우리 아정인 어찌된 일이요?》

《저, 아가씨가 종각곁의 골목에서 왜놈들에게…》

《왜놈들에게?》

병무의 말을 되뇌이며 급히 딸의 머리맡에 앉은 홍역관이 이불을 들치였다.

그의 곁에서 아정이를 기웃이 들여다보던 최도고가 홍역관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렸다.

《다친덴 없는것 같은데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모양 같소이다.》

《그런것 같소, 죽일놈의 섬오랑캐들!》

결기있게 내뱉은 홍역관이 안해를 힐책했다.

《에미란게 집에 있어가지구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뭘했소?》

《글쎄 다저녁때 잠간 나갔다 오겠다기에…》

안해의 말은 들은둥만둥 홍역관은 병무에게 방바닥을 가리켰다.

《앉으시오.》
《예.》
자리에 앉으려던 병무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다시 허리를 폈다.
《그럼 전…》
《갈려구?》
《예.》
《아니, 뉘신지도 모르는데…》
정씨가 황황히 만류했으나 병무는 선절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에 묻힌 골목길로 달렸다. 날씨는 맵짰으나 그는 팔굽으로 연방 이마를 훔쳤다. 광대녀석이 날 기다리고있을텐데…

11

이 시각 천태봉이와 변옥절이는 종각쪽으로 가고있었다. 성난 기상인 태봉이는 헌걸찬 걸음이고 뒤따르는 옥절이는 울상이다.
《태봉아, 가지 마!》
옥절이가 태봉이의 소매자락을 잡고 애타게 빌었으나 태봉은 옥절이의 손을 왁살스럽게 뿌리쳐버렸다.
《머스메들 일에 삐치지 말어!》
《너 혹시 그 도령한테 잘못되면 난 어찌라니…》
《아따, 맨 머스메들인데 무슨 걱정이야.》
《태봉아, 너 죽으면 나도 죽어.》
문득 태봉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이 가시내가…》
옥절이는 말없이 태봉이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사랑으로 불타는 눈길이여서 태봉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덧 종각주위도 어둠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사위를 둘러보며 태봉이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량반자식이 왜 안 와? 겁이 났나.》

옥절이가 뾰로통해서 종알거렸다.
《안 올거야.》
《온다.》
《안 와.》
옥절이의 말은 확정적이였다.
《머스메들은 너희 가시내들하군 달라.》
《흥, 밤새 기다려보지.》
태봉이는 들은체도 안했다.
태봉이의 곁에 옥절이가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나 추워.》
《젠장, 따라와가지구 이 성화야.》 하면서도 태봉이는 제 저고리를 벗어 옥절이의 어깨에 씌워주었다.
《태봉아, 그 도련님 정말 안 와.》
《네가 어떻게 알아?》
옥절은 호 한숨을 내쉬였다.
《태봉아, 나 진짜 말할테니까 너 욕 안하지?》
《뭘 말이야?》
《실은 낮에… 도련님 나오지 말라구 일러주었어.》
《뭐라구?》
《함께 온 아씨한테 도련님 나오면 죽는다구 했어.》
《정말이가?》
《응.》
태봉은 결김에 주먹을 쳐들었다.
《이 가시내가!》
옥절은 겁에 질려 목을 움츠렸다.
태봉은 쳐들었던 주먹을 내리며 시린 손을 비볐다.
《그 량반자식이 안 나와도 나는 오늘 밤 기다린다.》
옥절이가 우뚝 일어섰다.
《태봉아, 너 그 성미 좀 고쳐.》
《〈장부일언중천금〉은 량반놈들만 외우는 소린줄 아느냐!》
태봉은 의기라기보다 의분에 넘쳐 웨쳤다.
밤날씨는 점점 차지고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총총한 별

들이 추위에 떨고있었다.
웅크리고앉은 옥절이에게 태봉이가 소리쳤다.
《야! 졸지 말어. 얼어죽어!》
옥절은 잠내나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게 가자는데.》
태봉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혼자 가라잖아.》
《싫어.》
어깨를 흔들던 옥절이는 문득 목소리를 죽여 소곤거렸다.
《태봉아, 우리 고장 고부에서 란리가 일어났대.》
《들었다.》
《일없을가?》
걱정스럽게 뇌이던 옥절이가 별안간 자리에서 발딱 일어섰다. 그리고는 급한 소리로 웨쳤다.
《태봉아! 래일 대궐에, 대궐에 들어가야 하지 않니?!》
태봉이도 정신이 번쩍 들어 옥절이쪽에 몸을 홱 돌렸다. 중전마마께서 래일 밤 달맞이뒤끝에 우리 전라도광대패의 놀이를 구경하시겠다고 했지, 지금 거사와 사당들이 얼마나 애타게 자기들을 기다릴것인가, 빨리 가자!
《옥절아, 빨리!》
이때 불시에 투닥거리는 발걸음소리가 나더니 어둠을 째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저놈 잡아라!》
옥절이 깜짝 놀라 태봉의 손을 꽉 잡았다.
또다시 《이놈들, 게 섰거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투닥거리며 뛰여오는 소리가 가까와졌다.
옥절은 겁에 질려 태봉의 곁에 바싹 붙어섰다.
《이 년놈들, 마침 있었구나.》
태봉이와 옥절의 앞에 검은 그림자들이 우뚝우뚝 다가섰다.
《우린 포도청에서 나온 포교다. 오라를 받아라.》
라장과 라졸들이 욱 달려들어 태봉이와 옥절이의 몸을 묶었다.
태봉은 몸부림치며 항거했다.

《우릴 왜 묶소? 우린 아무 죄도 없소!》

옥절이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더러운 손을 치우라요. 왜 묶어요?》

검은 바탕에 흰 실로 바둑판모양의 줄을 놓은 더그레를 입고 륙모방망이를 든 라장인듯 한 포교가 빈정거렸다.

《야, 이 년놈들 봐라. 꽤 사납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태봉이와 옥절이는 오라줄에 온몸을 꽁꽁 묶이웠다.

포교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걸어라!》

옥절이가 몸을 흔들며 부르짖었다.

《우릴 어데루 끌고가요?》

《걷기나 해.》

포교가 다시금 그들의 등을 우악스럽게 떠밀었다.

한편 힘껏 달려온 엄병무는 종각앞 공지에 이르자 발길을 멈추고 어깨숨을 몰아쉬였다.

잠시후 그는 공지의 이쪽저쪽으로 가보며 어둠속에 대고 소리쳤다.

《여, 광대 없어?》

밤바람에 가랑잎들만이 굴러다녔다.

병무는 락담하여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기가 한발 늦었다고 생각한 병무는 주먹으로 언땅을 내리쳤다. 그 광대자식이 자기를 얼마나 욕했을것인가. 비겁하고 너절한 놈이라고… 정말 고라리량반자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였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데선가 간간이 들려오는 가락맞는 다듬이방망이질소리가 이밤의 고요와 정적을 더욱 고즈넉하게 하였다.

겨울밤 하늘에서 싸락별들이 떨고있었다.

고개를 떨군 병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쪽으로 몇걸음 옮기였다.

그러던 병무는 고쳐 생각하고 다시금 공지로 되돌아왔다.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제 2 장

왕관없는 녀왕

1

조선주재 일본대리공사인 스기무라 후까시서기관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상적으로 말했다.

《하늘이 흐린걸 보니 또 눈이라도 오려는가봅니다.》

안락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30대의 다까하시부인 나쯔미는 스기무라서기관이 자기를 찾은 영문을 알수 없어 그저 덤덤히 있었다. 그는 몸집이 가량가량한 이 스기무라를 대할 적마다 매끄럽고 징그러운 뱀처럼 여겨져 어쩐지 몸이 오싹해지는감을 느끼군 하였다.

《옥상, 한성은 우리 도쬬보다 눈이 많이 내리지요? 또 춥고…》

《예.》

자기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고 계속 말하는 스기무라의 속심을 알수 없어 다까하시부인은 더욱 긴장되였다.

《난 조선서 14년째 근무하지만 추운건 딱 질색입니다.》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고생까지야…》 비로소 스기무라는 나쯔미쪽으로 돌아섰다. 《아무튼 나는 오늘까지 월급쟁이노릇을 하고있습니다. 한데 다까하시상은 조선에 온지 몇해밖에 안되지만 벌써 대단한 부자가 됐지요. 부인?》

다까하시 나쯔미의 남편 다까하시 겐지는 남대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매약상이였는데 조선인삼장사로 폭리를 얻더니 이제는 쌀장사 등 못하는 장사가 없었다.

스기무라서기관이 나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짐작한 나쯔미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게면쩍기도 한 표정을 띠우며 어줍게 입을 열

었다.

《저, 주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인도 서기관님을 모른체 하진 않을겁니다.》

스기무라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

나쯔미는 눈이 둥그래졌다.

이윽고 웃음을 멈춘 스기무라는 흰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찍고나서 말했다.

《부인은 제 말을 오해하는군요.》 스기무라의 표정은 정색해졌다.

《부인, 오늘 대보름명절에 민비의 초청으로 궁성으로 간다지요?》

《예.》

나쯔미는 얼결에 대꾸했다.

《아, 기쁘겠습니다. 우리 처도 초대를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국에 가있어서…》

《…》

이야기가 갑자기 뒤바뀌는 바람에 나쯔미는 좀 어리둥절해졌다.

스기무라는 나쯔미앞에 마주앉았다.

《옥상도 알다싶이 조선의 왕후인 민비는 희세의 녀걸이라고들 합니다. 조선에 국왕도 있고 또 국왕의 부친인 대원군도 있지만 조선의 실제적통치자는 민비, 그 녀인입니다. 하기에 민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것은 우리 일본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기무라는 나쯔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나쯔미도 좀 긴장해졌다.

《옥상은 민비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특히 우리 일본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가를 알아내야겠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거일동을 잘 살폈다가 나에게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이제야 스기무라서기관이 자기를 찾은 까닭을 완전히 알게 된 나쯔미는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삼켰다.

스기무라는 다까하시부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 눈초리에 예기가 질린 나쯔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부인도 우리 제국의 국민인것만큼 대일본제국의 국익을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쯔미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스기무라가 깍듯이 목례를 하였다.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선 나쯔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조선식가마를 타고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에 다달은 다까하시부인 나쯔미는 민비의 청첩장을 내밀었다.

광화문의 수문장은 그를 말없이 통과시켰다.

나쯔미가 탄 조선식가마는 강녕전 뜰에서 멎었다. 4명의 조선교군들이 지정된 장소로 가마를 옮겨가는 사이 나쯔미는 민비의 부탁을 받고 대기하고있던 궁녀들에게 안내되여 전각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휘황하고 아악이 은은하게 울리는 전각안은 명절분위기로 흥겨웠다.

서양식으로 문에는 두터운 모직문발을 드리우고 바닥엔 페르샤주단을 깔았으며 고급안락의자들이 벽을 따라 주런이 놓인 응접실은 서양귀족저택의 홀을 련상시켰다. 서양식으로 꾸린 홀의 모든 비품이며 음료, 다과들도 고급서양제품들이였다. 탁자에 놓인 담배는 에짚트 아니면 마닐라산이였고 차대신 커피잔들이 과자접시와 함께 놓여있었다.

응접실에서 대기하고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녀인들이였고 남성은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인 선교의사 호레이스 뉴톤 알렌뿐이였다. 민비의 전속의사로서 민비의 신임이 큰 그는 아무때나 민비의 접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였다. 알락달락한 기모노를 입고 버선발에 게다를 신은 다까하시부인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쪽안락의자에 다리를 모으고 얌전히 앉아 민비의 초대를 받은 외국녀인들을 은근히 살펴보았다. 민비의 전문의사인 미국인 호르똔녀사, 로씨야 웨벨공사 부인과 그의 언니인 손타크, 청국대표 원세개의 부인, 프랑스공사 꼴랭드 쁠랑시의 부인, 영국공사 오코너의 부인, 도이췰란드령사 랜스돌프의 부인, 미국공사 딘스모아의 부인 그리고 조선을 방문중인 영국왕실지리학회 회원 이사벨라 바드 비숍이 어딘가 득의양양한 기색으로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조선에서 민비의 초대를 받는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그야말로 무상의 영광이라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검은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키가 꺽두룩한 알렌이 민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는중이였다. 알렌은 이야기의 능수여서 늘 녀성들의 호감을 사고있었다.

《녀성들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것이 실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민비전하를 존경하는것은 그가 도덕관념, 찍어 말한다면 정조관념이 높다는것입니다. 로씨야에서 비범한 녀황제로 떠받들리운 예까쩨리나2세만 보아도 아주 호색적인 녀인이였지요. 그가 얼마나 남색을 즐겼는가 하는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뽀쫌낀장군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뽀쫌낀은 그에게 〈페하, 소신은 페하의 16번째 수말이 되고싶지 않소이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결국은 뽀쫌낀도 예까쩨리나의 수말이 되고말았지만… 아니, 력사를 보면 고대에짚트의 클레오파트라나 중국의 무측천, 지금 〈빅토리아시대〉를 구가하고있는 대영국제국의 빅토리아녀왕도, 청국의 서태후도 다 치정관계에서 추문을 남기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관없는 녀왕인 민비는 전혀 그런 추문이 없는분입니다.》

모두가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자 로씨야 웨벨공사 부인의 언니인 손타크가 야릇한 눈길로 알렌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알렌씨, 당신은 어떻게 되여 민비전하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됐습니까?》

알렌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왕비전하의 접견을 처음으로 받은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일입니다. 그때 나는 미국북장로회에서 선교의사로 조선에 파견되였는데 서울에 오자 곧 미국공사관소속 의사가 되였습니다.》

《아유, 그렇게 오래전에?…》

다까하시부인은 저도 몰래 놀란 소리를 했다. 그는 스기무라서기관이 조선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알고보니 미국사람들도 자기네 일본 못지 않게 꽤 오래전부터 조선에 관심을 돌리고있지 않았는가.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속담 그른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렌이 씨물씨물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느날 나는 조선왕비가 앓으니 궁전으로 왕진해달라는 청탁을 받

았습니다. 나는 왕비전하를 진찰하기 위해 궁성으로 갔지요. 그때 나는 선교사의 직분에 의사의 명분까지 가지고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동양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왕비전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극적인 모멘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쯔미는 물론 다른 외국녀인들도 호기심으로 눈빛들이 반짝였다.

추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감회롭다고 했던가. 당시를 회억하는 알렌자신도 새삼스러운 감흥을 느끼는 모양이였다.

…왕진가방을 든 알렌은 내시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왕비가 있다는 경복궁 교태전의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그가 궁녀들이 읍을 하고 서있는 합문앞에 이르자 조상궁이 안에 대고 소리치는것이였다.

《중전마마, 미국의사 안련(알렌의 조선식이름)선생이 대령하였소옵니다.》

안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위엄기있는 녀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드시라 해라.》

합문이 열렸다. 그러자 이번엔 내시대신 늙수그레한 어의와 조상궁이 알렌을 안내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선 알렌은 의혹에 찬 눈길로 두리번거렸다. 방 복판에 병풍이 세워져있을뿐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문득 병풍뒤에서 좀전에 들었던 그 녀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오시느라 수고했소.》

고개를 기웃거리는 알렌에게 어의가 《중전마마이시오.》 하고 알려주어서야 알렌은 비로소 조선왕비가 병풍뒤에 《숨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알렌은 어의가 시키는대로 병풍앞에 가서 조선식으로 무릎을 꿇고 보료우에 앉았다.

그제야 알렌은 남녀사이의 내우가 심한 조선의 풍속이 리해가 되는듯싶어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어의에게 왕비의 진맥을 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런데 병풍짬으로 왕비의 손맥과 련결된 명주실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조선녀인들은 외간남자에게 손목잡히는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데 하물며 존귀한 왕비가 어찌 손목을 함부로 내놓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물론 이것은 그가 후에 안 사실이고 이때로써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어 꼭 손목을 만져보아야 한다고 강경히 요구해서야 손목부위만을 내놓고 온통 천으로 감은 민비의 손이 병풍짬으로 나오는것이였다. 또 혀를 보아야겠다고 하니 얼굴을 가리운 혀만을 내보이는것이였다. 어쨌든 이날 환자인 왕비의 얼굴도 보지 못한채 그가 내린 진단은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면증이였다. 그는 수면제로서 아편분말을 처방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여 그 이튿날 곤경을 겪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알렌이 집에서 책을 보고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안련선생! 안련선생!》

알렌이 문을 열어주자 얼굴색이 흙빛이 된 내시가 성급히 뛰여들어왔다.

《야단났습니다, 안련선생.》

《왜, 무슨 일입니까?》

《중전마마가! 중전마마가!…》

내시는 너무도 급하여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알렌이 덤비지 말고 말하라고 해서야 내시는 울상이 되여 중얼거리였다.

《중전마마께서 5시에 선생이 준 약을 잡수셨는데 아직까지 깨여나지 못하십니다. 이를 어쩝니까?!…》

알렌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손가락을 꼽아보던 알렌도 펄쩍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19시간이나?!…》

기급하며 왕진가방을 꾸리는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 와서 내 운명이 끝장나는게 아닌가, 오, 하느님아버지시여!

내시가 발을 구르며 독촉했다.

《안련선생! 빨리!》

《예예.》

하며 겁에 질려 서둘던 알렌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내시에게 물었다.

《가만, 그런데 어느 5시입니까? 어제 저녁 5시입니까? 오늘 아침 5시입니까?》

내시는 별것을 다 묻는다는듯 시틋해서 대꾸했다.

《중전마마께서야 새벽에야 잠드시지 저녁에야 잠드시나요?》

《예?! 그러니 오늘 새벽 5시?… 까뗌!》

알렌은 바람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

알렌의 회상담을 듣는 녀인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이 멎자 알렌은 능청을 떨었다.

《이런 경우에 조선사람들은 십년 감수했다고 하지요.》

2

그들이 이런 한담을 나누고있을 때 문득 《중전마마 듭시오.》하는 소리가 울리고 뒤이어 응접실문이 열렸다.

외국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잡기도 하고 머리를 비다듬기도 했는데 모두의 얼굴에 엄숙하고도 긴장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화려하게 왕비정장을 한 민비가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방에 들어섰다. 그의 뒤로 세자와 세자비 그리고 시녀들이 경건히 따랐다.

민비는 왕비상복인 금박실로 수놓은 자주색치마를 바닥에 철철 끌리게 입었고 역시 금박수실로 수를 놓은 대홍색로의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큰머리를 얹고있었다. 붉은색계통으로 통일된 그의 옷차림은 화려하면서도 무게있어보였다. 처녀처럼 날씬한 몸매, 진주분으로 하얗게 화장을 한 류달리 아름다운 얼굴, 영채롭게 빛나는 눈은 아래를 굽어보는데 습관된 사람들의 눈에서 찾아볼수 있는 그런 자부와 긍지, 엄정스러움이 깃들어있었다. 한마디로 이날 민비는 황홀하리만큼 우아하고 매혹적이였다.

다까하시 나쯔미는 조선의 왕비가 이처럼 아름다울줄은 몰랐다. 첫날 접견시에는 너무도 위엄스런 존재앞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도 쳐들지 못하다보니 언제 민비의 얼굴을 볼수도 없었던것이다.

무게있으면서도 조용한 걸음새로 외국손님들의 앞으로 다가온 민비는 그들 한사람한사람과 일일이 인사말을 나누었다.

민비는 그중 년장자이고 독신녀인인 로씨야 웨벨공사 부인의 언니 손타크부인과 인사말을 나누었다.

《모처럼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손타크는 유럽식으로 젊은 녀인처럼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며 인사말을 건네였다.

《전하, 명절을 축하하옵니다.》

《고맙습니다.》

민비는 기지있고 해학적인 인사말로 긴장하게 굳어져있던 외국손님들의 마음을 대번에 풀어주었다. 그 녀자는 키가 큰 로씨야공사 웨벨 부인을 보고는 조선의 가마가 천정이 낮아 고통스럽게 왔겠다고 해학적인 동정을 표시하는가 하면 처녀의 몸으로 호랑이가 출몰하는 조선의 강원도지방을 려행하고 돌아온 영국처녀 비숍더러는 진정 영국의 쟌 다르크라고 추어주기도 했으며 맨 녀성들속에 끼운 유일한 남성인데다가 목이 긴 알렌에게는 《종자수탉》 같다는 롱말로 장내에 폭소가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였다. 지어 황송한 심경에 잠겨 뒤전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는 나쯔미에게는 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은 우리 동양사람들의 명절이기때문에 응당 동양인들이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고 고무해주기까지 하였다.

인사를 마친 민비는 손님들을 어느 넓은 방으로 안내하였다.

《연회탁으로 가시기 전에 제위들에게 보여드릴것이 있습니다.》

민비를 뒤따라 래빈들이 넓은 방에 들어서자 뜻밖에 취주악으로 연주하는 조선민요 《아리랑》의 선률이 방안을 꽉 채우며 울렸다. 꿩깃을 꽂은 붉은 주립을 쓰고 남천릭을 입은 10명의 악사들이 트럼베트며 트럼본, 호른이며 흘류트 같은 양악기를 신이 나서 불어대는것이였다.

놀라는 래빈들의 얼굴을 웃는 눈길로 돌아본 민비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작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갔던 우리 악사들입니다. 이채로운 우리의 나팔소리에 조선관은 늘 초만원을 이루었다는군요. 우리 동양사람들은 나팔도 불줄 모르는 미개인으로 생각했던 서양인들이 놀랐다나봐요. 저 악사들은 지금 일본의 륙해군군악대 교관인 독일(도이췰란드)사람 에켈트에게서 나팔 부는 법을 배웠습니

다. 듣자니 그 에켈트씨가 일본국가인 〈기미가요〉도 작곡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에켈트씨는 우리 나라에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제 일본을 릉가하는 동양최고의 왕실군악대도 꾸리렵니다.》

민비의 얼굴은 신심으로 빛나고있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였다. 이때로부터 몇해후에 우리 나라에는 동양에서 첫번째로 손꼽히는 군악대가 꾸려져 사람들을 놀래웠다. 하지만 불행한 민비는 그것을 볼수 없었다.

《자, 저쪽으로 갑시다.》

민비는 래빈들을 한쪽벽밑으로 이끌고갔다. 푸른 비단보를 씌운 길다란 탁자우에 진렬되여있는 수공예품들을 가리키며 민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작년에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던 수공예품들입니다. 고려청자기, 백자기, 수병풍 등인데 미국딸라로 천불정도입니다. 이제는 초벌경험도 쌓았으니 다음 박람회때에는 더 많이 출품하고 악사들도 더 많이 보내렵니다.》

웨벨 부인이 조선도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고 못내 감탄했다.

《예. 이제는 우리 나라가 〈은둔국〉이 아닙니다. 십년전에 우리 나라를 다녀간 퍼시벌 로웰씨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출간했다는데 실상 우리 조선은 이름그대로 빛나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민비의 눈빛은 긍지로 빛발쳤다.

《그런데 저 표쪽을 보십시오.》

민비는 진렬대우에 놓인 《COREA》란 표쪽을 가리켰다.

《우리 나라 국호의 첫 글자가 씨(C)이기때문에 영어자모순위로 진렬하는 박람회에서 그중 앞자리에 놓였답니다.》

다까하시부인은 흥미를 느끼며 《저, 그럼 우리 일본은?》하고 물었다.

알렌이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비양스럽게 말했다.

《부인, 일본은 영어식표기로 쟈판(JAPAN)이니까 코레아보다 한참 뒤자리를 차지합니다.》

알렌의 비꼬는 말투에 민비도 웃음을 머금었다.

민비는 일본의 대리공사 스기무라의 부인이 본국에 가있어 오늘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대신 일본녀인으로 장사군 다까하시의 부인 나쯔미를 초청했는데 그것은 민비가 개

인적으로 다까하시에게 적잖은 돈을 빚졌기때문이였다. 이해에 조정이 외국사람에게 걸머진 빚만 하여도 70여만에 이르렀다.

《자, 이제는 연회탁으로 갑시다.》

손님들을 이끌고 연회장으로 향하는 민비의 허리는 곧았고 걸음은 힘이 있었다.

민비는 도중에 뒤따르는 시녀에게 조용히 분부했다.

《진령군더러 전라도광대패의 놀이를 외국손님들에게 구경시킬수 있도록 잘 조처하라고 일러라.》

《알아모셨사와요.》

나쯔미는 민비의 침전인 건청궁 옥호루 연회장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천정에서는 밝은 무리등이 비치고 문쪽에는 십장생을 수놓은 8폭짜리 화려한 병풍이 세워져있었다. 그리고 방의 네 모서리에 놓여있는 청동화로에서 이글거리는 백탄불로 하여 방안은 훈훈하였고 벽에 꽂혀있는 향촉에서 몰몰 피여오르는 향연으로 하여 기분이 상쾌하였다.

조선식과 양식이 배합된 방안은 화려하고 아늑하고 정갈하였다.

커다란 원형식탁에 외국손님들과 함께 앉아있던 민비가 시중을 들고 있는 나쯔미에게 손짓했다.

《다까하시부인도 어서 와앉으세요.》

나쯔미는 황송스럽게 대척했다.

《전하, 전 오늘 왕비전하의 시중을 들려고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명절손님이 아닙니까.》

민비의 진정어린 초청에 나쯔미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전하, 전 왕비전하를 모시는것이 정말 기쁩니다.》

나쯔미는 상궁이 주는 음식그릇을 받아 민비의 앞에 차려놓았다.

민비는 그 음식그릇을 외국인들앞에 밀어놓았다. 하면서 그는 나쯔미의 거동을 눈여겨보았다. 일본녀인들이 갑삭거리며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것은 이미전부터 알고있었지만 오늘 나쯔미의 류다른 태도에 어쩐셈인지 왼심이 씌여졌다. 하지만 민비는 별것에 다 신경을 쓴다는 자격지심이 들어 외국손님들을 둘러보며 흔연한 기색으로 말했다.

《요즘은 우리 대궐두 개명해서 서양음료도 있습니다. 커피도 있

고 샴팡술도 있습니다.》

알렌이 익살을 부렸다.

《나는 조선서 오래 살아서 이제는 조선음료가 더 입에 맞습니다. 커피보다는 구수한 숭늉이 더 좋은데 숭늉은 커피처럼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우점도 있습니다. 술도 서울에서 생산되는 〈소곡〉, 〈도화〉, 〈두련〉이라든가 평양의 〈감홍로〉 그리고 전라도의 〈죽련고〉 같은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알렌씨에겐 오늘 조선술만 대접해야겠군요.》

민비가 이렇게 말하자 조상궁이 얼른 찬장에서 《감홍로》병을 꺼내여 식탁우에 놓았다.

《이건 무슨 술인가요?》

류달리 눈이 둥그런 프랑스공사 꼴랭드 쁠랑시의 부인이 이렇게 묻자 알렌이 아는체를 했다.

《붉은 누룩에 있는 색소와 알콜우림액에 곶감, 사과, 배, 대추라든가 밤과 같은 과일우림물을 꿀과 함께 섞어 만드는 평양술인데 우리 서양의 리큐르보다 더 달고 감미롭지요. 부인도 맛을 보십시오.》

아까부터 얼없이 민비만을 쳐다보던 영국처녀 이사벨라가 말머리를 돌렸다.

《왕비전하, 전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유럽엔 전하와 비길만 한 미인이 없습니다.》

나쯔미도 맞장구를 쳤다.

민비가 수집게 웃으며 그들을 가볍게 나무람했다.

《맞대놓고 칭찬하는건 모욕이란 말을 부인들은 모르십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이사벨라가 두손을 가슴에 모으며 대꾸했다. 그의 말은 진심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여러차례 민비의 접견을 받은 영국왕실지리학회회원 이사벨라 바드 비숍은 후에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왕비의 눈은 예리하고 랭정한 빛이 어려있었으며 머리의 기민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왕비의 생활은 항상 투쟁의 련속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왕비는 정중하고 정답게 우리들을 대하여 주었다. 늘 기분좋게 대화하였다.

그는 사람을 끌줄 아는 사교성있는 녀성이였다.

민비는 홀쭉한 몸매였고 동작은 우아하였다.

늘 아름다운 의상에 머리카락은 칠흑이였고 화장은 진주가루로 했기 때문에 얼굴은 아름다왔으나 좀 창백해보였다.》

민비는 손타크에게 눈길을 주었다.

《손타크부인, 호텔은 언제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까? 듣자니 정동에 2층짜리 양옥으로 멋지게 지었다고 하던데…》

《전하의 은총으로 다 완공되였으니 곧 개업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첫 양옥호텔입니다. 나이트클럽같은것이 없어 적적해하던 서양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도이췰란드의 랜스돌프 부인이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전하께서는 유럽의 나이트클럽까지 아십니까?》

《귀동냥으로 들었을뿐인걸요.》

손타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왕비전하께서 저에게 집도 하사해주시고 부지도 하사해주시여 오늘의 정동호텔이 완공될수 있었습니다. 왕비전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이 약밥이랑 조선음식들을 많이 드십시오. 마지막엔 조선랭면까지 들어야 합니다.》

《아, 국수!…》

손타크가 탄성을 지르며 손을 맞잡았다. 그는 조선에 있는 사이 국수에 상당히 맛을 들인 모양이였다. 그뿐이 아니라 다른 녀인들도 기쁨과 호기심이 어린 표정으로 둥글연회탁우에 차려놓은 푸짐한 음식들에 눈길을 주었다.

외국료리들도 있었지만 조선음식들이 더 많았다. 통닭구이며 소고기저냐, 소고기산적, 꿩백숙, 인삼닭곰, 룡봉탕, 뱀장어구이와 같은 고기료리, 굴회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회, 찰떡이며 송편, 설기, 기장 등 여러가지 떡, 송이버섯찜이며 팽나무버섯국, 고사리, 도라지, 두릅과 같은 나물들 그리고 연회탁의 군데군데 놓인 숯불이 이글거리는 신선로가 그들의 입에 군침을 돌게 하였다.

로씨야공사 웨벨 부인이 팥보숭이를 묻힌 찰떡을 가리키며 웃었다.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이 떡을 보고 매맞은 흘레브라고 한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즐겁게 웃었다.

웃음을 담고 각국 공사 부인들을 둘러보던 민비의 뇌리에 불현듯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수호통상관계를 맺던 십여년전의 일이 상기되였다. 내가 그때 용단을 내려 개국개항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마련될수 있었겠는가.

오늘 민비는 더없이 흐뭇한 심경에 잠겨있었다.

《저, 왕비전하…》

나쯔미가 조심스럽게 찾는 소리에 민비는 깊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는 미안스러워하는 기색으로 나쯔미를 바라보았다.

나쯔미는 간절한 표정으로 민비에게 요청했다.

《왕비전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전하의 지나온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다른 외국녀인들도 열렬히 호응했다.

《전하! 부탁합니다.》

민비는 얼굴에 홍조를 띠웠다.

《부인들은 아마 내 젊은 시절 이야기에 관심이 있겠지요.》

외국녀인들은 웃으며 서로 마주보았다.

민비가 추연한 기색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옛적일을 말하자면 자연 상감마마의 부친이시고 나한테 시아버님되시는 대원위대감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을수 없군요. 내가 그분을 만난 날은 행운의 날이기도 하고 불운의 날이기도 했어요.》

외국녀인들은 의아한 기색으로 또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전하, 행복하시면서도 불행하시였다는 말씀은?…》

영국공사 오코너의 부인이 의아쩍게 묻는 말에 민비는 씁스름히 웃었다.

《그렇게 됐어요.》

세월의 갈피를 더듬는 민비의 얼굴에는 추억의 감회로움보다 그 어떤 서글픔이 어린 추연한 기색이 짙었다.

3

찬바람에 문풍지가 드르릉 귀따갑게 울었다. 장작이 떨어져 불을 때지 못한 구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왔다.

포대기를 깔고앉은 민자영은 시린 두손을 호호 입김으로 녹이고나서 다시 책에 눈길을 주었다. 서발막대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다는 말그대로 넓고 휑뎅그렁한 방안에 소녀 혼자 오도카니 앉아있는 모양은 보기에도 민망하고 궁색스러웠다.

이 소녀가 바로 리조 26대임금인 고종의 왕비로, 세상에 희세의 녀걸로 이름을 남긴 민비였다. 아직은 목도 가늣하고 어깨도 가냘픈 천애고아에 지나지 않았지만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한 자영은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희고 어여뻤다. 흠이라면 이마우에 얽음솜솜한 몇개의 마마자욱이 알릴듯말듯 나있는것이라 할가.

기록에 의하면 철종2년(1815년) 9월 25일에 경기도 려주군 조동면에서 민치록의 외동딸로 태여난 민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지금 살고있는 서울 안국동의 감고당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그의 어릴적 이름은 자영이라고도 하고 소저라고도 했다고 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래서 력사에서는 민비 혹은 시호인 명성황후로 전해지고있을뿐이다.

8살에 량친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자영은 지금 자기보다 12살이나 우인 양오라비 민승호의 슬하에서 살고있다.

원래 영특한 자영은 16살잡히는 지금에 와서 못하는 일이 없었고 학식도 또한 한다하는 세도집 도련님들 못지 않게 소유하고있었다. 《론어》, 《맹자》는 물론 《대학》이며 《중용》까지도 뜬금으로 외우는 형편이였다.

그는 민승호가 어데서 구해다주는 서양그림책도 즐겨보았다. 증기를 뿜어올리며 달리는 기차며 대형함선들, 참말로 세상은 넓고도 희한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것은 책을 통해 배운다는것이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아마도 이런 탐구열이 그가 후에 왕비로 간택되여 삼천리강토를 통치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자영은 등잔불아래서 주자의 《론어집주》를 왕왕 소리내여 읽고있었다. 그러면 글귀가 머리속에 들어올뿐아니라 우선은 추위를 잊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자지언언야 부득이후출지라, 비언지난이행지난야라, 인성기불행야 시이경연지라. 언지여기소행하고 행지여기소언즉 출세기구필불이의라.(군자가 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을 연다. 말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행하기 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실행하지 않기때문에 경솔하게 말한다. 말한것처럼 실행하고 행동을 말처럼 하려면 말을 입에 담기가 결코 쉽지 않을것이다.)》

그가 한참 소리내여 글을 읽고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토방에 신발벗는 소리가 났다.

자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색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자영의 양오라비 민승호였다.

눈꼬리가 량쪽으로 쳐들려 록록찮은 인상을 주는 승호는 오늘따라 거동이 이상쩍었다. 갓은 찌글사하게 얹혀있고 도포고름도 거의나 풀려있었다.

자영은 얼른 그에게 방석을 가져다주었다.

《구들이 찬데 방석우에 앉으세요.》

《응.》

대꾸하고서도 승호는 움직일념을 안했다.

《참, 시장하시겠어요. 한데 국이 다 식어서 어쩌나…》

자영이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민승호가 급급히 만류했다

《얘얘, 언제 그럴 새가 없다.》

자영은 여느때와 다른 오빠의 행동거지가 이상하여 우두커니 서있었다.

《야, 빨리 차빌 해라.》

《이 밤중에 어데 가자고?…》

《운현궁에.》

《예?!》

자영은 기절초풍이라도 하듯 놀랐다. 운현궁이란 지엄한 대원군대감께서 계시는 곳이다.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지체높은분의 집으

로 간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대원위대감께서 널 보시겠단다.》

《저를요? 왜요?》

《글쎄다.》

민승호도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어쨌든 빨리 가자. 부대부인께서 이르시더라.》

대원군의 부인이고 임금 고종의 생모인 민부대부인은 민승호의 친누이이고 자영에게는 12촌 언니벌이 된다. 그러니 자영이를 부른다 해서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자영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의 이 급작스러운 부름이 보통 친척간에 흔히 있는 례사로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였다. 그도 지금 온 나라에 왕비간택령이 내려져 15살부터 19살까지의 처녀들은 약혼도 결혼도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니 자기가?!… 여기까지 생각한 자영은 느닷없이 가슴이 후두두 뛰고 손에 땀이 쥐여졌다. 어쩌면 오늘 밤에 자기의 명운이 결정될수도 있지 않는가. 임금은 15살, 자기는 16살, 안성맞춤이라면 이보다 더 안성맞춤한 나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자영이 자기는 가까운 혈붙이 하나 없는 무우밑둥처럼 외롭고 가련한 존재이다. 이런 비천한 나를 하필이면…

《야, 뭘 그러구 멍청히 서있느냐? 빨리 차빌 해라.》

민승호의 다그어대는 소리에 자영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는 당황해하지도 않았고 덤비지도 않았다. 령리하게 빛나는 까만 눈동자로 양오라비를 말끄러미 쳐다보았을뿐이다.

자영이를 마주 빤히 쳐다보던 승호가 한동안 바재이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자기 속마음을 헤쳐보였다.

《자영아, 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느냐?》

《알아요.》

자영이의 태도는 너무도 태연하고 당돌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승호가 도리여 눈이 떼꾼해졌다.

《알다니? 뭘 안다는 말이냐?》

《선을 본다는거지요 뭐. 어쩌면 왕비로 간택될지도 모르는…》

《엉?!》

너무도 놀란 민승호는 그만 뒤로 벌렁 나자빠질번 하였다. 평소에 자영이가 똑똑하고 야무지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승호로서도 그가 이처럼 총명하고 눈치가 빠를줄은 미처 몰랐다.

승호는 다시한번 자영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약간 도도록한 이마며 깔끔한 눈길, 곧은 코날이며 작고 야무지게 다물린 입술은 그가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말해주고있었다.

넓고 후끈한 운현궁의 안방에서 민부대부인이 자영이네를 맞아주었다. 화려한 깁치마저고리에 털마고자를 덧입고 옆구리에 각종 노리개를 늘어뜨린 부대부인은 환갑이 불원한 늙은이답지 않게 아직도 미모의 단정한 녀인이였다.

그는 이미 승호에게서 자영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모양 별로 묻는 말도 없이 그저 그의 이모저모를 찬찬히 뜯어보기만 하였다. 부대부인의 눈길이 자기 몸의 여기저기를 훑을 때마다 자영은 송구스럽고 거북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더우기 변변한 나들이옷조차 없어 늘 입던 노랑저고리에 검정치마차림 그대로 온것이 무엇보다 분하고 창피스러웠다.

옹색스러워하는 자영이의 마음을 풀어줄 양으로 부대부인이 너그럽게 일렀다.

《편히 앉거라, 일가집에 왔는데…》

이때 문밖에서 《으험.》하는 마른기침소리와 함께 버선발 끄는 소리가 들렸다.

《대감마님께서 드신다.》

나직한 소리로 이렇게 이른 부대부인이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선 민승호가 자영이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손세를 했다.

장지문이 드르릉 열리더니 키는 비록 크지 않으나 틀지고 위엄있게 생긴 대원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문턱을 넘어설념을 않고 한동안 길게 째진 사무러운 눈초리로 안방의 사람들을 일별하였다.

민승호가 얼른 방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이마를 조아렸다.

《그간 귀체만강하셨소이까?》

《응, 자넨가?》

대원군은 그제야 자기의 처남인 민승호에게 아는체를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이 깔아주는 보료우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은 대원군은 자영이에게 눈길을 주었다.

부대부인이 남편에게 자영이에 대해 몇마디 수군거렸다. 그사이 승호가 자영이에게 어서 대원군한테 인사를 올리라고 눈짓, 턱짓으로 독촉했다.

촌닭 관청에 온듯이 얼쳐있던 자영이도 그제야 정신이 들어 몸가짐을 바로하고 얌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이마에 두손을 붙인채 대원군앞에 정중하고도 경건하게 절을 하였다.

점도록 자영이를 바라보기만 하던 대원군이 드디여 위엄있게 물었다.

《몇살이라 했더라?》

부대부인이 웃는 낯으로 대척했다.

《열여섯이라니 맞춤하지요. 그런데 벌써 부녀가례도 다 익히고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대원군이 다시 물었다.

《그래, 글도 더러 읽는가?》

《4서3경을 뗀지 이미 오래고 요즘은…》

민승호가 자랑스럽게 주어섬기는 말을 대원군이 무뚝뚝하게 잘라버렸다.

《자네보고 묻는 소리가 아닐세.》

승호가 자영이에게 어서 대답해올리라고 눈짓했다.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자영이가 이마너머로 할깃 대원군을 쳐다보고나서 또랑또랑한 소리로 대답했다.

《방금까지 집에서 주자의 〈론어집주〉를 읽고있었소옵니다.》

《음.》

또다시 동이 뜬 침묵이 흘렀다. 바늘방석에 앉은듯 한 자영이는 물론이거니와 민승호나 지어 부대부인까지 갑갑하고 초조하게 대원군을 흘끔흘끔 건너다보았다.

뚝한 표정인 대원군은 가타부타 말없이 웃몸만 가볍게 흔들고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그가 하는 버릇이다.

항간의 려염집들에서도 며느리를 고르는것은 중대사로 여기거늘 자기의 며느리는 국모로 불리울 왕비이다. 그러니 어찌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더우기 최근 순조, 현종, 철종 3대에 이르는 60여년간 왕의 외척인 안동김가들이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고 온갖 전횡을 다 부렸다. 그통에 왕권은 여지없이 약화되고 왕족들은 거의나 자취를 감추게 되였으며 나라의 병폐는 이루 말할 수없이 짙어갔다.

오죽했으면 유생인 황현이가 《외척은 망국의 화근》이라고 통탄했겠는가.

대원군은 궁실의 웃어른인 조대왕대비와 짜고 12살난 아들 명복이를 철종의 후계로 왕위에 앉힌 후 국태공의 명목으로 섭정하면서 무엇보다먼저 시작한것이 외척인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청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였다.

그리고 다시는 외척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왕비간택에 류달리 신경을 모았다.

안해인 부대부인이 자기의 먼 친척벌이 되는 자영이를 왕비감으로 소개했을 때 대원군이 귀가 솔깃해진것도 그 애가 부모는 물론 친오라버니나 삼촌조차 없는 혈혈단신의 고아라는 사실이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는 왕비감으로서의 첫째가는 조건이였던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 자영이를 친히 선을 보려고 하였다.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행동거지 또한 량반집규수답게 얌전하다. 게다가 글까지 읽는다니 장차 국모로서 손색이 없을것이다. 더우기 민씨집안은 제3대왕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와 제19대임금 숙종의 계비(임금의 후처)였던 인현왕후를 낸 명문가이기도 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내린 대원군은 보료우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하여 쳐다보는 민승호와 자영이에게 짤막하게 일렀다.

《밤도 깊었으니 집에 가보거라.》

이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척되여 자영이도 미처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음력으로 3월 20일에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왕비책봉식이 엄숙하게 거행되고 뒤이어 별궁에서 3일간의 영친례가 진행되였다. 이렇게 가

난한 천애고아이던 민자영이는 며칠새에 국모인 존귀한 왕후 민비로 둔갑하였다.

하지만 구중궁궐속에 들어앉은 민비가 처음부터 행복하였던가.

4

성대하고도 화려한 화촉지연을 마친 민비는 넓다란 신방에서 신랑인 상감마마를 기다리고있었다.

잠자리를 돌보는 큰방상궁이 와룡초대에 불을 밝히고 금침을 깔아놓은지도 오랬다.

이제 남편인 상감마마가 신방에 들어와 자기의 옷고름을 벗기고 금침속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니 저도 몰래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미 부부사이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알고있었고 또 첫날밤을 어떻게 보낸다는것도 알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민비는 점차 초조해지고 조급해졌다. 상감께서 술에 취하셨는가. 아니, 이제 15살난 소년상감은 술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문득 합문밖에서 발걸음소리가 났다. 이제야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민비는 숨결이 딱 멎는듯 한 흥분과 감격과 긴장을 느꼈다.

그런데 합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녀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중전마마.》

민비는 흠칫 놀라며 머리를 쳐들었다. 늙은 큰방상궁이 죄송스러운듯 머리를 숙이며 아뢰였다.

《상감마마께서는 아직 년소하시여…》

긴장이 풀린 민비는 어깨를 떨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였다.

《상감마마께서는 아직 년소하시여…》하는 상궁의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마쳐왔다. 그래, 상감께서는 아직 년소하시지, 더구나 남자는 녀자보다 철이 늦게 든다지 않는가.

큰방상궁이 다시금 정중히 절을 했다.

《침수 안녕히 드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뒤걸음으로 조용히 물러가자 민비의 가슴속에는 까닭모를 고독감이 엄습했다.

빈방에 홀로 오도카니 앉아있는 민비는 아직은 짚어 말할수 없는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배암처럼 가슴속에 자리잡는것을 느끼였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 끝없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민비에게 왕후의 자리가 헐치 않을뿐아니라 슬픈 자리라는것을 깨닫게 한 일이 이때로부터 얼마후에 또 생겼다.

금시 소나기라도 퍼부을듯이 흐린 어느날 민비는 조상궁과 함께 비원의 정각에 앉아있었다. 진달래며 개나리, 살구꽃과 같은 때이른 꽃들이 피여난 비원은 이른봄의 정취를 자아냈다.

민비는 며칠전에 양오라비 민승호가 구해준 천리경을 눈에 대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북악산의 바위가 방금 손에 잡힐듯이 가까이 다가섰다. 천리경으로 이번엔 인정전쪽을 바라보던 민비는 그만 흠칫 놀라며 천리경을 눈에서 뗐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조상궁에게 매몰차게 물었다.

《저게 누구냐?》

《무엇 말씀이오니까?》

영문을 모르는 조상궁은 의아하여 목을 빼들었다. 민비는 그에게 천리경을 던지듯 안겨주며 내쏘았다.

《저기 인정전 란간을 보거라.》

조상궁이 천리경을 눈에 대고 조절하더니 그도 못 볼것을 보았을 때처럼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거기서는 지금 임금 고종이 한 궁녀를 껴안고 희롱하고있었는데 고종의 품에 안긴 녀인은 한껏 행복한 표정이였다.

《누구냐?》

민비는 야멸차게 물었다.

《저…》

조상궁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였다.

《이실직고 못할테냐?》

《예. 실은 숙원 리씨이고 특별상궁이온데…》

《몇살이냐?》

《열아홉인줄로 아옵니다.》

《나살 든 년이 어린 상감을 홀리는구나.》

독살스럽게 뇌까린 민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기가 한갖 장식물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았다. 낮에는 이러저러한 의식과 례식에 고종과 나란히 참석하여 문무백관들의 경하를 받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마치도 아이들이 낮에 가지고 놀다가 밤이면 방구석에 던져버리는 장난감과 다를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의 심중에 커다란 충격을 준 예상찮은 일이 얼마후에 또 일어났다.

그날 민비는 창덕궁 서온돌의 자기 방에서 아침수라를 들고있었다. 젊은 궁녀들이 자개박이둥글상에 갖가지 료리들을 가져다놓았다. 그러면 기미상궁(검식상궁)이 저가락으로 그것들을 한점씩 맛본 후에 민비 앞에 차려놓군 하였다.

민비는 긴 저가락으로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료리들만을 집어 입에 조금씩 넣어 씹군 하였다.

젊은 궁녀들과 기미상궁까지 물러간 후에 조상궁이 민비의 귀가에 입을 바투 대고 뭐라고 수군거렸다. 민비는 저가락질하던 손길을 멈추었다.

《무어라?》

영문을 모르는 민비에게 조상궁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간밤에 리상궁이 생남하였소옵니다.》

순간 민비의 손에서 은저가락 한가치가 놋접시우에 떨어지며 쟁그랑!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리상궁이란 국왕 고종이 총애하는 숙원 리씨를 의미한다. 그러니 그가 왕비인 자기보다 먼저 왕자를 낳았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조상궁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마음을 강잉히 다잡았다.

그는 상에 떨어뜨린 은저가락을 주어들며 짓눌린듯 한 목소리로 나직이 뇌였다.

《경사로다.》

민비는 아무런 내색도 내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였다. 그는 좀전에 뜻하지 않게 저가락을 떨군 실수를 되새기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리석게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두번 다시 내 마음속을 드러내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가슴속에서 분통이 터져올라 식욕을 싹 잃고말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이 일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생각만이 꽉 차있었다.

투기는 《칠거지악》(녀자가 시집에서 쫓겨나는 7가지 잘못.)중의 하나로 려염집부녀들에게도 금물로 되여있다. 하물며 왕가에서, 더우기 국모로 불리우는 자기가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그는 자기가 먼저 국왕 고종과 귀인(왕의 첩의 칭호.)으로 천거된 숙원 리씨를 축하해주어야겠다고 작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의 기쁨은 왕비의 기쁨이며 국왕과 왕비는 한몸이라는 자신의 높은 지체를 인상깊게 해줄수 있다고 생각했다.

먹는둥마는둥 수라상을 물린 민비는 거울앞에 앉아 화장을 고쳐하면서 자기자신과 자문자답을 계속했다.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높아 자기 속마음을 함부로 터놓는 성미가 아닌 민비는 왕비로 간택된 이후에는 더더욱 자기자신과만 이야기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얼마뒤 가슴과 어깨와 잔등에 다섯마리의 룡을 수놓은 와룡포로 화려하게 왕비성장을 한 민비는 손에 귀중품함을 든 조상궁을 데리고 산모가 누워있는 숙원당으로 향하였다.

조상궁이 들고가는 귀중품함에는 민비의 보물중에서도 제일 값진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민비는 겉으로 애써 태연한 기색을 지었으나 심중에서는 격랑이 일고있었다.

왕비인 자기보다 후궁인 숙원 리씨가 먼저 생남하였다는 이 사실을 그는 도저히 인정할수도 용납할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해도 보지 않을수 없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해도 듣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였다.

이렇게 며칠을 경황없이 보낸 그는 드디여 마음을 다잡았다.

후궁인 귀인 리씨는 시체말로 첩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임금의 정실부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리씨는 임금의 밤노리개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는 임금을 협찬하여 국사를 돌봐야 할 국모라는 자부심, 더우기 젊은 자기도 왕자를 낳을수 있다는 자신심이 그로 하여금 불리한 정황을 강잉히 딛고넘어설수 있게 하였다. 이런 자각과 자부심과 자신심으로 하여 그는 독수공방에서 공방살이를 해야 하는 그 길고 많은 밤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서글픔을 이겨낼수 있었다.

지금은 귀인 리씨에게 빠져있는 남편 고종의 마음이 언젠가는 자기에게로 돌아서리라는 기대를 안고 민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밝은 와룡초불아래서 책장을 번지군 하였다.

고적한 민비의 말동무가 되여주군 하는 양오라비 민승호가 하루는 서양그림책을 보고있는 민비에게 이런 말을 했다.

《중전마마, 조정의 대감들이 우리도 신식보총이나 대포를 사와야지 경복궁중건에만 돈을 다 써버리면 어쩌겠는가고 하옵니다. 그뿐이 아니외다. 여하튼 대원위께서 폐정개혁을 너무 과도하게 내민다고 의론이 분분하옵니다.》

창호지에 꿰비쳐들어온 락조에 얼굴이 붉게 물든 민비는 민승호의 말이 리해되지 않는듯 미간을 쪼프렸다.

《그런데 왜 대원위께 말씀드리지 못한대요?》

그러자 민승호가 덴겁하여 뒤로 물러나앉았다.

《대원위대감께선 호랑이 한가지여서 입 잘못 벌렸다간 죽기가 십상이오이다.》

민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대원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요. 이양선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드니 그 오랑캐들때문에 시아버님 뇌심초사 여북 자심하시겠소.》

민승호가 머리를 숙였다.

《황송하여이다.》

《아버님께 내가 품해보겠소.》

귀인 리씨일로 하여 그간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시어머니인 민부대부인에 대해서조차 까맣게 잊고있은 민비였다.

민비가 운현궁을 찾은 날은 하늘이 높아지고 쾌청한 날이였다.

오래간만에 궁성을 벗어나 항간에 나온 그의 마음은 푸른 하늘처

럼 활짝 트이는것만 같았다.

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민비를 민부대부인은 정찬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대원군의 눈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민비가 데리고 나온 시녀들이 대원군과 민부대부인앞에 감과 귤이 담긴 커다란 참대광주리를 하나씩 들여다놓았다.

《이것은 풍기감이고 이건 제주귤이옵니다.》

며느리의 공손한 말에 부대부인은 감읍하여 코멘소리를 했다.

《중전이 이런 사려까지…》

대원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는 대원군에게 민비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금 조정의 중신들이 경복궁중건에만 국고금을 쓰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정예한 병기를 사와야 한다고…》

《으음?!》

눈길을 치뜨는 대원군의 거벽스러운 태도에 대뜸 기가 질려버린 민비는 말을 중둥무이하고 머리를 숙였다.

며느리 민비의 말을 듣는 이 순간 흥선군 리하응은 웬일인지 불쑥 대원군이 되기 이전의 일들이 병풍의 그림을 보듯이 뇌리에 선명히 되새겨졌다. 세상을 기이기 위해 파락호(난봉군)행세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운한 그 시절, 조금이라도 똘똘한 왕족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세도 안동김가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목숨이나 부지하려면 바보구실, 거지구실, 투전군구실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상놈들과 어울려 뒤골방에서 투전을 하고 술청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취하여 도랑창에 구겨박힌적은 그 몇번이였으며 김무슨근 김병무엇하는 세도김가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뜰아래에서 하정배를 하고 돈천이나 쌀을 구걸한적은 또 그 몇번이였던가. 하여 그는 《막걸리대감》, 《거지흥선군》이란 별호를 늘 잔등에 지고 다녔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본태가 아니였다. 피눈물을 씹어삼키던 그 나날 파락호는 그의 외형이였을뿐 내심에서는 언제건 자기도 득세할 날이 있으리라는 간절한 열망, 대망이 한순간도 사그라지지 않고 잉걸불마냥 이글거렸다.

이런 리하응이였기에 그는 대원군이 되여 나라의 정무대권을 틀어쥐게 되자 눈꼴 신 안동김가들의 세도통치를 일거에 쓸어버리고 기울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폐정쇄신》의 《개혁》을 본격

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왕권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임진왜란때 타버린 후 근 300년간이나 폐허로 있던 경복궁을 웅건장중하게 일떠세웠으며 문란해진 봉건적수탈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탐관오리들을 처벌하는 한편 지방유생들과 토호들의 소굴인 서원을 철폐해버렸다.

대원군은 대외관계에서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나라의 문을 닫아매고 쇄국하는 길만이 봉건적지배를 유지하며 봉건국가를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양이정책(서양배척정책)을 진행하였다.

대원군의 이러한 대내외정책에 대해 반대파들이 반발해나섰지만 고집이 센 그는 자기의 《주견》대로 《개혁》을 과감히 밀고나갔다. 구데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 하는것이 그의 배짱이였다.

그런데 어린 며느리 민비가 이런 그의 사정을 알기나 하겠는가.

이윽하여 대원군은 엄한 눈길로 민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라를 생각하는 중전의 그 마음 가상하외다. 허지만 지금 훈련대장 신관호대감이 그 어떤 이양선도 까부실수 있는 수뢰포를 창안중에 있으니 중전도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까?》

민비의 낯색이 밝아졌다.

대원군이 타이르듯 말을 이었다.

《그리구 경복궁중건문제로 말하면 중전도 왕실의 한사람이로되 마땅히 왕권을 두터이해서 이 나라의 존엄을 보여야 할게 아니겠소. 마, 그러니 중전은 나라의 정사에 일체 참견하지 말고 차례지는 만복이나 누리도록 하시오. 음.》

밝아졌던 민비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가 운현궁을 나선 뒤 대원군과 부대부인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대감, 중전이 영특하지요?》

《영특하다?…》 되뇌이고나서 대원군은 혼자소리마냥 중얼거렸다.

《지금은 암고양이로되 장차 암범이나 되지 않겠는지…》

5

한강의 량대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 여기서 훈련대장 신관호가 창안제작한 수뢰포의 위력을 보기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수뢰포는 적이 건너갈수 있는 강물속이나 바다속 또는 적함선이 정박하거나 지나갈수 있는 물속에 설치되여있다가 적함선이 가까이에 접근하였을 때 대기하고있던 군사가 수뢰포의 불심지에 불을 붙이는것으로서 폭파할수도 있었고 또는 적선의 부딪침에 의하여 스스로 생기는 불에 의하여 폭파할수도 있었다.

이 수뢰포의 위력에 대한 소문이 벌써 널리 퍼져 한양사람들뿐아니라 타곳의 사람들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새벽부터 한강가에 모여들었다.

최뚝에는 비단으로 둘러막고 비단채양까지 친 화려하게 장식한 관람석이 꾸려져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임금 고종이나 왕후 민비가 앉아있을 처소였다.

사람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지엄한 상감마마나 중전마마가 나타나기만 기다려 목을 빼들고있었다.

날씨도 초가을답게 하늘에는 목화송이같은 흰구름 몇점이 떠있을뿐 쾌청하였고 강녘은 하얗게 덮인 사람들로 흰눈이라도 내린듯싶었다.

사람들속에서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터졌다. 임금 고종이 탄 보련과 왕후 민비가 탄 덩이 강변에 나타난것이다. 하지만 일산을 든 시녀들과 여러가지 기치들과 금빛, 은빛의 의장절월을 들거나 어깨에 총을 멘 엄엄한 시위군졸들에게 둘러싸이고 관복을 떨쳐입은 만조백관들이 뒤따르고있어 왕이나 왕비의 자태는 볼수도 없었다.

비단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관람석에 앉은 고종은 례식때에 입는 대례복인 붉은 면복을 입었고 머리에는 높은 운두우에 장방형의 관이 얹혀있는 면류관을 쓰고있었는데 관의 앞뒤로 오색이 령롱한 아홉개의 구슬줄이 주렴처럼 늘어져있어 여간만 화려하지 않았다.

고종의 곁에 큰머리에 왕비정장인 적의를 입고 앉아있는 민비는 좀

커다래진 눈으로 강대안에 하얗게 덮여있는 수만백성들을 둘러보았다. 그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이 순간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가 이 억조창생의 머리우에 군림한 지엄한 국모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갈마쳤다. 하지만 다음순간 나라의 실제적통치자는 자기는 물론 국부인 고종도 아니며 고종의 부친이요 자기의 시아버지인 대원군이라는 생각이 들자 고종의 오른켠으로 치우쳐 앞의 팔걸이의자에 앉아있는 그를 시샘에 가까운 눈초리로 여겨보았다. 아마도 이때부터 그의 가슴속에 정치적야심이 깃들었는지도 모른다.

강복판에는 커다란 낡은 전운선(쌀을 실어나르는 배.) 두척이 떠있었다.

국왕이하 조정의 모든 시원임대신들이 자리를 잡고앉자 대원군이 고종을 돌아보았다. 고종이 고개를 끄덕이자 대원군은 자기의 곁에 서있는 훈련대장 신관호에게 눈짓을 했다. 시작하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출전북소리가 《둥!—》, 《둥!—》 강녘에 메아리쳐울렸다.

이윽고 병정들이 탄 거루배 두척이 강심의 전운선을 향해 노를 저어갔다. 드디여 거루배가 목표물인 낡은 전운선에 당도하였다. 병정들이 물에 뛰여드는것이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 아니되여 번개의 불빛과 같은 강렬한 빛발이 번쩍하더니 《꽝!》, 《꽈르릉!》 하는 뢰성과 같은 요란한 폭음이 강반을 진동시켰다. 이어 산산쪼각이 된 전운선이 공중으로 휘뿌려지고 강에 처박혔다.

불시에 만세의 함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감격과 환희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다. 고종과 민비의 얼굴에도 기쁨의 물결이 일었다. 대원군도 흡족하여 수염을 쓰다듬었다. 고종이 주위사람들을 돌아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렇게 큰 배도 순식간에 깨버릴수 있으니 이제는 오랑캐들을 근심할게 뭐가 있겠소, 하하.》

이날 민비는 고종이 이처럼 통쾌하게, 이처럼 호탕하게 웃는것을 처음 보았다.

고종은 흡족한 기색으로 훈련대장 신관호를 불렀다.

《신대감, 어서 이리 오시오. 내 술 한잔 부어주리다.》

고종이 부어준 술을 민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채로 신관호에게 주

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머리를 숙여 고종과 민비에게 감사를 표시한 신관호는 술잔을 단숨에 쭉 비웠다.

《역시 신대장은 호걸이요, 하하…》

고종이 다시금 통쾌하게 웃었다.

왕의 행차는 궁성으로 돌아왔으나 고종의 얼굴에서 웃음발은 시종 지워지지 않았다.

고종일행이 비원을 산책하고있을 때 급히 나타난 례조판서가 고종과 대원군을 잠시 갈마보더니 대원군에게 읍을 하고나서 아뢰였다.

《아뢰오. 방금 청나라례부(외교부)에서 통고해온바에 의하면 금년봄에 아라사(로씨야)군대라고 하면서 덕산군의 남연군묘(대원군부친의 묘)를 도굴하다가 도망친 서양오랑캐들이 실은 젠킨스란 놈을 두목으로 하는 미국놈들이 저지른짓이라 하옵니다. 이놈들을 뒤에서 조종한 놈은 상해주재 미국령사 윌리암스란 놈이옵니다.》

대원군의 집권기간은 참으로 다난다사한 시기였다.

병인년인 1866년에 미국침략선 《셔먼》호가 살인과 략탈을 감행하면서 대동강으로 불법침입하였다.

그러나 증오에 넘친 평양성사람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셔먼》호는 대동강에 수장되고말았다.

이해 8월에는 7척의 군함에 2 500명의 군대를 싣고온 프랑스침략자들이 조약체결을 강요하면서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애국충정에 불타는 이 나라 군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결사항전으로 프랑스함대의 침공을 물리쳤다. 력사는 이 사변을 《병인양요》라고 전하고있다. 그런데 이태후인 무진(1868)년에는 일본이 저희들의 나라에서 도꾸가와막부정권이 무너지고 명치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나라와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고싶다는 국서를 보내여왔다.

부산의 왜관훈도 안동준은 일본국서에 《천황》이니 《칙》이니 하는 오만한 문구가 있을뿐아니라 새도장을 찍은것을 비롯하여 외교관계에 위반되는 점들이 많다 하여 그것을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이해에 미국은 젠킨스를 두목으로 하는 수백명의 국제무장단을 파견하여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유골을 훔쳐다가 그것을 미끼로

조선과 조약을 강요할 목적으로 충청도 덕산의 가야산에 있는 남연군묘를 도굴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례조판서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원군은 치를 떨며 분노하였다.

《불법무도한 미국오랑캐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오랑캐족속들이기에 짐승같은짓만 저지르는거요?》

증오심으로 낯색이 벌겋게 상기된 고종이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이 순간 민비는 다른 대감들이 입을 열기 전에 자기가 고종의 앞에 나서야 한다는, 그래서 남편의 안중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신의 계시처럼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는 얼마전에 미국에 대한 책을 보아 그에 대해 자상히 알고있었던것이다.

민비는 고종을 정찬 눈매로 바라보며 말을 뗐다.

《상감마마, 사뢰옵기 황송하오나 신첩이 아는바에 의하면 미국은 아메리카대륙에 있는 커다란 나라옵니다. 독립을 공포하던 때까지 대서양연안 한쪽구석을 차지하고있던것이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린접한 나라들의 땅을 빼앗아 지금은 저들의 령토를 태평양연안에까지 확장하여 거의 중원(중국)만큼 큰 나라로 되였사옵니다.》

자기를 홀린듯이 쳐다보는 고종의 시선을 느낀 민비는 말을 이으며 조상궁에게 손짓했다.

《하여 미국은 태평양과 련결되여있는 우리 동양나라들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하옵니다. 이전엔 대서양과 인도양(인디아양), 태평양을 빙빙 돌아 아시아로 오던 미국은 직방 태평양을 건너오게 되였으므로 태평양을 저들의 호수라 부른다 하옵니다.》

조상궁이 가져온 지도를 받은 민비는 그것을 고종의 앞에 펼쳐놓았다.

《세계지도옵니다. …》

《세계지도?…》

고종은 세계지도보다 민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비가 희고 가는 손가락으로 세계지도의 여기저기를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조선이고… 이것은 청나라… 여기는 아라사

(로씨야)… 바로 이것이 미국이옵니다.》

고종은 뻔한 세계지도는 보지도 않고 황홀한 눈길로 안해 민비를 지켜볼뿐이였다.

6

이날 밤이였다.

《상감마마 듭시오.》

조상궁이 아뢰는 뜻밖의 소리에 서탁앞에 앉아 책을 보던 민비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합문이 열리더니 참말로 나라의 임금이며 자기의 남편인 고종이 방으로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왕비로 간택되여 궁성에 들어온 후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민비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깨달은 민비는 머리를 돌리고 소매속의 손수건으로 얼른 눈굽을 훔쳤다. 그리고는 얼굴에 웃음을 띠웠다.

그것은 정녕 감출길 없고 누를길 없는 마음속 기쁨의 분출이였고 환희의 발산이였다.

민비의 그 웃음과 아름다움에 접한 고종은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 웃음은 매혹적이라기보다 고혹적이였다. 아니, 뇌살시키는듯한 웃음이였다. 그리고 룡트림무늬가 새겨져있는 긴 와룡초대의 밝은 불빛아래 손을 맞잡고 서있는 민비의 황홀하게 아릿다운 자태, 성숙된 녀성의 미는 청춘기를 맞이한 고종의 눈을 현혹시켰고 마음을 산란케 했다.

환관의 손짓에 따라 궁녀들이 뒤걸음질로 방에서 나갔고 조상궁도 기쁨의 물기가 어린 눈굽을 찍으며 자리를 떴다.

합문이 닫기자 방안에는 고종과 민비만이 남았다.

고종이 거북상스런 기색으로 서탁우에 쌓여있는 책들을 만져보았다.

《중전, 앉으오. 밤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오?》

민비는 자리에 단정히 앉았다.

《공부랄게 없습니다.》

고종은 민비가 보던 책을 뒤적이며 물었다.

《이 〈춘추좌전〉은 문장을 해득하기가 어렵다 하던데…》

민비는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척했다.

《상감마마께서도 이 책을 보십시오. 과히 어렵지 않은줄로 아옵니다.》

《참, 중전께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 들렸소.》

민비는 수집게 대꾸했다.

《신첩이 아는게 없사옵니다.》

《그래두 세상대세에 밝던데…》

《무슨…》

《미국에 대해서랑 말이요.》

《그건 청국에 드나드는 역관들을 통해 세상형편을 물어 알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져오는 책을 보기도 하기에 더러…》

《음, 듣자니 일본에서 〈명치유신〉을 했다던데 중전은 그에 대해서도 아시오?》

민비는 미소를 머금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저, 〈명치유신〉이라는 말은 지금 일본천황인 명치시대에 단행된 혁파개혁이란 뜻인데 〈명치유신〉전에는 도꾸가와막부가 나라의 권세를 틀어쥐고있었나이다. 그런데 〈천황제〉를 주장하는 존왕파들이 막부의 통치를 옹호하는 좌막파를 타도하고 천황의 왕권을 되살리고 서양식개화문명을 받아들인데로부터 막부시대와 구분하여 지금 천황의 년호를 붙여 〈명치유신〉이라 일컫는다고 하옵니다. 〈명치유신〉이 일어난 올해에 명치천왕의 나이가 14살이였다나봅니다. 그리고 명치천왕의 원래이름은 무쯔히또라고 한답니다.》

민비의 해박한 지식에 저으기 놀란듯 고종은 감동에 겨운 어조로 말했다.

《중전, 내 부인을 너무나도 몰랐소! 날 용서하오. 오늘은 참 심정이 흡족하오. 수뢰포의 폭파로 기쁘고 부인을 새롭게 알게 되여 기쁘고…》

《왕비가 뭇궁녀들과 다른것은 상감마마와 동고동락할뿐아니라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첩은 다만 왕비된자의 중

임을 잊지 않으려 했을따름이옵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고종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눈굽에선 물기가 번들거렸다.

《중전!…》

고종은 안해 민비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상감마마!…》

남편인 고종의 품에 안긴 민비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이날이 오기를, 국왕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얼마나 고대했던 민비였던가.

민비와 고종과의 관계는 가까와지고 그들간에는 정애가 흘렀으나 집정관이며 시아버지인 대원군과의 관계는 어쩐셈인지 뒤틀리기만 하였다. 날이 갈수록 대원군의 고집은 더 세지고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과 독단으로 처리해나갔다.

그는 온갖 반대와 항거를 무릅쓰고 내정계획을 과감히 추진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어느날 인정전마당을 지나가던 민비는 놀라운 광경에 부딪치게 되였다.

환관들과 궁녀들이 인정전마당에 주단이며 시계, 천리경, 거울, 그림액틀과 책과 같은 서양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고있었다. 그속에는 보총이며 사냥총과 같은 서양무기도 있었다.

이 모든것을 마루우에 뒤짐을 지고 두다리를 떡 벌리고 선 대원군이 지릅뜬 눈찌로 지켜보고있었다.

이윽고 환관들의 우두머리가 대원군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일을 다 끝냈다고 아뢰였다.

대원군은 마당가녁에 시르죽은 상을 하고 서있는 중신들이며 환관, 궁녀들을 쭉 일별하고나서 지엄하게 분부했다.

《대궐에 이렇듯 오랑캐들의 요사스러운 물건이 많이 침습했으니 어찌 나라가 병들지 않을수 있겠느냐? 모조리 깨버리고 불질러버려라!》

환관이 서양물건더미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어댔는데 실상 그가 들고있는 석유통과 성냥도 물건너온 서양제였다.

탁상시계며 책, 보총들이 탕탕 소리를 내며 타번지기 시작했다.

인정전마당은 삽시에 검은 연기로 자욱해졌다.

우의정 박규수가 대원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당대의 이름있는 실학자이며 작가인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데 늘 나라의 개화문명을 주장하는 사람이였다.

《대원위합하, 우리도 발전된 서양문명을 배워야 하고 더우기 외국에서 신식무기들과 함선들을 사다가 나라의 방비를 강화해야 할 형편이온데 이렇게 청국에서 들여온 신식총들까지 불질러버리면 어찌하옵니까?》

그를 찌글서한 눈초리로 쏘아보던 대원군이 꿰진 소리를 했다.

《그래, 대감은 평안감사로 있을 때 저런 신식총으로 미국강도배 〈셔먼〉 호를 불태워버렸소?》

《그거야 화공전술로 그러했지요마는 진작 우리에게 신식대포와 총이 있었더라면 〈셔먼〉 호가 평양에까지 기여들지 못했을거외다.》

《어쨌든 안되오, 안되구말구. 오랑캐물건을 만지면 오랑캐를 넘보게 되는 법이요.》

박규수는 억이 막힌듯 입도 벌리지 못했다.

쇄국양이(서양배척)정책을 실시하면서 밀무역을 엄격히 금지시킨 대원군은 자본주의상품은 나라를 좀먹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를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였다.

중신들한테로 스적스적 다가간 대원군은 서느러운 눈길로 그들의 차림새를 훑어보았다.

조정의 중신들은 마치도 호랑이한테 쫓기는 메짐승들마냥 비실비실 뒤걸음질쳤다.

《경들은 일국의 재상들인데 차림새를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서양의 사치품들만 걸치고 다니고 집에 가보아도 큰것에서부터 좀스러운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오랑캐물건들뿐이니 이래야 옳겠소?》

대원군의 가시눈길을 피해 중신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고있었다.

대원군의 시선이 안경을 낀 한 대신에게 가 멎었다.

《대감, 안면에 걸친 그 요망스러운 물건은 어데서 생긴것이요?》

대신은 흠칫하며 어망결에 눈에 건 안경을 만졌다.

《저 청국에 드나드는 장사치한테서…》

《대감부터 벗어놓소.》

그러자 안경쟁이대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 소신은 이걸 벗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대원군은 용서가 없었다.

《그게 없을 땐 어떻게 살았소. 벗소.… 그리고 다들 오랑캐물건을 지닌게 있으면 다 내놓소!》

대원군은 이어 민승호의 앞으로 다가갔다.

《대감의 관복은 우리 비단으로 지은것 같질 않구려.》

《예, 저 청국비단…》

《벗어놓소!》

대원군이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중신들은 어쩔수없이 안경이며 회중시계, 성냥, 물주리, 손수건, 지어 외국비단으로 지은 겉옷까지 벗어놓았다.

고의적삼바람으로 비맞은 장닭마냥 풀이 죽어 서있는 민승호의 몰골을 보고 궁녀들이 입을 싸쥐고 웃었다.

먼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민비는 마치도 자기가 모욕을 당한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도 그럴것이 민승호는 민비의 양오라비일뿐아니라 민씨일족의 웃두리노릇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던것이다. 그러니 그가 모욕을 당하는것은 국모인 민비 자기가 모멸을 당하는것과 같으며 나아가서 민씨가문이 멸시를 당하는것과 같다고 민비는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저녁 민승호가 민비의 처소로 찾아왔다.

그는 이때까지도 낮에 대원군한테서 당한 치욕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렸고 민비 또한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덤덤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한동안 씨근거리던 민승호가 드디여 활이야 살이야 내쏘기 시작했다.

《대원위 그 량반이 너무하다는 말이외다. 나한테 매부벌이 되고 더우기 중전께 시아버지벌이니 이젠 사돈간인데 그런 처지에서 아, 소인을 만사람앞에서 망신 주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이웨까. 안하무인도 유만부동이지 허참… 그러니 만사람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나요. 량반유생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서원〉을 끝끝내 철폐하고 호포법을 억지다짐으로 내려먹이지 않나, 〈원납전〉이다, 〈통문세〉다 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니 그들도 앙앙불락하고있소이다. 게다가

쇄국을 한답시고 나라의 대문을 땅땅 닫아매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려고 하니 뭍으론 기차가 달리고 바다로는 함선이 달리는 개명천지에서 어디 통할 일이웨까. 옹고집에 찰완고가 어디 며칠이나 견디나 보자는거외다.》

민승호의 말은 전혀 틀리는 소리가 아니였다.

퇴폐해진 나라의 왕권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리하응은 《폐정쇄신》이란 명목밑에 여러가지 봉건적《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는 봉건제도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나라의 위기를 수습하여 리조봉건통치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실시한 모든 정책들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당시의 시대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매우 뒤떨어지고 보수적인 정책이였으며 위기에 다달은 봉건제도를 《구원》해보려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조치들은 극도로 문란해진 봉건제도를 바로잡고 민족적위기를 막아보려고 한 점에서 당시로서는 일정하게나마 긍정적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오이다.》

심각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한 민승호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지금 민승호가 민비에게 대원군을 비난하는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병조판서 민승호와 대사성 조녕하는 둘 다 민비의 측근, 심복들이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조녕하는 부산왜관에 와있는 일본의 현지 사환군 모리야마와 비밀리에 접촉하였다. 왜인들은 일본을 눈아래로 깔보는 완고한 쇄국주의자인 대원군을 그대로 두고는 그식이 장식이라 언제 가야 조선을 뚫고들어갈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조선정계에서 제거해야겠다고 작정하였다. 마침 고종왕도 이제는 나이가 되였고 왕후 민비 역시 총명하니 그들이 친정할수 있지 않는가. 게다가 고종은 성미가 유순하다고 하니 비교적 쉽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수도 있었다. 이렇게 타산한 왜인들은 대원군의 반대파, 민비의 지지파들을 내세워 대원군을 섭정의 자리에서 내쫓을 꿍꿍이를 벌리고 그 과업을 태정관정부의 수반인 태정대신 산죠가 직접 조선에서 활동하고있는 모리야마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모리야마는 금전과 권모술수로 조녕하를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민비의 양오래비인 민승호

를 꼬드기게 하였던것이다.

민승호의 수상쩍은 거동에 민비도 저으기 긴장되여 그를 쳐다보았다.

민승호는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뢰롭기 황송하오나… 대원위가 중전마마를 폐비시키려 한다는 말도 떠돌고있소이다.》

《무어라? 폐비?!》

민비는 앉은벼락이라도 맞은듯 자세가 대뜸 굳어지고 눈동자가 갈팡거렸다. 가슴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듯 하여 숨쉬기조차 가빴다.

그러는 민비의 기색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민승호는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낮으나 열띤 소리를 계속 내뱉았다.

《대원위로서는 그러기가 십상이지요. 게다가 인현왕후의 경우도 있지 않소이까. 아마… 더우기 중전께선 영특하고 지혜로와…》

민비의 귀에는 민승호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눈앞도 뿌잇해지면서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그의 말이 청천벽력같은 소리이긴 했으나 어찌보면 민비자신이 이미전부터 남모르는 불안속에 위구를 느끼던 말이기도 했다. 왕비로 간택되여 대궐에 들어온지 5년세월이 지났으나 자기는 아직 왕위를 계승할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있었다.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항간의 려염집아낙네들조차 시집에서 쫓겨나는 일곱가지 죄악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것이 첫손가락에 꼽히는데 하물며 왕가의 지어미된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물이 있어야 배가 뜨고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딴다고 지아비인 고종이 자기에게 곁을 주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았는가. 다행히 얼마전부터 고종의 마음이 변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왕자를 언제 보게 될지 기약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양오라비 민승호가 까밝혀 말하지는 않아도 바로 이것을 우려하여 하는 소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오라버님, 어찌했으면 좋겠소?》

구원을 청하는 민비의 눈빛은 애소로 떨리고있었다.

승호는 이미 결심이 확고한듯 서슴없이 대꾸했다.

《선손을 써야지요.》

《어떻게?》

민승호는 다시금 좌우를 둘러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국왕의 친정을 등대고 대원위를 대궐에서 내쫓아야 하오이다.》

《예?!…》

너무도 놀라운 소리여서 민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감마마의 보령(나이)이 벌써 스물을 넘기지 않았소이까? 일이 제대로 되자면 이미전에 친정을 했어야지요.》

그제야 민승호의 말이 리해가 되여 민비는 고개를 까닥거렸다.

그렇다, 절대군주인 국왕의 나이 이제는 스물이 되였으니 응당 대권을 틀어쥐고 친히 국정을 다스려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아직도 섭정을 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었다. 아니,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상감마마가 친정을 한다면 자기를 폐비시키려는(아직은 사실여부가 확실치 않긴 해도) 대원군의 음모도 저지시킬수 있을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종이 친정하게 된다면 성미가 유약한 그는 불피코 안해인 자기더러 곁에서 보필해주기를 바랄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왕비의 자격으로 대원군대신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될것이 아닌가. 아, 그때가 오면… 민비의 가슴은 크나큰 정치적야심으로 세차게 고패쳤다. 그런데 호랑이같은 대원군이 순순히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할것인가. 그리고 성정이 유순한 고종이 감히 대원군과 맞서 싸울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민비는 다시금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런데 대원위대감이 순순히 물러나려 할가요?》

《우리의 힘을 키우면 되오이다. 우리 민씨척족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전마마의 주위에 묶어세우면 되오이다.》

이번에도 민승호는 서슴없이 대척했다. 보아하니 그는 이 일에 대해 평소에 생각을 많이한것이 틀림없었다. 사실 그는 양누이동생인 민비의 덕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병조판서란 고관대작이 되여 벼슬의 맛, 권세의 맛을 보게 되자 점점 야심이 커져 이제는 대원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꿈을 꾸고있었던것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민비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번뜩였다. 그는 민승호의 말이 충분히 리해되였을뿐아니라 전적으로 공감되였다. 자기 주위에 민씨들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묶어세운다면 참말이지 무서울것이 무엇이겠는가. 더우기 대원군은 지나친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조정에서는 물론 항간에서조차 민심을 잃고있다. 그리고 민비, 이제는 자기도 대궐에 갓 들어와 어리둥절해하던 촌닭이 아니였다.

여러해동안의 궁중생활에 그는 나이 들고 키도 자랐을뿐아니라 담도 커지고 세상리치도 환히 꿰뚫게 되였다. 더우기 많은 책을 읽는 과정에 동서고금의 흥망사며 권모술수, 제인지책과 같은 정계의 흑막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고있었다. 햇병아리가 자라 암탉 아니, 독수리가 된 셈이였다.

대원군이 념려하던바대로 민비는 암고양이가 아니라 암범이였다. 그 암범이 지금껏 부드러운 털속에 감추고있던 날카로운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있었다. 이후로 민비는 고종을 움직여 자기네 민씨일족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요벼슬자리에 박아넣기 시작하였다.

대원군대신 자기가 섭정하려는 민비의 야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올랐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 불리우는 서양의 강대국도 빅토리아녀왕이 통치하고있고 크나큰 대청제국도 서태후가 섭정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조선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민비의 야심은 점점 자라올라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에게 여겨졌다.

다망한 국사에 볶이우던 대원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뿐만아니라 며느리의 일가사람들이 조정의 관직에 들어앉는것을 자기의 체면에 부합되는 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어지간히 지반을 닦아놓은 민비는 이제는 고종의 친정을 선포할 그날 아니, 자기가 섭정의 자리에 들어앉을 그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예상외로 너무도 빨리 다가왔다.

7

마가을의 음산한 아침이였다.

《둥둥, 둥…》

옷갓을 깨끗하게 한 량반이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앞에 매달아놓은 북을 치고있었다.

이 북은 임금에게 상소를 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하소할 사람들이 치

게 되여있는 북이였다.

북주위에는 아침추위에 퍼렇게 언 아이들이 바지괴춤을 추켜올리며 호기심에 찬 눈길로 북치는 량반을 쳐다보고있을뿐 행인들은 별로 관심없이 그곁을 지나치고있었다. 너무도 드문히 보아오는 현상이요 더우기 상소를 했댔자 별 효험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서울사람들이기에 오늘 아침 북을 치는 량반에 대해서도 객적은 량반자가 쓸데없는 객기를 부린다고 치부했던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아침의 이 상소가 어쩌면 이 나라의 력사를 변혁시킬지도 모르는 중대사건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이윽하여 무거운 궁성대문이 찌쿵 열리더니 옆구리에 커다란 칼을 찬 수문장인듯싶은 무관이 나와 량반곁으로 다가갔다.

《웬일이요?》

북을 치던 량반이 끓어엎드리더니 상소봉장을 두손으로 떠받들어 올리였다.

《동부승지(승정원의 끝자리 벼슬아치.) 신 최익현이 상감마마께 올리는 탄핵상소요!》

《상소?…》

시답잖은투로 되뇌이던 수문장은 량반의 강단있는 모색을 다시금 훑어보더니 말없이 상소봉장을 받았다.

《상감마마께 꼭 전해주시오.》

최익현의 간곡한 당부를 들었는지말았는지 수문장은 대척없이 광화문안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최익현의 상소문을 받은 승정원(임금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아래의 문건을 임금에게 올리는 관청.)의 승지들은 부들부들 떨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대원군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한 그 내용이 너무도 무엄하고 신랄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지존께 올리는 상소를 깔아뭉갤수가 없어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는 마치 법정에 나가는 죄인마냥 무거운 걸음으로 임금의 편전인 건청궁으로 향하였다.

공교롭게도 임금 고종의 편전에는 민비가 와있었다. 임금인 고종보다 왕후인 민비를 더 두려워하는 도승지는 부복한채 민비에게 먼저 눈인사를 보내고나서 고종을 향해 입을 벌렸다.

《전하, 동부승지 최익현이 상소봉장을 올렸나이다.》

《상소?…》

이렇게 물으며 고종이 민비쪽에 고개를 돌렸다.

이마즘에 와서 민비에게 더 의거하는 고종의 태도를 보게 되는 도승지는 이번엔 민비쪽에 대고 대척했다.

《그렇소옵니다. …》

《그래, 무슨 상소냐? 말을 해라. …》

민비가 눈에 웃음을 담고 부드럽게 일렀다.

겁기어린 태도로 말하기를 저어하던 도승지가 가까스로 입을 벌렸다.

《저, 무엄하게도 국태공 대원위합하를 탄핵하는…》

《응?!》

고종이 흠칫 놀라 민비를 바라보는데 민비 역시 저으기 놀라는 기색이였다.

이때 합문밖에서 상궁이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대원위합하께서 듭시오.》

범도 제 소리하면 온다는 격인가. 또다시 고종과 민비는 놀라는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흰 버선발로 편전에 들어선 대원군은 위압하는듯 한 틀진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민비가 떠밀어주는 보료우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는 민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종에게 일렀다.

《주상, 앉으오. 익현이가 상소를 했다며?》

《방금 들으려던 참이오이다.》

읍을 한 자세로 이렇게 말한 고종은 자기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비도 그를 뒤따라 안존한 자세로 앉았다.

《함께 듣기요.》하며 대원군은 도승지에게 눈길을 주었다.

《도승지, 읽으라!》

대원군의 분부에 난감하여 어쩔바를 모르던 도승지는 구원을 청하듯 고종과 민비의 얼굴을 갈마보았다.

《어서!》

대원군의 거듭되는 독촉에 도승지는 할수없이 떠듬떠듬 입을 놀렸다.

《신 최익현은…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도승지의 이마전에 진땀이 내배였으나 대원군은 평소의 버릇대로 눈

을 감고 웃몸을 가볍게 흔들었다.

《요사이 나라정치는 옛법이 변하여…》

고요한 방안에 상소문을 읽는 도승지의 떠듬거리는 소리만이 울렸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문문한 사람만 뽑고 정승륙경들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사헌부(중앙검찰관청)와 사간원(임금에게 간하는 중앙관청)의 관리들과 임금의 측근자들은 이런저런 일에 참견한다는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조정에서는 비속한 론의들만 판을 치고있으니 옳은 의리는 없어지고 아첨쟁이들만이 제멋대로 날뛰고 정직한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가렴주구가 그치지 않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였사옵니다.》

《엉?》

문득 경악에 가까운 대원군의 놀란 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얼쿠었다.

고종은 몹시 송구스러워했다.

서원의 철폐, 호포제도의 실시 등 중, 하층량반들과 토호들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억제하는 대원군정책에 불평불만을 품고있던 최익현은 대원군의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상소문을 냈던것이다.

대원군의 섭정시기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이러한 내용의 날카로운 상소는 사실상 섭정국태공 대원군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장이였으며 그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고소장이였다.

이 천만뜻밖의 도전에 대원군은 물론 고종과 민비도 정녕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도승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자기의 소임을 계속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재위하는 동안 대원군에게는 그 지위를 높이고 그 록을 후하게 하는데 그칠것이요, 국정에 관여하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

낯색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입술을 씰룩거리던 대원군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괘씸한 놈! 전번에두 경복궁중건을 놓구 날 걸구들더니 또!…》

이 한마디를 내뱉고나서 대원군은 씽 찬바람을 일쿠며 밖으로 나가버리고말았다.

그의 뒤모습을 쫓는 민비의 얼굴에는 예리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 순간 그의 뇌리에는 대원군을 국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는 최익현의 상소를 잘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치듯 갈마쳤다. 그리고 최익현의 이 상소문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대원군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것을 절감했다.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격정을 묵새기고 랭정한 리성을 되찾아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 민비는 향원못가로 나왔다.

하늘에는 검은구름이 음산하게 드리우고 마가을의 차디찬 바람이 불어쳤다. 애처롭게 울부짖는 나무가지들, 어지럽게 흩날리는 락엽들… 민비는 거센 바람을 맞받아 오연하게 서있었다.

머리칼이 날리고 옷자락이 나붓겼다.

흥분으로 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에는 야멸찬 웃음이 지꿎게 어려있었다.

(차면 기울고 성하면 쇠하는 법, 열흘 붉은꽃 없고 십년세도 없다는 말 모르십니까, 대원위대감마님…)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고 자연은 앙상한 자기의 자태를 더욱 드러냈다.

민비는 어쩐지 이 조락의 계절이 대원군의 종말을 말해주는듯싶었다.

고종앞에 민비와 민승호가 끓어엎드려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고종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 착잡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곤전, 어서 일어나오. 웬일이요?》

그러나 민비는 일어날념을 안하고 여전히 엎드린 자세로 방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아뢰였다.

《상감마마, 대원군의 섭정을 물리치고 상감마마의 친정을 상소한 최익현에게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하십시오.》

그의 말뜻을 모를리 없는 고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안을 거닐었다. 이윽고 걸음을 멈춘 고종은 문쪽으로 돌아서더니 탄식하듯 뇌였다.

《내 나이 벌써 스물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사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진지는 이미 오래오.》

고종은 희고 가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서자니 자식으로서 아버님앞에 도리를 지킬수 없고 그냥 있자니 이제는 신하들 보기조차 부끄럽소만 차마…》

성미가 우유부단한 고종, 아마도 그때문에 그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민비지만 이 순간 그는 안타까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절하게 부르짖었다.

《상감마마, 대원위께서 신첩에겐 뭐 남이 되시옵니까? 하오나 골육지간의 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군국의 정사부터 생각하셔야 할게 아니오니까!》

그래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던 고종은 그냥 엎드려있는 민비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간청했다.

《곤전, 아무튼 일어나오. 한대중 엎드려있을 작정이요?》

《신첩이 엎드려있는것이야 무슨 큰일이겠소옵니까. 상감마마께서, 대왕께서 엎드려있는것이 제일로 가슴아픈 일이옵니다. 상감마마, 굳세게 일어서시옵소서.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민비의 말에서 그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고종이 문득 몸을 휘친거렸다.

끓어엎드려 고개만 쳐든 민비가 더욱 강렬하게 요청했다.

《상감마마, 힘을 내시옵소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되옵니다. 네, 상감마마… 신첩이 상감마마를 힘껏 협찬하겠나이다.》

민비의 눈에서 바질바질 끓는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승호도 머리를 조아렸다.

《상감마마, 어서 결단을 내리옵소서!》

드디여 고종의 얼굴에 결심이 어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 민비의 겨드랑이에 두손을 넣고 부축하였다.

《곤전, 내 곤전의 뜻을 따를테니 부디 일어나주오.》

《상감마마!…》

웃몸을 일으키던 민비가 그만 고종의 품에 무너지듯 왈칵 안기였다.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이 좔좔 흘러내렸다.

그러는 민비를 달래듯 세차게 떠는 그의 어깨며 잔등을 쓸어주며 고종도 걸그렁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곤전이 곁에 있으면… 그리고 늘 보필해주면 과인도 두려울게 없을것 같으오.》

《상감마마! 신첩은 마마와 한몸이옵니다.》

대례복인 면복을 입고 문무백관들이 부복해있는 어전으로 들어선 고종이 자기의 옥좌에 가 앉았다. 옥좌앞에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대원군의 의자는 비여있었다.

그대신 옥좌옆에 여느때 없던 발이 드리워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옥탑에 왕후 민비가 앉아있었다.

민비는 요즘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로 하여 울화증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운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여 오늘의 어전회의를 열도록 고종을 꼬드겼던것이다.

이마너머로 오늘따라 류다른 당상의 광경을 흘끔흘끔 쳐다본 부복한 조정의 중신들은 심상찮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숨들을 죽이고있었다.

비여있는 대원군의 자리를 보고 좀 주밋거리던 고종이 이윽고 자세를 가다듬고나서 입을 열었다.

《여봐라, 전동부승지 최익현을 대령케 하라!》

고종이 짐짓 무게있는 소리로 령을 내리자 전의가 받아외웠다.

《찬의, 전동부승지 최익현을 대령케 하라!》

찬의가 또 그 말을 받아웨쳤다.

《전동부승지 최익현 대령하랍신다.》

조정의 중신들이 두줄로 늘어선 가운데로 최익현이 걸어들어와 어전에 곡배하였다.

《상감마마, 전동부승지 소신 최익현이 어명을 받들어 대령하였소이다.》

고종은 잠시 자기앞에 꺾인 절을 한 최익현을 내려다보았다. 몸집이 체소한데다가 여윈 그가 허리를 꺾고 서있는 모양은 흡사 조그마한 소년같아보였다. 저처럼 작은 사내가 언감 그처럼 무엄한 상소를 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숨가쁠 지경으로 팽배한 분위기가 어전을 휩싸고있었다.

발뒤에서 민비가 쪼프린 눈길로 고종을 주시하고있었고 중신들도 이제 어떤 처분이 내릴가 하는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하여 손에 땀들을 쥐였다.

고종의 낯에 얼핏 괴로운 표정이 스쳐지나갔다. 이제 자기의 비답 한마디에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될 판국이였다. 그러고보면 임금의 자

리란 참으로 헐치 않은 자리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지난날에는 섭정국태공인 아버지의 정사를 곁에서 구경만 하면 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사의 크고작은 모든 일에 대해 자기가 직접 지시를 내려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친정이란것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울긋불긋 단청이 그려진 서까래며 천정에 눈길을 주었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를 한숨이 새여나왔다.

최익현을 살리자니 친아버지인 대원군을 죽여야 하고 대원군을 살리자면 최익현을 죽여야 했다. 그는 임금이요, 친정이요 하는 이 거치장스럽고 괴로운노릇을 활 집어던지고싶었다. 대원군이 섭정할 때는 그렇게도 쉬워보이던, 어찌 보면 아이들 장난같아보이던 정사를 자기가 직접 하려니 왜서 이처럼 힘겨운가.

《상감마마!》

문득 곁의 발뒤에서 낮으나 서리발 찬 목소리가 고종의 귀전에 마쳐왔다.

그 소리에 흠칫 놀란 고종은 자세를 바로잡고나서 이미 외워둔듯 한 말을 아무런 감정표시도 없이 서둘러 쏟아버리고말았다.

《최익현 듣거라. 네가 올린 상소는 실로 충곡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또한 과인을 경계하는 글뜻이 더욱 가상하다. 그러므로 과인은 너에게 호조참판(나라의 재정을 맡아보는 관청의 두번째 자리.)의 벼슬을 제수하노라.》

고종은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놓은듯 말끝에 한숨을 내쉬였다.

민비도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실상 이 순간을 초긴장속에 보낸것은 누구보다도 민비, 그 녀인이였다. 그는 실로 대원군과의 판가리싸움에 나선듯 한 심정이였다.

최익현이 점잖게 사은숙배하였다.

하지만 이 순간 만조백관들은 기절초풍하듯 놀라 굳어진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대원군의 심복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서로 돌아보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좌의정이 채머리를 떨듯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으로 나서더니 읍을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 최익현의 상소는 조정을 깎아내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요망한 소리인줄로 아뢰오.》

그 말에 동조하여 우의정도 한발 앞으로 나서며 아뢨다.

《최익현이를 국문하여 죄를 밝힌 뒤에 먼섬으로 귀양보냄이 마땅한 줄로 아뢰오.》

동감인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10년간 손때 묻혀 키운 대원군의 심복, 지지자들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순간 저으기 당황해진 고종이 저도 모르게 발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당황하기는 민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순간도 예견하여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그는 지체없이 고종에게 단호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언을 주었다. 이런 때의 임금을 보필하고 협찬하자고 발뒤에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전하, 좌의정, 우의정을 파직시켜야 하옵니다.》

《그렇게야 어떻게?…》

고종은 또 망설이였다.

문무백관들의 눈길이 발뒤에 앉은 자기에게 쏠리고있음을 느낀 민비는 저도 몰래 주먹을 불끈 쥐였다. 그는 고종의 입을 통해 자기의 의지를 기어이 관철시켜야 함을 절박하게 깨달았다.

《기강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하!》

눈살이 꼿꼿해서 내뱉은 민비의 말은 고종뿐만아니라 어전에 시립한 모든 관리들이 다 들리도록 크게 울렸다.

민비의 말에 힘을 얻은 고종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자못 근엄한 표정으로 언명했다.

《듣거라. 최익현을 국문하여 먼섬으로 귀양보내기를 주장한 좌의정 강노와 우의정 한계원을 파직시키노라.》

고종의 청천벽력같은 말에 강노와 한계원은 일시에 끓어엎드려 애걸복걸하였다.

《상감마마!…》

그들의 비굴한 태도는 고종으로 하여금 동정대신에 도리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속물들이였는가.

《여봐라, 전 좌의정 강노와 전 우의정 한계원이를 끌어내가라.》

강노와 한계원이는 망지소조하여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더더욱 머리를 조아렸다.

《상감마마…》

그러거나말거나 전의는 임금의 령을 무뚝뚝하게 받아외웠다. 찬의는 또 그대로 전의의 말을 받아 웨쳤다.

《갑사, 전 좌의정 강노와 전 우의정 한계원이를 끌어내가랍신다.》

《예잇!》

쇠비늘에 수은을 입힌 수은갑옷에 전이 있는 투구인 첨주를 쓰고 큰 칼을 찬 갑사들이 서슬푸른 기색으로 들어와 발버둥치는 강노와 한계원이를 질질 끌고나갔다.

끌려나가며 부르짖는 그들의 애절하고 비통한 울부짖음이 전각안에 긴 여운을 남기며 메아리쳤다.

시립한 만조백관들은 가슴이 서늘하여 고패를 떨구고 눈길들이 갈팡거렸다.

하지만 발뒤에 눈을 감고 그린듯이 앉아있는 민비의 가슴속에서는 기쁨의 메아리가, 환희의 물결이 끝없이 일고있었다.

8

최익현의 탄핵상소로 하여 울화가 치받친 대원군은 끝내 심화병에 걸려 자리에 드러눕고말았다.

이마를 천오래기로 동인 그는 두툼한 깃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좌찬성을 비롯한 심복들이 어두운 안색으로 앉아있었고 머리맡에는 미음그릇을 든 민부대부인이 시름겨운 기색으로 앉아있었다.

《대감, 곡기를 좀 하셔야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 어찌실려구 그러시우.》

근심이 자오록한 민부대부인은 대원군의 입바투 미음그릇을 가져갔다.

《시끄러!》

대원군이 신경질을 부리며 한팔을 내젓는 바람에 그만 미음그릇이 방바닥에 떨어지고 미음이 쏟아졌다.

《에그, 쩌쩌…》

부대부인이 속이 상해 혀를 차는데 마당에서 청지기 정운봉이가 아뢰는 소리가 울렸다.

《대감마님, 좌의정대감과 우의정대감께서 오셨소이다.》

그 소리에 대원군은 앓던 사람같지 않게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며 헌칭하게 소리를 질렀다.

《어서, 어서 들라 해라!》

얼마전에 그는 어전회의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좌의정 강노와 우의정 한계원에게 자기를 탄핵하여 상소문을 낸 최익현이를 당장 절해고도에 류배를 보내도록 상주하라고 신칙하여 보냈던것이다. 최익현이, 그 죽일놈의 목을 치지 못한다 해도 사람 못살 고장으로 쫓아보낸다면 속에 맺힌 체증이 얼마간 내려갈것 같았다.

그러나 방에 들어와 우거지상이 되여 이실직고하는 강노와 한계원이의 말은 대원군으로 하여금 일락천장하는듯 한감을 느끼게 했고 그가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

《아니 아니, 다시 말해보게! 내가 잘못 들었거나 자네들이 잘못 말했거나 했을테지 아무렴…》

《백번 말해야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강노가 시르죽은 상으로 이미 한 말을 다시 곱씹었다.

《최익현이는 호조참판으로 제수받고 대감을 두둔한 소인들은 봉고파직되였다 그 말이웨다.》

《허어, 앉은벼락이라더니…》

상기도 강노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듯 신푸녕스럽게 중얼거리던 대원군은 별안간 밖에 대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게, 누구 없느냐?》

《예, 소인 있소옵니다.》

청지기 정운봉의 대답소리가 울렸다.

《대궐로 가겠으니 가마를 대령시켜라!》

이렇게 호령한 대원군은 이마를 동인 헝겊오리를 풀어 내동댕이치더니 앓던 사람같지 않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아니, 그 몸으로 어딜 가실려구? 더우기 이밤중에…》

민부대부인이 따라 일어서며 걱정어린 소리를 했다.

어둠에 묻힌 하늘에서 마가을의 찬비가 내리고있었다. 사린교에

앉은 대원군의 갓이며 옷이 화락하니 젖은지 오랬고 이제는 얼굴로 비물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분김에 하는 처사가 매양 그렇듯이 대원군과 그를 옹위한 구종별배들은 창황중에 떠나다보니 일기를 가려보지 않았고 따라서 우비도 갖추지 못했다. 다행히 홰불을 들고있어 비내리는 밤길을 밝힐수 있었다.

궁성에 다달은 그들은 대원군의 전용출입구인 건춘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여느때는 대원군의 사린교가 이르기 바쁘게 열리군 하던 건춘문이 오늘은 웬일인지 굳게 닫겨있었다.

홰불을 든 청지기 정운봉이 대문앞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이놈들! 대원위대감 행차시다. 문 열어라!》

그러나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주홍색건춘문은 죽은듯 아무 응답도 없었다.

정운봉은 주먹으로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쾅! 쾅! 쾅!…》

비내리는 어둠속으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쳐갈뿐 사위는 물속처럼 고요하고 괴괴하였다.

《문 열어라, 이놈들아!…》

울음섞인 소리로 피타게 부르짖는 정운봉의 소리 아니, 그의 눈에서는 비물만이 아닌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운봉은 소리치고 두드리다못해 진창속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대감마님!…》

비분과 울분으로 일그러진 노복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원군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비물로도 눈물로도 씻을수 없는 비감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정녕 못견디게 쓰리고 아팠다. 어떻게 일떠세운 경복궁이기에 오늘은 자기앞에 문을 닫아맨단 말인가. 너무도 비통하고 너무도 원통하여 두볼로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다.

10년간에 걸치는 대원군의 섭정은 이렇게 끝나고말았다.

그가 루대에 걸친 외척들의 부패한 세도정치를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폐단을 어느 정도 시정하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편승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유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친것은 찬양할만 한 일이였다.

그러나 세계대세의 흐름에 암둔한 그는 나라를 근대적국가로 발전시킬 대신 고루한 쇄국정치를 고집하면서 주관적독단과 전횡을 일삼던 나머지 자체의 사회적지반도 경제적기초도 튼튼히 다질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세력에 의해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시각,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고종의 친정을 선포하는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되고있었다.

옥좌에는 국왕 고종이 앉아있었고 주렴을 친 발뒤의 옥탑에는 민비가 안존하게 앉아있었다.

어전에는 중신들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읍을 한 자세로 서있었다. 이윽고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다.

《과인은 오늘부터 군국의 정무만단을 몸소 친재하겠노라. 그러므로 대소백관들은 과인을 협찬하여 렬성조의 나라를 중흥시키는데 한사람같이 힘쓸지어이다.》

문무백관들이 친정을 선포한 임금에게 숙배를 드렸다.

숙배가 끝나자 찬의가 자못 경건하게 소리쳤다.

《산호!》

그러자 만조백관들은 환호를 올렸다.

《천세!—》

찬의가 《재산호!》하고 웨치자 백관들이 다시 환호를 올렸다.

《천—천—세!—》

발뒤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민비의 얼굴은 감출수 없는 기쁨으로 환히 빛났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이날은 고종10년(1873년) 11월 5일이였다.

이날은 또한 민비가 섭정의 자리에 올라앉은 날이였으며 정계에 등장한 날이기도 하였다. 목적을 달성한 민비가 이날 기쁨에 겨워 웃었는지 울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속담 그른데가 없는 법이다. 계집의 독한 마음 오뉴월에 서리치고 계집이 악을 먹으면 돌벽도 뚫고나간다고 하지 않는가.

대원군의 우매한 쇄국정책 10년으로 절박한 력사발전만을 저애당한 조선봉건사회가 왕관없는 녀왕인 민비의 마련없는 개국정사로 또 어떤 파란만장의 시련과 수난을 겪게 되는것인가. …

제 3 장

거 마 리

1

연회를 끝낸 민비는 외국의 래빈들과 함께 향원정으로 가기 위해 회랑을 걸어가고있었다.

그들의 앞에서 초롱불을 든 시녀들이 길을 밝히고있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나 회랑의 처마며 곳곳에 각이한 형태와 색갈의 초롱과 등롱들을 매달아놓아 궁성은 휘황하고 찬란하였다.

《날씨도 푸근한데 달맞이시간까지 향원정에서 이야기합시다.》

《왕비전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여 참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비의 곁에서 걸어가던 영국공사 오코너의 부인이 진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내 말이 지루하지 않은 모양인데 다행입니다.》

민비의 말끝에 나쯔미가 얼른 대척했다.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전하께선 이야기도 참 재미있게 하십니다.》

나쯔미에게 흘낏 눈길을 던진 민비는 천천히 발길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나와 대원위대감과의 관계는 집안망신이여서 말하고싶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이 다 알고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라 제위들의 량해를 미리 구할 심산으로 터놓았습니다. 대원위대감께선 이젠 세파도 겪을대로 겪은데다 보령도 많으시여 매사에 극력 자중하고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대원군은 어금이 없는 사자라고 하더군요.》

손타크가 민비의 기색을 살피며 하는 말이였다.

《그건 그분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일행은 향원정에 이르렀다. 향원정에도 등롱들을 매달아놓아 보기에 황홀하였다.

향원정의 의자에는 미리 담요를 깔아놓아 폭신한데다가 앞에는 숯불이 이글거리는 청동화로들이 놓여있어 겨울밤이건만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또 탁자에는 여러가지 다과들이 놓여있었는데 궁녀들이 식을세라 더운 차며 커피를 연방 날라왔다.

《달맞이후에는 제위들에게 우리 전라도사당패의 놀이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비가 달이 솟기를 기다리는 래빈들에게 자랑삼아 이렇게 말했다.

《사당패의 놀이판?》

영국공사 오코너의 부인이 의문스러운 소리를 했다.

알렌이 그에게 너그럽게 설명해주었다.

《오코너 부인, 조선의 사당패란 유럽의 집시들처럼 이곳저곳으로 방랑하며 공연활동을 벌리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흥미있겠군요.》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민비는 조상궁을 불러 빨리 진령군한테 가서 전라도사당패의 놀이준비가 어떻게 되였는가 알아보라고 분부했다.

조상궁이 급한 걸음을 옮기는것을 보고야 민비는 래빈들한테 눈길을 주었다.

어느덧 대보름달이 솟을 시각이 되여 사위가 숨죽은듯 고요해졌다. 불현듯 동녘하늘이 새벽처럼 훤해지더니 처음엔 록원의 잔나무가지들이, 다음엔 굵은 가지와 줄기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미구에 류달리 크고 둥그런 금황색달이 사위를 밝게 비치며 나무우듬지우로 찬란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솟는 달을 탄상하는 민비는 물론 외국손님들의 입에서도 저도 모르는새 탄성들이 흘러나왔다.

감상적인 처녀인 이사벨라가 두손을 맞잡으며 감탄했다.

《조선의 달맞이명절은 정말 황홀합니다.》

로씨야공사 웨벨의 부인도 못내 감동에 겨워 말했다.

《우리 로씨야의 부활절도 큰 명절이지만 이처럼 이채롭지는 못합니다.》

중천으로 솟아오르는 대보름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민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년초에 맞이하므로 년중 으뜸가는 명절이라 해서 상원절이라고 한답니다.》

《봄을 예고하는 신년의 달맞이명절… 참말 뜻깊은 명절입니다.》

이사벨라가 다시금 찬탄했다.

《저 정월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자기가 바라는바를 빌면 년중소원이 성취된다고들 합니다.》

민비가 웃으며 하는 말에 나쯔미가 발라맞추듯 제꺽 대척했다.

《저는 전하께서 무병장수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여러분들모두가 일년내내 건강하며 우리 조선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하, 부디 행복하십시오.》

외국래빈들이 이구동성으로 민비의 행복을 축원하였다.

이럴즈음에 조상궁을 따라 숨가삐 뛰여온 진령군이 분내를 풍기며 민비의 귀바투 입을 대고 걱정어린 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곤전마마, 큰일 났나이다.》

《…》

《전라도사당패의 놀이는… 하지 못할것 같나이다.》

《무어라?!》

대뜸 눈살이 꼿꼿해진 민비는 불시에 큰소리를 쳤다.

《저, 광대패에서 제일 볼만 한 재간둥이들인 거사와 사당이 별안간 종적을 감추어버려서…》

겁에 질린 진령군은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응,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침같이 한 약속을 저녁에 뒤집다니!》

《곤전마마… 쇤네가… 죽을 죄를 저질렀나이다.》

진령군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이게 네 목숨으로 풀 일이냐! 내가 이제 외국사람들에게 무어라 말

한단 말이냐!》

《곤전마마!…》

진령군은 풀썩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2

매약상 다까하시의 말을 듣고있는 스기무라서기관의 낯에는 노상 웃음이 떠돌고있었다. 그는 다까하시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말하고있는 그의 외형에 더 흥미를 느끼고있었는데 작달막하고 똥똥한 몸집에 배가 불쑥 나오고 대머리인 그의 모색은 흡사 살진 너구리와 신통히도 방불하였다.

《아니, 내 말을 듣고있는가요?》

다까하시가 의혹이 깃든 눈길을 치뜨고 이렇게 물어서야 스기무라는 얼굴의 웃음을 가무리고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어서 말을 계속하시오.》

《그래서 조선우포청에 들렸지요.》

《거긴 왜?》

《범인을 체포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게 아닙니까?》

스기무라의 얼굴에는 랭소가 떠올랐다.

《다까하시상, 사무라이 다섯이 조선놈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도 그곳으로 발길이 옮겨지던가요?》

그러자 다까하시는 제편에서 화를 냈는데 그럴 때면 대머리이마부터 벌겋게 달아오르군 하였다.

《아, 넘어져도 맨손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아무렴 우리가 매를 맞고 가만있어야 옳겠소!》

《그래, 보상액은 얼마를 불렀소?》

《한 천원이야 받아야지요.》

《뭐요?!》

스기무라는 너무도 기가 막혀 다까하시의 상판을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 찬찬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러나 뻔뻔스러운 다까하시는 도리여 스기무라를 걸고들었다.

《왜 놀라는거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란 말이겠지요. 허허, 서기관나리,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불 지른 놈이 불이야 한다는 말 모르십니까. 좌우간 서기관나리는 거류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만큼 이번 일을 잘 조처해주시오. 그 부탁을 하자고 공사관에 들렸습니다.》

매사에 랭정하고 침착한 스기무라도 이 순간만은 참을수 없어 어성을 높였다.

《여보시오 다까하시상, 제국의 대리공사인 내가 그런 시시한 일에 나서야 하겠소?!》

《제국의 대리공사라…》

다까하시는 로골적으로 빈정거렸다.

《제국정부도 곧잘 배상금을 받아내더군요. 〈운양〉 호사건때도 피해는 조선이 당했는데 배상은 우리 태정관정부가 받아냈지, 임오군란때나 갑신정변때도 공사관을 제 손으로 불지르고도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방곡령손실액이다 뭐다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조선서 옭아내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스기무라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됐소, 됐소.》

《흐흐—》

비양기어린 웃음을 웃던 다까하시는 불시에 살기어린 표정을 짓더니 씹어뱉듯이 뇌까렸다.

《어쨌든 나는 보상액을 받아내고야말테요.》

이 순간 스기무라는 이전의 일, 서울주재 일본령사관의 통역관이던 다까하시 다데오가 갑자기 월급 100원이라는, 그 쉽게 차지할수 없는 자리를 버리고 남대문앞에 매약상이라는 간판을 내걸더니 장사치로 변신하는것을 보고 양양한 립신양명의 길을 버린 머저리라고 속으로 비웃었던 일이 되새겨졌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더디고 위험하기조차 한 정계에서의 출세의 길보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재계의 길을 택한 그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써 조선의 갑부라는 소리를 듣고있었다.

어디 다까하시뿐인가. 겨우 사타구니나 가리운 훈도시에 칼 한자루를 차고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 온 모든 일본의 백수건달들이 젖소의 젖통을 주물러짜듯 조선의 재부를 긁어모아 모두가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는 몇푼 되지도 않는 월급을 다달이 받으며 제국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내 가련하고 서글퍼졌다.

그는 돈을 쥐고 흔드는 다까하시와 같은자들이 자기의 어깨우에 타고앉아 자신을 부림소 부리듯 하리라는것을 느끼였다.

사실 자본주의바람이 휩쓸고있는 세상은 돈이, 자본이 모든것을 좌우지한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미국정계나 사회를 지배하는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록펠러나 모르간, 듀폰 같은 재벌이였고 도이췰란드도 역시 크루프와 같은 콘체른이 정계를 지배하고있었다.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천황이나 제국정부를 뒤에서 안받침해주는것은 미쯔이나 미쯔비시 같은 재벌들이였다.

그러니 어찌 다까하시인들 돈에 범상할수 있겠는가. 스기무라는 다까하시라는 이 암팡진 사나이의 뚱뚱한 배속에, 번들거리는 대머리속에 오직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욕심만이 꽉 들어차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손기척소리에 스기무라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방에 들어온 급사소년이 다까하시부인이 오셨다고 말했을 때에야 그는 자기가 바로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던중이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지금 조선궁성의 명절놀이에 초대되여간 다까하시 나쯔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민비와 얼마나 더 친숙해지고 또 민비로부터 어떤 자료를 뽑아가지고 올것인가, 이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명절놀이의 여흥때문인지 아니면 밤추위때문인지 두볼이 처녀애들처럼 분홍색을 띤 나쯔미가 방실거리며 방에 들어섰다.

스기무라는 반색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 옥상, 어서 오십시오.》

《나쨩, 당신이 어떻게?!…》

다까하시도 놀란 소리를 하며 안해를 쳐다보았다.

《당신도 계셨군요.》

나쯔미도 남편이 뜻밖에 이곳에 있는것이 의아쩍은듯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난처해진것은 스기무라였다.

어색한 기색으로 두손을 주물던 스기무라는 이윽고 다까하시에게 량해를 구했다.

《다까하시상, 미안합니다만 먼저 가시든지 아니면 옆방에서 좀 기다려주실수 없을가요?》

《그러니 날더러 자리를 피해달라는거요?》

다까하시의 대머리가 벌겋게 달아오르는것을 본 스기무라는 변명하듯 급히 입을 열었다.

《오해하지 마시오. 우린 사업상용무로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다까하시는 스기무라와 나쯔미를 언짢은 눈길로 흘겨보더니 방에서 나가버렸다.

스기무라는 나쯔미에게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옥상도 리해하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남편에게도 숨기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으니까요. 제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나쯔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리해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스기무라는 가벼우면서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보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어느새 기분을 전환한 나쯔미는 두손을 가슴우에 포개얹으며 감탄했다.

《아유, 굉장했어요. 대리공사님도 참가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참가하면 뭘합니까. 주인공인 왕비전하는 알현하지도 못할걸.》

《하긴 그래요. 참, 그런데 알렌이라는 미국사람만은 례외더군요.》

《그 미국친구는 묘하게 운수가 좋단 말입니다. 민비의 담당의사라고 특권을 혼자 누리고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민비는 어떻습니까?》

《뵈올수록 매혹적인분이예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특하고 친절하고…》

스기무라는 가벼운 웃음을 웃었다.

《반했군요, 다까하시부인.》

《그래요. 그 상냥한 웃음, 기지있는 말, 화려한 옷, 우아한 걸음걸이… 어쨌든 왕비께선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지고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신심에 넘쳐있었어요. 한마디로 자긍심높은분이예요.》

스기무라의 얼굴에 우려에 가까운 야릇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매력있는 왕비전하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그 인상담을 좀 들어봅시다.》

나쯔미는 천진하다 할 정도로 자기가 보고 느낀바를 꾸밈없이 계속 피력하였다.

《전하께선 먼저 우리에게 작년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던 조선의 수공예품들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코레아란 국호를 가리키면서 첫 글자가 영어자모에서 앞에 놓이기때문에 박람회진렬순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가만, 가만.》

문득 스기무라가 나쯔미의 말을 중단시키고 속으로 생각해보았다. 국제행사에선 나라순서를 영어의 알파베트로 정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그러니 에이(A), 비(B), 씨(C), 코레아(COREA)는 씨(C)로 시작되니 조선은 세번째 앞자리에 놓이게 된단 말이지.

《내가 우리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나쯔미가 말을 계속했다. 《일본은 영어발음으로 쟈판이니 한참 뒤꼬리에 놓인다고 비웃더군요.》

스기무라의 표정이 다시 긴장해졌다.

《민비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요?》

《아니, 그 비꼬는 소리는 알렌미국서기관이 했어요.》

《민비는?》

《그저 웃더군요.》

《웃었다?!… 이놈의 에이(A), 비(B), 씨(C)가 문제로군.》

《예?》

《아 아니, 혼자소립니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스기무라는 앞으로 국제행사들에서 조선이 계속 일본의 앞자리에 놓인다면 재미가 적다는것을 절감하고있었다.

그러자면… 그렇다. 씨(C) 코레아(COREA) 대신 케이(K) 코레아

(KOREA)로 표기를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발한 착상이 떠오른 스기무라는 자기로서도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그런데 스기무라의 이 착상이 간특한 왜놈들에 의해 기정사실처럼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지어 스기무라자신도 이때는 예견하지 못하고있었다.

스기무라는 나쯔미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건너다보며 말을 꺼냈다.

《다까하시부인, 민비와 계속 친하십시오.》

《…》

《이제 부인이 우리 제국을 위해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

스기무라의 속심을 다는 알수 없어 나쯔미는 침묵을 지켰다.

나쯔미의 얼굴에서 자기 말을 리해하지 못한듯 아리숭한 표정을 읽은 스기무라는 진지한 기색으로 그 녀자와 마주앉았다.

《다까하시부인, 내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스기무라의 여느때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고 긴장감을 느낀 나쯔미는 무릎우에 놓은 두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전에 미국서기관 알렌에 대해서도 이야기됐지만…》 스기무라는 나쯔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을 계속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에 눈독을 들이고 침략책동을 감행해왔습니다. 〈셔먼〉호 사건, 〈남연군묘〉 도굴사건에 이어 신미(1871)년에는 조선에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실패하자 이제는 보다 음흉하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경제적리권을 빼앗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할뿐아니라 〈선교사〉, 〈교원〉, 〈의사〉, 〈고문〉 등을 파견하여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지반을 닦기 위해 부심하고있습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조선에 침투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선을 먹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야마도족들이 떨떨해있다간 조선을 남들에게 허양 떼울수 있습니다. 부인도 알겠지만 우리 일본은 조선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울뿐아니라 력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임진년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옛적부터 조선을 정복하는것은 우리 야마도의 숙원으로 되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숙원을 이

룩할 날이 드디여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야마도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상대대의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쯔미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것을 본 스기무라는 자기 말이 응당한 효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했는지 만족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3

동살이 퍼졌다. 돋을볕은 포도청감옥의 잔설이 덮인 기와지붕우에도, 지붕밑의 팔뚝처럼 굵은 나무창살사이에도 밝게 스며들었다.

바닥에 깔린 짚검불과 거기에서 풍겨 공간에 자욱히 떠도는 사금알갱이같은 누런 먼지들에서 빛나던 볕발은 돼지들처럼 짚검불을 뒤집어쓰고 웅송그리고 자던 수인들의 눈꺼풀에도 비쳐들었다.

하나둘 눈을 비비며 일어난 수인들이 새벽추위에 얼어드는 어깨며 무르팍을 손으로 주물렀다.

지붕이 있어 집이라 하지 겨울에는 추위가, 여름에는 더위가 그대로 몰려돌고 비가 오면 비풍이, 눈이 오면 눈발이 그대로 날아드는 감옥은 한지나 다름없었다.

목에는 항쇄(칼)를, 발에는 족쇄(차꼬)를 차고앉은 태봉은 울화가 치솟고 분통이 터져올라 지금도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기가 이 생지옥같은 포도청옥에 갇히게 되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처럼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장밤 뜬눈으로 새운 태봉의 눈확은 시꺼멓게 멍이 들었고 눈자위에는 벌겋게 피가 져있었다.

그는 밤에 종각의 공지에서 싸우기로 약정한 량반자식이 자기들을 포도청에 고변했을것이라고 짐작하고있었다. 싸우기가 두려우니까 포도청관리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자기를 감옥귀신으로 만들려고 했을것이다. 이 비렬하고 용렬한 자식, 언제건 다시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였다.

그의 곁에서 대통으로 풀썩풀썩 담배를 피우던 중늙은이가 태봉이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말을 건네였다.

《젊은인 밤새 한잠도 안 자더군.》

태봉은 귀찮아 대척하지도 않았다.

둥그런 얼굴에 구레나룻이 검실검실한 중로배는 눈에 측은한 빛을 띠웠다.

《이제라두 눈 좀 붙이라구.》

《…》

《옥살이하려면 마음이 태평해야 하네.》

《이거 시끄럽게 굴지 마오.》

태봉은 짜증스럽게 내쏘았다.

《허, 그 젊은이 입청이 곱지 않군그래.》

악의없는 소리로 이렇게 나무람을 한 중로배는 태봉이에게 더 관심하지 않을 심산인지 담배만 피웠다.

나무창살사이로 볼이 홀쭉하고 입이 우무러든 늙은 옥졸이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어, 다들 일어났나.》

수인들이 창살쪽으로 다가앉았다. 하나같이 람루를 걸치고 수염이 꺼칠한 어지러운 모색들이였다.

옥졸은 자기앞에 몰켜앉은 수인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로배에게 공손히 여쭈었다.

《동소임, 아침진지 드시우.》

동소임으로 불리운 중로배는 옥졸에게 턱짓으로 대척했다. 옥졸이 창살사이로 이빠지고 때묻은 사발에 담은 한덩어리의 보리밥과 멀건 콩나물국을 넣어주었다.

제 몫을 받아안은 수인들이 돌아앉아 그것을 걸탐스럽게 그러나 오래오래 씹어먹었다.

동소임이 태봉이앞에 보리밥사발과 콩나물국사발을 놓아주며 시까슬렀다.

《젊은이도 〈아침진지〉 드시게.》

《먹고싶지 않소.》

태봉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순간 태봉의 보리밥사발에 대여섯개의 시꺼먼 손이 한꺼번에 덮쳐들더니 보리밥을 한줌씩 움켜쥐는것이였다. 피골이 상접한 수인들은 그것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맛나게 먹었다.

태봉은 못 볼것을 보았을 때처럼 골살을 찌프리며 그들을 역겹게 흘겨보았다.

수인들이 밥사발과 국사발을 창살사이로 내보내고나서 동소임앞에 다가앉았다.

수인 하나가 헤식은 웃음을 띠우며 동소임에게 청했다.

《동소임, 담배.》

동소임은 말없이 대통의 재를 바닥에 탁탁 털더니 쌈지에서 새 써레기를 눌러담아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볼이 불룩하게 대통의 담배를 빨아들인 그는 대통을 입에서 뽑더니 수인들의 얼굴에 휘ㅡ 담배연기를 뿜어주는것이였다.

수인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그 연기를 탐욕스럽게 들이삼켰다.

태봉은 또다시 얼굴을 찌프렸다.

그러는 태봉이를 곁눈으로 바라본 동소임이 비난하듯 중얼거렸다.

《젊은이두 습관될걸세.》

태봉이는 욱하는 성미 그대로 또다시 대들었다.

《뭣때메 내가 옥살이에 습관된단 말이요.》

《허, 그 젊은이 성미 정말 고약하다.》

동소임은 태봉이의 기색을 살피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그럽게 물었다.

《그래, 젊은인 무슨 죄루 옥에 들어왔나?》

《모루.》

《모르다니?》

《글쎄 모루.》

고개를 기웃거리던 동소임이 다시금 은근스럽게 물었다.

《자네 돈 좀 있나?》

《돈이요?》

《옥살이란 별게 아닐세.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이네.》

《예?》

《돈있으면 무죄로 되구 돈 없으면 유죄로 된다 그 말일세.》

태봉은 비록 이틀밤을 옥살이 했지만 이 동소임 권벽이란 사람을 감방안의 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밖의 옥졸이나 옥리와 같은 구실아치들까지 무척 존경하고 공경스럽게 대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것도 그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기때문이 아니라 사정이 딱한 자기 동리의 한 젊은이대신 인질로 들어와있었다.

사연인즉은 그가 관할하고있는 동리의 한 젊은이가 여러해째 빚을 물지 못해 옥살이를 하고있었는데 중병으로 앓고있던 그의 늙은 부친이 림종전에 아들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저세상으로 가겠다고 하기에 그 정상이 하도 가긍하여 동소임인 권벽이가 대신 며칠간 옥살이를 하기로 하고 젊은이를 집에 내보냈다는것이였다. 혹여 그 젊은이가 못된 마음을 먹고 줄행랑이라도 치는 날에는 권벽이가 알쭌히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노릇을 할판이였다. 하지만 본시 대틀인 권벽은 그런 우려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흔연하고 대범하게 처신하였다.

그런 사람에게 의협심이 강한 태봉이가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권벽은 태봉이의 신세를 두고 진정으로 동정해주었다.

《백죄 영문도 모르고 옥살이하는 자네 사정이 참 딱할세그려.》

《…》

태봉은 체념한듯 한 태도로 한숨만 내쉬였다.

목에는 커다란 칼을 쓰고 발목에는 족쇄를 찬 태봉의 정상은 보기에도 처참하였다. 옷은 갈가리 찢어지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매를 맞아 멍이 든 자리가 퍼릇퍼릇하였다.

대보름날에 왜인들과 싸운 사실을 토설하라고 그를 다굿던 형리들이 태봉이가 끝끝내 부정해나서자 그에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성미가 불같은 태봉이가 순순히 매를 맞고있을리가 만무했다. 죄없이 잡혀온것만도 원통한데 때리기까지 하니 그는 그만 앞뒤를 가리지 않고 형리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드센 주먹질과 발길에 형리 여럿이 쭉 뻗어버렸다.

이리하여 그는 중죄인들에게 씌우는 칼을 쓰게 되였고 발에는 족쇄를 차게 되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권벽이가 또 주머니에서 대통과 담배쌈지를

꺼내면서 태봉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임자, 그날 있은 일을 좀 자상히 말하게.》

《말해야 그렇지요.》

《나는 점귀신이라는 탁풍우도 우습게 아는 사람이니 내 신통력을 믿어 손해 없을걸세. 그러니 묻는 말에 거짓없이 답변하게.》

권벽은 담배 한모금을 빨아 후 내불고나서 태봉이에게 신중하게 물었다.

담배질군인 그는 손가락은 물론 수염까지 담배진이 올라 꿀색처럼 누르끼레하였다.

《어데서 포교들한테 걸렸다구?》

《종각마당옆이지요.》

《거긴 왜 갔다구?》

《싸우려구요.》

태봉의 대답은 데퉁스러웠다.

《누구와?》

《웬 고라리생원같은 량반자식하구요.》

《고라리생원같다면야 임자와 싸우려 했겠나?》

《예, 실은 만만찮게 생긴 녀석이예요.》

《거짓없이 대답하라구 하지 않았나? 건 그렇구, 그 젊은 량반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지.》

《겁에 질렸던 모양이죠.》

《아니, 좀 차근차근 생각하세. 그가 임자보다 먼저 나왔을 경우도 있지 않나?》

《글쎄요.》

《그가 왜놈들을 때렸을수도 있지.》

《글쎄…》

《아무리 간특한 왜놈들일지언정 아니 맞은 매를 맞았다고 고변할리는 없을테니 말일세.》

《…》

태봉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담배를 다 피우고난 동소임은 대통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수인들을 측은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우리 심심한데 말요기나 할가?》

아는것이 많은데다 입심이 좋은 그의 곁으로 수인들이 희색을 띄우고 슬근슬근 다가앉았다.

《자네들 한양팔경을 알고있나?》

동소임이 웃으며 묻는 말에 수인들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서로 얼굴을 돌아볼뿐 누구도 대꾸를 못했다.

《관동팔경이나 관서팔경이란 말은 들었어두 한양팔경이란 말은 금시초문일테지?》

수인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동소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꼽을테니 잘들 듣게.》 동소임은 손가락을 꼽으며 계속했다. 《한양팔경은 첫째로 구중궁궐 열두대문속에 들어앉아 녀인의 손으로 삼천리강토를 쥐락펴락하는 중전마마 민비, 둘째로 구름재의 운현궁에서 불같은 한숨만 내쉬는 섭정국태공을 하던 흥선대원군 리하응대감, 셋째로 갑신정변을 〈삼일천하〉로 끝마치고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파 령수 김옥균대감, 넷째로 나라의 개화문명을 위해 부심하는 혁신관료 판중추부사 김홍집대감, 다섯째로 민비의 개인무당인 요물 진령군 박소사, 여섯째로 우리 조정에 감놔라 배놔라 호령질군인 청국장수 원세개, 일곱째로 남산 왜성대의 일본공사관, 여덟째로 정동의 미국공사관. 어떤가, 그럴듯하지?》

동소임의 말에 수인들은 난해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웃거렸다. 하더니 수인들중에서 중년의 사나이가 동소임에게 고개를 쳐들었다.

《관서팔경이나 관동팔경은 산천경들인데 동소임의 한양팔경은 인물경들입니다요.》

그러자 먹물깨나 먹음직해보이는 다른 사나이가 간참했다.

《우리 한양은 나라의 도읍이요, 서울인데 의당 인물경이여야지.》

또 한 수인이 끼여들었다.

《그런데 왜성대의 일본공사관이나 정동의 미국공사관만은 산천경입니다요?》

그 말에 동소임은 성을 내듯 버럭 소리쳤다.

《왜놈이나 미국놈들은 다 우리 나라를 먹으려는 그놈이 그놈이므로 공사관만 꼽으면 돼!》

《동소임, 이달 열흘째 남도에서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전봉준선생두 마땅히 팔경에 넣어야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며 동소임을 쳐다보자 다른 수인이 그에게 얼른 대꾸했다.

《그가 어디 한양사람인가, 전라도지.》

《참, 전라도 개똥쇠들중에두 인걸이 있네그려.》

수인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자 동소임이 생각깊은 표정으로 또 주머니에서 대통을 끄집어냈다.

그러자 수인들은 다시금 호기심으로 눈빛을 빛내며 동소임을 쳐다보았다, 다문박식한 그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새로 끄집어내기를 바라면서.

《이자도 전봉준대장이 추켜든 〈척왜〉에 대한 말이 나왔지만 저 왜놈들은 우리 조선사람들 덕에 사람구실을 하게 됐다네.》

동소임은 입에 문 대통에 불을 붙이고나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좀전에 《한양팔경》에 대해 말할적에는 그의 얼굴에 얼마간 능청스러운 기색이 떠있었으나 이번에는 자못 진지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저 왜놈들은 천수백년전까지 농사도 지을줄 모르고 짐승도 기를줄 모르는 단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열매나 주어먹는 족속들이였지. 그러던 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사람들이 섬나라에 건너가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부터 벼농사가 시작되고 농쟁기 쓸줄도 알게 되고 집이며 옷이며 음식도 알게 되여 비로소 사람다운 체모를 갖추게 되였다네. 내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지. 짐승가죽으로 부끄러운 곳이나 겨우 가리우고 다니던 왜놈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의복일습을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버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기웃거리던 놈들이 그것을 머리쓰개인줄로 알고 발에 신는 버선을 머리에 쓰고 다녔다지 않나. 그래서 옛적 왜인들의 모자가 앞이 삐죽이 나온것이 흡사 거꾸로 쓴 버선과 모양새가 같다네.》

그의 말에 수인들은 모두 웃었으나 동소임자신은 여전히 신중한 기색으로 말을 계속했다.

《섬나라에 건너간 조선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왜놈들도 조선말을 본따서 자기네 마을을 〈무라〉라고 했고 조선사람들이 고을을 이루고 살 때에는 역시 조선말을 본따서 고을을 〈고흐리〉라

고 했다네. 조선말이 왜나라말에 흘러들어간것이 수두룩하지. 어디 그뿐인줄 아나. 나라를 다스리는 법, 가죽 이기는 법, 종이며 먹을 만드는 법, 어느것이나 우리한테서 배우지 않은것이란 없네. 왜인들은 옛적부터 된장을 즐겨먹는데 그것을 〈고마장〉 즉 〈고구려장〉이라고 했고 그들이 즐겨 추던 〈구메춤〉도 〈고마춤〉, 다시 말해 고구려무사춤이고 지금도 정창원이란 왜나라창고에는 〈고마요고〉라고 하는 고구려장고가 있고 고마피리가 있다네. 내가 하는 말은 죄다 〈일본서기〉란 왜국의 옛 력사책에 그대로 적혀있는것일세.

한마디로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듯이 발전된 우리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져 그네들이 개명하게 된거지. 그래서 옛적엔 왜인들이 우리 조선을 부형의 나라라고 흠탄하고 숭모했지.

그런데 이런 왜놈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은혜를 원쑤로 갚는다고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불악귀같이 날뛰고있으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동소임은 말하는 사이 절로 죽어버린 대통의 담배를 바닥에 대고 탁탁 털었다.

태봉은 동소임의 사람됨됨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음이 더욱 끌리면서 그에게 머리가 숙어졌다.

4

륙모방망이와 함께 열쇠묶음을 든 옥사정이 살창사이로 감방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더니 태봉이를 부르는것이였다.

《여 전라도광대, 나와.》

웅크리고 앉아있던 수인들이 동정하는 눈길로 혹은 부러워하는 눈길로 태봉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태봉은 부릅뜬 눈으로 옥사정을 쏘아볼뿐 움직일념을 안했다. 나갔댔자 또 왜놈들과 싸운 사실을 토설하라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하거나 뭇매나 안길것이기때문이였다.

태봉의 감때사나운 성미를 알고있는 옥사정은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사정하는 투로 말했다.

《포도부장나리가 자넬 만나자구 하네. 자네 녀편네두 나와있어.》
녀편네란 소리에 태봉은 코웃음쳤다.
《난 녀편네가 없소.》
《그럼 함께 갇힌 그 각시사당은 누군가?》
《모루.》
《몰라?… 허허, 그러지 말고 어서 나와. 부장님이 기다리네.》
담배를 태우고있던 동소임 권벽이도 태봉이를 부드럽게 타일렀다.
《나가보게.》
태봉이가 시답잖은 기색으로 옥밖으로 나서니 녀수들 감방앞에 서있던 옥절이가 반색하며 뛰여왔다.
《태봉아!》
반가움에 겨워 가슴우에 두손을 마주잡은 옥절의 입귀가 실룩거렸고 눈에는 미음이 핑 돌았다.
옥고에 지친 그의 주제는 말이 아니였다. 삼거웃같이 헝클어지고 먼지가 뿌옇게 앉은 머리칼이며 분결같던 얼굴도 훌쭉하게 살이 빠진데다 윤택이란 전혀 없이 거슬거슬했다. 그리고 새별처럼 늘 정기가 반짝이던 눈동자도 안개가 낀듯이 흐릿하게 보였다.
불쌍한 옥절의 모습을 본 태봉은 마음이 언짢았으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덜퉁스러운 꿰진 소리가 나갔다.
《울긴 왜 울어, 민충이같이.》
《응, 안 울게.》
순진한 옥절은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손등으로 눈굽을 훔쳤는데 그 바람에 눈언저리가 더 어지러워졌다.
옥사정은 낯익은 포도부장의 방으로 그들을 끌고갔다.
왁살스럽고 인정머리없는 다른 포교나 포졸들과는 달리 포도부장은 외형부터가 호인다와보이는 중년사람이였다.
그는 옥사정의 륙모방망이에 어깨를 얻어맞고 무릎을 꿇고 앉는 태봉이와 옥절이를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희들과 좀 의논할 일이 있어 불렀다.》
태봉은 온곱지 않은 눈으로 포도부장을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의논이요?》
《그래, 의논하자구 말이다. 그간 보니 너희들은 죄가 없는것이

분명한데 일본사람들은 기어이 너희들한테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겠다는거다.》

포도부장은 저도 딱하다는듯이 이마살을 찌프리며 한숨을 내쉬였다.

《생전 본적도 없는 왜놈들한테 피해보상금은 또 뭘 말라빠진 보상금이요. 허참, 부장나리, 그것두 말이라구 하시오?》

포도부장의 얼토당토않는 소리에 태봉은 결기가 올라 활이야 살이야 내쏘았다.

《야 이눔아, 난 너희들이 불쌍해서 의논하자는건데 허, 그 자식 말버릇 고약하다.》

포도부장은 팔걸이의자에 제빠듬히 기대앉으며 태봉이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옥절이가 안절부절 못해하며 포도부장에게 연송 머리를 조아렸다.

《부장님, 인정을 베풀어주시와요. 예, 부장님…》

다시 마음이 누그러진 포도부장은 얼굴에 온화한 기색을 지었다.

《그래서 말하는게 아니냐. 페일언하구 너희들한테 돈이 있느냐?》

옥절이가 얼른 되물었다.

《돈은 왜요?》

《왜놈들이 피해보상액으로 천원을 내라는구나.》

《네에?!…》

옥절이도 입을 딱 벌렸지만 태봉은 금시 무슨 일 저지를듯이 씨근거렸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다 있는가! 한참후에 옥절이가 포도부장에게 침착하게 물었다.

《왜인이 죽었나요?》

《아니다.》

《그럼 팔다리라도 부러졌나요?》

《그런것 같지도 않다.》

《그럼 뭣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사 알겠니.》

포도부장은 저도 골치 아프다는 시늉으로 골살을 찌프렸다.

그러자 태봉이가 또다시 울뚝거리는 성미 그대로 내쏘았다.

《죄는 어느 천도깨비가 지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더니… 부장나리, 그런 말같지 않은 돈소린 싹 걷어치우시우.》

《이놈 봐라, 저를 도와주려니까 되려 뱰을 부려!》

《아무리 인두겁을 쓴 왜놈이기로서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소이까!》

《이눔, 말 조심해. 옥중고혼이 되고싶으냐?》

《감옥귀신이 돼도 좋으니 그 왜놈들과 한번 상면을 시켜주시우. 그럼 우리와 그놈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란게 적실해질게 아니외까!》

《그건 어려울게 없다. 마침 오늘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으니까.》

이날 다저녁때에 태봉이와 옥절이는 다시 포도부장방에 불리워갔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니 네댓명의 왜인들이 포도부장의 곁에 서있는데 모두 이마에는 하찌마끼라고 하는 흰 헝겊오래기를 동였고 소매가 너풀거리는 하오리에 짜개발게다짝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길다란 일본도를 차고있었다. 저희들 나라에서는 폐도령이 내려 사무라이와 랑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지 못하게 금지령이 내렸으나 조선에서는 꺼리낌없이 칼을 차고 위세를 부리는 판이였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태봉이와 옥절이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태봉은 낯선 왜놈들이라 처음부터 거들떠보지조차 않았다.

중재자격으로 이들사이에 앉아있던 포도부장이 왜인들에게 점잖게 물었다.

《한가지 묻겠소. 이 젊은이가 그때 당신들을 때렸다는 그 젊은이가 맞소?》

왜인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마주 쳐다보며 우물쭈물하였다.

《대답을 하시오.》

포도부장이 엄하게 다시 묻자 왜인들은 저희말로 분분하게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그때 그 년놈이 아니잖어?》

한놈이 이렇게 의혹을 표시하자 다른 왜놈도 맞장구를 쳤다.

《글쎄 말이야. 바지저고리같은 조선경찰들이 하는짓이란…》

또 한놈이 이마를 문댔다.

《어쩐다?》

그러자 매약상 다까하시가 단호한 표정을 띠우며 자기 족속들을 휘둘러보았다.

《꿩대신에 닭이라는 조선속담이 있네. 이제는 이것들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하네.》

다른 왜놈들도 고개를 끄떡이며 다까하시의 말에 호응을 표시했다.

그들이 놀아대는 꼴을 비웃음을 띠우고 바라보던 포도부장이 빈정거렸다.

《무슨 대답이 이리 오래 걸리는거요?》

그러자 작달막하고 똥똥한 다까하시가 한발 앞으로 나서더니 고개를 가볍게 숙여 포도부장에게 경의를 표시하고나서 천연스럽게 말했다.

《귀하, 바로 그놈입니다.》

포도부장은 너무도 뻔뻔스러운 왜놈들이 얄미워 고개를 돌려버리고말았다.

그러나 태봉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두주먹을 부르쥐고 놈들을 불이 황황 이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옥절이가 재빨리 태봉이를 꽉 부둥켜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들이싸움판이 여기 포도부장방에서 터졌을지 모른다.

옥절이는 태봉이의 팔소매를 꽉 잡은채 왜놈들에게 야무지게 내쏘았다.

《당신들이 우리를 언제 보았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요?!》

그러나 철면피한 다까하시는 제 다리를 툭툭 치며 이죽거렸다.

《저 사람한테 맞은 내 다리 아직 낫지 않았소.》

포도부장은 골치가 아파 눈을 감아버리고말았다.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아퀴지을지 몰라 골머리를 썩였다. 오래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왜놈들이란 한번 문 짐승의 멱줄띠를 숨이 질 때까지 놓지 않는 이리처럼 악독하고 검질긴 족속들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놈들은 《피해보상액》을 받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것은 대낮의 해를 보듯 뻔한 일이였다. 그러니 놈들의 요구대로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죄없는 광대들을 동정하여나섰다간 제자신이 무슨 함정에 빠질지 모를노릇이였다.

이윽고 눈을 뜬 포도부장은 태봉이네와 왜인들을 갈마보더니 그들의 우두머리인듯 한 다까하시에게 광대인 태봉이네 처지에서 천원이란 너무도 엄청난 액수이니 그 절반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의논조로 말했다.

왜인들은 또 한동안 저희 말로 수군덕거렸는데 모름지기 거지같은 태봉이한테서 천원을 뽑아낸다는건 부지하세월이니 그 절반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보는것 같았다.

다까하시가 포도부장에게 자못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했다.

《귀하, 우리는 귀측의 형편을 고려하여 상기 보상액 천원중에서 그 절반인 오백원으로 삭감하겠다는걸 통고하는바입니다.》

태봉이가 또 울컥했다.

《오백원?! 개떡같다!》

그러는 태봉이를 포도부장이 엄한 기색으로 질책했다.

《야, 절반으루 삭감된것만두 다행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지 아니 헐 말루 상감님보구 내라 할테냐.》

포도부장의 태도를 보고 기가 오른 다까하시가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에, 보상액은 이번주내에 상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공사관을 통해 귀외아문(외무성)에 항의하겠다는걸 언명하는바입니다.》

옥절은 생각던 끝에 왜놈들이 강요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네 광대패의 우두머리인 모가비를 찾아가기로 작정했다. 옥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것이다.

그때까지도 려인숙에서 태봉이네의 행적을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고있던 광대들은 뜻밖에 나타난 옥절이를 일변 놀라며 또 일변 환성을 지르며 떠들썩하게 맞이하였다.

그들은 거지행색이 되여버린 옥절의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어데 가서 죽지 않고 살아돌아온것이 무등 반가왔던것이다.

옥절이또래의 녀사당들은 그를 부여안고 울고웃으며 어쩔바를 몰라했고 남거사들도 뒤전에서 눈시울을 슴벅거렸다.

그사이 태봉이와 옥절이가 겪은 고초를 전해들은 광대들은 더욱 놀라고 분개하였다.

방에 들어가 그들과 마주앉은 옥절이가 왜놈들의 보상금 500원소리를 꺼내자 다른 광대들은 격분하여 윽윽거렸으나 귀얄수염쟁이 모가비는 한숨부터 쉬였다. 이윽하여 왜놈들의 요구에 응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것을 깨달은 광대들도 낯색이 컴컴하여 입들을 다물었다.

《난사는 난사다, 후—》

모가비는 탄식하듯 또 한숨을 내쉬였다.

옥절이와 제일 가깝게 지내는 녀사당이 발끈해서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지 옥절이를 계속 옥살이 시키겠어요.》

《너흰 가만있어. 오백원이 뭐 아이들 이름이야?》

모가비도 짜증을 부렸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의 노전가시만 잡아뜯던 옥절이가 모가비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모가비어른, 나와 태봉의 몫만이라두…》

《그것으루 어림이나 있느냐?》

《내 몫두 합하라요.》

옥절이와 가까운 사당이 한무릎 나앉으며 여쭈었다.

《그래두 안돼.》

이제껏 시름겨운 담배만 피우던 거수가 담배불을 나무재털이에 비벼끄고나서 말했다.

《거 우리가 번 돈을 다 처넣구라두 태봉이와 옥절이를 빼내줍시다요. 아무렴 사람이 중하지 돈이 중하겠소.》

광대패에서 발언권이 있는 거수의 말에 옥절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도 희망의 빛이 내뿜었다.

허나 모가비는 대뜸 턱을 쳐들더니 도끼눈으로 거수를 쏘아보는것이였다.

《그런 말은 치우게. 아, 그래 근 반년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눈비를 맞고 한지잠을 자면서 한푼두푼 모은 돈을 얼토당토않는 일에 다 처넣구 눈이 까만 새끼들과 식솔들이 일구월심으로 기다리는 집으로 백죄 빈손으로 돌아가잔 말인가?! 안돼! 절대 안돼!》

모가비는 두말하면 잔말이라는듯 삑 돌아앉고말았다. 절망의 한숨, 흐느낌소리… 옥절이며 광대들의 기색은 초상집과 같았다.

이 시각 태봉이는 포도청감옥의 바닥에 엎드려 소리없이 울음을 울고있었다.

곁에서는 인정깊고 동정심이 많은 동소임 권벽이가 담배대통을 들고앉아 그를 측은한 눈길로 굽어보고있었다.

팔자라고밖에 할수 없는 자기의 생애가 너무도 기구하고 너무도 불

우하여 울어야 소용이 없는줄 번연히 알면서도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어 울고있는 태봉이였다.

햇순처럼 하얗고 야들야들하던 그의 어린 발은 걸음마를 옮기면서부터 진창길에, 자갈밭에, 얼음버캐에, 가시덤불밭에 찔리고 찢기고 터져 피가 마를새가 없었다. 그래도 다심한 어머니가 피 흐르는 그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헝겊으로 동여매주던 그 시절이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행복하다면 제일 행복한 때였다고 할수 있었다.

태봉의 어머니는 제주도해녀였다. 바다바람이 세차고 돌이 많은 제주도라 집집의 초가마가리지붕우에는 박통같은 돌멩이들이 올라앉아 있었다.

가뜩이나 살풍경한 제주도아근에 언제부터인가 왜놈들의 어선이 나타나더니 놈들의 행패질과 로략질에 제주도는 정말 사람 못살 고장으로 되고말았다. 왜놈들이 모슬포어촌이며 견인포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놓은 물고기를 빼앗아갔다는 소문들이 떠돌아 사람들은 뒤숭숭한 심경으로 어느 하루 발편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100명도 훨씬 넘는 왜놈들이 태봉이네가 살고있는 성산포에 기여들었다.

태봉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부락사람들은 우리 나라와 왜국과 맺은 《어로장정》에 왜인들이 우리 땅에 오르지 못하게 되여있는데 어찌하여 함부로 평화로운 섬마을에 기여드는가고 엄중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워낙 왜놈들이란 해적인 왜구의 후예들이라 칼부림밖에 모르는 놈들이여서 덮어놓고 칼을 휘둘러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전복이며 해삼, 방어, 준치, 칼치, 도미와 같은 물고기들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애고아가 되여버린 태봉은 어린 누이동생 태순의 손을 잡고 외삼촌네가 있다는 전라도 고부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그를 맞아준것은 외삼촌네가 살던 허물어져가는 빈 초가집뿐이였다.

의지가지없는 그들을 돌보아준것이 옥절의 할아버지 변로인이였다.

가죽이기는 백정질로 근근히 연명하는 구차한 살림속에서도 변로인은 태순이는 마을의 부자인 강주사네 집에 심부름군으로 들여보내고 태봉이는 자기 집에 얹혀살게 해주었다.

더부살이 태봉이는 아직 뼈도 굳지 않은 소년이였지만 한 장정 못지

않게 일을 걸싸게 해치우군 하였다. 어느날 고을에 살던 광대패의 우두머리 모가비란 사람이 그의 그쯘한 체격이며 날파람스러운 거동을 보더니 그를 광대가 되지 않겠는가고 꼬드겼다. 종일 가죽을 이겨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무두질보다는 떠돌아다니며 재기를 부려 돈벌이하는 광대가 훨씬 마음 편하고 살기도 좋다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태봉은 그날로 광대인 거사가 되고말았다. 모가비는 거수를 시켜 태봉이에게 마상재며 비수던지기와 같은 재간을 배워주게 하였는데 눈썰미가 있고 체격이 좋은데다가 이악하기까지 한 그는 그 모든 재기를 빠른 기간에 터득할수가 있었다. 그러긴 했어도 그 과정에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 되여버렸으니 골이 깨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운신조차 못할 때가 허다하였다.

그처럼 간고하게 배운 광대놀이가 또한 신선놀음이 아니였으니 하루에 수백리를 걷고 굶기를 밥먹듯 해야 했고 비바람, 눈바람속에 한지잠을 자야 할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것은 그런대로 참을수 있었으나 세상은 광대인 그를 백정, 쟁인바치, 기생, 노비, 중, 무당들과 함께 《칠반천인》으로 멸시하고 천시하며 사람축에 끼우지도 못하게 하였고 지어 어떤 고약한 마을에서는 풍기를 문란시킨다고 돌멩이를 던지며 그들을 동구밖으로 쫓아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런 뜻밖의 봉변으로 태봉의 머리가 터진적이 몇번인지 모른다. 그런데 또 오늘은 낯도 코도 모르는 왜놈들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엄청난 돈까지 물어야 하니 아무리 무법천지의 세상이기로서니 이다지도 사람을 못살게 굴수가 있는가 말이다.

태봉은 이런 놈의 세상은 벼락이라도 콱 쳐서 너도나도 다 망해버렸으면 속시원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권벽이가 태봉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쓰다듬어주었다.

《이젠 일어나라구.》

일어나앉은 태봉은 팔소매로 눈굽을 뻑뻑 훔치며 중얼거렸다.

《부모를 잃었을 때 울고는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눈물이 동이로 차있다네.》

저도 심란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한 권벽은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 천가라고 했던가?》

《그건 왜 묻소?》

《천가나 변가, 길가 같은 성은 대개 백정의 성씨라네.》

《그러니 난 종신토록 천민의 허울을 벗지 못한다는 소리요?》

《거꾸로 된 이놈의 세상을 바로잡으면 얼마든지 되지.》

대번에 귀가 항 열리는 소리여서 태봉은 둥그래진 눈길을 권벽에게서 떼지 못했다.

권벽이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자네 전라도 고부서 왔다고 했지?》

《예.》

《전봉준이란 이름을 들어본적 있나?》

《선성은 더러 들었어두 대면은…》

《그 사람이 지금 호남농민군 대장으루 이름이 짜하다네. 이 썩은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백성들을 불러일으킨 장한 사람이지.》

태봉은 느닷없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흥분을 느끼며 낮으나 격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정말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이 부정한 세상과 대들이 판으로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네두 그러리라 믿었네.》

만족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한 권벽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 그 전봉준대장의 휘하에서 싸울 생각이 없나?》

태봉은 감질이 나서 얼른 권벽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아, 그럼 좋지요. 그런데…》

《내 선을 이어주지.》

《그러니 동소임은 그 전선생을 잘 아십니까?》

권벽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태봉은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데 이 옥살이를 면해야 할게 아닙니까.》

《면하게 될걸세.》

권벽의 이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이때 옥사정이 창살사이로 감방안을 들여다보더니 태봉이를 부르는것이였다.

《짐을 다 가지고 나오라구. 석방이야.》

너무도 의외의 사실에 부닥친 사람들이 항용 그렇듯이 태봉이도 이

순간 옥사정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리해되지 않아 묻는 눈길로 권벽을 쳐다보기만 했다.

옥사정이가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을 때에야 비로소 태봉은 자기의 옥살이가 풀려 감옥을 나가게 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좀전까지 막연하기만 하던 옥살이가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그리고 쉽사리 풀리게 되였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밖으로 나와 옥절이를 만나게 되여서야 비로소 태봉은 옥절이가 왜놈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금 500원을 가져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자 태봉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가 어데서 어떻게 구했단 말인가.

《모가비어른이 아니, 우리 사당과 거사들이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모아주었어.》

옥절은 기쁨에 겨워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태봉은 꺽 숨이라도 막히는듯싶었다. 그러니 우리 광대패의 모든 사람들이 반년가까이 집을 떠나 아글타글하고 애면글면하면서 번 돈을 다 털어 우리에게 주었단 말인가.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굶어지낼 가족들에게… 태봉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는듯 한 착각을 느끼며 몸을 비청거렸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래선 안된다. 우리가 석삼년 감옥에 처박혀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태봉은 옥절이에게 손을 쑥 내밀었다.

옥절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왜 그래?》

《돈을 내놔!》

《무슨 돈 말이야?》

《무슨 돈이라니. 500원을 내놓으란 말이야!》

태봉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숨결도 높았다.

옥절은 여전히 의아쩍어하며 그러나 겁기에 질린 소리로 떠듬떠듬 말했다.

《포도부장에게… 주었어.》

《뭐라구? 이 민충아!》

태봉은 결김에 주먹을 쳐들었다. 눈에서 불이 흐르는것 같았다.

당장 무슨 일을 칠것 같은 태봉이가 너무도 무서워 옥절은 목을 움츠리며 눈을 꽉 감아버렸다.

아무런 기척도 없기에 잠시후 다시 눈을 뜬 옥절은 조심스러우나 기쁨이 어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중전마마께옵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

태봉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의연히 성난 기색으로 옥절이를 쏘아볼뿐이였다. 그에게는 구중궁궐 열두대문속에 들어앉아있는 중전마마라고 불리우는 녀인이 하늘에 있다는 하느님이나 옥황상제와 다름없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계한 존재로 치부하고있었기에 지금도 그에 대해 그 어떤 흥미도 관심도 없었던것이다.

5

산정에서 구르기 시작한 하나의 돌멩이가 이 돌, 저 돌과 부딪치면서 마침내 엄청난 산사태를 일으키고 강뚝밑에 뚫린 자그마한 물구멍이 종당에 최뚝을 허물어뜨리고 물란리를 일으키듯이 명색도 없는 천하디천한 광대인 태봉이와 옥절이가 우연히 우포청에 갇힌 일로 하여 벌어진 사태는 실로 엄중하였다.

자국의 거류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일본공사관에서 조선봉건정부의 외아문(외무성)에 항의각서가 제출되고 이로 하여 외아문은 물론 조정이 솔바람 부는 솔밭처럼 뒤설레였으며 그것은 드디여 왕관없는 녀왕인 민비의 귀에까지 들어가 정월대보름날의 일로 하여 가뜩이나 심사가 꾀여있던 그로 하여금 미칠듯 한 분노에 휩싸이게 하였다. 본래 무슨 일이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미여서 그것을 끝까지 성사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민비로서는 어찌 보면 하찮은 일로 여길수도 있는 전라도광대패로 하여 생긴 사달을 결코 그냥 스쳐보낼수 없었던것이다.

정월대보름날 밤 당일로 진령군을 불러들여 숱한 외국녀인들에게

자신을 망신시킨 분풀이를 하고난 민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라도 광대패의 놀이가 개판이 된 까닭을 알아내라고 야단독장을 부렸다.

진령군이 줄땀을 흘리며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여다니고 나중에는 조상궁을 비롯한 숱한 궁녀며 환관, 무예별감들까지 떨쳐나 찾아다녔으나 서울에서 김서방찾기라고 태봉이와 옥절이의 행방은 종시 알아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죄없는 그들이 포도청의 감옥에 들어가앉아 있으리라고야 누군들 생각했겠는가.

그런데 드디여 진령군은 려인숙의 모가비로부터 실종된 거사와 사당이 우포청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진령군은 그 길로 건청궁으로 달려가 만면에 희색을 띠우고 민비에게 이 사실을 아뢰였다. 그랬으나 민비는 도리여 낯색이 쌀쌀해서 진령군을 야멸차게 비난하는것이였다.

《령험있는 무당점쟁이라더니 가을귀뚜라미처럼 잘두 주절대는구나.》

진령군은 민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길없어 데꾼해진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비는 별로 덥지도 않은데 부채질을 하며 벽만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아마 속이 답답한 모양이라고 생각한 진령군은 비위살스러운 웃음을 띠우며 다시 입을 넙죽거렸다.

《마마, 너무 심려하지 마옵시오. 동궁마마의 생일 내진연과 외진연 때에는 전라도광대들의 놀이를 꼭 보게 될것이옵니다.》

갑자기 민비가 부채를 탁 접더니 진령군을 사무럽게 노려보았다.

《이년,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 왜서 요즘은 네가 하는 일이 예전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민비의 말은 례사로왔으나 이 말을 들은 진령군은 마치도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마냥 낯색이 꺼멓게 질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민비가 이처럼 성이 나서 펄펄 뛰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어 궁금하다못해 초조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민비가 외아문을 통해 전라도광대패의 젊은 거사와 사당이 어찌하여 우포도청감옥에 갇히게 되였으며 그들이 옥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되였는가를 죄다 알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더우기 그 거사

와 사당이 자기들을 구원해준 동료들을 볼 낯이 없다고 려인숙에도 들리지 않고 제 고장으로 떠나가버렸다는것은 더더구나 알수 없었다.

민비가 다시 부채질을 하며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왜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없으니 난사는 난사다.》

민비가 왜인들로 하여 부심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진령군은 마음이 얼마간 놓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민비가 자기와 왜인들간의 관계를 혹시 알고있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면서 다시금 심경이 불안해졌다.

그가 따지고들면 어쩐다?… 때마침 고종이 민비의 편전으로 찾아온것은 진령군으로 하여금 옹색하고 거북하고 불안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진령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종에게 례를 갖춘 다음 뒤걸음질로 민비의 편전을 벗어났다.

민비곁의 보료우에 앉은 고종은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곤전의 낯색이 좋지 않구려.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시오?》

민비는 애써 웃어보였다.

《별일이 아니옵니다.》

《과인이 불민하긴 하나 부인의 심경이야 왜 몰라보겠소. 기쁨을 나누어가지면 배로 커지고 걱정거리를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고 하질 않소.》

고종의 진심과 걱정이 어린 말에 저으기 마음이 후더워진 민비는 그를 정찬 눈매로 바라보았다. 성긴 턱수염발에 흰오리가 몇개 반짝거렸고 망건밑의 관자노리에도 흰머리칼이 섞인것이 눈에 띄였다.

이제 마흔을 조금 넘겼는데 벌써… 민비는 사람의 한생이 너무도 빠르고 짧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서글퍼졌다.

세월은 산골의 초부나 지존으로 받들리우는 임금이나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취를 남기는 법인가싶다. 하긴 옛적의 진시황도 생에 대한 애착과 미련으로 장생불로약을 구하려 수천의 소년소녀들을 배에 태워 미지의 섬으로 떠나보냈으나 결국 그 간절한 념원을 이루지도 못한 채 쉰살도 넘기지 못한 한창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지 않았는가. 불현듯 시아버지 대원위대감이 술만 걸치면 읊조리던 시조가 상기되였다. 가는 세월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

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내용이였던가. 어쨌든 가는 세월을 인력으로 어쩔수 없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듯 한감이 들기도 하였다.

《곤전,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고종이 사뭇 다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서야 민비는 상념에서 깨여나며 어설픈 미소를 띠웠다.

《곤전은 아직 과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는 고종의 얼굴에는 무시당하고 소외시당한 사람들이 짓는 그런 섭섭하고 노염기어린 착잡한 표정이 떠올라있었다.

민비는 제 생각에만 옴해있은 자신이 민망스러워 열적은 웃음을 띠우며 사과하듯 어줍게 말하였다.

《상감마마, 죄송하오이다. 신첩이 그만…》

이렇게 입을 연 민비는 정월대보름날에 전라도광대들로 하여 외국사람들앞에서 망신당한 일이며 그 광대들이 애매한 두꺼비가 돌에 치운다는 격으로 포도청옥에 갇히게 된 전후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도적이 매드는 격으로 조선규수를 희롱하다가 봉변을 당한 그 왜인들이 도리여 막대한 피해보상액을 받아냈다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데 있소이까?》

민비의 이야기를 들은 고종은 저도 신중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왜인들이란 워낙 그런 족속들인걸 어찌겠소.》

《이 땅에서 왜인들이 제 세상처럼 날치고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옵니까.》

안타까움에 잠겨 하는 민비의 말에 고종은 체념한듯 한 어조로 대척했다.

《그러니 어쩌겠소. 저들에겐 치외법권이 있으니…》

고종의 말을 들은 민비는 아픈 곳을 찔리운 사람처럼 입술을 옥물었다.

그렇다, 누구를 탓할 까닭이 있는가, 모든것이 자기 불찰때문이였고 자기가 불민했기때문이였다, 저런 왜인들에게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쉽사리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단 말인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끝까지 피를 빨아먹는 거마리같은 놈들에게…

제 4 장

《정한론》의 유령들

1

도쬬에서도 유축진 곳인 시나가와의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춘화관》은 그리 소문나지 않은 수수한 료정이였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에는 일본정계에서 제일 거물급들인 총리와 내무대신, 외무대신이 찾아왔기에 주인인 오까미를 비롯하여 심부름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희열에 들떠서 분주탕을 피웠다.

나이 쉰살이 지난 오까미는 녀자로서 볼장을 다 본 주제건만 눈귀며 볼의 주름살을 가리우느라고 분을 미장하듯 게발랐으나 무겁게 드리운 눈시울이며 축 처진 군턱으로 하여 그저 살진 늙은 암돼지를 련상시킬 뿐이였다.

그는 여느때보다 우정 더 엄한 기색을 짓고 대기실에 준비시켜놓은 게이샤(기생)들을 앞뒤로 돌려세워보며 깐깐히 검열하였다.

조선의 기생들에게 명월이며 매월이며 하는 기명이 있듯이 일본의 게이샤들도 오나쯔며 오센과 같은 자기 특유의 이름이 있었다.

《아니, 오나쯔. 너 볼에 그게 무슨 허물자리냐?》

오까미는 울타리의 가름대처럼 몸집이 가느다란 젊은 게이샤의 볼에 난 퍼렇게 멍든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지청구를 했다.

《어제 밤 손님이 꼬집어주어서…》

《말라꽹이에 볼따귀까지 그 모양이니 쯧쯧…》

《그래두 총리각하는 절 제일 좋아하거던요.》

오나쯔는 허리를 꼬며 투정부리듯 입을 비쭉거렸다.

《보기 싫다.… 그리구 오센, 넌 또 목덜미에 그게 뭐냐?》

《저두 손님이 깨물어놓아서…》

오센은 샐쭉 웃으며 웃몸을 흔들었다.

오까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어처구니없는듯 중얼거렸다.

《서양남자들은 녀자들의 다리에 관심이 크지만 일본사내들은 녀자의 목덜미를 좋아하는 법인데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구 제일 귀한 분들을 모셔야 할 밤에 이게 무슨 꼴들이니… 오나쯔, 넌 볼에다 분을 더 바르고 오센, 넌 옷깃을 높여서 목덜미를 가리워라, 어서!》

오센이 기모노의 옷깃을 우로 잡아당기며 샐쭉거렸다.

《주인님, 됐어요?》

《아직 보인다, 더 높여라. 목덜미가 저 모양이니 다른 곳은 영 형편이 없겠구나.》

《불을 끄면 몰라요.》

오센은 철없는 애들모양 여전히 샐쭉거렸다.

《알게 뭐냐, 저이들도 불을 켜고 재미를 보는분들인지.》

이렇게 게이샤들을 닦아세운 오까미는 아름드리나무통같은 몸을 흔들며 밀실쪽으로 뚱기적거리며 걸어갔다.

밀실의 미닫이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누비돗자리방에 들어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중년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교태를 부렸다.

《제일 존귀하신분들께서 저의 집을 찾아주시니 생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각상을 하나씩 앞에 놓고 앉아있는 이또 히로부미총리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는 방금까지 무슨 긴요한 이야기를 하던 참이였던지 신중한 기색으로 고개들만 끄덕거렸다.

오까미는 이또총리에게 걸맞지 않는 애교를 부렸다.

《각하, 총애하시는 오나쯔를 부를가요?》

《오까미상은 내 좌우명을 잊었는가?》

《무슨?…》

이또의 말에 오까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성담천하사, 취와미인슬.》

이또가 무뚝뚝하게 이렇게 내뱉자 그제야 말뜻을 알아차린 오까미는 두손을 맞잡으며 또 교태를 부렸다.

《예, 예, 깨여서는 천하의 일을 론하고 취해서는 미인의 무릎을 베고 눕도다. 알겠습니다.》

오까미는 세개의 잔에 재간스럽게 술을 부어놓고나서 실한 몸을 일으켜 미닫이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모습을 쫓던 이또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허리띠를 풀어놓읍시다.》

《음, 이제 보니 총리는 이 〈춘화관〉의 단골손님이군그래.》

이노우에가 얼굴의 칼자리를 쓸어만지며 좀 징그러워보이는 웃음을 띠웠다.

무쯔도 어깨를 으쓱하며 이죽거렸다.

《나는 총리각하가 우리를 어데로 끌고 오는줄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허허.》

《가끔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이또가 너그럽게 웃으며 이노우에와 무쯔를 건너다보았다.

《자, 우선 한잔씩 듭시다.》

비운 잔을 이노우에와 무쯔에게 보여준 이또는 살점이 빨간 다랑어회를 초장에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이미 웃옷의 앞자락을 풀어헤친 그는 마치 자기 집의 침실에나 온듯이 스스럼없이 여유작작하게 처신하였다.

《이 〈춘화관〉이 별로 화려하지 못하고 또 음식도 그닥 씨원치 않지만 대신 젊고 예쁜 계집들이 많은데다 문을 열면 시원한 바다바람과 함께 파도소리가 정취를 돋군단 말이요.》

이노우에와 무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들은 이 순간 화류계의 명사요, 유명짜한 주색잡이인 이또가 료정도 그럴듯 한 곳만 골라다닌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화류계의 이 계집, 저 계집에게로 옮겨다니며 밤을 보내는 이또에게 쉰명도 넘는 은닉된 자식이 있다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였다.

그들의 속마음을 읽은 이또가 능청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에, 나이들면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외상 자네는 평생에 가장 인상 남는 일이 뭔가?》

《저…》

무쯔가 회억에 잠기며 입을 열었다.

《어려서 숙방에 다닐적에 있은 일인데요.…》

볼이 홀쭉하게 여위고 낯색이 하얀 무쯔의 우묵한 눈확속의 눈이 열

기로 번뜩였다. 그는 파도소리가 간간이 울려오는 창문쪽에 눈길을 주며 말했다.

어린시절의 무쯔, 그때도 무쯔는 가늘고 여윈 소년이였다. 그는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흑판앞에서 젊은 숙장에게 울먹이며 항의하고 있었다.

《우리 일본이 정말 이렇게 죄꼬만 섬나라란 말입니까? 숙장님은 우리 나라가 대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일본!…》

숙장이 그의 가냘픈 어깨를 두드리며 타일렀다.

《무쯔, 나라의 위세는 령토의 크고작기에 관계없어. 보라, 저기 서양의 영국도 우리처럼 작은 섬나라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대국으로 되였거던. 바다를 지배하는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야.》

《아닙니다. 하늘만큼 큰 우리 일본이 저렇게 작을수 없습니다.》

분김에 숙방을 뛰쳐나간 무쯔는 파도사나운 바다가를 방황하였다.

흐린 하늘은 낮추 드리우고 세찬 해풍에 어린 무쯔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자락이 찢어질듯이 펄럭이였다. 자기가 태여난 일본이 그처럼 작은 섬나라란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무쯔는 팔소매로 눈굽을 훔치며 울었다.

무쯔는 회억에서 깨여나며 중얼거렸다.

《그때 분하던 생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잊을수 없을것입니다.》

감동깊이 고개를 끄덕거린 이또는 이번엔 이노우에에게 눈길을 던졌다.

이노우에는 감회로운 표정을 짓더니 얼굴의 상처자리를 쓸어만졌다.

《내가 양이론자 다시말해 서양을 배척하다가 영국에서 돌아온 후 친양주의자가 되자 양이론주의자들의 습격을 받아 얼굴이며 몸의 여섯군데를 칼에 찔렸네. 참으로 천행으로 살아났지. 허나 내가 말하자는 건 그게 아니고 서양렬강의 고무지지를 받아 〈운양〉 호사건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그것을 빌미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쇄국조선을 뚫고들어가 우리 국권을 확장할 기회를 마련한 일일세.》

《이노우에각하가 처결하신 그 일은 참으로 일석이조와 같은 묘기있고 지대한 성과를 거둔 처사였지요.》

어딘가 발라맞추는듯 한 무쯔의 말에 가뜩이나 자고자대하기를 좋아하는 이노우에는 잔뜩 기고만장해서 수염도 없는 턱을 쓸어만졌다.

《무쯔의 말이 옳네. 그 일로 하여 혼란된 우리 국내 정국을 수습할 수 있었고 완고한 조선을 굴복시켜 우리 일본의 숙원인 〈정한론〉(조선을 정복하자는 리론)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였지.》

이노우에의 이 말은 그자신은 물론 이또와 무쯔로 하여금 《어일신》이라고 불리운 살벌하고 격동적이던 명치유신의 그 나날에로 줄달음치게 하였다.

명치유신은 《존왕도막파》들이 일으킨 하나의 궁정정변이였는데 이것으로 하여 일본은 중세기적봉건제도로부터 근대적인 자본주의에로 이행하게 되였다.

당시 일본은 무신정권인 도꾸가와막부의 반인민적인 통치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파산몰락하게 된데다 유미자본주의렬강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으로 하여 반식민지상태에 떨어지게 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쵸수와 사쯔마를 비롯한 서남지방의 하층사무라이들은 공경귀족들과 야합하여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정복고를 단행하였다.

도막파는 1867년 12월 9일(양력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를 위한 군사정변(《천황》정권의 수립을 선포한 날.)을 일으켰다.

사쯔마의 사이고 다까모리가 지휘하는 여러번의 무장대에 의해 궁문들이 봉쇄된 가운데 14살짜리 철부지《천황》 무쯔히또를 끼고 《왕정복고》를 선포하는 의식이 거행되였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궁정쿠데타로서 도막파와 궁정간신들 사이에 꾸며진 권모술수의 모략극이였으며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한 사기협잡극에 지나지 않았다.

궁정쿠데타에 의해 막부의 《쇼궁》(장군)직제는 폐지되고 천황제 태정관정부가 새로 나왔으나 사회적변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정권이 사무라이들의 집합체인 도꾸가와막부로부터 쵸수와 사쯔마번의 사무라이들 및 그와 결탁한 봉건적공경귀족들의 손에 넘어갔을뿐이였다.

정권을 잃은 막부족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막부의 마지막쇼궁(장군)이던 도꾸가와 요시노브는 새로 출범한

태정관정부를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무진전쟁》이였다.

《무진전쟁》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막부의 잔여세력은 견디여내지 못하고 붕괴되고말았다. 그러나 《왕정복고》가 이룩되고 《무진전쟁》도 비교적 무난히 치른 후 태정관정부앞에 제기된 문제는 한둘이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관군》의 주력을 이루었던 쵸수와 사쯔마번의 농민대와 하층사무라이들의 처리문제, 전국에 널려있는 200만이 넘는 사무라이들의 처리문제, 번이라고 불리운 300개나 되는 지방령주들의 불평불만, 게다가 지조개정으로 생활이 더욱 령락된 농민들의 끊임없는 폭동, 이 모든 난관을 타개하고 새로 수립된 쵸수와 사쯔마의 번벌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불피코 그 어떤 충격적인 사변을 조작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하였다. 그리고 300년에 걸쳐 이룩된 유미식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자 해도 자본주의시초축성을 위한 원료원천지, 잉여상품판매지를 획득하여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정권을 가로챈 일본의 사무라이족속들은 처음부터 저희들과 거리가 제일 가까울뿐아니라 상대적으로 후진상태에 있는 조선을 정복한 후 그를 식민지로 하여 자체의 발전을 이룩할 야망을 품게 되였다.

말하자면 자국내의 모순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자체의 노력으로 근대적발전을 도모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략탈하여 제 배를 불리려는 강도적이고 호전적인 론리를 들고나왔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명높은 《정한론》인데 그 시기와 방법상문제에서 약간한 차이가 있을뿐 일본놈들치고 《정한론》을 부르짖지 않는자가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일본이 처한 주객관적조건에도 기인되였지만 보다는 살륙과 략탈을 즐기는 사무라이식으로 길들여진 일본인특유의 고질화된 악습에 인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찍부터 《존왕도막파》에 가담하여 막부타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또와 이노우에는 명치3걸로 불리우는 사이고 다까모리, 오오구보 도시미찌, 기도 다까요시의 안중에 들게 되여 일찌기 명치태정관정부의 참의라는 중책을 그리고 1885년에 내각제도가 나오면서 초대총리의 중임을 지니게 되였으며 이노우에는 원로원 간사를 걸쳐 외무대신의 요

직을 차지하게 되였다. 1892년 제2차 이또내각때에는 이노우에가 내무대신에, 무쯔가 외무대신직에 오르게 되였는데 나이도 젊고 공로도 별반 없을뿐만아니라 집안마저 한미한 그들이 어떻게 되여 그처럼 양양한 출세의 일로를 걷게 되였는가를 바로 리해하기 위해서는 쵸수와 사쯔마의 번벌정치에 대해 좀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막부타도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쯔마와 쵸수번의 사무라이 우두머리들은 1866년 나가사끼에서 련합을 위한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을 보면 쵸수번에서 기도 다까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이또 히로부미였고 사쯔마번에서는 사이고 다까모리와 오오구보 도시미찌였다. 비밀협정의 내용은 두개 번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막부를 타도한다는것과 거사가 성공하는 경우 《천황》을 끼고 권력을 나누어가진다는것이였다.

《정한론》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지만 특히 이 문제를 《명치유신》과 더불어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제기한자는 태정관정부의 거두인 쵸수번의 우두머리 기도 다까요시였다. 그는 《무진전쟁》중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인 1868~1869년경에 조선을 정복해야 일본이 살길이 열린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정한론》을 주장한 자는 사쯔마의 우두머리인 사이고 다까모리였다. 그는 1873년에 저들의 국서를 접수하지 않는 조선을 문죄하기 위해 자신을 파견해줄것을 간청하면서 그러면 조선이 자기를 죽일것이니 이것을 기화로 조선정복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의 주장은 각의를 걸쳐 《천황》의 비준까지 받게 되였다. 이를 저지시킨것이 무쯔 무네미쯔였다. 그는 사이고의 즉시《정한론》파들이 승리하면 보수적이고 무지막지한 사이고패들이 득세할것이 뻔하였기때문에 당시 미국을 유람하고있는 오오구보와 기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였다.

급히 일본으로 돌아온 그들은 내무우선을 떠들면서 사이고의 즉시 《정한론》을 반대해나섰다.

기도는 사무라이두목에 불과한 사이고에게 조선정복의 선손을 빼앗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이른바 《정한》론쟁에서 패한 사이고일파는 정부에서 차지하고있던

직책들을 차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정부의 빈 자리를 이또와 같은 젊은패들이 차지하게 되였던것이다.

파벌의식으로 조선정복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긴 했어도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모두 한 거푸집에 부어만든 물건마냥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즉시《정한》을 떠들던 사이고패당들이 정부에서 뛰쳐나갔지만 정부의 위기는 의연 엄중하였다.

조선정복에서 위기의 출로를 찾아야 한다는 론의는 정부의 안팎을 둘러싸고 계속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운양〉호사건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시기에 도발한 사건이였지.》

이노우에가 이렇게 문제를 본론에로 이끌고 가자 이또총리와 무쯔외상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정한〉의 구실을 어떻게 마련할가 하고 고심하고있는데 해군대신이 나와 성이 같은 이노우에 요시까란 젊은 해군소좌를 소개해주더란 말이요. 내 방에 찾아온걸 보니 사쯔마출신인데 표독스럽고 날파람있게 생긴게 마음에 들더군.

〈소좌, 당신은 해군상한테서 명령을 받았소?〉

〈예, 조선해안일대를 측량하라는…〉

〈음… 하지만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소. 당신도 사쯔마출신이라기에 내놓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태정관정부를 사쯔마번과 쵸수번의 번벌정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소. 정부는 정말 사면초가요. 단가마에 든 개미신세란 말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 흰 해군장교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손에 지휘도를 든 요시까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우더란 말이요. 나는 대번에 그가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소.

〈당신에게 긴말이 필요없으리라 보오. 당신은 이번에《정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겠소. 쇄국조선의 문을 당신이 깨뜨려야 하겠단 말이요. 도발을 거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담판으로든 전쟁으로든 조선을 굴복시키겠소.〉

〈각하,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의 얼굴에는 거의 살기에 가까운 표정이 어리더군. 그는 나의 기대에 보답했소.》

그때를 회억하는 이노우에의 낯에는 자랑기와 오만기가 흐르고있었다.

2

조선의 서해는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왔다.

9월에 잡힌 초가을이라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는 해별에 잔물결이 거울쪼각처럼 반짝거렸다.

한없는 안정과 고요가 깃든 수평선 저 멀리에 문득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검은 연기를 뿜으며 점점 선체가 커졌다. 두개의 커다란 돛폭이 펄럭이고 마스트에서 피딱지같은 히노마루가 가는 바람결에 퍼덕이군 하였다.

배머리에 씌여진 《운양》호란 글발이 선명하게 드러나보였다. 여러차례 우리 나라 연해를 정찰한 《운양》호는 1875년 초가을에 월미도 앞바다에 기여들었다.

조타실에서 함장 이노우에 요시까가 외알배기망원경을 들고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망원경의 렌즈에 드디여 보라색의 뭍이 나타나보였다.

요시까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곁에 서있는 부함장에게 물었다.

《저기가 강화도인가?》

《그렇습니다.》

요시까의 입에서 오랜 항행끝에 드디여 목적지에 이른 사람들이 항용 그렇듯이 안도의 숨이 슴새여나왔다.

《전속으로 전진시키라!》

부함장이 요시까의 말을 마이크에 대고 받아외웠다.

《전속으로 전진!》

드디여 강화도해안의 조선포대들이며 그우에서 오락가락하는 수비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팔을 마구 휘젓는것으로 보아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신호하는것 같았다.

요시까도 해도연구를 통해 여기가 조선의 수도 한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염하이기에 조선의 수비병들이 그런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쓰거운 웃음을 삐주름히 띠운 요시까는 부함장에게 또 물었다.

《저 포대의 이름이 뭔가?》

《강화도의 제1포대인 초지진입니다.》

《그렇다… 침로직선, 전속으로 전진!》

《옛.》 기운차게 대답한 부함장도 이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침로직선, 전속으로 전진.》

초지진포대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이르자 요시까는 함을 정지시켰다.

함이 정지하는 순간 요시까는 약간한 멀미를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뜨며 미리 외워둔 말을 내리엮듯 거침없이 지시했다.

《단정을 내리라. 그리고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로 포대에 접근하라. 나도 승선하겠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없는 군인이 있는가? 집행하라!》

《하!》

부함장이 뛰여가자 요시까도 천천히 그의 뒤를 따랐다. 단정이 내리워지고 스무명가까운 해병들이 노를 잡고 앉은 다음에야 요시까는 단정의 고물에 자리를 잡았다.

단정이 초지진포대에 접근하자 물녘으로 달려내려온 조선수비병들이 팔을 세차게 휘저으며 소리치는것이였다.

《조선놈들이 뭐라고 하는가?》

요시까가 곁에 앉은 통역에게 물었다.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통역의 얼굴에는 위구심이 잔뜩 어려있었다.

《음료수를 요구한다고 하라.》

포대에서 웨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난 통역이 또 요시까에게 다급히 말했다.

《더 접근하면 포를 쏘겠답니다. 저…》

《상관없다. 계속 접근하라!》

드디여 조선포대에서 흰 연기들이 물씬물씬 피여오르더니 《쿵!》, 《쿵!》 하는 포소리가 울리고 뒤미처 단정의 주변에서 물기둥들이 솟구쳤다.

해병들이 사색이 되여 요시까를 쳐다보았다.

《요시!(좋다!) 배머리를 돌리라!》

줄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오르는 요시까를 부함장이 부축하며 물었다.

《무사했습니까?》

요시까는 부함장의 말에는 대꾸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조타실로 들어갔다. 부함장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요시까는 뒤따라 조타실로 들어온 부함장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해도를 보자.》

《어쩌자는겁니까?》

의아쩍게 묻는 부함장에게 요시까는 씹어뱉듯이 뇌까렸다.

《우리가 해군성에서 받은 명령은 무력위협을 가하라는것인데 고마(조선)놈들이 먼저 발사를 했으니 이제는 실전으로 이행하자는 나의 결심이다.》

부함장이 해도를 펼쳐놓으며 어정쩡하게 대척했다.

《거야 우리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가! 비상을 걸라!》

요시까의 낯에 떠오른 살기를 본 부함장은 덴겁하여 허리를 꼿꼿이 폈다.

《하!》

부함장은 이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전체 들으라. 비상!》

비상소집을 알리는 종소리와 호각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해병들이며 륙전대원들이 뛰여다니는 구두발소리가 어지럽게 울리는 속에 요시까가 해도에 표시되여있는 정산도와 영종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뇌까렸다.

《처음엔 여기 그리고 다음엔 또 여기…》

그러자 부함장이 송구스러운 기색으로 아뢰였다.

《여기 정산도는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평화적인 주민지대입니다.》

《상관없다. 고마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야지.》

초지진포대에서 저으기 혼쌀이 난 요시까는 보복심에 불타 정산도를 향해 《운양》호를 몰아갔다. 정산도해안가까이에 정박한 《운양》

호는 륙전대원들을 실은 단정들을 바다에 내려놓았다.

섬기슭에 닿은 단정들에서는 혈기와 살기에 넘친 륙전대원들이 물에 뛰여내려 초가지붕들이 오구구 모여앉은 마을을 향해 총창을 꼬나들고 달려갔다. 그들을 본 마을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갈팡질팡 어쩔바를 몰라했다.

일본야수들은 적수공권의 조선사람들을 총을 쏘고 총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리찍으며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놈들은 초가마가리들에 불을 싸질러댔다. 이렇게 정산도에서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른 왜놈들은 8월 23일에는 방어시설이 비교적 약하고 6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영종도의 동쪽 영종진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요시까는 초지진포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영종진의 수비병들 역시 긴장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운양》호를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은 전날에 왜놈들의 군함이 정산도에 달려들어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는것을 알고 치를 떨고있었으며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었다.

조타실에서 요시까는 망원경을 통해 영종진의 포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구식소구경포 30여문이 시야에 안겨왔다. 피탄면적을 적게 하려면 정면으로 진입해야 했다.

그는 망원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명령했다.

《키 우로! 침로 30, 전속으로 전진!》

전속으로 달려오는 적선을 날카롭게 주시하던 초관(중대장급) 엄형국이 기총(소대장급) 김만수에게 소리쳤다.

《기총, 더 다가오면 발사하겠다고 신호하라!》

바다가로 달려내려간 기총 김만수는 팔을 휘저으며 더 다가오지 말라고 부르짖었으나 《운양》호는 막무가내로 다가오기만 했다.

엄초관의 얼굴에는 단호한 기상이 어렸다.

《불청객은 쫓아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는 포대의 수비병들을 둘러보며 령을 내렸다.

《장탄!》

수비병들이 일제히 복창했다.

《알겠소이다. 장탄!》

《쏘앗!》

《쏘앗!》

발사되는 포탄들, 《운양》호의 주변에서 솟구치는 물기둥들…

함장 요시까가 조타실에서 다급히 소리쳤다.

《정지!》

함선이 흠칫 멎어섰다.

《전속으로 후진!》

함선은 다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운양》호의 주위에서는 여전히 물기둥이 솟구치고있다.

함장 요시까가 긴장한 시선으로 부함장에게 물었다.

《몇메터인가?》

《600메터입니다.》

《계속 후진하라!》

영종진포대에서 뒤꽁무니를 빼는 《운양》호를 보고 김기총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초관님, 적선이 달아납니다요!》

엄초관도 흐뭇한 기색이다.

《보고있다.》

《그런데 뒤걸음질을 합니다요.》

《겁이 나면 그런 법이지.》

이때 《운양》호의 조타실에서 함장 요시까는 계속 수면을 살펴보고 있었다. 물기둥은 저 멀리 앞에서 솟구칠뿐이다.

《몇메터인가?》

요시까가 묻는 소리에 부함장이 계기판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750메터입니다.》

요시까는 회심의 미소를 띠우고 부함장에게 명령했다.

《정지시키라… 그래 조선포의 사거리가 고작 700메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허참, 이런 구식포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다니. 흥…》

이렇게 씨벌인 요시까는 자신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명령했다.

《전체 함재포들 들으라. 목표 조선포대, 거리 750, 장갑탄으로 발사! 발사! 발사!》

《쓩—》,《쓩—》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에 뒤이어 영종진포대는

《쾅!》, 《쾅!》 포탄이 터지는 굉음으로 귀가 먹먹해지고 휘뿌려지는 흙과 돌, 포연으로 사위가 자욱했다.

영종진수병들은 기급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속에서도 엄초관은 목갈린 소리로 웨쳐댔다.

《빨리 쏘라!》

포탄을 재우고 발사하는 수병들, 불을 뿜는 포신들, 그런데 포탄은 《운양》호에 미치지 못하고 앞에서 물기둥을 일으킬뿐이였다.

김기총이 울상이 되여 소리쳤다.

《초관님, 우리 포탄이 적선에 미치지 못합니다.》

《뭣이?》

《저걸 보십시오!》

엄초관은 성급히 곁의 포로 뛰여가더니 수비병을 밀어치우고 자신이 직접 장탄하고 발사했다.

그러나 역시 포탄은 적선에 미치지 못하고 물기둥만 솟구쳤다. 너무도 안타까와 엄초관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으로 포신을 내려쳤다.

주변에서는 연방 터지는 적의 포탄으로 우리 포들이 뒤집히고 수비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엄초관은 갑자기 발밑에서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몸이 허궁 날리는감을 느끼였다. 땅에 떨어져 딩굴던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한쪽다리의 무릎아래가 뭉청 떨어져나가지 않았는가!

너풀거리는 바지가랭이를 움켜쥔 그의 두손에 피가 즐벅이 흘렀다.

《운양》호 조타실에서는 함장 요시까와 부함장이 망원경으로 포연이 자욱한 영종진포대를 살펴보고있었다.

드디여 부함장이 망원경을 눈에서 떼며 말했다.

《완전파괴입니다.》

요시까는 눈에서 망원경을 내리우며 흡족해서 뇌까렸다.

《좋아!》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귀항하기엔 이르다. 고마놈들에게 좀더 맛을 보여줘야 해.》

섬에 상륙한 륙전대원들은 포격으로 파괴된 성안으로 쓸어들어가 6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학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마구 략탈하였으며 영종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나가사끼로 돌아온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 요시까를 이노우에 가오루가 선참으로 맞아주었다.

이노우에가 도꾜에서 수천리 떨어진 나가사끼에까지 내려와 자기를 맞아주는데 감격한 요시까는 자신의 전과를 과장하여 보고하였다.

《음료수를 요구했는데 조선포대에서 먼저 발포했단 말이지?》

요시까의 보고를 신중히 듣고난 이노우에가 턱을 쓸어만지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의원각하.》

《함선에 사실 물이 떨어졌소?》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보충받지 않고 나가사끼에 돌아왔습니다.》

《장하오. 소좌, 당신의 공로는 높이 평가될것이요.》

이노우에는 만면에 희색을 띠우고 요시까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이노우에의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져 해군소좌 이노우에 요시까는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공로로 양양한 출세의 길을 걷게 되였다.

그길로 도꾜로 돌아온 이노우에는 태정관정부에 《운양》호 도발사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 사건을 《정한론》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리용할것을 력설하였다.

이리하여 《천황》의 태정관정부는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조선봉건정부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압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운양》호사건을 두고 누구보다 기뻐한것이 태정관정부의 참의인 이또 히로부미와 중추원 간사인 무쯔 무네미쯔였다.

이또는 이번 《운양》호의 승리는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실증한 동시에 일본국민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조선정복의 앙양된 기분을 고취하였다고 하였고 무쯔는 지금 당장 또다시 무력행사로 넘어간다면 시끄러운 국제문제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이또는 렬국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조선정부와의 국교교섭을 조속히 결말짓기 위해 외무대신이 《운양》호사건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 통보했는데 그들은 저들이 하지 못한 조선의 개방을 일본이 선코에서 해결할것을 바라고있으니 이제는 유미렬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대조선정책을 내밀수 있게 되였다고 흐뭇해하였다. 이때 이또 히로부미는 35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정부내에서 발언권이 높았다.

태정관정부는 《천황》의 결재를 받아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실제적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천황》 무쯔히또는 우선 조선의 부산 왜관에 둥지를 틀고있는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에 군함을 파견할것과 《운양》호에 포격을 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권대표》를 조선에 파견하여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체결할것을 명령하였다.

놈들은 제놈들의 강도적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할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까지 다그쳤다.

태정관정부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쯔마군벌출신인 참의 륙군중장 구로다 기요다까를 특명전권판리대신으로, 쵸수번출신 원로원 의원 이노우에 가오루를 부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선에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조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노우에는 미국의 지지와 고무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주재 미국공사 빙캄을 방문하였다.

공사의 조언을 받으러 왔다는 이노우에의 말을 들은 빙캄은 미국이 못한 조선의 문호개방을 일본이 성사시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터일러의 저서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를 이노우에에게 주었다. 그는 미국의 페리제독이 포함으로 일본의 막부정부를 굴복시킨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다.

미국의 지지와 고무에 힘을 얻은 일본은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싣고 조선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을 떠나기로 하였다.

《운양》호사건을 추궁하는 사절로는 구로다전권과 이노우에 부전권의 수원으로 30명이 동행하게 되였는데 그중에는 11명의 륙군장교도 포함되여있었다. 그런데 특이한것은 이 수행장교들속에 23살난 애숭이포병대위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끼워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된것은 무쯔가 한고향내기이며 심복인 그를 장차 《정한론》 실현의 돌격대로 키우기 위해 이노우에에게 부탁하였기때문이였다.

이노우에는 넌장자연하며 오까모도를 격려하였다.

《오까모도군, 이번 걸음에 일본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하네.》

오까모도는 차렷자세를 취하며 힘있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각하의 지시를 전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아직 이발도 채 나지 않은 어린 맹수인 오까모도는 무쯔와 이노우에의 손탁에서 자라게 되였고 또 이때부터 그는 두 상전의 심복으로 활동하게 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나던 날, 그의 늙은 어머니는 문밖까지 그를 바래주면서 《몽따야, 부디 천황폐하를 위해 큰공을 세우고 돌아오너라.》 하고 손저어주었다. …

《내 어릴적 이름이 몽따였소.》

이노우에가 감회에 잠겨 이렇게 말하자 이또총리가 얼굴에 해학적인 웃음을 띠우고 그의 말을 얼른 가로챘다.

《나는 어려서 도시스께라고 했지.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망나니 도시스께〉라고 했네.》

이또가 이런 말을 한것은 그 무슨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억하자는데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운양》호사건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이노우에의 말을 꺾자는 의도에서 한 소리였다.

그것을 알아차린 무쯔는 해쓱한 낯에 묘한 웃음을 띠웠다. 언제나 자기 과신에 차있는 이노우에는 기회만 마련되면 자고자대, 자화자찬이 일쑤여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군 하였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 《자랑 자랑 이노우에》란 별명 비슷한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그 망나니 도시스께가 오늘은 만인지상일인지하(만사람의 우, 한사람의 아래.)인 제국의 내각총리가 됐단 말이요. 허허… 이런걸 보고 운명의 희롱이라 하는가.》

이또가 웃으며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정이나 어조에서는 그 어떤 자랑기같은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윽고 때이르게 이마가 벗어진 이또가 정색한 표정으로 이노우에와 무쯔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다.

《이제는 조선에서 민란이 터진지도 여러날이 지났는데 그래, 제군들은 어떻게 하고있소?》

이또의 가시눈길을 받은 무쯔는 고개를 떨구었고 이노우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야 이또가 자기들을 여기 《춘화관》으로 끌고온 목적이 무엇이였는가를 비로소 깨달을수 있었다.

《이번 전라도 고부민란도 〈운양〉호사건처럼 조선정복의 절호의 기회로 될수 있는데 그래, 조선통으로 불리우는 이노우에, 당신은 이젠 내상이라고 팔짱을 끼고있을테요?》

이또의 말에 여기가 질리운 이노우에가 급급히 변명했다.

《아, 그럴리가 있겠소. 단지 외상이 번연히 알아서 조처할 일을 내가 중뿔나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오.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며 따라서 조선정복은 우리 일본의 국시인데 네일내일 가릴 형편이 아니요.》

《알겠소.》

이노우에는 량해를 미리 구하려는셈인지 무쯔를 건너다보고나서 이또에게 말했다.

《우선…》

이또가 이노우에와 무쯔를 갈마보며 또 입을 열었다.

《먼저번에도 이야기되였지만 도야마 미쯔루의 〈현양사〉를 빨리 조선문제에 개입시켜야 하겠소.》

《알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우에와 무쯔는 동시에 대답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들을 바라보며 이또는 이제 야심군들인 무쯔와 이노우에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누가 성과를 거두든 그것은 제국내각의 실적으로 될것이며 나아가서 내각의 수반인 자기 이또 히로부미의 공적으로 될것이였다. 목하 일본에 있어서 급선무는 조선의 독점적 지배였으니 누가 이 일에 외면한단 말인가.

이또는 다시금 낯색을 온후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자, 이제는 좀 즐겨야지.》

이또가 손바닥을 두드리자 기다린듯이 미닫이가 열리며 오까미가 뚱뚱한 몸을 비집고 들어왔다.

방안에 진한 향내와 분내가 풍겼다.

《오까미상, 이제는 〈취와미인슬〉.》

이또가 이렇게 말하자 오까미가 제꺽 그의 말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각하, 미인의 무릎을 베고 눕겠단 말씀이지요. 참 총리각하께선 인생을 사실줄 아는분이십니다.》

《허허, 자네가 뭘 안다구.…》

이또가 너털웃음을 웃는데 오까미가 밖에 대고 소리쳤다.

《애들아, 오나쯔, 오아끼, 오센, 어서!》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짓군 하는 그런 직업적웃음을 띠운 세 게이샤가 아기작거리며 들어와 일본식절을 하였다.

호색한다운 웃음을 띠우고 그들을 음미하듯 바라보던 이또가 그들을 분배하였다.

《음, 오나쯔. 넌 내곁에 와. 그리고 너희들은 내상과 외상의 곁에.》

세 게이샤들은 교태와 애교를 부리며 술상에 다가앉았다.

오까미가 나가자 뒤이어 일본의 고대악기인 샤미셍을 든 게이샤가 또 방에 들어왔다. 모두절을 하는 그에게 이노우에가 놀라서 물었다.

《오하쯔가 아닌가? 네가 어떻게 여길…》

그런데 이노우에를 대하는 오하쯔의 태도는 극히 랭랭하고 실무적이였다.

《각하, 게이샤의 신세 부평초랍니다.》

《아주 시적인걸, 한데 내상은 어떻게 저 녀자를 아는가?》

이또는 의아쩍은 눈길로 이노우에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정계에서나 항간에서 이노우에가 자기 부인 다께꼬외에는 그 어떤 녀자도 넘보지 않는 애처가로 소문나있었기때문이였다.

《내가 외상을 하던 때 조선의 갑신망명객인 김옥균이와 박영효에게 저 오하쯔를 붙여놓았댔소.》

《오, 그러니 미인계를…》

이또는 리해가 된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두 녀석을 다 뼈없는 해삼처럼 녹이라고 했는데 김옥균이는 끝내…》

이또는 음탕한 눈길로 예쁘장하게 생긴 오하쯔를 건너다보며 빈정거렸다.

《왜, 네 재간이 모자라더냐? 흐흐…》

오하쯔는 새침해져 샤미셍만 만지작거렸다.

희고 갸름한 얼굴에 유난히 크고 검은 눈이며 쏙빠진 해사한 목 그리고 봉긋한 젖가슴으로 하여 언제나 사내들의 눈길을 끄는 육감적인 오하쯔는 교또에서의 며칠밤을 쓰겁게 되새기고있었다.

김옥균이와 박영효를 일본사람으로 만들어버리라는 이노우에외무대신의 지시를 받고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녀자에 굶주려있던 박영효는 제 먼저 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이불속으로 들어가더니 자기의 손목을 잡아 이불안으로 끌어들이는것이였다.

그런데 김옥균이는… 사실말이지 김옥균을 처음 대했을 때 오하쯔는 그 누구의 지시에 앞서 그의 름름한 체구며 백옥같이 흰 얼굴, 한마디로 말해 미남중의 미남이라 할수 있는 그 남성미에 홀딱 반해버리고말았다. 그때 김옥균은 찰찰 감겨드는 자기를 떼여놓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자기한테로 왔는가고 랭정하게 묻는것이였다.

《그건 알아 뭘해요? 나하고 놀면 되는거지.》 하며 오하쯔는 다시 김옥균의 목을 그러안으며 그에게 매달렸다.

《녀자없이 몇년간이나 얼마나 적적하실가.》

그러자 김옥균은 다시 오하쯔의 팔을 풀어놓으며 쏘아붙이였다.

《당신을 여기로 보낸 사람에게 이르시오. 이 김옥균이는 이런 시시한 수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요.》

김옥균이가 쾅 소리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린 후 빈방에 홀로 남은 오하쯔는 잠시 정신이 혼미하여 발에 뿌리라도 내린듯 서있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 사내가 없다고 자부하고 장담하던 그로서는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그때까지도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있는 김옥균에 대한 미련과 련모의 심정을 참을수 없어 침대에 쓰러져 울었었다.

이때 이또총리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노우에에게 지금 김옥균이란 자가 어데서 살고있는가고 물었다. 태평양상의 오가사하라섬과 흑가이도의 삿뽀로에서 류배살이를 시키다가 몇해전부터 도쬬에서 살도록 허락해주었다는 이노우에의 말을 들은 이또는 혼자소리처럼 뇌였다.

《우리 일본에 망명한지 꼭 십년간이니 십년씩이나 일본물을 먹었다면 일본사람이 될만도 한데…》

그러자 이노우에가 대뜸 머리로 곤대짓을 했다.

《김옥균이는 일본 우물의 물을 먹으면서도 그 우물에 침을 뱉는 놈이요.》

《그 자식을 조선정부에 미끼로 던져주면 되겠구만.》

무쯔가 그들의 대화에 끼여들었다.

《아까운 사람인데…》 하고 중얼거린 무쯔는 이또와 이노우에를 바라보며 간청하였다.

《그에 대한 리용여부를 한번 더 시도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장차 박영효와 함께 김옥균을 조선에 들여보내 친일정부를 구성하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 이상 더 리상적인 일이 없을것입니다.》

이또가 감동어린 눈빛으로 무쯔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언제 보나 무쯔 자넨 참 용의주도하단 말이야.》

이때 이또에게 기대앉아있던 호리호리한 오나쯔가 짐짓 앵돌아진 소리를 하며 눈을 빨았다.

《아유, 놀 재미도 없다. 계속 한다는 말씀들은…》

이또가 징글맞게 웃으며 오나쯔를 품에 꼭 그러안더니 잔등을 쓸어주며 씨벌였다.

《오, 내 귀염둥이…》

4

조상궁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와룡초대에 불을 켜놓았다. 민비는 그때에야 저물녘이 되여 방안이 이미 어두워졌다는것을 깨달았으나 그런것에 별로 주의를 돌리고싶지 않았다.

별안간 돌풍이 불면서 창문이 벌컥 열리고 휩쓸어들어온 찬바람에 초불들이 꺼졌다.

《음.》

고종도 상서롭지 못한 조짐을 느꼈는지 마뜩잖은 기침소리를 냈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수라를 들고 일찍 침수하라고 권유한 고종이 방에서 나간지 이슥하도록 민비는 한본새로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졸지에 돌풍이 불고 창문이 벌컥 열리며 초불이 꺼져버린 현상은 불현듯 18년전의 그날 저녁에 있은 일을 련상케 하였다.

그날 저녁도 어쩐지 마음이 뒤숭숭하여 방안에 앉아있는데 불시에 돌풍이 불고 창문이 부서질듯이 열리더니 방금 켜놓은 초불이 꺼져버리는것이였다. 그런데 도승지가 황급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와 부복하여 아뢰였다.

일본이 금(1876)년 정월 열닷새날에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병력을 싣고 부산에 기여들었는데 그들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우리 나라의 남해와 서해안일대를 제멋대로 싸다니며 무력시위를 감행하고있다는것이였다.

26살의 젊은 민비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친정을 선포한 임금 고종을 도와 자기가 정사를 맡은지 2년이 되였으나 그사이 이런 큰 일은 제기되지 않았었다.

분명 일본이 함대를 끌고왔을적에야 지난날 프랑스나 미국이 강화도를 침범했던 때처럼 우리와 전쟁을 하자는 심산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대답을 기다려 늙은 도승지는 부복한채로 잠자코 있었다.

《상감마마께 말씀드려 시원임(현직 및 전직)대신 회의를 열고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세요.》

《알아모셨소옵니다.》

도승지가 물러간 다음에도 민비는 거울앞에 그대로 앉아 자기자신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잘 믿지 않는 민비는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속심을 서뿔리 드러내지 않았으며 늘 자기자신과만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경대앞에는 진주분이며 연지며 향수를 비롯한 화장도구가 즐비하게 놓였는데 거개가 물건너온 외국제품들이였다.

진주분을 꿀에 개여 바른 민비의 얼굴은 하얗다못해 좀 창백해보였는데 그래도 세자 척을 낳은 이후로 아기를 낳은 젊은 녀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민비도 뽀얗게 살이 오르고 피부도 윤택스러워 여간 아름답지 않았다.

수심에 잠긴 민비는 손바닥으로 볼을 쓸어만졌다. 부드럽고도 매끈매끈한 감각이 가늘고 긴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다. 자기는 이렇게 젊었건만 가슴속에는 걱정이 자심한 할망구가 들어앉아있지 않는가.

어느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고 발편잠을 잘수 없는데 또 일본군함이 7척이나 한양의 관문인 강화도로 몰려온다니 이제는 또 외환으로 부대끼여야 하지 않겠는가.

민비는 거울속의 자기 얼굴을 마주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자기 앞에 어떤 험산준령이 가로놓이고 세찬 폭우가 휘몰아쳐와도 그것을 맞받아 꿋꿋이 헤쳐나가고야말겠다는 야심만만하고 배심든든한 각오가 전신을 휩싸는것이였다.

창덕궁 중희당에서는 시원임대신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처음부터 왜적과의 싸움을 주장하는 세력과 화의를 주장하는 세력과의 치렬한 론쟁속에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실권을 쥐고있던 사대투항주의적인 민씨일파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여 일본침략자들과의 담판을 가지기로 락착되였다.

판중추부사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도총부부총관 윤자승을 전권부관으로 각각 임명하여 강화도의 련무당에서 담판을 가지도록 하였다.

조일담판이 벌어지고있는 강화도의 연안에는 검은 연기를 꾸역꾸역 뿜어올리는 일본군함들이 정박해있었다.

예비담판탁을 사이에 두고 조선측과 일본측 관리들이 량켠으로 갈라앉아있었다.

일본측 전권대표인 구로다는 검은 군복차림에 무릎사이에는 칼집을 세워잡고 건방진 자세와 눈길로 사모관대를 하고 앉은 조선대표들을 노려보고있었으며 발언은 까만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이노우에 부전권이 주로 도맡아하였다.

《우리 〈운양〉 호는 돛대에 국기를 게양하여 일본함선이라는것을 뚜렷이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의 포대들에서 무엇때문에 발포하였는지 그 해답부터 듣고싶습니다.》

얼굴에 난 칼자리로 하여 험상궂게 보이는 이노우에는 담판탁우에 몸을 숙이고 따지고들었다.

신헌은 눈을 뚝 부릅뜨고 놈들을 쏘아보았다.

《강화도의 염하는 우리 도읍의 관문이거늘 무엇때문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불법침입하였소?》

《〈운양〉 호는 당신측에 음료수를 요구하였소. 그런데도 귀측은

발포로 대답했단 말이요. 이런 비인도주의적인 처사가 어데 있소.》

《흥, 그건 새빨간 구실이요.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그 〈운양〉호는 우리 연안 어디에서도 물을 보장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소.》

신헌을 노려보던 이노우에가 위협하듯 두주먹으로 담판탁을 꾹 누르며 뇌까렸다.

《우리는 긴말하지 않겠소. 일본정부는 우리 함선 〈운양〉호에 발포한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선정부에 공식사과할것을 요구하오.》

신헌은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이노우에를 노려보기만 하였다. 이윽고 그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놈들을 단죄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우리 군사들은 불법침입한데 대해 물러가라고 위협사격을 했지만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강화도와 정산도, 영종도를 폐허로 만들고 많은 인명을 죽이고 전리품을 강탈해가지 않았는가. 손해배상금은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조정에 공식사과하고 물어야 하오.》

말씨름으로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것을 절감한 이노우에는 야멸찬 웃음을 띠우며 문가에 서있는 오까모도 류노스께에게 눈짓했다. 그의 뜻을 알아차린 오까모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가 사라진지 얼마 안되여 돌연히 요란한 포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쾅!— 콰쾅!— 쾅쾅!—》

그 소리에 와뜰 놀란 조선대표들은 사색이 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이노우에가 히죽이 웃으며 씨벌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오늘이 바로 우리 일본의 기원절이기때문에 함선들에서 쏘는 축포입니다. 아울러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우호적담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포이기도 합니다.》

성이 난 신헌은 채머리를 떨며 펄펄 뛰였다.

《어허, 이건 축포가 아니라 위협이요! 위협!》

바다에 정박한 7척의 일본군함들에서 쏘아대는 대포의 포성과 자욱한 포연으로 하여 마치도 전쟁마당을 방불케 하였다.

포성이 울리는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인 조선대표들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어렸다.

포함외교, 무력적위협으로 담판을 성사시키라고 조언을 준 미국공사

빙캄에게 속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이노우에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징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그래 실력을 겨루어볼 용의가 있습니까?》

신헌의 낯색이 심각해졌다.

그의 기색을 놓치지 않고 이노우에가 회유책을 썼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우리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열흘내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오! 이것이 통상조약의 내용을 밝힌 초안입니다.》

이노우에는 조약초안을 신헌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신헌은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 예비담판결과에 대해 말하였다.

옥좌에 앉은 고종도, 발뒤의 민비도, 중신들도 모두 신중한 기색으로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일본측의 태도는 아주 강경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상조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륙군대신 야마가다는 직접 히로시마와 구마모도 진대에 있는 군대를 시모노세끼에 집결시켜놓고 출동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하옵니다.》

모두 무거운 기색이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고종은 골살을 찌프리며 희고 긴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민비는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었다.

고종이 례조판서에게 물었다.

《례판, 일본이 요구하는 조약이란 어떤것이냐?》

례조판서가 조약문을 펼쳐들었다.

《일본이 제기한 〈조일수호조규〉는 12가지 항목으로 되였사온데 제1조의 서론에는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했사오며 제2조에는 〈일본정부는 15개월후에 사신을 보낸다〉라고 했사오며 제4조와 5조에는 〈부산항 외에 두개 항을 일본상인들에게 개항한다〉고 했사오며 그리고 10조에는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을 적용할것이다〉고 했사옵니다.》

고종이 분개하여 머리를 떨었다.

《흥, 우리만의 의무를 지워놓았군. 횡포하기란… 어디 대답들 해보오. 경들의 생각엔 일본의 이 횡포한 요구에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는지?…》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묵묵대답이다.

《…》

고종이 기다리다못해 버럭 화를 냈다.

《입들이 얼어붙었느냐?》

고종의 험청난 소리에 중신들이 흠칫 놀라는 속에 김병학이가 한발 앞으로 나섰다.

《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포악무도한 일본과는 국교를 맺을수 없다고 보나이다.》

대원군파로 지목되고있는 그는 정정당당했고 말도 사리정연하였다.

그러자 좌의정 리최응이가 그를 아니꼬운 눈초리로 흘겨보았다.

대원군의 친형인 그는 평소에 자기를 무시한 대원군 리하응에게 반기를 들고 민비의 편에 제꺽 가붙은 사람이였다. 하기에 반대원군파들이 거개가 그렇듯이 그도 그 무슨 정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방향에서 자기의 지론을 펼칠뿐이였다.

그는 턱을 잔뜩 추켜들고 김병학에게 대들었다.

《대감, 국교를 거절한다는것은 결국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요? 그래, 화륜선과 신식대포, 신식조총을 가지고있는 일본을 당해낼상싶으시오? 어험!》

김병학이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 대감은 우리가 왜놈의 종이 되자는거요? 어험!》

문무대신들이 웅성거리고 발안에 그린듯이 앉아있는 민비는 쪼프린 눈으로 그들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우의정 박규수가 고종에게 경건하게 읍을 하고나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나라의 문명개화를 지향하고있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모두 교역과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고있으며 자강진취의 길을 택하고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통상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나라만이 통상하지 않고있습니다. 대세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언제까지 문을 닫아매고있기는 어려운줄로 압니다. 하오나 내부조건을 갖춘 조건에서 주도적인 개방을 하여야 할것이옵니다.

그렇지 않고 서뿔리 개방하면 도리여 우리가 저들에게 침탈당할 우려가 있소옵니다.》

《음.》

고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규수의 말을 긍정했다.

《례판, 대국의 의향은 어떤가?》

례조판서는 고종에게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예, 청나라는 남방인 안남지역에서 불란서(프랑스)와 분쟁이 일어나고 북방으로부터는 아라사(로씨야)의 압력이 강화되여 그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등 외환이 번거로와 우리 나라 문제에까지 개입하여 일본과 충돌하고싶지 않다는 자세입니다.》

《음.》

고종은 다시 가늘고 흰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김병학이 또다시 강경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 일본과의 수교는 절대로 불가하옵니다. 사대교린은 태조창업이래 우리의 불변한 대외방략이옵니다. 대국인 중원(중국)은 섬기고 섬나라 일본과는 부산왜관을 통해 교역을 하였사옵니다. 이제 저 일본의 요구대로 부산 외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면 차당입실이라고 마루를 빌려주면 안방에까지 들어오려고 할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옵소서.》

고종은 눈을 감으며 괴롭게 내뱉았다.

《물러들 가오.》

일본과의 조약체결문제, 다시말해 500여년간 굳게 닫아매였던 나라의 문을 열고 왜인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일로 국왕 고종은 물론 문무대관들모두가 고심하였지만 누구누구해도 제일 마음을 썩인것은 민비, 그 녀인이였다.

중신들은 책임을 회피하여 임금의 얼굴만 쳐다볼것인데 임금 고종은 또 안해인 민비 자기에게 의뢰할것이기때문이였다.

창덕궁 서온돌의 자기 편전에서 안석에 기대여 보료우에 앉은 민비는 깊은 상념속에 잠겨있었다.

거울앞에 앉아 자기자신과 말을 주고받았으나 어쩐셈인지 거울속의 민비는 석연한 태도가 아니였다.

조심스럽게 방안에 들어온 조상궁이 조용히 여쭈는 소리가 들렸다.

《마마, 초불을?》

《벌써?…》

방안이 어둑시그레했다. 그는 와룡초대들에 불을 켜고 밖으로 나가려는 조상궁을 불러세웠다.

《승지를 시켜 령상, 좌상 등을 불러들이도록 해라.》

《알아모셨소옵니다.》

이윽하여 민비의 심복들인 령의정 리유원, 좌의정 리최응 그리고 조녕하 등이 민비의 편전으로 찾아들어왔다.

민비는 령의정 리유원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그것은 리유원이가 청국에 다녀왔는데 차일피일 하다나니 아직까지 그를 만나보지 못했던것이다.

드디여 함문밖에서 령의정대감이 대령하였다고 아뢰는 소리가 났다.

《뭐, 령상대감이?… 어서, 어서 들라 해라.》

민비는 안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반색했다.

외형부터 간사하게 생긴 리유원이가 방에 들어서며 부복했다.

《신 령의정 중전마마께 문안드리오.》

《어서 일어나오.》

민비는 여전히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원로에 수고많으셨소.》

《감읍하옵니다.》

리유원은 머리를 들더니 아무말없이 덤덤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의 안색을 살피던 민비가 또 입을 열었다.

《그래, 일본과의 국교문제를 청나라에 품해보았소?》

고려를 멸망시키고 리왕조를 세운 야심가, 찬탈자인 태조 리성계의 대외정책은 《이소사대》, 즉 작은것이 큰것을 섬긴다는 사대주의였는데 력대 리조의 위정자들은 대국인 청국에 의거하여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민비도 례외가 아니였다. 하기에 그는 골치아픈 일본과의 국교문제를 청국에 의뢰하여 해결하려고 리유원이를 그곳으로 보냈던것이다.

동안이 뜨게 리유원의 대답소리가 울렸다.

《품했소이다.》

《그래, 누굴 만났소?》

《북양대신인 직예총독 리홍장을 만났소이다.》

민비는 끝내 짜증을 내고말았다.

《아유, 답답해라. 령상대감, 좀 시말사연을 시원하게 품달하구려, 대감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민비가 힐책하자 리유원이 다시 꿇어엎드리였다.

《중전마마, 시원한 대답 올리지 못하는 미거한 소신을 용서하옵시오.》

《예에?》

민비의 낯색이 굳어지는데 령의정 리유원의 비꼬는 소리가 울린다.

《리홍장은 일본과 불집을 일으키지 말고 하루속히 수호조약을 체결하라고 충고하였소옵니다.》

리유원이 한무릎 다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나라가 일본과 이웃으로 살면서 소식을 통한지 300년동안에 한번의 분쟁도 없이 천백번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3년사이에 까닭없이 사이가 벌어져서 지금은 문을 닫고 약조를 폐기한것이나 다름없이 되였습니다. 하기에 일본으로서는 문책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아니웨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였소이까. 다 저 대원위대감이…》

리유원은 일본이 침략무력을 끌고온것이 마치도 대원군의 쇄국정책때문인것처럼 떠벌이였다.

《옳은 말이외다.》

좌의정 리최응이도 리유원을 두둔해나섰고 조녕하 또한 잠자코 있지 않았다.

《중전마마, 우리가 나갈 길은 대원군의 시책을 뒤집는데 있소이다.》

그의 너무도 로골적인 말에 민비는 물론 리유원과 리최응이도 놀란 눈길로 조녕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였으니 새 집권자들은 대원군의 정책을 뒤집는것으로 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들은 서원을 복구하는것을 비롯하여 대원군이 실시한 봉건적《개혁》들을 모조리 뒤집어놓았다. 그러니 대원군의 대외정책인 쇄국정책인들 어찌 무사할수 있었겠는가.

대일굴종정책에서 자기들의 살길을 찾은 그들은 결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란 이름밑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력대의 사대투항주의자들이 다 그렇듯이 당시의 통치배들도 나라와 인민의 운명은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자기 일신과 일문의 부귀영화와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더러운 속물들이였다.

우선 정부의 수반인 령의정 리유원이만 보더라도 당시 서적인 《매천야록》에는 그의 별장이 양주의 가오곡에 있었는데 서울로부터 80리 떨어진 곳이였다고 한다. 당시사람들이 그가 왕래하는 80리길 좌우는 모두 그가 소유한 논밭이여서 한쪼각의 땅뙈기도 남의것을 밟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가 차지한 농토가 얼마나 넓었는가를 알수 있다.

별장의 원림과 꽃과 풀의 아름다움은 근세에 일찍 없었던 형편이였으며 고운 처녀들을 골라 남자로 가장시키고 밤이면 이불속으로 끌어들이군 하였으니 그밖의 사치하고 음탕한짓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폭로하고있다.

리유원 다음의 령의정자리를 차지한 리최응의 부화한 생활도 이루 말할수가 없었으니 《기려수집》에 의하면 그의 집에서 생치 생선 썩는 냄새에 이웃집사람들이 코를 들수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서양물품을 탐내여 머리꼭뒤로부터 발끝까지 차린것은 모두 서양사치품이였고 집안에 쌓아놓은것도 큰 물건으로부터 좀스러운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양물건이였다고 비난하였다. 제일 웃자리에 앉은 놈들부터가 나라는 망하든말든, 백성들은 죽든말든 더러운 제 몸뚱아리의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했으니 그 아래자리에 앉은 놈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심란해있는 민비에게 조녕하가 최후타격을 가했다.

《중전마마, 일본은 막강한 나라옵니다. 일본은 청국의 령토인 대만을 치고 류꾸를 자기들의 령역으로 공포하였소이다.》

민비는 저으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조녕하를 쳐다보았다. 조녕하는 일본의 이른바 대만정복에 대하여 말했다. 일본의 대만침략은 《정한론》과 성격이 완전히 같았다.

자국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것은 일본통치배들의 고약한 습성으로서 거의 체질화된 그들의 생리였던것이다.

5

일본침략자들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었을 때 반침략투쟁의 물결은 세차게 일기 시작하였다.

인민대중의 격분은 삽시에 불타올랐다. 각 도의 포수 842명이 양화진으로 왔고 많은 애국자들이 일본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강화도에 밀려들었다. 또한 망국노로 살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칠 일념으로 가장집물까지도 모두 털어 왜적을 물리치는데 써달라고 헌납하는 인민들의 애국충정은 실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그들은 쌀이며 천, 패물들을 관가에 가져다 바쳤을뿐만아니라 가마를 뽑고 호미며 낫들을 들고나와 철물로 써달라고 하였다.

인민들의 대중적반일기세에 고무되여 위정척사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애국적유생들이 정부의 매국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광화문앞에는 눈이 어지럽게 내리고있었다.

잔등에 도끼를 짊어진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이 언땅에 꿇어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머리며 어깨에 눈이 쌓였다.

최익현이 두손으로 상소봉장을 쳐들고 부르짖었다.

《상감마마께 드리는 상소봉장이요!》

《최익현이가?!…》

고종과 함께 편전에서 도승지가 아뢰는 말을 들은 민비는 차겁게 일렀다.

《간단히 요점만 읽으오.》

《알겠소이다.》

도승지는 침을 삼키고나서 최익현의 상소를 읽어내려갔다.

《…일본과 화친하는것이 그들의 구걸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어 그들을 넉넉히 제압할수 있는데서 나왔다면 그 화친은 믿을수 있겠으나 겁이 나서 화친한다면 이후에 그들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나이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째 리유입니다.》

창덕궁 비원의 나무가지들엔 눈이 쌓여 무겁게 드리웠다. 나무들사이로 고뇌에 싸인 민비가 방황하고있었다. 뒤따르는 조상궁이 그

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비의 귀전에는 도승지가 읽는 최익현의 상소구절이 여전히 귀따갑게 들리였다.

《그리고 그들이 겉은 비록 왜인이나 실지는 서양오랑캐의 앞잡이들이니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천주교(카톨릭교)가 전파되여 온 나라에 가득찰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셋째 리유입니다.…》

걸음을 멈춘 민비가 두눈을 꾹 감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참말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민비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비청거렸다. 조상궁이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하였다.

《중전마마, 어서 편전으로 드시오이다.》

편전으로 돌아와서도 민비는 번민에서 헤여나지 못하였다. 정사란 결코 즐거운 유희가 아니였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조녕하의 말이 떠나지 않고 울리였다. 로대국이라고 하는 청국도 일본의 대만강점을 어쩌지 못하고 도리여 50만냥이란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었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그 막강한 무력을 당해내지 못할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대만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삼천리강토 전부를 집어삼키려고 할것이다, 그러면 나는? 상감마마는? 세자는?… 생각이 이에 미치자 민비는 전률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왕권을 잃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십년 가까운 궁중생활 아니, 3년간의 섭정기간을 통하여 민비는 권세의 맛을 들일대로 들였다. 절대군주제인 왕권은 그의 요람이였고 기쁨이였고 행복이였으며 인생의 전부였다. 그것을 잃게 된다면 자기의 인생은 그야말로 무의미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니 뭐니뭐니해도 왕권을 잃지 말아야 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 그따위 통상조약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그는 작정했다. 게다가 온 세상이 다 서로 통상을 하고있는데 우리만이 대원군처럼 대문을 닫아매고 쇄국할수야 없지 않는가. 한발 양보하자, 어쨌든 지금의 이 난국에서 벗어나자, 개구리도 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민비는 이튿날 아침 조정의 중대사가 론의되는 창덕궁 인정전으로 나갔다. 넓은 인정전에는 자못 엄숙하고 긴장

된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왜인들이 정한 열흘이라는 기한이 이제는 래일로 마감짓게 되였다.

문득 고종이 앉은 옥좌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여느때에는 들리지도 않을 그런 미세한 소리조차 터질듯이 팽배한 긴장속에서는 마치 새벽에 울리는 도끼질소리처럼 커다랗게 울렸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중신들의 눈길이 일제히 고종에게로 쏠렸다.

그런데 고종은 피로운듯, 상념에 잠긴듯 눈을 감고있었다.

민비가 드디여 발뒤에서 침착하고도 여무진 소리로 또랑또랑 말하였다.

《어제 저녁 상감마마께옵서 신에게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민비는 곁의 고종을 돌아보았다. 고종은 피로운 처지에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인끔을 높여준 총명한 안해에게 감사의 정이 어린 따뜻한 눈길을 보내였다.

민비는 엄정한 표정을 띠우고 목소리에도 힘을 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바깥세상과 통하지 않으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쇄국의 문을 열고 개국진취할 때가 되였습니다. 판부사대감!》

민비는 자신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였다.

신헌이 한걸음 주창해나오더니 머리를 조아렸다.

《일본이 제출한 조약문에서 우리 비위에 거슬리는것들을 일체 고치도록 하세요.》

《예이.》

신헌이 대답은 하면서도 당황한 눈길을 민비한테서 떼지 못하였다. 그러니 결국 왜놈들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이자는 말인가.

그사이 민비는 구석의 책상앞에 앉아있는 사관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력사에 남을 자기의 발언을 그들이 어떻게 기록하는가에 왼심이 씌여졌던것이다.

사관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부지런히 붓을 놀리고있었다.

《판부사대감, 명심해 들으세요. 개국통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말

아야 합니다.》

민비는 대관들에게 자기의 약세를 보이지 않기 위해 한마디 더했다.

다음날 강화도의 련무당에서는 조약의 최종합의를 위한 조일 두 나라 대표들의 마지막담판이 벌어졌다.

인사를 나누고 담판탁에 앉은 신헌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어제 있은 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하자는 결의를 보았고 더우기 민비의 말까지 들은 그는 마치도 패장으로 앉아있는 기분이였다. 자기가 창안제작한 수뢰포도 한방 터뜨려보지 못하고 왜놈들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그는 고개를 들어 자기앞에 앉은 일본판리대신 구로다를 쏘아보았다. 우선은 수뢰포를 한방 터뜨려 자기앞의 왜놈들부터 하늘로 날려버리고 싶었던것이다. 그런데 구로다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장화가 답답하고 거치장스러웠던지 그것을 벗어 담판탁아래에 밀어넣고 맨 양말바람으로 앉아있는것이였다. 초보적인 도덕도 모르는 놈의 무례한 행동을 망신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신헌은 갑자기 낯을 찌프리며 코를 싸쥐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조선대표들은 물론 일본대표들까지 그의 느닷없는 행동이 의아쩍은듯 신헌에게 눈길을 모았다. 신헌은 왼손으로 여전히 코를 싸쥔채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구로다를 가리키고나서 담판탁아래를 또 가리켰다. 그제야 장화를 벗고 양말바람으로 앉아있는 구로다를 본 조선대표들은 말할것 없고 일본대표들까지 구로다에게 언짢은 눈길을 던졌다. 낯이 벌개진 구로다는 끙끙거리며 급급히 장화를 신었다.

이처럼 담판시작부터 왜놈들의 기를 꺾어놓은 신헌은 당당한 자세로 첫 발언을 하였다.

《조약체결에 앞서 우리 정부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조항 여섯가지를 제기하는바요.》

이렇게 언명한 신헌은 엄엄한 기색으로 《금칙6개조》를 또박또박 찍어말하였다.

일본대표들은 어디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오연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취하였다.

《첫째로, 일본인들의 상평전사용을 금지한다. 둘째로, 낟알의 무역을 금지한다.》

계속하여 신헌은 무역은 다만 문물교환의 방법으로만 한다는것, 우리 나라는 일본과만 수호관계를 맺으므로 외국인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것, 아편이나 그리스도교성서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것, 두 나라의 표류민들은 서로 돌려보내주되 고의적으로 망명한자들은 반드시 본국에 돌려보내여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단하게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엄숙하게 발언하였다.

그의 이러한 요구는 봉건제도를 유지고착시키려는 보수적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당면한 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립장도 일정하게 반영하고있었다.

일본대표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더니 불시에 구로다가 량다리사이에 세워짚고있던 칼집으로 마루를 꽝 구르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한다니 이건 조약을 체결하자는거요, 말자는거요?》

신헌도 눈을 뚝 부릅뜨고 구로다를 쏘아보았다.

《여보시오, 판리대신. 〈금칙6개조〉는 극히 일부의 우리 요구를 반영한것이요. 이것도 접수할수 없다면 우리는 조약을 체결할수 없소.》

구로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럼 전쟁을 하자는건가?》

그러나 신헌은 도리여 의자등받이에 제빠듬히 제쳐앉으며 조소를 띠우고 비양스럽게 말했다.

《전쟁?… 여보시오, 판리대신. 우린 몇해전에도 당신들보다 훨씬 강한 미국이나 불란서(프랑스)의 대대적인 무력침공도 물리쳤소.》

조약의 최종합의를 보는 마당에서 사태가 험악해지자 교활한 이노우에가 외교관다운 아량을 보였다.

《자자, 진정들 하십시오. 조선측이 요구하는 〈금칙6개조〉를 우리는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그런것까지 조약문에 일일이 다 밝힐수 없으니 구두합의를 보고 그것을 담판기록문에 남깁시다.》

신헌은 이노우에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하였다. 그는 결국 우리가 제기한 《금칙6개조》를 부정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어차피 조약체결은 기정사실로 되였으니 어쩔수 없었다.

신헌이가 좀 생각에 잠기더니 부대표 윤자승을 돌아보았다. 윤자

승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1876년 2월에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이라는 침략적인 조약이 체결되게 되였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유미렬강들과 체결한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이웃나라인 조선에 그대로 되받아넘긴 《강화도조약》은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날강도적인 조약이였다.

놈들은 《강화도조약》에 대한 보충적협정으로서 이해 여름에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잠정적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을 강요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치외법권, 개항장들에서의 일본화폐의 류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권이 규정되였다. 실로 치외법권, 무관세, 일본화폐류통은 군국주의육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재부를 략탈하려고 날뛰던 일본침략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경제적침략의 조건을 지어주었다.

뒤늦게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자본주의는 자체발전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우리 인민의 재부를 략탈하는것으로써 극복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던 18년전을 가슴저린 회오속에 되새겨본 민비는 혼자소리로 나직이 뇌였다.

《그때 우리 나라는 초상난 집처럼 음산하였지만 일본은 경축일색으로 들끓었다지. 구로다와 이노우에는 영웅으로 떠받들려 국가적인 대환영을 받고…》

왜놈들이 일본의 숙원이던 《정한》의 돌파구를 연 구로다와 이노우에를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었으랴!

일본땅에 도착한 그들은 천황의 마차를 타고 의장병의 호위하에 황궁에 가서 복명하였는데 《천황》 무쯔히또는 그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구로다에게는 2 000엔, 이노우에에게는 1 500엔의 상금을 하사하였다. 당시 소 한짝에 15엔 할 때니까 큰돈이 아닐수 없었다. 어찌 그뿐이랴. 구로다는 내각총리로, 이노우에는 외무대신으로 눈부신 출세의 길을 걷게 되였다.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해군소좌 이노우에 요시까조차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해 1894년에 서해함대 사령장관으로 승진하였으며 후에 해군원수로 되였으니 조선은 마치도 일본야심가들의 출세발판

처럼 되여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놈들이 《정한론》, 즉 조선강점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여실히 알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개항이후 조선의 풍경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6

선각자들이 우려한대로 개항이후 나라의 형세는 급격히 기울어져갔다. 악착한 왜놈들의 경제적침탈로 조선은 마치도 거마리에게 피를 빨리워 낯색이 창백하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모양으로 경제가 피폐하고 백성들의 살림이 궁핍해졌다. 강도 왜놈들에 대한 규탄과 강도 왜놈들을 집안에 끌어들인 민비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는 궁궐에 깊이 들어앉은 그의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을수 없었다.

민비는 이처럼 뒤숭숭한 나라의 형세며 흉흉한 민심을 눅잦히기 위해 무슨 수습대책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고루한 늙은 대신들은 들어보아야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들만 할것이니 요즘 개화파로 불리우는 젊은 관리들을 만나보려고 작정했다.

민씨일가의 우두머리노릇하는 조카 민영익이가 젊은 개화파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와 함께 개화파의 지지자인 혁신관료 김홍집이를 어전으로 데리고왔다.

젊은 재상들이 고종과 민비앞에 부복하였다.

《량위전하께 문안 삼가 드리오.》

고종이 그들을 굽어보며 입을 열었다.

《일본의 강청으로 개국한 후 나라일이 점점 어려워만 가니 과인은 요즘 침식이 불편하오. 경들은 모두 나라의 개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 과인을 보필해주기 바라오.》

개화파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민비가 웃음을 띠우며 부드럽게 일렀다.

《어려워말고 소견들을 말하세요.》

언제나 대바르고 할 소리는 하고야마는 성미인 김옥균이가 먼저 머리를 쳐들었다.

《량위전하, 사뢰옵기 망극하오나 지금의 형세로 보건대 〈자수자강〉, 〈부국강병〉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보나이다.》

민비가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을 표시했다.

《박규수대감도 그렇게 말을 했지.》

고종도 김옥균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래, 옥균령감(종2품부터 정3품의 벼슬아치에 대한 존칭.)은 어찌했으면 좋겠소?》

《목하 실정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으면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수 없다고 보옵니다.》

이어 김옥균은 얼마전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어느날 평복차림을 하고 장에 나가보았다. 장에 나가 물건시세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라가 되여가는 꼴을 가히 짐작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일본상품매대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여러달째 군료를 받지 못한 병정들이 빈자루를 꽁무니에 하나씩 차고 장을 어슬렁거리고있었다.

거울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던 청국비단으로 칠칠 휘감은 고관대작 마누라가 하인에게 명하여 지게에 지고온 쌀섬과 거울을 바꾸었다.

다른 곳에서는 일본면천과 쌀섬이 교환되고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왜놈장사군들이 소가죽을 사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이 모든것을 가슴아픈 눈길로 바라보던 김옥균은 쌀매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군정이 두루마기에 테가 좁은 갓을 쓰고 앉은 중년의 장사군과 쌀값을 흥정하고있었다.

《이 쌀 얼마요?》

《30전일세.》

장사군의 태연한 대답에 군정이 펄쩍 뛰였다.

《아니, 이거 쌀값이 3배로 뛰여오르지 않았소?》

《어찌겠나. 쌀이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니 쌀값이 오를수밖에…》

《죽일놈의 왜놈들!》

투덜거리며 군정이 떠나가버린 후 김옥균은 중로배의 쌀장사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물건시세가 어떻습니까?》

김옥균의 끼끗한 옷차림과 범상치 않은 기품을 보고 장사군이 공손히 말하였다.

《말이 아니웨다. 왜놈들이 들어온 이후로 영 뒤죽박죽이지요. 왜놈들이 가져다 파는것은 있으나마나한 시시한 물건따위들인데 가져가는것은 쌀과 콩, 소와 같은 우리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이니 야단이 아니웨까. 글쎄 조선소 한짝에 15원인데 일본사기꽃병 한개가 40원이외다. 그러니 왜놈들이 저희들 사기꽃병 1개 대신에 조선에서 소 세마리를 빼앗아가는셈이지우. 쌀루 치면 75말이외다, 허참…》

분개한 김옥균은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여졌다.

사실상 일본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자본의 시초축성을 위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공업상품을 우리 나라에 비싼 값으로 되거리해 팔고 그대신 조선의 귀중한 부원을 헐값으로 빼앗아감으로써 막대한 상업리윤을 짜내고있었다.

또한 개항후 왜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금, 은, 동과 같은 막대한 량의 귀금속을 략탈해갔는데 그것을 자기 나라에서의 자본의 시초축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삼는 동시에 근대적화폐제도의 확립을 위한 담보로 보았다.

이리하여 개항후 일본침략자들의 략탈적무역은 우리 나라의 국내시장과 농민경리에 파국적영향을 미쳤다.

김홍집이도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김옥균이보다 9살이나 우였으나 앞뒤집에서 살면서 일찍부터 친분이 두터웠다. 그들은 나라를 개화문명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서로 고무하고 서로 지지하였다.

《그렇소옵니다. 일본은 비누, 물감, 석유, 면천 같은것을 가져다 파는 대신에 우리 나라의 쌀, 콩, 소를 실어가니 국고가 고갈되여 관리들에게는 몇해째 록봉을 지불하지 못하고 군정들에게는 군료를 내주지 못하고있소옵니다. 게다가 일본군함들이 우리 항구들에 항시 머물러있으면서 일본군사들이 민가는 물론 관가까지 쳐들어가 행패질과 로략질이 끊치는 날이 없소옵니다.》

민비는 격분하여 눈살이 꼿꼿해졌다.

《왜인들이 승해! 과히 승해!》

김옥균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우국으로 불타는 그의 마음이 그대

로 얼굴에 피여난듯 눈빛은 열기로 번들거렸다.

《전하, 일본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조치는 일시적인것이지 언제까지나 내버려둘수 없는 문제옵니다. 그리고 신식군대도 조직하고 정예한 무기도 구입하여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며 외국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 섭취해야 할줄로 아옵니다.》

민비는 눈길을 들어 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부산 두모진세관에 대한 일이 뇌리에 떠올랐던것이다. 《강화도조약》을 맺은 후 이태가 지나서부터 조정은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여 일본상인들과 거래하는 장사군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은 리조정부에 정치적압력을 가하는것과 함께 무력적위협의 방법으로 그 해말에 끝내 두모진세관을 강제폐쇄시켰다.

그때 일을 상기한 민비는 가슴속에서 치욕감과 울분이 치솟아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중전, 일본과 새로운 관세협정을 맺는것은 미룰수 없는 일이니 누구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하는게 좋겠소?》

고종이 이렇게 물어서야 상념에서 깨여난 민비는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김홍집령감을 수신사로 보냄이 가할듯 하오이다. 겸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교련을 의뢰하는것이 어떠하오이까?》

《그게 좋겠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아주 기울어지지나 않는가 하고 청국에서 오해할수도 있으니 김윤식을 령선사로 청국에 파견하여 신식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오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하옵니다.》

제2차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은 수출입품관세협정을 시급히 체결할데 대해 정식 제기하면서 수년간의 면세조치는 일시적인 《편리》를 도모한것이고 그러한 사태를 언제까지나 내버려둘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조선정부는 관세징수에 착수할 차비이므로 통상협정을 맺기 위한 교섭을 시작할것을 일본정부에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조선에서 최대의 리윤을 짜내기 위해 발악하던 일본정부가 관세협정을 체결하자는 조선정부의 요구에 응할리가 만무했다. 조선수신사 김홍집과 마주앉은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관세협정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면

서 별기군교관파견에 대해서는 순순히 응해나섰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선침략에서 저희들이 훈련준 별기군을 앞잡이로 써먹기 위해서였다.

별기군교관으로 초빙된 일본공병소위 호리모도 례조소위는 조선에 온 첫날부터 포악하게 굴어 물의를 일으키고있었다.

앙바틈한 키에 험상궂게 생긴 호리모도는 쩍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별기군 군정들을 땅에 쓰러뜨리거나 피를 흘리게 하였다.

어느날 비원에서 산책중이던 민비는 별기군 당상인 민영익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듣고 한숨을 내쉬였다.

《호리모도… 그런 나지래기일본교관까지 안하무인이니…》

영익이 울뚝하여 민비에게 말했다.

《중전마마, 차라리 청국교관을 초빙하는것이 어떻소이까!》

《음… 좀더 두고보자.》

이렇게 대답한 민비는 말머리를 돌렸다.

《참, 요즘 옥균이랑은 어떠냐?》

영익은 시답잖은 기색으로 머리를 저었다.

《개화를 부르짖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소이다.》

《무어라?…》

《옥균이 늘 하는 소리가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우리 조선은 동양의 불란서가 되여야 한다는겁니다.》

《그 소리가 어째서?》

《이제 그가 공화정치를 주장하고 대통령을 세우자고 할가봐 겁이 납니다.》

《호호…》

의외에도 민비가 즐겁게 웃었다.

《?!…》

영익은 의아한 기색으로 민비를 쳐다볼뿐이였다.

민비가 웃음을 가무리더니 정색해서 말했다.

《영익아, 너두 젊은 사람인데 왜 옥균이와 같은 도량을 가지지 못하니? 낡은것을 싫어하고 남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기에 새사람이 아니겠니?》

《마마…》

《걱정말어라. 옥균이는 상감마마께 변심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우

리 민씨가문에서 너를 제일 믿는줄 아느냐? 네가 내 조카일뿐아니라 젊었기때문이다. 부디 참새, 제비의 무리가 되지 말고 봉황이 되거라.》

7

…하현달이 오동나무가지에 걸렸다. 커다란 오동나무잎새들은 어스름달빛에 서리빛을 반짝였다. 처량한 가을벌레울음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 유정하게 하는가싶다.

창덕궁 서온돌의 편전에서 민비가 세계지도를 골똘히 보고있었다. 얼마나 옴해있었던지 방에 들어선 고종이 자기앞에 다가오도록 모르고있던 민비는 그가 《음.》하고 인기척을 내서야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 상감마마께옵서…》

그가 숫저운 웃음을 띠우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고종은 안해의 손을 잡아 보료우에 앉히며 자기도 그옆에 앉았다.

《곤전, 무얼 하댔소?》

《세계지도를…》

《세계지도?…》

고종을 이윽히 바라보던 민비가 그앞에 지도를 가까이 놓아주며 물었다.

《상감마마, 이 지도를 보시오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지도를 들여다보던 고종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

《어쩐지 일본이… 물속에 사는 악어같지 않사옵니까?》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던 고종이 민비에게 눈길을 주었다.

《곤전, 그런데 왜 일본을 악어와 같다구 하오?》

민비의 얼굴에는 혐오스런 표정이 떠올랐다.

《일본은 물속에서만 사는 악어처럼 물에 둘러싸여있는 섬나라옵니다. 그리고 악어는 뱀처럼 랭혈동물이옵니다.》

《그러니 피가 차단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왜인들도 인정사정머리없는 차디찬 족속들이 아니옵니까?》

《음.》

고종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게다가…》 민비는 랭혹한 기색으로 말을 계속했다. 《맹수들은 보잘것없는 짐승이나 썩은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는 법인데 악어는 개구리로부터 물소에 이르기까지 아무것이나 닥치는대로 잡아먹고 썩은 고기는 물론 남이 잡은 물고기까지 빼앗아먹는 포악하고 탐욕사나운 짐승이옵니다.》

《왜인들과 한가지로군.》

이렇게 민비의 말을 긍정한 고종은 괴로운 표정을 띄웠다.

《그런데 곤전, 왜인들의 침탈이 점점 승하니 이 시국을 어찌하면 좋겠소? 게다가 요즘은 미국까지 우리와 통상을 하자고 강청하지…》

고개를 쳐드는 민비의 얼굴에 깊은 회오와 고뇌의 표정이 어리였다.

《상감마마, 신첩이 큰일을 저질렀나봅니다.》

《응?》

《일본과의 통상을 서둘렀나보옵니다.》

《거야 일본의 공갈이 하도 우심해서 그리된게지.》

민비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그의 눈빛이 예지롭게 번뜩였다.

《상감마마, 옛글에 〈차호위호〉란 말이 있지 않소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먹히우게 된 여우가 사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말이옵니다. 꾀를 생각해낸 여우는 호랑이에게 을러메기를 〈내가 누군줄 알고 네가 언감생심… 나는 이 산중의 대왕이시다. 네가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어디 나와 함께 다녀보자.〉 하고 호랑이를 뒤에 달고 산을 돌아다녔는데 아닌게아니라 여우를 본 뭇짐승들이 꼬리가 빳빳해서 달아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네 말이 과연 그렇구나.〉 하고 저 갈데로 가버렸지요. 실은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 자기를 보고 짐승들이 무서워했다는것을 몰랐던겁니다. 그러니 여우는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셈이 아닙니까?》

고종도 생각깊은 표정이였다.

《차호위호,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라…》

《상감마마, 우리도 여우가 됩시다. 힘이 센 이웃나라들을 리용하여

뭇나라들을 물리쳐버리잔 말입니다. 일본의 힘을 빌어 청국을 물리치고 아라사의 힘을 빌어 일본을 물리치고… 이건 결국 〈이이제이〉 즉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제압하는 방략이옵니다.》

민비의 표정이 비장해졌다.

《원교근공이라고 지금 일본은 멀리에 있는 서양나라들과는 좋게 지내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나라는 침탈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독판치려는 일본을 견제하려면 어차피 다른 나라들한테도 문을 열어주어야 할것 같소이다. 그러면 이이제이,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제압할수 있지 않겠소이까?》

《이이제이?!…》

《일본이 독판치기를 하면 청국을 끌어들여 그것을 억제하고 청국세력이 커지면 또 아라사를 끌어들여 그것을 억제하고…》

《음.》

《이렇게 모든 렬강들과 골고루 국교를 맺으면 일본이 절대로 독판치기를 할수 없을것이옵니다. 아니, 일본뿐아니라 그 어느 강국도 우리 나라를 넘보지 못할것이옵니다.》

고종은 못내 감탄하며 민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좋소! 곤전의 생각이 과시 현명하오!》

《상감마마, 우리 나라는 약소국가이니 반드시 이 외교장정으로 국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견제하려는 이 《이이제이》정략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림시방편으로는 될수 있었으나 결코 만년지대계의 방략은 아니였다.

자기 힘을 키울 생각은 없이 외세에 의존하여 난국을 타개하려 했으니 이것이 후날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회한을 남기게 될줄은 민비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권력자들이란 자기 과신에 차있기마련이다. 민비 역시 마찬가지여서 자기 생각을 가장 현명한것으로 여기였다.

《상감마마, 미국해군제독 슈벨트가 우리 나라와 통상수호조약을 맺기 위해 오래전부터 활약하고있다 하옵니다. 그는 청국과 일본을 내세우고있는데 우리 나라를 독차지하려는 일본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게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미국에 손을 내밀면 그들도 감읍할게 아니옵니까? 전하, 이제 더는 지체할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횡을 막으려면 다른 렬강들과 국교를 맺어야 합니다.》

고종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소?》

《상감마마께옵서는 속히 어명으로 청국에 령선사를 파하여 미국, 영국, 덕국(도이췰란드) 등 서양나라 공사들을 만나 국교교섭을 하도록 하십시오.》

《령선사로서는 누구를 파하는게 좋겠소?》

《대세에 밝은 김윤식이와 어윤중이가 가당할것 같소이다.》

《그렇게 합시다.》

사실 미국은 조선과 통상수호조약을 맺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하고 있었다. 미국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을 앞서게 된 조건에서 놈들은 해외침략에 박차를 가하게 되였으며 여기에서 조선은 그 지리적위치의 중요성으로 하여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였다.

그러나 신미(1871)년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에서 실패한 미국침략자들은 일본을 내세워 그 막뒤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였다. 일본이 조선과 개국통상조약을 체결하자 환성을 지른 미국놈들은 곧 그들에게 의지하여 조선에 침투하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정부의 지시를 받은 해군제독 슈벨트는 일본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만나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알선해줄것을 부탁하였다.

항상 미국의 지지성원하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던 일본은 미국의 의뢰를 접수하는척 하면서도 속심으로는 조선과의 교섭을 질질 끌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때 수신사로서 일본에 간 조선의 례조참판 김홍집은 미국사신의 서신 겉봉투에 우리 나라 국호를 《대고려국》이라고 잘못 썼으며 외교형식상 어긋나게 《어람》이라는 글을 썼기때문에 조선국왕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것을 통고하면서 미국의 제의와 일본의 《권고》를 거절한다는것을 정식 알렸으며 그 자리에서 미국의 《화친신서》를 봉합이 되여있는 그대로 이노우에외무경에게 되돌려주었다.

교활한 미국놈들은 일본과의 공모책동이 절망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청나라통치배들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슈벨트는 청국의 천진으로 가서 그 나라 통치배들의 우두머리인 리홍장을 만나 조선과의 조약교섭에 중개자로 나서달라고 꾀하였다.

리홍장은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것을 알고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해보려는 어리석고도 음흉한 목적밑에 슈벨트의 제의를 쾌히 수락하였다. 미국의 침략성을 보지 못하고있던 투항분자인 리홍장은 슈벨트의 꾀임에 넘어가 조선정부에 미국과의 조약체결에 응할것을 권고하였다.

이리하여 청국의 천진 보정부에서는 마고자에 당모자를 쓰고 변발을 길게 늘어뜨린 청국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리홍장이 통영갓에 전복을 입고 도홍띠를 띤 조선의 령선사 김윤식을 금빛단추가 번쩍거리는 해군장교복을 입은 미국해군제독 슈벨트에게 소개하였다.

이들의 타협에 의하여 1882년 5월 22일 인천제물포에서는 《조미조약》이 조선전권대표 신헌과 부사 김홍집, 미국해군제독 슈벨트와 청국대표 마건충이 참가한 가운데 조인되였다. 미국놈들에 의하여 강요된 《조미조약》은 조선에는 의무만이 강요된 철두철미 불평등적이고 예속적인것이였다. 14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에서 놈들은 자기들의 외교대표를 서울에 주재시킬 《권리》, 이미 개방되여있는 모든 항구들에서 무역을 진행할수 있는 《권리》, 《치외법권》, 최혜국대우에 대한 《권리》와 함께 류학생파견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넣음으로써 친미주구들을 키울것을 획책하였다.

이어 청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영국과 《조영조약》이 체결되였으며 계속하여 도이췰란드, 로씨야, 이딸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나라들과도 련속 국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래동안 쇄국의 문을 닫아걸고살던 동양의 마지막은둔국 조선은 세계무대에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이런 급작스러운 문호개방에 대하여 몹시 분개하고 당황하고 우울해진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의 태정관정부였다.

각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경축하는 연회가 창덕궁의 중희당에서 성대하게 열리였다. 아악이 울리는속에 위엄있게 차린 고종이 환관들과 시녀들의 부액속에 거룩하게 연회장에 들어섰다.

조선의 중신들이 정중하게 몸을 일으켜 경건하게 읍을 하였고 연회탁에 앉아있던 조약체결국 대표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민비는 병풍뒤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엿보고있을뿐이였다.

슈벨트가 례물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고종의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정중하게 증정하였다.

《전하, 우리 미국정부에서 국왕전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종이 사례를 표시한 후 례물은 김홍집이 받았다. 슈벨트가 다른 례물을 내밀면서 말하였다.

《저, 이건 왕비전하께 드리는 선물인데 왕비전하께서는 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나라 례의풍속에…》

김홍집이 사정을 설명하자 슈벨트는 유감스럽다는 표시로 어깨를 약간 으쓱해보였다.

이어 영국대표와 도이칠란드대표들이 고종에게 선물을 바쳤다.

두손을 배허벅에 잡고 선 일본공사 하나부사는 그들을 아니꼬운 눈길로 쏘아보고있었다.

민비 또한 병풍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흡족한 표정으로 기쁨속에 바라보았다.

이어 고종과 민비는 병조판서에게 안내되여 일본에서 기증한 무라다보총들과 륙혈포가 진렬되여있는 곳으로 갔다.

병조판서가 설명했다.

《이 조총들과 륙혈포들은 하나부사공사가 기증한것들이고 밖에 있는 산포 2문과 소형증기선은 왕세자전하의 가례를 경하하여 일본정부에서 보내온것입니다.》

고종이 민비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우리가 서양나라들과 국교를 맺으니 일본이 바빠맞아서 이런것을 보내오는구려, 허허…》

민비도 웃으며 조총을 집어들었다. …

이 시각 현해탄 건너 일본내각에서도 총리 이또며 외무대신 이노우에들이 오만상을 찌프리며 두덜거렸다.

《앙큼한 민비가 서양나라들과 돌아가며 입을 맞출줄이야. …》

제 5 장

《천 우 협》

1

조선문제로 부심하고있는 무쯔앞에 오까모도가 불현듯 나타난것은 참으로 주린 고양이가 쥐를 만난것만치나 반갑고 기쁜 일이였다.

누비돗자리우에 무릎을 꿇고 앉은 오까모도에게 비단방석을 밀어주며 무쯔는 반가운김에 평소의 랭정성과 침착성을 잃고 덤비였다.

《조선은 어떤가?》

《여전하지요. 민비의 세상입니다.》

무쯔의 처 기노가 다반에 차잔을 들고 들어와 남편과 오까모도앞에 놓아주었다.

《고맙습니다.》

목례를 하는 오까모도에게 기노가 정겨운 눈길을 주며 입을 열었다.

《두분이 동향이기도 하지만 류달리 친분이 두터우니 저도 어쩐지 오까모도상이 남같지 않구만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외무대신각하께선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오까모도의 말은 빈말이 아니였다. 《다께바시소동》이라고 불리우는 반란에 참가하여 다 죽게 된 오까모도를 살려준것이 바로 당시 중추원 간사로 있던 무쯔였다.

다께바시소동이란 《명치유신》이후에 일어난 근위병들의 반란사건을 말하는데 그 전해에 벌어진 《서남전쟁》에 참가한 근위병들에게 공로표창이 진행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여 급료가 더 낮아진데로부터 불평불만을 품은 근위제1대대의 260여명의 장교,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것이다.

반란은 즉시 진압되고 륙군재판에서는 대위 오까모도를 비롯한 53명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반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하였다.

평소에 령리한 오까모도를 자기의 심복으로 써먹으려고 내심으로 작정하고있던 무쯔는 자기와 인맥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줄을 놓아 그를 사형자명단에서 빼놓았었다. 하지만 오까모도는 종신토록 정계와 군부에 적을 두지 못한다는 징계처분만은 피할수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평생 로닝(랑인, 즉 무직자.)의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되였다. 하긴 어찌 보면 무직이란 그자체가 흑막적존재로서 그의 정체를 가리우는데 유리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후로 오까모도는 자기의 은인이며 스승인 무쯔의 심복으로, 사설정탐으로 활동하게 되였는데 자기에게 충의를 다하는 그에 대한 무쯔의 신임과 총애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이윽고 무쯔는 평소의 그 랭정하고 침착한 자세를 취했다. 오까모도 역시 긴장을 느끼며 몸자세를 바로 가졌다.

《자네를 급히 호출한것은》 무쯔는 오까모도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정부앞에 제기된 중대사를 해결하는데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지대하기때문이네.》

《각오하고있습니다.》

오까모도의 표정도 진중했다.

《물론 그럴테지. 제국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금년중으로 일청전쟁을 일으켜 조선에서 청국세력을 내몰고 반도를 우리의 독점적지배지역으로 만들자는 심산이네. 그러자면 타당한 구실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가장 좋기는 자네가 제때에 통보한 조선의 전라도민란이 확대되여 조선정부자체의 힘으로 어쩔수 없게 되면 불피코 이전처럼 청국에 원병을 요청할거란 말일세. 그러면 〈천진조약〉을 등대고 우리도 조선에 출병하여 청국과 마찰을 일으키는것이지. 어떤가, 자네 생각엔?》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네도 제꺽 찬성하니 마음이 놓이는군그래. 그러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조선의 내란을 빨리 조장확대하는것일세. 알만 한가, 내 말뜻을?》

《예, 한데 구체적타산이…》

오까모도는 좀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건 념려말게. 이 일에 사설모략단체인 도야마 미쯔루의 〈현양사〉를 리용하자는 정부의 방침일세. 그러니 자네가 도야마와 사업을 해주어야겠네. 자금은 걱정말게. 정부와 군부에서 얼마든지 출자해줄테니까.》

오까모도의 얼굴에 야심만만한 표정이 떠오르는것을 본 무쯔는 한마디 더 강조하였다.

《재삼 당부하네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네. 참으로 시간이 모든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명심하겠습니다.》

무쯔는 담배갑에서 담배 한가치를 집어들었으나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담배통에 도로 놓았다. 폐결핵환자인 그는 술이나 담배를 극력 삼가하고있었는데 그의 이런 의지력에 대해 오까모도도 감동되군 하였다.

다음날 무쯔는 오까모도대신 자기가 먼저 우에노공원에서 도야마를 만났다.

사꾸라꽃이 한창인 봄철에는 우에노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처럼 나무줄기들이 거무죽죽하고 가지들이 앙상한 겨울철에는 인적이 드물거나 전혀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헐벗은 나무들사이로 외투깃을 세운 두 사나이가 천천히 걷고있었다.

가끔 기침을 하는것은 내각의 외무대신인 무쯔 무네미쯔였고 39살의 건장하게 생긴 장년은 《현양사》의 사주 도야마 미쯔루였다.

무쯔가 신선한 공기를 가슴깊이 들이마시며 감회롭게 말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쏘의 말은 역시 명언입니다.》

무쯔와 발을 맞추며 도야마도 입을 열었다.

《각하는 폐를 앓는다는데 일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기속을 산책하지 않습니까. 폐를 치료하는데는 말입니다, 무엇무엇해도 공기욕과 일광욕이 제일입니다.》

《그러니 공기 좋은 해변가같은데 가서 본격적으로 치료해야지요.》

《그런데 시간이, 허허…》

《건강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대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라… 어딘가 역설적이지만 옳은 말입

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란 하느님께 달린것이니 제국을 위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하다 죽는거지요.》

무쯔의 이 말은 자기의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한 그 어떤 객기에서 한 말이 아니였다. 폐를 앓고있는 그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기도 다까요시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명치3걸중의 한 인물로 태정관정부를 쥐고 흔들던 정계의 거물 기도 다까요시도 《정한론》을 그 누구보다 고창하였으나 45살이라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고말았다. 그가 죽은것은 폐병때문이였다. 하기에 무쯔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람차게》, 짧으나 굵게 살고자 하였다. 그는 그 누군가가 말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날처럼 사는것을 좌우명으로 삼고있었다.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청일전쟁과 조선정복을 성사시키자는것이 그의 야심이였다.

《순국하시겠다는건데 듣기에 비장하군요.》

도야마가 무표정한채로 덤덤히 말했다.

《비장하다, 허허… 낡은 사무라이식표현이란 말이지요. 그건 그렇구 도야마씨,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것은 제국정부로서 도야마씨의 방조를 받을 일이 생겨서 그럽니다.》

도야마는 신중한 기색으로 묵묵히 걸음만 옮겼다. 그의 기색을 슬쩍 살펴본 무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비밀입니다만 올해 갑오년에 제국은 청국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도야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제야 도야마는 대수롭지 않은듯이 대꾸했다.

《우리 〈현양사〉의 목적도 청국과의 전쟁이란것을 외상각하께서도 잘 아실텐데요.》

《압니다.》

《〈잠자는 사자〉로 불리우는 대청제국은 대국입니다. 그래, 자신이 있습니까?》

무쯔는 도야마를 다시 곁눈질해보았다. 역시 듣던바대로 아니, 생각했던것보다 이 도야마란 인물이 나이는 젊어도 아주 로회하고 만만찮은 작자라는것이 알렸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것

도 어쩔수 없었다.

무쯔는 봄날을 예고하듯 서기가 어린 하늘에 눈길을 주며 천천히 입을 놀렸다.

《그리스도교에 거인 골리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고 힘센 그에게 누구도 접어들 생각을 못했지만 하루는 목동 다비드가 돌팔매질로 그의 이마를 명중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크다는것이 곧 힘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지요. 실지로 힘을 가진자는 팔매질할 돌을 쥐고있는 목동이 아니겠습니까?》

무쯔는 다분히 감상적인 기분으로 말했지만 도야마는 여전히 실무적이였다.

《본론을 말씀하십시오.》

《그럽시다. 지난날 〈민권주의〉를 제창하면서 정부에 도전하던 당신이 민권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권주의〉에로 전향한데 대해 정부는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고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대가 큽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말하겠습니다. 일청전쟁의 목적은 조선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리용하자는것입니다. 민란이 더 커지도록 해서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거기에 기름을 끼얹자는것입니다. 이 일을 도야마씨, 당신이, 당신이 사주로 있는 〈현양사〉가 맡아서 해달라는것입니다. 자금은 정부 혹은 군부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대꾸없이 도야마는 입가에 비주름히 웃음을 띠였다. 그가 돈소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금에 흥미가 없는지 무쯔로서는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광산도 여러개 경영하고있는 도야마는 하루밤의 기생집출입에 만엔이라는 돈을 물쓰듯 허비한다는 소문을 무쯔도 익히 들어 알고있었던것이다. 경찰관의 월급이 5엔인데 만엔이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그런 도야마고보면 돈소리에 그닥 흥미를 느끼지 않을수도 있었다.

무쯔는 일본의 진짜주인은 자기나 이또와 같은 정객이 아니라 도

야마와 같은 협객이나 미쯔이와 같은 재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달이 월급에 명줄을 걸고있는 자신의 처지가 가소롭고 가련하게 여겨졌다.

그는 차후로는 오까모도 류노스께와 련계를 가지라는 당부를 한 후 도야마와 헤여졌다.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던 무쯔는 문득 주먹을 부르쥐였다. 일본을 이끄는것은 재벌이나 협객이 될수 없다. 그것은 정계를 틀어쥔 무쯔 자기와 같은 정객일뿐이다. 그러니 도야마나 오까모도와 같은자들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조선정복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그의 눈앞에는 첩의 딸인 찌요의 요염한 모색이 떠올랐다. 이젠 그년도 처녀가 되였고 인물 또한 절색인데다 머리도 명민하니 얼마든지 자기의 수족노릇을 할수 있었다. 그렇다, 그년을 조선에 보내자, 조선에 가서 민비와 친하도록 만들자, 민비는 선물받기 좋아하는 녀인이니 그에게 여러가지 값진 물건을 안겨주면 찌요는 그의 안중에 들수 있다. 그다음 민비 그의 염통을 뽑아내도록 하자.

그는 곧장 마사에의 집에 들렸다.

마사에는 무쯔가 젊어서 반정부운동에 참가한 죄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할 때 사귄 녀자였다.

무쯔는 젊어서도 폐병으로 허약했으나 정욕만은 강하여 젊고 혈색좋은 세탁부처녀인 마사에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정치범으로 독감방에 갇혀있던 무쯔는 어느날 빨래한 옷을 갈아주러 들어온 마사에를 다짜고짜 감방마루바닥에 쓰러뜨렸다. 순진한 마사에는 겁에 질려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것이 빌미로 되여 무쯔는 고달픈 감방살이를 심심치 않게 보낼수 있었다.

무쯔는 석방된 후에 그들사이에 태여난 딸애인 찌요와 함께 마사에가 살수 있도록 집간도 마련해주고 먹을것이며 땔감도 대주면서 명실공히 첩살림을 시작했다.

그가 마사에의 모녀에게 이만큼이라도 관심을 보인것은 천한 녀자인 마사에를 사랑했다기보다 장작가치처럼 꼬장꼬장하고 메마른 자기 안해 기노에 비해 육체미가 풍만할뿐아니라 성미가 고분고분한 그한테서 만족을 얻을수 있었던 까닭이였다.

마사에는 자기의 처지에 만족했을뿐아니라 자기의 살림을 돌보아

주는 무쯔를 남편이라기보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존경하고 숭상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딸 찌요는 자라날수록 자기의 수치스러운 처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인 무쯔를 온곱지 않게 대하였다. 게다가 이마즘에 와서 무쯔는 한해에 한두번 들리나마나하였다.

누비돗자리방의 방석우에 앉은 무쯔는 자기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마사에와 딸 찌요를 심드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찌요도 이젠 제법 처녀꼴이 나는구나.》

무쯔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지였다.

그러자 찌요가 어머니 마사에의 손을 몰래 꼬집었다.

마사에는 한참 주밋거리더니 송구스러운 기색을 띠우고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다.

《저, 찌요는 류학을 가고싶어하는데…》

《류학?…》

무쯔는 뜻밖인듯 우묵한 눈확의 눈을 크게 떴다.

《음악공부를 하고싶다고… 윈이나 베를린에…》

《계집애가 류학은 무슨…》

무쯔는 단마디로 거절해버렸다.

찌요는 뾰로통해서 왼고개를 꼬았다.

잠시 생각을 굴린 무쯔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너그럽게 말했다.

《찌요, 류학을 보내주마. 하지만 그전에 한가지 할 일이 있다.》

찌요는 호기심어린 눈길을 쳐들었다.

《너, 조선에 건너가거라.》

《조선에요?》 찌요는 의외인듯 반문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요?》

《그건 오까모도군이 가르쳐줄게다.》

《아버지가 말해주세요.》

찌요는 고집스럽게 따지고들었다.

턱을 쓸어만지던 무쯔는 손길을 멈추었다.

《조선에 가서 왕후 민비와 친하거라.》

《예?》

찌요는 놀란 눈길을 무쯔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럼 직방 말해주지. 너는 내 딸이기 전에 천황폐하의 적자다. 지

금 일본제국의 국시는 조선을 점령하는것이다. 그런데 민비가 우리 일본의 훼방군이거던. 그러니 민비만 우리 손에 장악하면 조선강점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 일을 네가 해달라는거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찌요의 얼굴에 야멸찬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니 저더러 스파이노릇을 하라는거군요. 싫어요.》

딸의 방자스러운 태도에 무쯔는 대뜸 어성을 높였다.

《너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테냐?!》

《아버지가 아니라 옥황상제가 시킨대도 그런 치기스러운노릇은 안해요.》

이렇게 내뱉은 찌요는 자리를 훌 차고일어나 제 방으로 씽 들어가버리고말았다.

무쯔는 불쾌하고 노여운 눈길로 딸의 방문을 쏘아보았다.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마사에는 당황하고 죄송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용서해주세요.》

마사에는 송구스러워 연송 머리를 조아렸다.

《저, 목욕물을 끓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쯔는 아무 대꾸도 없이 훌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사에가 딸의 방에 들어가니 찌요는 누비돗자리우에 엎드려 울고있었다.

마사에는 방에 들어서는 참으로 딸을 꾸중했다.

그러자 찌요는 발딱 일어나앉으며 총알같이 내쏘았다.

《어머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머니에게 도대체 뭐가 돼요?》

《얘야, 조용조용…》

마사에는 딸의 소리가 무쯔에게 들릴가싶어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랬어도 성미가 독한 찌요는 아무 소리나 탕탕 내쏘았다.

《남편이예요?》

《…》

마사에는 억이 막혀 말도 못했다.

《일년에 한두번 오나마나하고… 어머닌 뭣때문에 저런 사람한테 한

생을 매워살아요? 원래 폐결핵쟁이들이란 색에 받치는 수캐비(변태성욕자)들이예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세탁부인 어머니를 건드렸지요.》

《얘야, 제발 그만두렴.》

애원하는 마사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더러운 폐병쟁이!》

찌요는 경멸에 차서 내뱉았다.

2

오까모도는 문건철에서 눈길을 떼며 기지개를 켰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 안온하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잠겨보니 시간 가는줄도, 날이 새는줄도 미처 몰랐다. 그런 속에서도 무쯔가 지시한 《현양사》와 그 사주 도야마 미쯔루에 대한 연구만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안해 야에가 방에 들어오더니 탁상등을 끄며 눈을 곱게 흘겼다.

《또 밤을 새웠어요?》

《아니, 새벽글을 보느라구…》

《무슨 글이기에?》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일본제국을 부흥하게 하기 위한 글이지.》

오까모도는 정찬 눈매로 안해를 쳐다보며 마치도 어린애를 귀여워하듯 야에의 덜퍽진 엉뎅이를 두드려주었다.

그는 안해를 사랑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녀인들이란 대개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엉치가 내려붙고 다리가 휘여서 볼꼴이 없었다. 하기에 일본의 녀자옷인 기모노도 녀인들의 그런 보기 싫은 몸뚱이를 가리우느라고 발등까지 덮이게 길고 허리에는 오비라는 넓은 띠를 조여매게 만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까모도의 안해 야에는 서양녀인마냥 허리가 늘씬하고 다리가 미츨하였으며 목이 쑥 빠지고 살색이 배꽃처럼 새하얗다. 더우기 얼굴은 문장가들이 미녀들에 대해 즐겨쓰는 초생달같은 눈섭과 호수같이 그윽한 눈에 웃을 때면 귀염상스러운 볼우물이 량볼에 새겨지군 하

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중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색이였다. 예로부터 경도에는 미인이 많다고 하는데 야에는 전형적인 경도태생이였다.

오까모도는 볼우물이 패우는 안해의 뺨을 다독이며 우정 눈을 크게 떴다.

《당신,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왼땅을 보면 안돼.》

《아노, 누가 할 소리… 당신이나 조선계집들한테 빠지지 마세요.》

《그까짓 조선계집들한테?》

《그래두 조선기생들은 예쁘다던데.》

오까모도는 안해가 투기하는 바람에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걱정마오. 조선기생들은 시큼털털한 된장내가 난단 말이요.》

그러자 야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일본녀자들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음, 거야 초밥처럼 달콤새콤한 맛이지.》

《냄새를 물었는데 갑자기 맛은 또 무어예요.》

《냄새?》

오까모도는 갑자기 야에를 꽉 그러안더니 그의 젖가슴에 코를 들이박으며 킁킁거렸다.

《아이 간지러워. 어린애처럼 갑자기 왜 이러실가.》

야에는 호들갑떨듯 몸을 비틀면서도 그러는 남편이 싫지 않은 모양 마흔이 지났어도 상기 윤기흐르는 구두솔같은 오까모도의 짧은 머리칼을 쓰다듬어주었다.

《참, 당신이 좋아하는 초밥을 사왔어요.》

남편의 품에서 몸을 뺀 야에는 머리칼이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방에서 나갔다. 잠시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온 야에는 밖에 웬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이런 새벽에 누가?… 들여보내오.》

얼마후 람루한 옷에 수염이 꺼칠한 사나이가 주밋거리며 방에 들어서더니 오까모도의 앞에 넙죽 엎드리며 절을 하였다.

《오까모도대위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를 주시하던 오까모도는 그만 눈을 크게 뜨며 반색했다.

《이게 누군가? 미야께군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미야께입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미야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렸다.

《잊다니, 전투에서 앞장서군 하던 미야께군조를 어찌 잊을수 있겠나.》

《고맙습니다, 대위님.》

고개를 떨군 미야께는 어깨를 들먹였다.

오까모도는 그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다시금 찬찬히 훑어보았다. 때묻은 옷은 군데군데 찢기고 혼솔도 더러 터졌는데 더부룩한 머리며 구레나룻이 꺼칠한 볼이며 거밋한 살갗은 목욕은 물론 세면조차 하지 않은것 같았다. 게다가 우묵한 눈확이며 조갈이 난듯 한 허연 입술은 몇끼 굶은 사람마냥 여간 궁색스러워보이지 않았다. 그의 꼬락서니를 보니 살림이 여의치 않다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오까모도는 그때까지 문지방에 서있는 안해에게 손가락 둘을 쳐들어 보이고나서 미야께에게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래, 어떻게 지내고있나?》

미야께는 불같은 한숨을 내쉬였다.

《죽지 못해 살지요.》

야에가 그들사이에 초밥 두접시와 그리고 몇가지 안주와 술병이 놓인 밥상을 들고 들어와 놓아주었다.

《먼저 천천히 드세요.》

굶주린 눈초리로 밥상우를 재빨리 훑어본 미야께는 고마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부인님, 고맙습니다.》

오까모도가 술병을 들고 말했다.

《식전술은 하루골치거리라고 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미야께군조와 맨밥을 들수야 없지.》

오까모도가 부어준 술을 미야께는 감지덕지하여 두손으로 받아마셨다. 그러나 오까모도는 술잔에 입만 댔다 뗐다.

그러는 사이에 야에가 생선회며 여러가지 안주감을 더 준비하여 상우에 가져다놓았다.

오까모도가 부어주는 술을 연거퍼 들이마시여 어느새 낯색이 불깃해지고 눈에 술꽃이 핀 미야께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울분을 토했다.

《우리 사무라이들의 신세가 이게 무슨 꼴이 되였습니까?》

오까모도는 미야께앞에 음식그릇들을 밀어놓아주며 물었다.

《그럼, 자네도 로닝(랑인)인가?》

《로닝?… 무직건달이지요. 웃두리사무라이들은 유신이후에 관직이나 군직을 차지하구 또 기업가나 지주가 되였지만 우리같은 하치사무라이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자니 땅이 있나, 장사를 하자니 밑천이 있나… 도대체 정부는 어쩌자는겁니까. 왜 아직도 조선을 치지 않습니까. 조선을 정복하여 식민을 해야 우리같은 사무라이들도 살아갈게 아닙니까.》

오까모도는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래, 자네는 아무런 생업도 없나? 처는 있겠지?》

《처덕에 살아가지요, 처덕은 망덕이라는데.》

한숨을 내쉰 미야께는 또 술잔을 들어 입에 부어넣었다.

오까모도의 집을 떠나 거리로 나온 미야께는 찬바람을 쏘이니 머리가 핑 돌면서 걸음이 비틀거렸다. 아니, 울분에 찬 마음이 더 비틀거렸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행인들이 아침부터 취해다니는 그를 언짢게 흘겨보군 하였다.

자기 집이 바라보이는 골목길에 들어선 미야께는 걸음발을 멈추었다.

문득 자기 집 부엌문이 열리는것을 본 미야께는 얼결에 남의 집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안해가 밖으로 나와 사위를 두리번거리였다.

미야께는 뻘겋게 충혈진 눈으로 안해의 거동을 주시했다.

안해가 집으로 들어가고 미구하여 부엌문이 다시 열리더니 웬 사내가 나왔다. 낯선 사나이는 중절모를 꾹 눌러쓰며 빠른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미야께의 주먹은 저도 모르게 불끈 쥐여졌다.

자기의 부하였던 미야께군조를 떠나보낸 다음날 오까모도도 《현양사》 사주 도야마 미쯔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료정의 별실에서 그는 도야마와 술상을 놓고 마주앉아 밀담을 벌리였다.

오까모도는 양복차림이였으나 전형적국수주의자인 도야마는 앞자락이 헤쳐지고 소매가 길다란 검은 하오리차림새였다.

도야마의 말을 들으며 오까모도는 도야마와 그가 사주로 있는 《현양사》에 대한 자료를 애써 상기하고있었다.

히로오까 고따로를 초대사장으로 하고 하꼬다 로꾸슈께를 2대사장으로 한 한양숙을 모체로 하여 1881년에 정식창립, 계보는 《정한론》자들을 위주로 함. 강령은 일본이 대륙진출시 데로와 첩보를 업무로 삼고 군부와 면밀히 결탁할것. 청일, 로일전쟁때에는 리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것. 도야마 미쯔루가 《현양사》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우익세력과 정계에서 발언권이 커짐…

오까모도가 자기에 대해 관찰하고있다는것을 느낀 도야마는 거물급의 인물답게 너그러운 미소를 띄웠다.

《선생에 대해 무쯔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에 대한 무슨 대책안이 있습니까? 우리 면담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무회담이니까요.》

도야마의 말에 오까모도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전 그저 선생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는걸요.》

오까모도의 이 말은 겉치레로 한 말이 아니였다. 자료를 통한 연구와 도야마의 첫인상을 통해 오까모도는 《현양사》가 이미 상당히 째인 조직체이며 그들이 무슨 일이든 허술히 하지 않는다는것을 간파했던것이다.

《그럼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가요?》

도야마는 어디까지나 겸손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어서.》

《예, 우리는 조선의 부산쪽에 협객들로 조직을 하나 내오려고 합니다. 목적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자료를 장악하며 거기에 기초하여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접근하며 그들에게 무기와 자금들을 조달하여 정부군과 능히 맞서싸우게 하자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조선에서의 내란을 부채질하여 부득불 청나라군과 우리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게 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도발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까모도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도야마란 인물을 왜 제국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선생이 찬동하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준비사업으로 여러 사람들을 부산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륙군참모본부의 이지찌 고수께소좌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이에 대해서도 도야마는 미리 구상하고있던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뭐, 부산대본영이라 해도 좋고 천우협이라 해도 좋을것입니다.》

《천우협이란?》

《하늘이 돕는 협객단체라는 뜻입니다.》

《아, 그게 좋겠습니다.》

도야마와 헤여진 오까모도는 어둠에 묻힌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지금 도야마를 만났을 때 무쯔외상이 느낀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자기는 마흔이 썩 지났으나 아직까지 남의 심복노릇이나 하고있지만 도야마는 아직 마흔전인데 얼마나 높은 기개와 일가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척척 해제끼고있는가, 그리고 재산은…

이런 생각에 잠겨 걷다보니 언제 미야께의 집앞에까지 왔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어쩐셈인지 집안팎이 적막하고 괴괴한것이 사람사는 집같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군조, 미야께군조!》

큰소리로 찾았으나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오까모도는 부엌문을 잡아당기였다.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리듯이 벌컥 열리는것이였다.

더욱 수상쩍은 생각이 든 오까모도는 부엌을 거쳐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초불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미야께의 벌거벗은 뻘건 잔등이 시야에 안겨왔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눈을 꾹 감고 비장한 표정을 띄운 미야께가 두손으로 잡은 단도를 배허벅에 가져다대고있었다.

오까모도는 입술을 앙다물며 미야께의 손을 구두발로 걷어찼다.

손에서 날아난 단도가 벽에 부딪치고 방바닥에 떨어지며 쇠소리를 냈다.
놀란 눈길을 치뜨는 미야께에게 오까모도는 랭혹하게 뇌까렸다.
《셑부꾸(할복자살)는 천황폐하를 위해서만 하는거야.》
고개를 떨군 미야께가 절망적으로 지껄였다.
《난, 이놈은 살인을 쳤수다. 갈보질하는 녀편네와 돈을 주고 녀편네와 재미를 보는 넌놈을 둘 다 죽여버렸수다.》
오까모도는 넉두리하는 미야께를 여전히 랭랭히 지켜보기만 했다.
《살아서 뭘합니까. 이제는 집도 녀편네두 없수다. 이제 남은거란 니뽄도(일본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요즘세월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미야께는 가슴을 치며 꺼이꺼이 울었다.
오까모도의 엄한 목소리가 미야께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니뽄도는 야마도남아의 넋이고 재산이다!》
《…》
《조선으로 건너가라. 그것이 미야께군조가 살길이고 천황폐하를 위하는 길이다.》
《예?!》
미야께의 눈물범벅이 된 눈이 놀라움으로 둥그래졌다.
《니뽄도 한자루를 가지고 조선에 가서 재산도 얻고 계집도 얻으라. 당장은 부산에 가있으라. 이밤으로 떠나라.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오까모도는 품속에서 돈뭉치를 꺼내 미야께의 무릎앞에 던져주었다.
미야께는 감복하여 갈범의 울음소리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3

구사쯔온천은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이채롭고 흥성거리기마련이였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찬 날씨에 뜨거운 온천이 퐁퐁 솟구치는 개울가는 늘 수증기가 뽀얗게 서려있어 몰골로 그린 한폭의 수묵화를 보는듯싶었다. 그러니 눈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더운 온탕물속에 몸을 잠그고있는 쾌감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기에 겨울철의

구사쯔는 온천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물론 한가한 유람객이나 관광객들로 늘 붐비였다. 그들을 맞아드릴 려관과 음식점, 차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았으며 게이샤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샤미셍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구사쯔는 좋은 곳
한번은 와보세요 돗고이쇼
뜨거운 물속에서도 꼬랴
꽃이 핀다오 쪼이나 쪼이나

어데선가 샤미셍에 맞추어 부르는 구사쯔민요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무쯔가 오까모도에게 고개를 돌렸다.

온탕에 들어앉은 그들의 얼굴이며 몸은 익은 말고기처럼 벌겋게 달아올랐고 얼굴에서는 줄땀이 흐르고있었다.

《이번에 수고가 많았네.》

무쯔가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하는 말에 오까모도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뻑 쓸어내리며 대척했다.

《거야 각하께서 도야마사주에게 미리 사전공작을 했기때문이지요.》

《어쨌든 일은 이제부터니 각별히 힘을 기울이기 바라네.》

《념려마십시오.》

《그래, 조선 부산으로 언제 떠나겠다구?》

《래일 아침 떠나겠습니다.》

《왔던김에 며칠 쉬고가지그래.》

《각하께서도 시간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긴… 아무튼 자네에게 급한 일감만 주어 미안하기 그지없네.》

《앓는 몸으로 국사에 전력하시는 각하를 돕자는 생각뿐입니다.》

《고맙네.》

온탕욕을 끝낸 그들은 검은 바탕에 흰줄무늬가 새겨진 유까다를 걸치고 휴계실로 들어갔다.

기다리고있던 오까모도의 처 야에가 일본식으로 꿇어앉아 절을 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살풋이 고개를 쳐드는 야에의 하얀 볼에 볼우물이 옴폭옴폭 패운 것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야에를 눈여겨보던 무쯔가 오까모도를 시까슬렀다.

《자넨 참 보기 드문 애처가야. 하긴 저런 미인이야 늘 동부인할만하지.》

오까모도는 좀 거북살스러워하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이 참대로 엮은 안락의자에 몸을 싣자 야에가 다반에 기린맥주병과 고뿌 2개를 받쳐들고 들어왔다.

무쯔가 웃음을 띠우며 사양했다.

《옥상, 고맙습니다. 한데 나는 알콜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충고가 있어서…》

오까모도가 눈을 흘기며 안해를 나무람했다.

《여적 그것두 모르고있었소?》

《제가 그만…》

야에는 당혹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더니 총총히 나가버렸다.

야에의 뒤모습을 쫓던 무쯔가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미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는 지옥에 산다는 말이 있네.… 그건 롱말이고.》

무쯔는 화제를 바꾸었다.

《자네 부산에 가거든 〈천우협〉을 시급히 조직해야겠네. 도야마도 함께 간다지?》

《예.》

《하늘이 돕는 협객이라…》 혼자소리처럼 뇌이던 무쯔가 돌연 사나운 표정으로 뇌까렸다. 《설사 하늘이 훼방을 논다 해도 청일전쟁은 일으켜야 하네. 알겠나?》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사변을 앞두고 재조거류민들속에서 야마도족의 우월감과 전승열을 고취해야겠네.》

《명심하겠습니다.》

오까모도의 낯에는 무쯔의 지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듯 한 그런 비장한 각오가 어려있었다.

이때 다반을 들고 다시 나타난 야에가 무쯔에게 차잔을 권하였다.

《각하, 쟈스민차예요.》
《오, 고맙습니다. 옥상, 내가 제일 즐기는 차군요.》

4

부산의 어느 한 절간에서 《천우협》을 조직하는 모임이 벌어지고있었다. 산속의 빈 절간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예견하여 조선옷으로 변장한 여러명의 왜놈들이 주변을 감시하고있었다.

어둑시그레하고 곰팡내가 풍기는 판도방의 상좌에는 도야마 미쯔루와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앉아있고 좌우에 두줄로 갈리여 랑인과 자객 등 수십명의 야꾸쨔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해괴망칙하였다. 일본하오리를 입은 놈,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놈, 양복을 입은 놈, 우에만 양복을 걸치고 밑에는 풍덩한 조선바지를 입은 놈 등 십인십색이였다.

도야마가 열띤 어조로 일장훈시를 하고있었다.

《…이상 〈천우협〉의 성립을 선포하는바이다. 천우협은 현양사의 하부조직으로서 현양사의 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야마는 손을 들어 벽에 붙인 《현양사》의 헌칙을 가리켜보였다.

일본의 깡패들인 야꾸쨔들은 고개를 돌려 헌칙에 눈길을 주었다.

《현양사헌칙
제1조. 황실을 경재할것.
제2조. 본국을 애중할것.
제3조. 국민의 리익을 고수할것.》

도야마는 자못 근엄한 눈으로 야꾸쨔들을 일별하고나서 헌칙을 설명하였다.

《에, 제1조 황실을 경재한다는것은 천황폐하에게 충실하라는것이며 제2조 본국을 애중하라는것은 현인신인 만세일계의 천황과 황실이 만든 이 야마도민족을 사랑하라는것이며 제3조 국민의 리익을 고수

하라는것은 야마도민족을 위해서는 타민족을 희생해도 좋다는것이다.

이 헌칙에 준하여 너희들의 당면목적은 일청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반도에서 청국세력을 내밀고 조선을 우리의 독점적지배지, 즉 식민지화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첩보, 모략, 살인, 방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알았는가!》

《하!》

일동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여 호응을 표시했다.

《너희들의 두령은 다나까이며…》

목례하는 다나까는 우악스럽게 생긴 놈팽이였다.

《너희들의 현지지휘는 여기 앉아계시는 오까모도 류노스께선생이 할것이다.》

《천우협》의 야꾸쨔들이 오까모도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속에 미야께는 류달리 기쁨에 겨워 싱글벙글하였다.

그런데 말석에 앉은 이제 스무살도 될가말가한 애숭이 하나가 무표정한 기색으로, 하지만 두눈을 쪼프리고 상좌의 도야마며 오까모도를 살펴보고있었는데 그는 《현양사》의 초대사장인 히로오까 고따로의 조카인 우찌다 료헤이란 놈팽이였다. 대륙진출에 대한 야망을 안고 《천우협》에 참가한 놈은 조선에서 밀정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후 1901년에 최대의 간첩모략단체인 《흑룡회》를 조직하게 되며 로일전쟁, 조선병합, 괴뢰만주국의 성립 등 일본의 대륙침략의 흑막에서 암약하는 우익계의 두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 어린 승냥이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에, 그러면…》

도야마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곁에 있는 오까모도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까모도는 그에게 가볍게 사의를 표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도야마사주께서 죄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움직이지 않고있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재궐기하여 조선정부를 반대하는 싸움을 벌리도록 그들에게 기름을 끼얹어야겠다는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비롯한 폭약, 무기, 자금 등을 그들에게 시급히 공급하며 필요하다면 우리들자신이 그의 휘하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이 우리 일본과 합작하고있다는 인상을 빨

리 조선정부에 주어 그들이 청국에 원병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야꾸쨔들이 과시 현명한 생각이라고 서로 얼굴을 돌아보는 속에 도야마도 한마디 하였다.

《오까모도선생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소. 폭약 같은것은 여기 조선의 광산에서도 구할수 있는것이고 무기를 빨리 일본에서 실어오도록 합시다. 하지만 몇자루의 총이면 되지 그들을 전면 무장시키면 안된다는것이요.》

쉼없이 밀려왔다밀려가는 잔파도로 모래불은 마를새가 없었다.

양복차림에 구두를 신은 오까모도가 미야께와 우찌다와 함께 모래불가를 거닐며 그들에게 차후지시를 주고있었다.

《자네들은 곧 폭약을 가지고 전봉준이를 만나야 하겠네. 어떻게 해서든 그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내란에로 부추겨야 하네.》

어린 우찌다 료헤이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섭섭해하는 어린 아이마냥 응석기어린 소리로 물었다.

《한성엔 오래 계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곳엔 그곳대로 일이 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미야께가 절절하게 하는 말을 들은 오까모도는 잠시 발길을 멈추고 미야께와 우찌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매사에 조심해야 하네. 조선놈들은 력대적으로 우리 일본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있다네.》

그러자 미야께가 주먹을 내흔들며 기고만장하여 떠들어대였다.

《여차하면 쳐갈기지요. 내 혼자서두 조선놈 수십명은 자신있습니다.》

《참, 자네 류꾸에 있을 때 가라데를 배웠다구 했지. 이제 그 솜씨를 쓸데가 많을걸세.》

우찌다가 말사이에 끼여들었다.

《우선 저부터 좀 배워야겠습니다.》

오까모도가 말했다.

《참, 우찌다군도 청국의 소림파격술이며 로씨야의 쌈뽀를 배웠다고 했지.》

미야께가 제꺽 우찌다를 두둔해나섰다.

《요전날 보니 우찌다군의 격술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라데까지 겸비하면 무서울게 없을겝니다.》

《아무튼 좋네. 야마도다마시이를 당할자 없이 해야 하네.》

《하!》

두놈은 목을 꺾으며 오까모도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자, 그럼.》

소형증기선에 다달은 오까모도는 그우에 올라탔다.

미야께와 우찌다는 각이 되게 허리를 꺾었다.

증기선은 바다로 미끄러져나갔다.

5

창호지를 꿰비쳐 들어온 한낮의 밝은 해볕은 알른거리는 노란 장판에 반사되여 연록색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입은 아정의 얼굴이며 그가 들고 앉은 《한성주보》도 노랗게 물들이고있었다.

반짇고리를 앞에 놓고 바느질하던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쳐들고 딸을 바라보았다.

《〈하더라〉 신문에 무슨 희한한 소식이라두 났느냐?》

《내가 읽을테니 들어보세요.》 아정은 신문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소리내여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금년부터 법국 파리에서…》

어머니가 딸의 신문독보를 중단시켰다.

《가만. 얘야, 법국이란 뭐구 파리란 또 뭐냐?》

《어머니두 좀 개명하시라요. 법국이란 저기 서양의 나라이름인데 불란서라구 해요. 그 나라 말로는 프랑스라 부르고요. 그리고 파리는 그 나라 서울이야요.》

《무슨 나라이름이 그렇게 여러가지냐?》

《우리 나라도 조선이라고도 하고 고려라고도 하지 않나요.》

《응, 마저 읽어라.》

아정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읽기 시작했다.

《〈금년부터 법국 파리에서 궤도전차가 운행을 시작하였다더라. 또한 파리시내의 지하철도공사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는데 19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 하더라.〉》

고개를 쳐든 아정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남들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러는 아정이에게 어머니가 또 말을 걸었다.

《한양소식이나 듣자꾸나.》

《한성소식이요…》 하고 대척하며 신문의 여기저기를 훑어보던 아정이가 한곳에 눈길을 박았다.

《음, 여기 있어요. 〈작일에 우포청에서 두 젊은 남녀가 출옥하였는바 그들의 옥살이내막이 참으로 기막히다 하더라. 사연인즉 근 열흘전 초야에 종각앞 공지에서 다까하시 등 다섯명의 일본거류민이 술에 취해 조선규수를 희롱하였는바 그것을 목격한 용력있는 조선젊은이가 단신으로 다섯이나 되는 왜인들을 때려눕히고 규수를 구원하였는바 비겁하게 달아나던 일본인들이 우포청에 이 사실을 고변하고 우포청의 포교와 포졸들이 현장에 달려와본즉 마침 두 젊은 남녀가 있기에 그들을 체포하였다더라. 적반하장격으로 피해보상액을 강요하는 왜인들에게 5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서야 석방된 그들은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운다고 실상 그 사건에 전혀 무관계한 전라도사당패라 하더라. 근 반년 전전류리하며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울며 한푼두푼 벌어들인 돈을 상기 낯도 코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전부 떼운 사당패의 모가비는 앞이 막막해 장탄식을 하는데 이 통분한 일을 보고듣는이치고 왜인들을 저주하지 않는자 없다 하더라. 정녕 왜인들이란 그네들의 속담에도 있듯이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벼룩이의 간도 빼먹을 악착한 족속임에 틀림없다 하더라.〉》

신문을 읽고 아정은 별안간 심각해졌다.

어머니도 반짇고리를 훌 밀어던지며 격분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왜놈들이 백줴 제놈들이 잘못하고도 조선사람한테서 묵돈을 빼앗아?! 인두겁을 쓴 천하에 날불한당같은 놈들! 쯧쯧…》

어머니의 성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아정이가 신중하게 물었다.

《어머니, 내가 까무라쳐 집에 업혀온것이 언제쯤 되나요?》

《아마 한 열흘 될게다.》

《맞아요! 어머, 일이 이렇게 번져지다니?! 원, 세상에…》

아정은 그길로 엄병무가 무술을 닦고있는 계원사를 찾아갔다. 아직도 음달진 곳에 잔설이 쌓여있는 산골길은 여간 미끄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조급한 심정을 억누를길 없는 아정은 바위에 짓쪼아도 아픈줄을 몰랐고 묵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역시 아픈줄을 몰랐다. 그저 한시바삐 병무를 만나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계원사의 뒤쪽 마른 풀밭에서 늙은 도승 백단이 병무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있었다.

흰머리를 헝겊오리로 질끈 동이고 가슴앞에 흰 수염발을 드리운 백단이 도술지팽이같은 우불구불한 지팽이를 짚고 서서 구령을 치고있었다.

아정은 아름드리소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서서 훈련이 끝나기를 이제나저제나하고 안타까이 기다렸다.

《탐마세!》

《여엇!》

백단의 구령에 따라 병무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른팔을 쳐들고 말을 찾는듯 한 자세, 다시말해 싸움준비동작을 취했다.

《요란주세!》

《여엇!》

제자들이 두팔을 쳐들고 무릎우에 란새의 죽지를 꺾는 자세를 취했다.

《현각허이세!》

《여엇!》

이번에는 한다리를 들고 멀리 미끼를 던지는것과 같은 동작을 취했다.

《칠성권세!》

《여엇!》

무릎을 굽힌 제자들이 오른쪽주먹과 왼쪽주먹을 엇바꾸어 내질렀는데 바위도 부스러뜨릴듯이 힘이 있고 결패있어보였다.

훈련은 한참만에야 끝이 났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열기가 번들거리고 줄땀이 흘렀는데 대개가 병무또래의 젊은이들이였다.

몰래 병무를 찾은 아정은 산골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그를 끌고갔다.

병무는 계곡의 차디찬 물에 푸푸 소리를 내며 시원스레 세면을 하더니 고개를 들고 아정을 쳐다보며 벙싯 웃었다.

아정은 저고리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무에게 주었다. 좀 주저하던 끝에 그것을 받아든 병무는 아정의 곁에 있는 바위우에 앉으며 싱거운 소리를 했다.

《내가 어제 밤에 룡꿈을 꾸었나?》

아정은 수집은듯 눈을 곱게 빨며 응대했다.

《실없는 말씀.》

《아정씨가 찾아오리라군… 참말 뜻밖이요.》

《도련님.》

아정은 보따리를 풀어 병무의 곁으로 밀어주었다.

《뭔데?》 보따리를 헤쳐보던 병무는 놀란 소리를 질렀다.

《히야, 찰떡.》

《어머니가 보내는거예요.》

《고맙소. 이따 선생님이랑 함께 들겠소.》

문득 심각해지는 아정의 기색을 보고 병무도 의아하게 여겼다.

아정은 품속에서 접어놓은 신문을 꺼내여 펼치더니 병무에게 주었다.

신문을 들고 읽던 병무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에는 말할수없이 착잡한 고뇌의 표정이 어려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수가 없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병무는 격해서 우뚝 일어섰다.

아정도 따라 일어섰다.

《갑시다.》

《어디로?》

《포도청에.》

《포도청?!》

언제 어떻게 숨가삐 뛰여왔는지 그들자신도 몰랐다. 포도청의 정문으로 뛰여든 그들은 다짜고짜 포도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의혹에 차서 병무와 아정이를 갈마보던 포도부장이 느릿느릿 물었다.

《도대체 임자들은 누군가?》

병무는 제 가슴을 두드렸다.

《내가, 내가 바로 그 왜놈들을 때려눕힌 당사자란 말이외다.》

그제야 포도부장이 눈이 커지며 물었다.

《그러니 랑자는 왜인들에게 욕보일번 했다는 그 규수고?… 허어, 세상사란…》

병무는 갈급증이 난 사람마냥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그 광대들이 어디에 거처했는지 모르십니까?》

《모르네.》

《만날 방도가 없을가요?》

《한양장안에서 김서방 찾기지.》

《아, 이를 어쩜 좋담.》

병무는 괴로움에 잠겨 머리를 싸쥐였다.

그러는 병무를 측은하게, 대견하게 바라보던 포도부장이 동정하는 투로 말하였다.

《너무 상심말라구, 두루 좋게 해결됐으니까.》

《아니,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입니까?》

6

파성관의 밀실에서 무릎을 끓고 앉은 다까하시며 랑인배들앞에서 성이 독같이 오른 오까모도가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그들을 질타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우리 일본인 다섯이 조선놈 하나를 당하지 못해 달아나다니?!… 그리고 뭐 피해보상액을 요구해?!…》

다까하시가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넘어져도 맨손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우리 일본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닥쳐! 그래, 500원과 야마도다마시이를 바꾸겠는가! 사무라이넋을 버리겠는가?》

오까모도는 《한성주보》를 쥐여흔들었다.

《이 사건은 온 조선이 다 안단 말이다.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겠는가!》

《하!》

랑인배들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수치를 씻으라! 야마도다마시이를 회복하란 말이다.》

이렇게 말한 오까모도는 끓어앉은자들을 쭉 일별하고나서 다시 물었다.

《그놈을 알고있는가?》

《누구?…》

놈들은 어정쩡해서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너희들 다섯을 때려눕힌 조선놈 말이다.》

놈들은 눈길을 떨구고 고개를 흔들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벌리고 선 오까모도는 수하놈들을 잡아먹을듯이 노려보며 뇌까렸다.

《찾으라. 그리고 복수하라. 한성장안이 다 보는데서 말이다.》

《저, 어떻게?…》

어느자가 얼떠름하게 물었다.

《서울 련무당에서 격술시합을 열라. 대대적으로 광고하라. 그러면 그놈이 꼭 찾아올것이다.》

다까하시며 랑인배들이 희색을 띠우며 머리를 끄덕였다.

오까모도는 이 순간 부산에 지급전보를 쳐서 격술에 능한 미야께와 우찌다를 급히 서울로 부를 생각을 하고있었다.

한성으로 가는 길우로 말 두필이 네굽을 놓고 달리고있었다. 말등에 바싹 허리를 굽히고 채찍을 휘두르는것은 부산 《천우협》의 미야께와 우찌다였다. 그들의 등에는 일본도 한자루씩 얹혀있었다.

파성관에서 그들과 마주앉은 오까모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야께, 자네 류꾸에 있을 때 가라데를 배웠다고 했지?》

《예.》

《어느 수준인가?》

미야께는 벌쭉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아직 우리 일본에선 가라데란 말도 모르니 더 언급할것도 없고 류

꾸에서도 저를 당하는자가 없었습니다, 헤.》

오까모도는 만족스러운듯 턱을 쓸어만졌다.

미야께가 으시대며 한마디 더 했다.

《대위님께 동작을 해보이랍니까?》

《좋아, 좋아. 당장 여기 한성에서 무술에 능한자들을 모아놓고 자네의 가라데를 배워주게. 유도와 검도에 가라데까지 배합하면, 음…》

오까모도의 신중한 기색을 살피며 미야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무술은?…》

《우리 거류민 다섯이 조선놈 하나한테 꼼짝못했거던. 이것이 신문에 실려 웃음거리가 됐단 말이다.》

《그래요?》

미야께와 우찌다는 서로 마주보며 분해하는 기색을 지었다.

오까모도는 근엄한 기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힘을 주어 말했다.

《무술이란 그 민족의 기상과 슬기를 보여준단 말이야. 조선놈들의 기를 꺾어버려야겠어, 청국놈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명심하게. 이 일은 일청전쟁을 앞두고 우리 야마도족의 위력을 시위하는 계기로 되여야 하네.》

《그런데 시일은?》

우찌다가 물었다.

《빠를수록 좋네.》

이튿날부터 파성관의 구석진 방에서 미야께의 감독밑에 본격적인 무술련습이 시작되였다.

유도복차림으로 서있는 일본무술가들앞에서 미야께가 일장 훈시를 하였다.

《제군들이 소유하고있는 유도술과 검도술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가라데를 새로 배워야 하겠다. 가라데란 무술인데 몸에 무기를 가짐이 없이 주먹에 의한 찌르기와 치기, 발에 의한 차기를 기본으로 자기 방위와 적수를 공격하는 술법이다.

가라데의 공격목표는 국부(미야께는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명치끝, 머리정수리를 비롯한 급소 그리고 관절, 눈, 갈비뼈, 가슴, 목등이다. 이제 제군들에게 가라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미야께는 유도복자락을 걷어올리며 높이 가려놓은 기와장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기와장을 좀 가늠해보더니 《야앗!》 하는 기합을 넣는듯 한 소리와 함께 손칼로 기와장을 내리쳤다. 기와장들이 산산쪼각이 나서 부서져나갔다.

《히야!》

긴장하게 목을 빼들고 미야께의 동작을 주시하던 일본무술수련생들이 탄성을 질렀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까모도도 박수를 쳤다. 그는 미야께를 조선으로 데리고오길 잘했다고 흡족해했다.

이어 미야께는 두명이 붙잡고있는 두툼한 널판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야앗!》

두툼한 널판자가 대번에 쩍 빠개졌다.

《꼬라!—》

또다시 환성이 터져올랐다.

미야께의 곁으로 다가온 오까모도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하였다.

《훌륭하네, 미야께.》

《대위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미야께는 오늘의 경지에로 자기를 이끌어준 오까모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며 눈물이 글썽하여 머리를 깊이 숙였다.

7

좁은 골목길로 마차를 타고가던 무쯔는 유개마차의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고나서 마차부에게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 둬시간후에 이 자리에 와서 대기하게.》

마차에서 내린 무쯔는 중절모를 눌러쓰고 곁눈질로 사위를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유명하다는것은 부담이라더니 제국의 외상이라는 직책이 이런 걸음엔 참으로 거치장스러운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집앞에서 걸음을 멈춘 무쯔는 주위를 다시한번 둘러보고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귀익은 녀인의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그러자 항상 랭정하고 침착하다고 하는 무쯔도 느닷없이 가슴이 쿵쿵 높뛰기 시작했다.

문고리가 벗겨지는 소리가 나고 문이 빠금히 열렸다.

깜짝 놀라는 오까모도의 처 야에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 외상각하께서?!…》

야에는 당혹하여 어찌할바를 모른다.

무쯔는 애써 마음을 진정하며 느슨하게 웃었다.

《옥상, 그간 잘 있었소?》

늘 점잖게 처신하던 야에도 이 순간만은 너무 뜻밖이여서 좀 호들갑스러웠다.

《참, 내 정신보지, 귀한분을 밖에 세워두시고. 각하,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루추하지만…》

《좀 들어가볼가?》

무쯔는 야에가 안내하는대로 방안으로 들어갔다.

누비돗자리 여섯장을 깐 넓지 않은 방에 무쯔는 스스럼없이 앉았다.

야에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각하, 저 여기 쏘파에…》

《괜찮습니다. 옥상두 거기 좀 앉으시오.》

무쯔의 명령하는 투의 말에 야에는 그와 좀 사이를 두고 두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쯔가 잠시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주인도 없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각하께서 념려해주시는 덕분에…》

야에는 수집은듯 아미를 숙였다. 말쑥한 살결, 한쪽볼에 살짝 패운 볼우물, 머리를 틀어올려 쏙 빠진 해사한 목이 그대로 드러나보였고 옷깃짬으로 분처럼 하얗고 봉긋한 젖가슴이 들여다보였다.

무쯔는 다시금 가슴이 높뛰고 눈앞이 어질거려 잠시 눈을 감았다떴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돈봉투를 꺼내 야에앞으로 밀어놓았다.

《옥상에게 제국정부가 주는 상금입니다. 천엔입니다. 서울에 있는 오까모도군에게는 따로 송금하였습니다.》

야에가 감격하여 두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많은 돈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에는 무쯔에게 무릎을 꿇고 거듭거듭 절하였다.

그러는 야에에게 무쯔가 넌지시 말했다.

《옥상, 집에 술이 없소?》

야에가 황송하여 얼른 대꾸했다.

《있습니다.》

다음순간 야에는 무엇이 회상되는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 각하는 알콜음료를 삼가하신다고…》

《괜찮소. 오늘은 조금 마시고싶구만.》

《그럼…》

급히 몸을 일으킨 야에는 밖에 나갈 차비를 하였다. 무쯔는 그 녀자의 희고 매츨한 다리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그럴 짬이 없노라고, 그저 옥상이 먹는 안주면 된다고 너그럽게 말했다.

부엌으로 나간 야에는 얼마후에 간소한 주안상을 차려들고 들어와 무쯔앞에 놓았는데 안주는 변변치 않아도 술만은 영국산 《스코트위스키》였다.

안주가 변변치 않아 송구스러워하는 야에에게 무쯔는 좋은 술이 다 있다고 칭찬하였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앉은 야에에게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옥상이 한잔 부어야지.》

《예, 정말…》

야에가 술상곁으로 공손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잔에 술을 부었다.

그의 희고 작은 손은 또 얼마나 귀여운가.

야에가 부어준 술을 무쯔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지지고 위속으로 퍼져나가는 감각이 쩌릿하게 알렸다.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지요?》

무쯔의 우묵한 눈확의 눈빛이 류다른 광기로 번들거렸다.

《뭐, 별로…》

야에는 웬일인지 무쯔의 눈을 마주보기가 두려워 고개를 숙인채 빈

잔에 또 술을 부었다.

《옥상과 같은 미인을 오까모도가 독차지한다는건 아무래도 불공평하단 말이요.》

《무슨 롱의 말씀을…》

다시 빈잔을 낸 무쯔가 이번엔 제가 술을 부어 야에에게 권하였다.

《옥상도 한잔 드시오.》

《전…》

《내가 주는 술이야 받아야지.》

어딘가 정색한듯 한 그리고 명령하는듯 한 무쯔의 말에 야에가 술잔을 받아 조금 입에 대였다.

《아니, 쭉…》

무쯔는 야에의 목을 그러안고 그의 입에 술잔의 술을 다 쏟아부었다. 독한 술을 마신 야에의 낯은 대번에 빨갛게 물들고 가슴이 활랑거렸다.

무쯔는 녀인들을 대상함에 있어서 몇가지 철칙이 있었다. 우선 자기가 상대방녀인에게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고있으면 그 녀인도 자기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품게 된다는것이며 다음으로는 녀인을 대상함에 있어서 도덕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례절 같은것을 싹 집어치우고 철면피하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무쯔는 술상아래로 야에의 동그란 무릎을 슬슬 쓸어만졌다. 부끄러움으로 야에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무쯔는 별안간 소리개가 병아리를 덮치듯이 야에를 품에 꽉 그러안고 그의 입술을 빨고 목덜미를 핥았다.

야에는 숨결이 가빠지더니 몸을 비틀며 사정하듯 중얼거렸다.

《각하, 이러시면…》

《각하도 사내란 말이야.》

8

엄병무와 홍아정은 오늘도 전라도광대패를 찾아 헤매였다.

그들이 울바자도 허술한데다 거멓게 고삭은 초가이영에 한쪽으로 기운 벽에 말장을 버티여세운 농가인지 려인숙인지 구분키 어려운 어느 한 집의 마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마당을 쓸고있던 하인인듯 한 늙수그레한 사람이 (실은 그가 려인숙주인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전라도광대들이 류숙하고있었는데 얼마전에 고향인 전라도로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전라도 어데라는 말은 없었는가요?》

병무가 안타깝게 묻자 늙수그레한 주인은 비자루를 짚고 서서 대답하였다.

《왜, 있었지. 고부라던가.》

그와 헤여진 병무는 빨리 걸었다. 화김에 보리방아질이라고 결김에 윽윽거리는 병무를 숨가삐 뒤따르며 아정이가 토라진 소리를 했다.

《전라도까지 찾아가실 작정이예요?》

《그래야지.》

병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빈손으로 말이나요?》

《무슨 수를 써서든 500원을 마련해야지.》

아정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뒤를 따르는 외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들이 종각앞 공지를 지나가고있을 때였다.

한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는것을 본 병무와 아정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종각옆 두리기둥에 무슨 광고가 나붙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있었다. 그들도 참지에 먹으로 써붙인 광고에 눈길을 주었다.

광 고

금×월×일 련무당에서 조일량국 무술가들의 시합이 있사오니 지망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사.

다대한 시상도 있사오니 1등에 500원, 2등에 300원, 3등에 100원야라.

갓쟁이 하나가 광고를 보고 혀를 내두른다.

《허, 무술시합을 한다는것도 희한한 일이오나 상이 또한 굉장하구려. 500원이라니, 거 한밑천 단단히 잡겠는걸.》

다른 갓쟁이가 제꺽 응대했다.

《아, 동양 3국을 통해 1등인데 그만한 상도 없을가.》

광고를 읽고 저윽 놀란 병무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500원, 500원이란 말이지.》

그는 아정이를 돌아보며 그의 손을 꽉 쥐였다.

《광고를 봤지? 됐소. 이젠 됐단 말이요.》

아정은 병무의 손아귀에 잡힌 제 손을 뽑아 주무르며 물었다.

《한데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목숨을 내대고 해야지.》

하늘이 자기를 도와주는듯싶어 병무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싶은 심정이였다.

아정이와 헤여져 계원사로 돌아온 엄병무는 도승 백단에게 무술시합에 자기도 참가하겠다는것을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도승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놓쳐버릴수 있는가고 병무가 눈물겹게 하소해도 백단은 여전히 막무가내였다.

《내 얼마나 말했느냐? 무술을 혹여 돈벌이나 분풀이, 여하튼 사심에 써서는 안된다구. 헌데 넌 지금 상이라고 하는 그 500원에 정신이 가있지? 안된다!》

단호한 스승의 말에 병무는 머리를 떨구고 불같은 한숨을 내뿜을 뿐이였다.

그러는 병무를 바라보며 백단은 엄한 표정으로 타일렀다.

《우리 배달의 무술은 력사가 오래고 뜻이 깊으니라. 연혁을 거스르

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 탄신하신 조선의 원시조 단군성왕께로 이어지느니라. 단군성왕의 한아버지되시는분인 환인대왕은 자주 인간세상을 굽어보는 아들 환웅을 보시고 하늘의 자손이라는 징표인 〈천부인〉을 주시면서 인간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여 세상을 건지라고, 세상을 넓게 구원하시라는 의미에서 〈홍익제세〉라는 큰 넋을 심어주시였지. 환웅은 백두산에 내려가 단군성왕을 낳았으며 단군성왕은 조선나라를 세우고 박달나무아래서 임금자리에 오르셨다. 환웅과 단군은 그때 인간세상 360여가지 일들을 주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나라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무술이였단다. 그러니 조선의 무술은 반만년의 력사가 깃든 단군무술이요, 그 넋은 홍익제세에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선생님!》 병무는 깊이 뉘우치며 머리를 숙였다.《제 잠시나마 배달의 얼을 잃고있었소이다.》

《됐다. 하지만 그날 구경은 가거라. 각국의 무술이 어떤가 견문을 넓힐겸.》

《알겠소이다.》

9

아침부터 왜인들이 벅작 떠드는 소리에 집집의 대문들이 열리고 삽짝에 매달린 녀인들의 얼굴이 보였다.

거리로 한무리의 왜인들이 저희들의 세상이나 만난듯이 떠들썩거리며 지나가고있었다. 너풀거리는 하오리를 입고 게다짝을 끄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부처를 태웠다는 가마, 《오미꼬시》를 중심으로 앞뒤로 긴 가마채를 멘 십여명의 왜인들이 머리에는 하찌마끼(수건)를 동이고 사타구니에 훈도시만을 찬 벌거벗은 뻘건 몸뚱아리를 률조있게 흔들며 소래기를 지르고있었다.

왔쇼이 왔쇼이
간다노 마쯔리다

왔쇼이 왔쇼이
…

아직 날씨가 찬데 벌거벗은 놈들의 몰골도 꼴불견이려니와 우선은 보는 사람도 오싹 추위를 느끼게 했다. 놈들도 춥긴 추운 모양 닭의 살이 잔뜩 돋아가지고도 제법 호기를 부리는데 모름지기 추위를 잊으려고 더 극성을 부리는 모양이 분명했다.

벌거숭이들은 상판도 언청이, 입비뚤이, 덴둥이, 눈딱부리 등 별 병신짝들이 다 있었다.

놈들의 뒤로 흰 유도복을 입은 10여명의 무술가들이 뒤따르는데 두목인 미야께는 팔짱을 끼고 좌우를 거드름스럽게 휘둘러보고있었다. 기운을 돋구느라 새벽술을 한잔 했는지 놈의 낯짝은 술꽃이 피여 벌그스름하였다. 그곁의 애숭이 우찌다며 유명무명의 무술가들, 이들을 우러르며 걷는 형형색색의 왜인들이 끄는 게다짝소리로 거리가 소연했다.

놈들의 몰골이 하도 흉칙하여 길가던 장옷 쓴 녀인들이 얼른 외면하고 울바자에 매달렸던 녀인들과 아이들도 머리를 움츠렸다.

길가녁의 사람들이 왜인들을 밉살스럽게 쏘아보며 한마디씩 내쏘았다.

《저 쪽발이들이 왜 이 지랄이여.》

《여기가 뭐 저희 고장인가 아는가베.》

《오늘 련무당에서 무술시합을 한다더니 저것들이 그리로 가는게로구먼.》

철없는 조무래기들이 해괴망측한 왜놈들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련무당 앞마당에 이른 왜인들은 거기서도 한바탕 광기를 부렸다.

벌써 련무당으로는 여기저기서 모여온 흰옷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있었다.

두리기둥뒤에서 장옷 쓴 한 처녀가 초조한 기색으로 사위를 둘러보고있었다. 그는 병무를 기다리는 아정이였다.

이 시각 도승 백단의 제자들인 엄병무와 리대길은 산길을 걷고있었다. 서울시가지까지는 아직 20리길이 남아있는데 해는 벌써 나무우듬지우로 장바 한기장이나 솟아올랐다. 시합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행차뒤 나발이 되면 안되겠다고 그들은 걸음을 다그쳤다.

드디여 그들은 서울성곽이 바라보이는 들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길옆 도랑창에 구겨박힌 소달구지가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늙은 달구지군이 소고삐를 잡아당기고 소잔등에 채찍을 안겼다.

《이놈의 소, 이랴!》

우걱뿔소가 목을 뽑아들고 용을 쓰나 바위돌을 가득 실은채 도랑에 처박힌 달구지는 꿈쩍하지 않는다.

병무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고쳐생각하고 달구지로 다가갔다. 대길이가 그를 황급히 만류했다.

《병무, 해를 보라구. 언제 그럴 사이가 있다구 그러나?》

하지만 병무는 아무말없이 걸어가 달구지바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대길이도 할수없이 따라가 저도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무거운 달구지는 좀체로 움직일념을 안했다. 웃동을 벗어던진 병무는 짚신과 버선까지 벗고 도랑창에 들어섰다. 드디여 달구지가 길우에 올라섰다. 늙은 달구지군이 고마움에 겨워 병무네를 루루이 칭찬했지만 그들은 벌써 벗은 옷을 걷어들고 저쯤 달려가고있었다.

련무당에 그들이 다달으자 두리기둥곁에서 초조하게 사위를 살피던 장옷 쓴 처녀 아정이가 기쁨의 웃음을 확 피워올리며 마주 달려나왔다.

병무는 그를 보고 놀랐다.

《아니, 아정씨가 어떻게?!…》

상그레 웃는 아정의 낯이 붉어졌다.

《병무씨를 기다리댔어요. 안옴 어쩌나 하고 얼마나 속을 태웠다구요.》

《그런줄 알았으면 좀 더 늑장을 부릴걸…》

병무는 경황없는 속에서도 롱말을 하였다.

《병무씨, 꼭 이기세요.》

아정은 간절한 기색으로 절절하게 당부했다.

《우린 경기를 하러 온게 아니요.》

《그럼?》

《구경왔지.》

《뭐라구요?…》

락담실색한 아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듯싶었다.

련무당안으로 들어간 병무와 대길은 사람들의 뒤전에 자리잡고 아정이도 기둥뒤에 몸을 숨기고 경기를 훔쳐보았다. 아마 아정이는 이 장소에 나타난 유일한 녀인일것이다.

무술경기가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관중들은 조선과 일본 두 무술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있었다.

중심에는 앞에 탁자를 놓고 귀빈들이 앉아있고 좌우로 갈리여앉은 조선사람들과 일본거류민들이 자기편 선수가 타격을 가할 때마다 《와아!—》 환성을 지르고있었다. 세시풍속에 소를 상으로 건 씨름경기는 있었어도 이런 무술시합은 처음이여서 관중은 여간 흥분하고 들떠있지 않았다.

일본선수는 유도복차림이고 조선선수는 맨 상투에 바지저고리를 입었다. 조선선수는 씨름을 하려는 자세고 일본선수는 유도를 하려는 태도였다. 드디여 두 선수가 맞붙었다. 대번에 저고리고름이 떨어져나가고 일본선수가 조선선수의 옷깃을 잡고 어깨를 들이밀었다. 고함을 지르는 일본관중들.

《둘러메치라!》

하지만 조선선수는 용케 빠져나오더니 드디여 일본선수를 배지기 뗬다. 조선사람에게 쳐들리여 두다리를 버드럭거리는 일본선수를 보고 조선관중들이 환성을 질렀다.

《배지기다!》

《뗐다꼰져라!》

일본선수를 쳐든채 빙빙 돌아가던 조선선수는 끝내 기회를 놓쳐버리고말았다.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그런데 어느새 또다시 조선선수의 옷깃을 거머쥔 일본선수는 미처 어쩔새없이 그를 바닥에 둘러메치였다.

일본관중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환성을 질렀다.

《반자이!—(만세!)》

《반자이!—(만세!)》

조선선수는 허리를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가는데 일본선수는 범잡

은 포수마냥 기고만장하여 경기장을 한바퀴 도는것이였다.

새 선수들이 나왔다.

일본선수는 여전히 유도복차림인데 조선선수는 등거리에 잠뱅이를 걸친, 흡사 들에서 일하다 들어온 농군모양새였다.

그 꼴을 보고 조선사람들은 탄식하였다.

《아니, 저 사람도 무술가요?》

《그러게 말이외다, 무지렁이농사군이지.》

《이기면 상으루 500원을 준다니까 돈에 홀린게구만.》

그러나 보기와는 달리 베잠뱅이의 솜씨가 여간 빠르지 않았다.

오까모도가 곁에 앉은 다까하시에게 물었다.

《저기 조선선수들중에 그놈이 있소?》

다까하시는 고개를 흔들었다.

《없소.》

다까하시가 탐욕과 의혹이 어린 눈길로 오까모도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상금 500원을 정말 주려오?》

《아무렴.》

《혹시 조선놈이 이기면?》

《그래도 주어야지.》

《그거야?…》

《아깝단 말이요?》 오까모도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건 또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마오.》

오까모도는 주위를 흘끔 돌아보고나서 품속에서 종이장을 꺼내서 다까하시에게 보여주었다.

상금증서

일금 500원
상기금액은 인천 제1은행 지점에서
상환하여줄것이다.

상금증서를 보고 알만 하다는듯 삐주름히 웃음을 띠우던 다까하시가 그것을 오까모도에게 도로 주었다.

《그러니 빈 종이장을 준단 말이군. 하여간 오까모도상은 빈틈이 없다니까.》

《허허…》

다까하시를 보며 마주 웃는 오까모도의 얼굴에는 걸맞지 않는 웃음이 떠올랐다.

《와!—》

함성에 경기장에 고개를 돌리는 오까모도와 다까하시, 그들은 그만 눈이 둥그래졌다. 일본선수가 바닥에 쓰러져있었던것이다.

조선선수는 베잠뱅이를 추켜올리고 태연히 허리띠를 고쳐매고있지 않는가.

조선관중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환성을 질렀다.

《천세!—》 하고 환호를 지르는 관중을 나이지숙한 사람이 지청구했다.

《왜 천세일고, 만세지, 만세야!》

《만세!》

일본관중들은 분해서 씩씩거리고 두덜거렸다.

《저따위 욥존(엽전)한테 지다니?》

《고라 칙쇼!》

《바가야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승벽으로 열기를 풍기였다. 친선이나 우의와 같은 기분은 꼬물도 찾아볼수 없었다. 오직 민족적인 대항과 대결만이 숨가쁘게 팽배하게 응결되여있을뿐이다. 침략과 반침략, 애국과 매국, 투쟁과 굴종의 대결장이였다.

문득 일본관중속에서 하오리를 입은 한놈이 뛰여나오더니 응원대장노릇을 하였다. 수건을 코에 동이고 하오리를 걷어올려 훈도시를 찬 뻘건 엉치를 드러내고 《도죠수꾸이춤》(미꾸라지잡이춤)을 춘다. 놈은 허리를 숙이고 반두질하는 시늉을 하면서 《닛싱센소 하레쯔시떼 아— 꼬랴꼬랴》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칙하게 힝힝 코를 푸는 시늉도 하였다. 하건만 일본관중들은 그의 동작에 맞추어 좋아라 박수를 치고 소래기를 질렀다.

《야레 소레 쪼이나 쪼이나》

《꼬랴 꼬랴 쪼이나 쪼이나》

왜놈들의 망측하고 추잡한 승기에 조선관중들은 잠시 기가 죽어있었다.

이때 관중들속에 끼여있던 동소임 권벽이 곁의 젊은이에게 뭐라고 일렀다.

관중사이를 빠져나간 젊은이가 잠시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는 투구를 쓰고 붉은 갑옷을 입은 무사차림새였다.

조선관중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무사차림의 젊은이가 그들에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러분!—》

《예!—》

힘차게 호응하는 조선동포들.

《충무공 리순신장군이 예 있소!—》

이렇게 소리친 젊은이는 무사춤을 추는데 두팔을 불길처럼 쳐든 그의 힘있는 률동에 맞추어 조선관중들은 손벽을 치며 《쾌지나 칭칭 나네》를 합창했다.

들로 갈가 산으로 갈가
싸움터로 달려가세
쾌지나 칭칭 나네
칭칭칭 칭칭 나네
우리 군사 가는데는
산도 주춤 물러선다

하늘높이 뽑아던지는 맑지고 청청한 젊은이의 목청도 목청이려니와 힘있고도 률동적인 그의 춤가락이 장관이여서 관중은 어느새 그에게 홀딱 반해버리고말았다. 관중들이 경탄하고 찬탄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원, 저런… 과시 명창은 명창이요!》

《씨름두 씨름이려니와 저 젊은이가 더 구경스럽시다그려.》

리순신장군으로 분장한 젊은이는 관중들을 향해 마주서더니 흥겹고 랑만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모든 관중들이 우렁찬 소리로 《쾌지나 칭칭 나네》 하고 젊

은이의 선창에 화답했다.

선창과 대창으로 이어지는 조선관중들의 성수난 노래소리로 련무당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임진왜란때 우리 수군의 승리와 왜놈적장 가등청정의 패배를 기원하여 경상도지방에서 불리우던 《쾌지나 칭칭 나네》는 오늘 서울련무당을 애국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했다.

《좋다!》

《좋지!》

앞자리에 앉아있던 갓쟁이, 두루막쟁이령감들이 끝내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다. 한 늙은이는 잔등에 무엇인가 불룩하게 쑤셔놓고 곱사등이춤을 추었다.

이제는 일본거류민들도 입을 헤 벌리고 손벽을 치며 사기나고 기세충천한 조선사람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뿌듯이 차오르는 격정으로 병무는 눈을 슴뻑거렸고 아정이도 눈굽을 찍었다.

이런 속에서도 경기는 계속되였다. 그런데 경기는 조선식씨름도 아니요, 일본식유술도 아닌 조선식씨름에 일본식유술을 합치고 조선식태권도에 류꾸식가라데를 더한 흡사 프로레스링과 같은 막싸움판이 되고말았다.

애숭이 우찌다가 조선선수를 유도동작으로 둘러메쳤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으나 우찌다의 발길질에 조선선수는 다시 쓰러졌다.

《와!—》

일본관중들이 환성을 지르는데 기고만장한 우찌다가 두주먹을 쳐들어 흔들었다.

그가 경기장을 빙빙 돌며 도전자를 부르지만 조선선수들속에서는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갓쟁이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들을 둘러보며 안타깝게 하소했다.

《우리 배달동포들속에는 사람이 없소?》

병무는 망설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스승 백단은 절대로 경기에는 참가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고 했다, 그런데 정황은 어떤가, 왜놈에게 맞서는 조선사람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결국 왜놈들이 이겼다고 기

세를 올릴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오늘같은 날을 위해 내가 그간 무술을 닦지 않았는가.

드디여 병무는 웃옷을 벗어붙이고 경기장으로 나섰다.

우찌다와 마주선 병무.

귀빈석에 앉아있던 다까하시가 오까모도에게 병무를 가리켜보이며 성급히 말하였다.

《저, 저놈이요.》

《뭐라구?》

《그때 그놈…》

《요시!》

오까모도는 눈에 살기를 띠우고 경기장을 주시했다.

병무와 우찌다가 서로 기회를 노리며 경기장을 돌고있었다.

《야앗!》

드디여 우찌다가 짐승같은 악청을 지르며 병무에게 달려들었으나 그가 날쌔게 몸을 피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사품에 병무가 제꺽 반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간 맹렬히 훈련한 우찌다도 만만치 않았다. 수십합의 공격과 방어. 관중들도 긴장하여 그들의 경기에 신경을 모으고있었다.

우찌다가 입을 앙다물고 씩씩거리더니 병무를 둘러메치기로 넘어뜨리였으나 얼른 몸을 일으킨 그가 《택견》으로 우찌다를 타격했다. 어느덧 힘이 진한 우찌다가 헐떡거리였고 병무는 더욱 완강하게 공격했다. 병무의 련속주먹지르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우찌다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말았다.

조선관중들은 일제히 《와!—》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환성을 질렀다.

성이 치밀대로 치민 오까모도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우찌다, 바보같은 자식!》

이렇게 씨벌인 오까모도는 다까하시더러 미야께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맨몸에 후렁후렁한 하오리만 걸친 미야께가 자기앞에 나타나자 오까모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병무, 저 조선놈의 새끼를 꺼꾸러뜨려야 한다고 오금을 박았다.

미야께가 구레나룻이 거밋한 볼을 문지르며 경기장에 있는 병무를 노

려보자 오까모도는 한마디 더했다.

《죽여도 좋아!》

《핫!》

미야께는 허리를 굽석이며 힘있게 대답했다.

조선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일본인들은 의기소침하여 조선사람들한테 눈을 빨뿐이였다.

미야께는 알몸에 훈도시만 찼는데 그가 훈도시짬에 무엇인가 감추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드디여 미야께가 경기장에 나섰다. 그의 거쿨진 체구며 볼을 덮은 거밋한 구레나룻, 험상궂은 표정에 관중들은 저윽 위압을 느끼는 기색이였다.

병무도 웃동을 벗어던졌다. 속고의바람에 구리빛의 단단한 체구, 두 선수가 다 거벽스럽고 거물스러웠다. 병무를 노려보는 미야께의 눈은 살의로 번뜩였다. 하지만 병무는 침착하고 태연한 표정이였다.

서로 기회를 노리는 두 선수, 미야께가 어서 접어들라고 손을 까닥까닥거렸다. 드디여 병무가 달려들어가며 미야께의 동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미야께는 어쩔새없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얼른 일어났다.

관중들도 흥이 났다. 한 중로배가 곁의 사람에게 아는 내색을 했다.

《저게 택견이라구 발로 차는 무술일세. 산지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은 다리힘이 세거던. 허나 저기 중원평지의 청국이나 일본사람들은 주로 손쓰기를 잘한단 말이요. 손쓰기는 우리 말로 〈수박〉이라고 하지.》

이윽고 병무의 목을 한팔로 그러안은 미야께가 손칼로 그의 어깨를 내려조겼다. 병무가 무르팍으로 미야께의 급소를 지르자 미야께는 급기야 허리를 꼬부리고 돌아갔다.

허리에 량손을 얹고 그가 피여나기를 기다리는 병무를 보고 중로배가 안타까와 고함을 질렀다.

《하, 저 사람이 왜 저러구 서있나. 저놈이 정신차리기 전에 꺼꾸러뜨릴게지.》

드디여 피여난 미야께가 심호흡을 하는데 그의 눈에 살기가 뻗쳤다. 미야께가 돌연 유술동작으로 병무를 넘어뜨리더니 그의 몸우에 올라타

고 관절꺾기를 하였다. 벗어나려고 모지름쓰는 병무의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고상(항복)을 하라!》

미야께가 힘을 주며 뇌까렸다.

그러나 병무는 놈의 손아귀에서 용케 벗어났다. 팔다리를 주무르던 병무가 별안간 드센 공격을 들이대더니 머리받기로 미야께를 떨어뜨렸다.

중로배가 환성을 질렀다.

《저건 〈평양날파람〉 일세. 평양무술은 머리받기가 유명하지. 저 젊은이는 모르는 재주가 없구만.》

한참만에 비실비실 일어나는 미야께의 낯이 적의와 살의로 일그러졌다. 훈도시짬을 더듬는 미야께의 손에 무엇인가 쥐여졌다. 병무에게 슬슬 접근하던 미야께의 손이 휙 하며 병무의 눈에 무엇인가 뿌려던졌다.

그러자 병무는 흠칫하며 눈을 감아버렸다. 병무는 급히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비렬한 미야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병무를 마음놓고 타격하였다.

눈을 보지 못하는 병무는 무방비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는 두손으로 눈을 감싸고 매삼질쳤다.

관중들이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오?》

《그러게 말이외다.》

그러나 일본인관중들은 사기가 올라 벅작 고아댔다.

꿇어앉아 두손으로 눈을 감싸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병무에게 조선동포들이 안타깝게 소리쳤다.

《일어나라!—》

그 소리가 증폭되여 울리는 속에 문득 병무의 머리속에 친근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승 백단의 얼굴과 그의 웨침이 울리는듯싶다. 《무술은 힘이기 전에 넋이다.》 아버지 엄초관의 얼굴, 그의 말이 병무의 귀전을 때렸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한다.》

병무는 입술을 강다물었다.

아정이도 초조와 불안에 싸여 병무를 지켜보았다. 머리에서 쓸치마가 흘러내렸건만 아정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병－무－씨!－》

너무도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절한 처녀의 그 웨침이 모든 소음을 짓누르고 병무의 귀전에 날아들었다.

흠칫 몸을 떨며 아정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병무, 기적이라도 일어났는가, 병무가 몸을 일으켰다. 눈은 감았으나 그의 표정은 더욱 예리해지고 온몸이 표범처럼 격동된다. 눈은 보지 못해도 륙감으로 싸우려는 병무였다.

미야께가 달려들었다. 몸을 피하는 병무, 그는 두손을 내뻗치고 적수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이 그의 눈이 되고 귀가 되여있다.

다시금 달려드는 미야께를 병무가 몸을 피함과 동시에 걷어찼다. 미야께가 비틀거리며 악에 받쳐 숨을 헐떡이였다.

병무가 별안간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두발로 미야께의 어깨우에 올라타고는 한쪽발꿈치로 적수의 뒤통수를 호되게 걷어찼다.

미야께는 네활개를 벌리고 뻐드러지고말았다. 머리를 구겨박고 엎어진채 꼼짝 않는 그의 입귀에서 피거품이 흘렀다.

관중들이 경악에 차서 몸을 솟구었다.

일본인들이 미야께한테로 달려내려갔다.

미야께는 담가에 실려 밖으로 들리워나갔다.

《저놈이 죽지 않았소?》

조선사람들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자 별안간 왜인들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소리가 터졌다.

《조선놈이 야마도인을 죽였다!》

《조선놈을 죽여라!》

왜인들은 악청을 지르며 경기장으로 뛰여내려갔다. 그들은 살기가 뻗쳐 날뛰였다.

조선사람들도 맞받아 달려내려갔다.

《우리 젊은이를 지키자!》

《왜놈들을 죽여라!》

조선사람들의 기상은 성난 호랑이 한가지였고 활화산과 같았다.

조선사람들의 주먹에 얻어맞고 발길에 밟혀 비명을 지르는 왜놈들의 목소리가 아츠럽게 울렸다.

이 살벌한 분위기를 겁에 질려 바라보던 오까모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까하시에게 지시했다.

《경찰, 경찰을 부르라! 빠, 빨리!》

다까하시가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정이는 앞 못 보는 병무를 부축하고 골목길을 걷고있었다.

가끔 돌뿌다귀에 걸려 병무가 비틀거릴 때마다 아정이가 그의 팔이나 손을 짝 붙잡아주군 했는데 하면서도 처녀는 이성의 수집음이나 부끄러움 같은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병무의 눈에 무슨 흰 가루를 뿌려던졌다는, 그때부터 눈이 쓰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병무의 말을 통해 그 메돼지같이 사납고 우직하게 생긴 왜놈에 대한 분노로 가슴을 태우고있었다.

병무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아정씨, 지금 어데로 가고있소?》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대낮에 처녀의 집으로, 그것도 성한 몸도 아닌 자기가 어떻게 간단 말인가. 자기를 부축하여 걷는 아정이를 보고 동리사람들이 뭐라고 할텐가.

《고집부리지 말아요. 우리 아버진 의원기술두 높아요. 그러다 눈을 상하면 어쩔려구.》

《…》

엄하고 다심한 누이처럼 타이르는 아정이의 말을 들은 병무는 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몸에 의지하여 다시 걸음발을 옮겼다.

아정의 집에서는 온 집안사람들이 떨쳐나 그들을 맞아주었다. 이불장에서 흰 요를 내려 깔아놓고 병무를 눕힌 다음 비단이불을 덮어주었다.

물을 빨리 끓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부엌으로 내려가던 아정의 어머니 정씨는 가슴이 꺼지는듯 한 한숨을 내쉬였다. 얼마전에는 왜놈들

한테 혼이 나 기절한 자기 딸 아정이를 병무가 업고 오더니 오늘은 또 왜놈들한테 눈이 상한 병무를 아정이가 부축해왔으니 왜놈들은 도대체 무슨 원쑤지간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몹쓸짓을 한단 말인가. 생각같아서는 가마에서 설설 끓는 더운물을 놈들의 머리꼭뒤에 들부었으면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방안에서는 병무의 눈을 진찰하고있는 아버지에게 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때요, 아버지?》

《좀 시일이 걸리겠다.》

아버지의 시름겨운 말에 아정이의 얼굴에도 그늘이 덮였다.

제 6 장

록 두 장 군

1

서울의 련무당에서 진행된 조일 두 나라 무술가들의 격술시합에 대한 소식은 한성장안은 물론 궁성안에까지 짜하게 퍼졌다.

건청궁의 곤녕전에서 조상궁과 진령군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민비는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비는 희색이 만면하여 조상궁의 이야기를 독촉하였다.

《마마, 너무도 독촉하시니 쇤네는 정신을 차릴수 없소옵니다.》

조상궁이 웃으며 이렇게 아뢰자 민비도 좀 게면쩍은 기색으로 미안스러워했다.

《듣던중 희소식이여서 내가 너무 보챘는가보구나. 마음놓고 차근차근 말하거라.》

그제야 한숨돌린 조상궁은 왜인들이 이번 시합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고 하면서 그건 먼저번 정월대보름날에 조선규수를 희롱하던 왜인 다섯을 쳐이긴 조선무사를 찾아내여 그를 기어이 꺼꾸러뜨림으로써 저들이 당한 수치를 만회할 심산이였는데 이번에도 그 무사한테 모든 일본인무술가들이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았다는 사실이며 이로 하여 그날 련무당에 모인 조선사람들은 기세가 버쩍 오르고 왜인들은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는데 대해 자상히 이야기하였다.

《참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것만치나 듣기에 시원스럽다.》

민비가 통쾌해하며 부채질을 하자 조상궁이 또 아뢰였다.

《중전마마, 하온데 이번에두 왜인들은 간특한 제 버릇을 못 버렸다 하옵니다.》

《그건?》

조상궁은 왜인들이 1등 한 무술가에게는 국적에 관계없이 500원이란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하고서는 1전도 주지 않았을뿐더러 더우기 1등 한 우리 무사의 눈에 무슨 가루약을 뿌려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하였다.

《그게 바로 왜인들의 습성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민비도 분개하여 입술을 옥물었다.

민비는 조상궁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엄하게 분부했다.

《그 조선무사에게 내 이름으로 천원의 상금을 하사하거라.》

《예. 그리하겠소옵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조상궁의 얼굴에는 난감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한양사람인지 시골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를 도대체 어데서 찾아낸단 말인가, 흡사 덤불속에서 바늘찾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의 기색을 살피던 민비가 한마디 튕겨주었다.

《무예별감들을 시켜도 될게 아니냐?》

《예, 예, 그리하겠소이다.》

진령군은 말없이 민비의 태도며 언행을 주의깊게 살폈는데 그것은 후에 오까모도에게 일러바치기 위해서였다.

《진령군, 너도 무슨 고할 새 소식이 없느냐?》

민비가 이렇게 묻자 제 생각에 파묻혀있던 진령군은 못된짓을 하다가 덜미를 잡힌 년처럼 덴겁하여 몸을 흠칫 떨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마마, 실은 쇤네도 끔찍한 소식을 들었기에…》

진령군은 얼른 이렇게 둘러치고나서 얼굴에 신중하고도 심각한 표정을 띠웠는데 그것은 차마 아뢸수 없어 지금껏 잠자코 있었다는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 대패질에 기름칠을 한것처럼 세파에 반들반들하게 물든 이 요물같은 계집은 어떻게 해서나 민비의 마음을 틀어잡으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었다.

《지루하고 답답하다.》

민비가 성난 기색을 짓자 그제야 진령군은 가장 긴요한 비밀을 말한다는듯이 사위를 둘러보고나서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천우협》이란 협객단체를 무었는데 그들은 전봉준의 란민들과 함께 조정을 반대하여 란동을 부릴 흉계를 꾸미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긴장해진 민비는 눈살이 꼿꼿해져서 물었다.

《그들이 꾸미는 흉계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냐?》

《예. 〈천우협〉의 랑인들은 전라도민란들에게 폭약이며 무기, 자금 등을 대주고있다 하옵니다.》

《흥,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셈이로구나.》

《그렇다 하오이다.》

민비는 진령군을 쏘아보며 따져물었다.

《그런데 너는 어데서 이런 소식까지 들었느냐?》

《어제 전라도에서 무당 하나가 왔는데 그한테서 들었소옵니다.》

그가 《천우협》에 대한 소식을 민비에게 루설한것은 죄다 오까모도가 시킨대로 한것이였다.

심사가 언짢아진 민비는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병조판서 민영준이를 불러들였다. 그는 민영준에게 진령군으로부터 들은 《천우협》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았으나 민영준은 금시초문이라면서 그럴리가 없다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랬어도 민비는 여전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며 얼굴표정도 의연 심각하였다.

《어쨌든 사실여부를 다시 알아보아야겠다. 〈천우협〉이란것이 실재한것인지, 실재한것이라면 무뢰배인 몇몇 랑인들이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꾸민것인지, 아니면 왜나라정부가 조직한것인지를 잘 알아야겠다. 만약 왜나라정부가 만든것이라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민영준은 민비의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상싶었다. 그는 일본정부가 무엇때문에 그런 쓸데없는짓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진령군 같은 무당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는것이였다.

《너는 왜 매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민비가 이렇게 꾸중하자 민영준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중전마마, 두억시니는 볼수록 커진다고 너무 깊이 생각할게 없소이다. 항차 무슨 일이 생기면 원대인에게 말하면 될게 아니오이까?》

민영준의 말에 민비는 끝내 화를 발칵 내고야말았다.

《너는 말끝마다 원대인, 원대인하는데 그래, 새파랗게 젊은 원세개가 네 할애비냐?》

원대인이란 청국의 실권자 리홍장의 심복인 원세개를 이르는 말인데

그는 1882년에 임오군란때 청군을 이끌고온 젊은 군벌로서 조선에 10년간 주재하는 과정에 조선의 내정에 자주 간섭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골치아픈 인물이였다.

원세개의 오만무례한 행동은 1887년에 리조정부가 박정양을 공사로, 리완용이를 1등서기관으로, 미국인 알렌을 고문으로 하여 10명의 성원을 초대미국주재 조선공사관원으로 파견하려 하였을 때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그는 리조정부 외교관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구속할 목적으로 이른바 《령약삼단》이란것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인즉 첫째로 조선대표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먼저 청나라공사관에 보고하고 청나라 흠차대신(외교대표)에게 청하여 해당 나라 외교부에 동행할것, 둘째로 조회, 연회 등에 참가할 때에 조선대표는 마땅히 청나라 흠차대신의 뒤에 따를것, 셋째로 대외관계에서 긴급한 문제가 제기될 때 조선대표는 먼저 청나라 흠차대신과 미리 토의할것 등을 리조정부에 강요해나섰다.

리조정부가 그의 횡포한 내정간섭적인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나섰지만 어쨌든 놈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조선공사관원들의 미국출발은 얼마간 지연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민영준이와 같은 쓸개빠진 작자들은 원세개를 《대국의 사신》으로, 《대인》(큰사람)으로 섬기면서 주대없이 처신하고있었다.

등에 진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남의 허물은 잘 본다는 격으로 청국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민비도 민영준이와 별반 차이가 없건만 평소에 오만하고 방자스러운 원세개를 아니꼽살스럽게 여겨온 그 녀자로서는 원세개에게 늘 굽실거리는 민영준이를 역겹게 보지 않을수 없었다.

2

전라도 태인에 있는 전봉준의 집 웃방에 앉아있는 천태봉은 무료하여 열려진 문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뜨락의 한 가녁에서 전봉준의 어

머니인 머리가 하얗게 센 안늙은이가 빨래를 하고있을뿐 별다른 인기척은 없었다.

서울에서 떠나 전라도땅에 닿는 참으로 제가 살던 고부에도 들리지 않고 전봉준의 집으로 찾아든 태봉이였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권하는대로 웃방에서 기다리는중이였다.

태봉은 방안의 여기저기를 다시 살펴보았다. 두칸짜리의 외통초가집인데 아래방은 로모와 아이들이 쓰고 웃방에서 전봉준이 거처하는 모양이였다. 벽에는 《보국안민》이며 《척양척왜》와 같은 표어들이 붙어있고 한쪽구석에 무슨 기발 같은것들이 세워져있었다. 장농 하나에 앉은책상과 문갑, 이것이 세간의 전부였다. 하지만 책만은 많았다. 책상우에도 문갑우에도 그득그득 쌓인것이 책이였고 그것도 모자라 방안의 여기저기에 책들이 무데기로 쌓여있었다. 책을 보면 골치부터 아픈 태봉은 저 많은 책을 언제 다 보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절로 한숨이 나갔다.

사립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나고 발걸음 옮기는 소리가 나기에 태봉은 얼른 문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키는 크지 않으나 옷갓을 한 40대의 끼끗한 사람이 모양새처럼 단정하고도 힘찬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록두장군 전봉준이란것을 태봉은 직감으로 깨달았다.

뜨락에 들어선 전봉준은 빨래를 하고있는 어머니를 띄여보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곁에 쭈그리고앉은 그는 미안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또 애들 빨래군요.》

아들을 건너다보는 어머니의 주름잡힌 눈가에 따뜻한 웃음이 비꼈다.

《너 그렇게 뛰여다니다가 병나겠다.》

《저야 뭐, 어머님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좀 쉬십시오. 제가 빱니다.》

전봉준이 소매를 걷자 어머니가 만류했다.

《아서라, 다 빨았다.》

《아이들 장난이 세차지요.》

《한창 자라는 애들이 아니냐? 한데 넌 언제까지 홀로 지낼테냐?》

《글쎄요.》

전봉준이 거북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몇해전에 상처한 그인데 차일피일하다보니 여적 홀아비신세를 면하지 못하고있는 모양이였다.

《너도 너지만 에미없는 애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미가 어디 에미만 하냐.》

《어머님, 고생이 막심합니다. 제가 돕지도 못하고…》

《내 걱정은 하지도 말어라. 옛적부터 〈위천하자 불고가사〉라 했느니라. 큰일하려는 사람은 집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듯 방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급히 말했다.

《참, 내 정신봐라. 한양서 왔다는 웬 총각이 아까부터 널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전봉준이 토방돌에 짚신을 벗고 방에 들어왔다. 머리태를 감아 수건으로 질끈 동인 우에 평량립을 쓴 태봉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넙죽 엎드리며 절을 하였다.

전봉준이 자리에 앉자 저도 따라 단정히 앉은 태봉은 품에서 봉투를 꺼내여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동소임 권벽선생님이 써준 소개신입니다.》

《권벽이가?!…》

이렇게 물은 전봉준은 봉투를 뜯기 전에 태봉이를 다시금 눈여겨 보았다.

전봉준이 권벽의 서신을 읽는 사이 천태봉은 또 저대로 록두장군으로 불리우는 전봉준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크지 않은 체구에 둥그런 얼굴이며 굵은 목, 더우기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준수한 그의 용모는 참으로 록두라는 별호에 어울리게 단단하고 다부지게 보였는데 작아도 고추알이라는 말을 련상케 하였다. 체모도 록두마냥 작고 다부지지만 그의 사람됨됨이가 더 록두라는 말에 어울린다고 태봉은 생각했다. 변질된 음식을 먹었거나 체했거나 독있는것을 먹었을 때 흔히 록두가루나 록두묵, 록두지짐을 먹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법이다. 해독제로 쓰이는 록두야말로 전선생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전선생님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깨

끗이 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서간을 다 본 전봉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래, 동소임은 언제 옥에서 나올것 같던가?》

《곧 나온다 하나이다. 워낙 남을 위해 옥에 대신 들어갔으니까요!》

《음.》

전봉준은 생각깊은 눈으로 문밖을 바라보았다.

정기가 빛발치는듯 한 그의 눈빛에 새삼스러운 놀라움을 느끼며 태봉은 그 눈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태봉이에게 다시 얼굴을 돌린 전봉준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부드러운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자네 생업이 광대라구?》

《예.》 하고 대답한 태봉의 손이 허리춤으로 가더니 무엇인가 그 손에서 번뜩였다. 그러자 벽의 기둥으로 기여가던 쥐며느리가 예리한 뼘창에 찔려 오도가도 못하는것이였다.

전봉준이 저으기 놀라며 태봉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마상재두 합니다.》

태봉은 끌려들어가는듯싶은 전봉준의 눈길을 마주보기가 서슴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말재주두 부려?》

《생업인걸요.》

《음.》

전봉준은 생각깊은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끄덕이였다.

《자네 이름이 뭐라구?》

《태봉이올시다, 천태봉.》

《큰메부리라, 이름두 사내싸구만.》

《평량립이나 쓰고다니는 주제에 이름이나 좋아서 무얼 합니까?》

《이제 자네의 머리에서 그 평량립을 벗겨버리는 날이 올걸세.》

《정말이옵니까?》

전봉준이 힘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태봉이를 떠나보낸 후 얼마 안되여 이웃

의 접주인 최경선이 전봉준이를 찾아왔다.

그와 마주앉은 최경선이가 뜻밖의 소리를 했다.

《전선생, 웬 왜인들이 선생을 만나겠다오.》

름름한 체구에 눈이며 코며 입이며가 큼직큼직하며 사람이 솔직하고 대틀스러워보이는 최경선이 이러며 의아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왜인들이 나를?…》

전봉준이도 뜻밖인듯 최경선을 마주보기만 하였다.

《어떡할가요?》

《만나야지요. 문전축객할수야 없지 않소.》

전봉준은 이러며 바지저고리우에 전복을 입고 감투우에 정자관을 썼다.

전봉준이 정좌하고있는 방안에 세명의 일본인 미야께와 우찌다 그리고 또 한명이 들어와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런데 미야께의 머리에는 두터운 붕대가 감겨있고 한쪽팔도 목에 건 헝겊에 고정되여있었다. 아직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자, 편히 앉으시오.》

전봉준이 자리를 권하자 미야께가 고맙다고 목례를 하였으나 일본인들 식으로 꿇은 무릎을 펴지 않았다.

《그래, 나를 만나자는 용건은 뭐요?》

미야께와 우찌다가 서로 눈짓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문곁에 앉은 최경선이 그들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밖으로 나갔던 왜인들이 나무궤짝을 하나씩 안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미야께가 궤짝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령님, 폭약입니다.》

《폭약?》

전봉준은 최경선이와 의아쩍은 눈길을 마주쳤다.

우찌다가 품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전봉준의 무릎앞에 놓았다.

《두령님, 시곕니다.》

《시계?》

전봉준은 또다시 최경선이와 눈길을 마주쳤다.

미야께가 자못 엄숙한 표정으로 절절하게 말했다.

《두령님, 저희들은 두령님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무라다보총도 가져오겠습니다.》

전봉준이 호탕하게 웃었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가싶게 우렁찬 웃음소리였다.

《허허, 당신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겠다?…》

그러자 젊은 우찌다가 한무릎 나앉으며 공경스럽게 말했다.

《두령님은 폐정쇄신의 기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두령님의 선성을 듣고 흠모하던차 두령님을 도와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봉준은 쪼프린 눈길로 그들 한사람, 한사람을 여겨보며 나직한 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척왜의 기치도 들었소.》

왜인들은 자기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듯 한 전봉준의 예리한 눈길에 여기가 질리여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우찌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두령님, 그런데 왜 주저앉아계십니까?》

《주저앉다니?》

《거사를 일으킨바에 왜 한성까지 쳐들어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최경선이 벌컥 화를 냈다.

《여보, 당신들이 뻐칠바가 아니요!》

전봉준이 손을 쳐들어 그를 제지시키고나서 넌지시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요?》

미야께가 얼른 대꾸했다.

《우린 랑인입니다.》

《랑인이라…》

전봉준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데 우찌다가 감질이 나서 졸랐다.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두령님.》

《당신들이 남의 나라일에 왜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구만.》

《조선은 우리의 이웃나라가 아닙니까? 조선의 일이 잘되여야 우리도 좋습니다.》

《협객들이구만. 그런데 당신들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많소?》

전봉준이 이렇게 물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많습니다.》
《얼마나?》
《백이든 천이든 보장할수 있습니다.》
《음.》
전봉준은 의미깊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그들과의 이야기는 끝났다는 식으로 정자관을 벗었다.
미야께가 제꺽 허리를 숙였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왜인들을 바래주고 돌아온 최경선이 전봉준이에게 직방 물었다.
《저들을 받아주렵니까?》
《두고봅시다, 원래 왜인들이란 간특하니까.》

3

태봉은 고개를 지수굿하고 발길을 걸어가고있었다. 태인에서 전봉준을 만나고 고부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인 누이동생 태순이며 옥절이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건만 기쁨보다 두려움과 근심이 더 많은 태봉이였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고 더우기 자기때문에 그나마 벌어놓은 몇푼 안되는 돈마저 다 털리운 동료들의 낯을 차마 대할수 없었다.
푸른 밀보리밭에서는 한뼘 갸웃이 자란 새싹들이 가는 바람에 한들거리고 하늘에서 노고지리가 우짖어도 태봉의 가슴은 개운치가 않았다.
마을이 한눈에 안겨오는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걸어오느라 달아오른 몸을 대번에 식혀준다. 그러자 불현듯 생의 희열이, 가슴 뿌듯한 신심이 온몸에 충만되는것을 느꼈다.
전선생님이 해주시던 이 낡고 병든 세상을 뿌리뽑고 새세상을 세워야 한다던 말씀이 가슴속에 되살아났던것이다.

마을길에 접어든 그는 옥절이네 집 뜨락에 들어섰다.

옥절의 할아버지 변로인이 소가죽을 무두질하고있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간 태봉은 정겨운 소리로 인사했다.

《할아버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등이 굽을사 한 변로인은 일손을 놓고 잠시 진물고인 눈으로 태봉이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반색하는것이였다.

《태봉인가? 객지에서 고생했지?》

다심하게 말한 로인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깊었다. 여러해째 해수병으로 신고하고있는 할아버지였다.

태봉은 제꺽 개털등거리를 입은 할아버지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온 해포동안 입고다니는, 지어 무더운 여름철에조차 걸치고다니는 털이 모지라진 누런 개털등거리가 이제는 변로인의 몸의 한 부분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이런 늙은이가 고을군수 조병갑이놈을 지경밖으로 내쫓기 위해 민란에도 참가했다니 장하다는 생각에 앞서 량반놈들의 토색질이 오죽했으면 그가 다 떨쳐나섰겠는가 하는 동정이 들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니 변로인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랬으면 뭘하나, 이리가 나가니 호랑이가 들어온다구 안핵사루 내려온 리용태란 놈이 또 토색질인걸.》

《…》

어쩐지 숨이 꺽 막히는듯 한 느낌에 태봉은 입도 벌리지 못했다.

변로인은 먼 하늘중천에 눈길을 박은채 뜨직뜨직 말을 계속했다.

《800이나 되는 역졸들까지 끌고왔다니 이제 또 무슨 미친 바람이 불테지.》

변로인은 곰방대를 빨아 한숨처럼 다시 연기를 내뿜었다.

태봉은 뜨락을 둘러보았다. 땅바닥에도, 울바자의 가름대에도 온통 소가죽이 널려있었다.

《왜놈장사군들이 쇠가죽만 사가니 이제 밭을 갈 쇠종자두 다 마를게다.》

변로인이 이런 말을 하고있을 때 부엌문으로 할아버지의 약사발을 들고나오던 옥절이가 태봉이를 보더니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태봉이 왔구나!》

태봉은 그저 눈인사만 보내는데 그의 곁으로 뛰여온 옥절이가 또 입을 열었다.

《태순일 만나보았니?》

옥절이는 사글사글한 눈으로 태봉이를 쳐다보았다.

《응, 이제 찾아가련다.》

《태순이가 얼마나 좋아할가.》

제일처럼 기뻐하는 옥절이를 보니 태봉은 웬일인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뿌리가 화끈하였다. 이런 경우엔 그도 옥절이가 불쌍하고 동정이 갔으며 지어 사랑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사이는 단순하고 명백한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아리숭하였다. 천애고아로서 어려서부터 한집에서 자랐고 지금도 함께 다니며 벌이를 하고있는 그들을 보면 누구나 천생배필로 여겼고 달리될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사이를 따지고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물론 어려서부터 태봉이를 친오라비처럼 믿고 따른 옥절이로서는 다 자란 지금에 와서는 그를 자기의 영원한 지아비로 가슴깊이 묻어두고 그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태봉이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옥절이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의탁하며 자기에게 순정을 주면 줄수록 태봉은 그를 더 멀리하고 더 덜퉁스럽게 대하군 하였다. 그가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것은 아니였다. 사실 인물로 보면 옥절이보다 더 예쁜 각시가 어데 있으며 마음씨로 보아도 그보다 착한 녀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그와 한식솔이 되면 역시 쪽박신세를 면할수 없고 자식들이 생겨도 역시 쪽박에 죽을 담아 먹이는 처지는 피할수 없을것이다. 자기들이 지금껏 걸어온 그 가시덤불길을, 지금껏 지고온 그 쪽박을 자식들의 어깨우에까지 짊어지운다는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너무도 량심없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쪽박신세는 그것을 깨여버리는것으로 끝장나야지 그것을 면면히 이어줄 필요는 없는것이다.

태봉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행동하였다. 평행으로 흐르는 두갈래의 강물과 같은 그들의 운명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겠는지 아니면 더 크게 벌어지겠는지 하는것은 아직은 아무도 단정할수가 없었다.

태봉은 13살난 어린 동생 태순이가 심부름군으로 일하고있는 강주사

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강주사는 이 마을에서는 물론 고부일경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량반세도가요, 대부호였다.

강주사집 높은 솟을대문에는 《수여산》(산처럼 오래 살고), 《복여해》(바다처럼 복이 들라.)라는 단구가 크게 나붙어있었다. 마을복판의 둔덕우에 몇칸인지도 모르는 커다란 기와집이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덩실하게 자리잡은 집터자체가 주변의 두엄무지같고 주인없는 묘지같은 초가마가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듯싶었다.

태봉이 주먹으로 한참 두드려서야 대문이 열리고 낯익은 청지기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이구 태봉이, 자네 오래간만일세.》

감투를 쓴 청지기는 태봉이를 보고 무척 반가와했다.

태순이를 만나러 왔다는 태봉의 말을 들은 그는 좀 기다리라 하고는 대문안으로 사라졌다.

한참만에야 다시 대문이 열리더니 청지기가 얼굴을 내밀고 돈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우려하던 돈소리가 나오자 태봉은 본의 아니게 배허벅에 손을 붙이고 지금은 없는데 후에 가져오겠노라고 혀아래소리를 했다.

청지기는 딱한듯이 뒤더수기를 긁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냥 돌려보내라는 큰방마님의 분불세.》

태봉은 대뜸 큰소리가 나갔다.

《동생의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요?》

《낸들 어쩌겠나.》

청지기는 대문을 닫아버리고말았다.

《문 열어라!》

태봉은 억울하고 분하여 정신없이 대문을 두드리다못해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였다.

이때 강주사네 고간에서 쌀섬을 져나르던 사람들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수군거렸다.

《누가 저렇게 정신없이 대문을 두드리나?》

《청지기가 하는 말이 태봉이가 태순이를 만나러 왔는데 주인마누라쟁이가 돈을 안 가져왔다고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가봐.》

《조용해진걸 보니 태봉이가 가버렸나?》

《별수 있나. 돈 있으면 지옥문도 열지만 돈 없으면 이 집 대문도 열수 없는 세상인걸, 빌어먹을…》

《그런데 이 쌀은 어데로 가져가나?》

《왜나라로 가져간다네.》

《이렇게 왜국으로 다 빠져나가니 시장에서 쌀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구 오르지.》

《백성들이 죽어나게 됐네.》

한편 사랑방에서는 이 집 주인 강주사와 일본상인 다까하시, 강주사의 아들 강치도가 이야기판, 흥정판을 벌리고있었다.

늘 주지육림에 싸여있고 그것도 부족해 산삼이며 록용 등 몸에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으면서도 언제한번 몸이 부해본적없이 늘 마른 울장대처럼 꼬장꼬장한 강주사가 성근 턱수염을 밸밸 꼬며 다까하시에게 눈을 치떴다.

《다까하시상, 그런데 거 무역회사는 정말 세우긴 세울 잡도리요?》

뚱뚱한 몸으로 까치다리를 하기 불편스러워 무릎을 꿇고 앉은 다까하시는 권연 쥔 손을 내흔들며 력설했다.

《걱정마시오, 강상. 무역회사의 주식을 제일 많이 사겠다고 새로 부임해온 안핵사 리용태씨도 저와 거래하고있습니다. 자칫하면 강상이 리용태씨에게 뒤집니다.》

《응, 그래서 리용태도 오자마자 토색질에 팔을 걷고 나섰구나.》

강주사는 리용태가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눈을 부라렸다.

아들 강치도가 말중간에 끼여들었다.

《아버지, 무역회사도 무역회사지만 당장은 곡식을 일본지화로 바꾸어두는것이 안전합니다.》

다까하시가 제꺽 호응했다.

《옳습니다. 곡식은 썩을수도 있고 도적맞힐수도 있습니다. 또 조선 엽존(엽전)은 엉터리돈입니다. 우리 일본지페는 일본, 청국, 조선에서 다 사용합니다.》

그제야 강주사도 담배함에서 하얀 권연 한가치를 집어들며 벙긋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까하시상에게 곡식을 팔지 않습니

까?》

《쌀뿐만아니라 우리 소가죽도 많이 사겠소.》

《한데 웬 소가죽을 그리 많이 요구하시오?》

《에, 우리 일본군대 군화, 혁띠, 배낭 만드는데 우피가 많이 필요됩니다.》

강주사가 아들을 돌아보며 넌지시 물었다.

《야, 일본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게 아니냐?》

《상관있나요. 우리야 그통에 돈이나 벌면 되는게지.》

애비보다 돈에 더 탐욕스러운 강치도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부엌쪽에 대고 소리쳤다.

《귀한 손님을 앉혀놓고 뭐 이리 늦어집니까? 어머니!》

그러자 강주사가 아들한테 눈을 부라렸다. 그는 왜 부엌일이 늦어지는지 알고있었던것이다. 오늘 안핵사 리용태가 보내는 역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친다는 기별을 받은 그는 민란참가자들을 잡으러 온다는 그들이 옥황상제의 사절들만치나 반갑게 기다려졌다. 그들이 오면 음식대접도 해야 할게고 또 신발차도 섭섭치 않게 주어야 할것이다. 그러니 부엌일이 좀 많을텐가. 이놈들! 량반을 괄시하고 어디 편히 지낼상싶으냐! 강주사는 역졸들이 빨리 와서 란동을 부린 백성들을 잡아가길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었다.

부엌에서는 강주사체통의 세곱절은 잘될 그의 마누라가 부엌데기들을 들볶아대고있었다. 군턱이 늘어진 얼굴의 이마에는 헝겊오리를 동이고 소발통같이 실한 팔뚝이 다 드러나도록 저고리소매를 걷어올리고 새끼 밴 암돼지의 배처럼 실한 허리에 노끈을 질끈 동인 그는 흡사 싸움판에 나선 왈패같기도 했고 부엌일을 도맡아하며 돌아치는 일군같기도 했다. 허나 그는 언제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소래기로만 모든 일을 해치우는 그런 묘기를 가지고있었다.

《야 이년들아, 해넘어가겠다.》

그가 소리치면 안잠자기(부엌데기)들은 가물철 웅뎅이에 모인 물고기들처럼 분주탕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고기국가마를 휘젓고 부엌바닥의 화로에서 비웃(생선)토막들을 뒤집는것을 본 강주사마누라는 뒤채뜨락으로 씽 달려나갔다.

거기서는 뒤채아씨로 불리우는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가 화로의 지

짐판우에 닭알을 부치고있었는데 그는 하염없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치마자락을 휘여잡고 그에게 달려든 강주사마누라는 또 야단독장을 부렸다.

《야 이년아, 닭알을 지지다말고 웬 궁상이냐?》

뒤채아씨는 성급히 몸가짐새를 바로하여 고개를 숙였다.

《왜, 군서방생각을 하댔느냐?》

강주사마누라는 떡 버티고서서 야료를 부렸다.

그를 쏘아보는 뒤채아씨의 고운 얼굴에 억울하고 분한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 끓고있었다.

강주사마누라는 턱을 잔뜩 추켜들고 그에게 다가섰다.

《이년, 눈을 똑바로 뜨면 어쩔테냐?》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고 들은 안잠자기들이 걱정스럽게 수군거렸다. 뒤채아씨는 이 집의 병신자식한테 민며느리로 팔려왔는데 고삭부리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스물도 되기 전에 청상과부가 되여버린 불쌍한 녀자였다. 인물 곱고 마음씨 무던하고 일솜씨가 여물어서 모두가 칭찬하지만 그때문에 오히려 시어미인 강주사마누라한테 더 구박을 받고 소박을 당하였다.

《불쌍두 하지. 저 구박을 어찌 한뉘 받고사노.》

《말이 며느리지 종이나 다를바 뭐요.》

《우리가 뭐 남을 걱정할 형편이 됐수?》

지지고 볶는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에 섞여 이런 한탄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윽하여 안잠자기들이 또 수군거렸다.

《그런데 손님이라군 왜놈장사군 하나밖에 없다는데 무슨 음식을 이리 많이 장만한다우?》

《아침에 강주사가 큰방마님한테 쑹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술한 역졸들이 민란수창자들을 잡으러 마을에 온다누먼.》

《어이구, 또 무슨 란리가 터지겠군.》

《쉬ㅡ》

4

느닷없이 개들이 기승스럽게 짖어대는 소리며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로 고요하던 마을이 벌컥 뒤집혔다. 거먹초립을 쓰고 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집집을 뒤지며 사람들을 잡아내고 재물들을 빼앗았다.

옥절이네 집 토방에 앉아있던 태봉은 사립을 박차고 역졸들이 욱 쓸어드는 바람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소가죽을 이기는 변로인에게로 다가간 역졸들이 다짜고짜로 그에게 오라를 지우려고 했다.

그쪽으로 뛰여간 태봉은 몸으로 변로인을 막아나섰다.

《여보시오, 왜 이러시오?》

역졸이 태봉이를 떠밀며 소리쳤다.

《너는 상관말어!》

역졸 한놈이 변로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눔, 너 민란에 나섰지? 안핵사 사또의 분부시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변로인은 늙은 몸이건만 불이 이는 눈으로 놈들을 쏘아보며 꿋꿋한 자세로 두주먹을 내밀었다. 역졸들은 로인의 손목은 물론 팔굽이며 허리까지 칭칭 묶어버렸다.

이때 부엌에서 달려나온 옥절이가 변로인에게로 뛰여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한 역졸이 옥절이를 발로 걷어찼다. 땅바닥에 쓰러져 딩굴던 옥절은 다시 일어나 울부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울할아버질 왜 잡아가요?!》

《이년이?》

역졸이 방망이로 옥절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이마를 싸쥐고 쓰러진 옥절의 얼굴우로 빨간 피가 쭈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태봉의 눈에서 불이 펄 일었다.

《이놈들아!》

태봉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다시금 고요가 깃든 뜨락에 메아리쳤다.

이때 길가 모퉁이에서 흰두루마기에 삿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요를 흐뭇한 표정을 띠우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본상인 다까하시였다. 며칠전 오까모도는 새로 부임되여온 안핵사 리용태가 남달리 물욕이 강하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다까하시로 하여금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찔러주고 민란참가자들을 전부 잡아가도록 꼬드겼던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부민란때문에 당장 받아가야 할 쌀과 콩을 받지 못해 강주사집에 숨어있던 다까하시가 오까모도의 말을 듣지 않을리 없었다. 그리고 고부민란을 진압하러 내려온 리용태 역시 뜻밖에 왜인으로부터 묵돈까지 받았으니 죽을둥살둥 날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조선에서 내란이 커지기를 바라는 왜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천태봉은 그길로 말을 때려몰아 태인에 있는 전봉준의 집을 찾아 떠났다. 이대로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아 참고있을수 없었다. 서울에서 왜놈들한테 당한 통분스러운 일에 또 제 고장인 고부에 와서 역졸놈들에게 곤욕을 당하고보니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에 그 어떤 미련도 없었다. 오직 너죽고 나죽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울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전선생의 집 사립밖에 창대를 들고 서있는 농군인지, 파수군인지 알수 없는 맨상투쟁이가 그를 안에 들여놓지 않았다. 사정하고 떼를 써도 거머무트름하게 생긴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좀 들어갑시다. 여기가 뭐 관가요?》

분기가 치밀은 태봉이가 큰소리로 대들어도 그 사람은 한본새였다.

《글쎄 안된다니까.》

그들이 다투는 소리가 방안에까지 들렸던지 문이 열리며 밖을 내다보는 전봉준의 얼굴이 보였다.

《웬일인가?》

전봉준의 물음에 상투쟁이가 얼른 뛰여가 토방아래서 허리를 굽히며 고부 백정촌에서 온 웬 젊은 녀석이 선생님을 뵙겠다고 한다고 아뢰였다.

들여보내라는 전봉준의 말을 들은 상투쟁이는 태봉이에게로 다가

오더니 들어가보라고 턱짓을 했다. 태봉은 그에게 눈을 찔 흘겨붙이며 방쪽으로 헌걸차게 걸어갔다.

방안으로 들어간 태봉은 꿇어앉으며 울분에 찬 소리로 부르짖었다.

《선생님!》

전봉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왜 여기서 이러고계십니까!》

《…》

《지금 안핵사 리용태란 놈이 역졸들을 풀어 동학군들을 마구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구 마을을 쑥밭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알고있네.》

《아시면서 이러고계시면 어쩝니까! 지난 민란들처럼 그저 이렇게 그치렵니까? 예?》

전봉준은 침중한 기색으로 눈을 감고있었다.

이윽고 눈을 뜬 전봉준은 태봉에게 나직이 물었다.

《자네 말을 가지고 왔나?》

《예.》

《마침일세.》

전봉준은 옆의 보자기를 헤치더니 그속에서 서간봉투들을 집어들었다.

《이게 통문일세. 이 망할 놈의 세상을 아주 뒤집어엎자는 통문이란 말일세.》

《그렇소이까?》

태봉은 환희에 찬 기색으로 한무릎 나앉았다. 자기는 그저 울뚝거리기만 했지만 선생님은 벌써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계시지 않는가. 참으로 그는 서울에까지 소문난 인걸은 인걸이라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정녕 이런분을 모시고 싸우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태봉의 기색을 보고 그의 속마음까지 읽은 전봉준은 느슨한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이 통문을 각 고을 접주, 두령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겠네. 동학도들과 농군들을 이끌고 고부 백산으로 집결하라구 이르게.》

《알겠소이다.》

태봉은 눈빛을 빛내며 힘차게 대답했다.

《그럼 〈마상재〉, 어디 냅다 달려보게. 하지만 이건 놀이가 아니라 싸움이란걸 명심하게.》

이후로 태봉은 자기의 애마《백호》의 잔등에 엎드려 얼마나 달리고 달렸는지 모른다. 대두령들인 손화중이며 김개남, 진정 온 호남땅을 메주밟듯 다니며 농민군두령들에게 전봉준의 통문을 전하였다. 그러느라고 태봉이는 물론 《백호》의 몸에서도 줄땀이 마를새가 없었다.

5

고부 백산은 산을 뒤덮은 농민군으로 하여 눈이 내린듯 온통 하얗게 보였다. 게다가 삐죽삐죽 솟은 장창과 참대창 그리고 해빛에 번뜩이는 장검들로 서슬이 푸르렀다. 벌써 모여든 사람이 8천이라니 앞으로 그 형세가 얼마나 커질텐가.

백산의 광경을 관망하던 전봉준이가 감회롭게 말하였다.

《앉으면 백산, 서면 죽산이라더니 참 장관이고 경관이며 대관이요.》

곁에 있던 최경선이 그에게 권하였다.

《이제는 올 사람도 다 왔는데 군막으로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군막안에 들어선 전봉준은 농민군두령들을 일별하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저의 통문을 받고 이처럼 한날한시에 와주시니 감개무량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고부의 변은 전수히 내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입니다. 우리가 병쟁기를 놓으면 그만이지 설마 저들이 우리를 어쩌랴 하고 생각한 내 죄가 실로 막중합니다. 하, 주창자가 설마를 믿다니… 용서들 하시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것이외다.》

전봉준의 얼굴에는 자책과 회오의 빛이 짙었다. 이윽하여 그는 결연히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에서 섬광과도 같은 빛이 번쩍 빛났다.

《량반자들이…》 전봉준이 근엄한 기색으로 말을 계속했다. 《저희 망할 날이 멀지 않은것을 알고 마지막발악을 하고있습니다. 허나 그것

은 우리의 피를 더 끓게 할뿐입니다. 너무 슬퍼들 말고 마음들을 든든히 가집시다. 우리들의 힘이 큽니다. 내려오는 놈마다 개개명관이라고 안핵사 리용태나 전 군수 조병갑이나 그놈이 그놈이요, 그 식이 장식입니다. 이 덜된 세상을 뿌리채 아예 뒤집어엎어야 우리 백성들이 살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왔습니다. 기어이 이 망할 놈의 세상을 뒤집어놓읍시다. 우리의 표대는 〈진멸권귀〉, 〈축멸왜양〉 입니다. 이 땅에서 왜놈들과 양놈들을 내몰고 한성의 권문세가들을 모조리 박멸해 버려야 우리 세상이 옵니다. 그럼 의논들 합시다.》

전봉준이 좌중의 경의에 찬 눈길을 받으며 자리에 앉자 무장대두령인 손화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듬직한 체구에 구레나룻이 시꺼먼 그는 머리에 뒤로 꼬리가 늘어지게 수건을 동였는데 첫눈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였다.

그도 좌중을 일별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방금 전선생께서 뜻깊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인은 전선생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며 한길을 가겠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소인과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전선생을 우리 동학농민군의 총대장으로 모시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열렬히 호응하는 목소리들, 뜨겁게 굽이치는 열기로 군막안이 훅훅 달아올랐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선 전봉준이가 침착하고도 무게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내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서에도 〈병귀신속〉, 즉 군사일은 빠른것이 좋다고 했은즉 우리의 거사를 이달을 넘기지 말고 음력으로 이달 스무아흐레날로 정하며

둘째, 첫 봉화는 총포대, 창검대를 중심으로 고부농군들이 들게 할것이며

셋째, 고부읍을 들이친 뒤 바로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발을 뚜렷이 내세울것이며

넷째, 그와 동시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세사람의 성명을 밝히고

호남창의소이름으로 창의문을 세상에 내며 또 격문을 각지로 돌리도록 할것입니다.

호남농민군의 총관령(부대장)으로 손화중, 김개남씨, 참모로 최경선씨, 나의 순령수(련락병)로는 천태봉이를 삼으려고 합니다.》

고부관아는 수라장이 되였다. 삼문을 깨뜨리고 《와!—》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농민군에게 쫓겨 관병들은 비실비실 꽁무니를 뺐다.

총을 《탕》, 《탕》 쏘는 농민군총포대원들, 칼을 휘두르는 창검대원들, 농민들이 드디여 동헌으로 뛰여올랐다. 책상이며 문갑, 병풍들이 마당에 내동댕이쳐지고 옥절의 할아버지 변로인을 비롯한 《죄인》들이 옥에서 풀려나왔다. 무기고를 터쳐 병쟁기를 져나르는 농민군들이 싱글벙글한다.

동헌마루우에 전봉준이며 손화중, 김개남들이 높이 서있고 그들의 머리우에서 《척양척왜》, 《보국안민》과 같은 기발들이 휘날리고있다. 동헌마당에 가득 들어찬 농민군들이 총이며 칼이며 죽창을 쳐들어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최경선이가 손을 쳐들어 흥분한 농민군을 제지시켰다. 그는 사위가 조용해지자 농민군들을 일별한 후 손에 든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읽었다.

《창의문이라—

오늘 안에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충의지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탐관오리가 많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여가고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업이 없으니 목숨을 부지할 도리가 있으랴!》

농민군들이 창의문을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그들의 머리우로 최경선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

우리들이 비록 초야에 묻힌자들이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찌 국가의 멸망을 앉아 보겠는가. 팔도가 한마음이 되고 수많은 인민이 뜻을 모아 의기를 들어 보국안민으로서 사생의 맹세를 하노니 오늘의 광경에 놀라지 말고 태평세월에 들어가 살아보기를 바라노라.

호남창의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다시 총이며 칼, 죽창이 쳐들리고 기발들이 나붓겼다. 창의문에 호응하는 농민군의 함성으로 고부관아는 당장 떠나갈듯싶었다.

이번에는 전봉준이 한발 앞으로 나서며 그들을 제지하였다.

전봉준의 우렁우렁하면서도 격동적인 목소리가 동헌의 단청무늬 고색창연한 기와지붕너머 저 멀리 푸른 하늘가로 울려퍼졌다.

《격문이라—

우리가 뜻을 세워 오늘에 이름은 그 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우에 두자함이다. …》

천태봉은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감격과 흥분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저 숨쉬기가 가쁘고 목이 메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자기가 울고있다는것도 깨닫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울고있었다.

비애의 언덕을 넘어 희망의 상상봉에 올라선 농민군들의 얼굴우로 격문이 흐르고있었다.

《충정과 효도를 다같이 하고 보국안민을 위해 왜놈들과 양놈들을 쫓아내고 군사를 몰고 한성으로 올라가 권세있는 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려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정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량반과 부호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감사나원들밑에 굴욕을 당하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호남창의소》

격문을 읽은 전봉준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농민군들을 둘러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웨쳤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척왜구국〉, 다시말해 왜적을 물리치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의요, 우리의 명분입니다.》

전봉준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두팔을 쳐들어 흔들며 웨쳤다.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자!》

또다시 기치창검들이 치솟고 전봉준의 구호에 호응하는 웨침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했다.

《한양으로 쳐들어가자!》

《왜놈들을 몰아내자!》

6

경복궁의 지밀에서 국왕 고종이 세도재상 민영준이와 함께 전라감사 김문현이한테서 올라온 장계를 듣고있었다.

승지가 장계를 읽어갈수록 고종의 얼굴이 컴컴해지고 민영준이는 마치 절절 끓는 장판우에나 앉은듯이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고부민란은 자기가 천거하여 내려보낸 안핵사 리용태의 토색질로 하여 일어났기때문이였다. 그러니 불티가 언제 자기에게 날아올지 모를 일이였다.

《…이처럼 수창자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표방하고 고부 백산에다 진을 쳤사옵니다. 그리고 호남창의소의 이름으로 창의문과 격문을 지어 각지에 돌려 민심을 크게 격동시키고있사오니 이 일이 장차 어찌 되올지 우려되는바가 실로 크옵니다.》

고종이 안석에 기댔던 몸을 일으키며 버럭 화를 냈다.

《김문현이가 감사구실을 제대로 했다면 당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터인데 일은 모두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우려되는바가 실로 크옵니다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황공하옵니다.》

상관도 없는 승지가 머리를 조아리고있을 때 민영준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고있었다. 불티가 자기대신 김문현이한테로 튀여간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던것이다.

이때 복도에서 중전마마와 동궁마마가 든다는 소리가 울렸다. 민영준이와 승지가 얼른 일어나 민비를 맞으러 합문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민비와 세자 척, 진령군과 이들을 전후좌우에서 옹위하는 환관과 궁녀들이 방에 들어서고 뒤따라 민영준과 승지가 다시 들어왔다.

《중전, 웬일이시오?》

고종의 물음에 민비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령군이 난딱 나서며 가

살을 부렸다.

《오늘은 세분전하의 홍복과 국가의 안태를 빌어 제를 올리기로 되여있지 않소옵니까? 상감께서 오시지 않아 모시러 왔소옵니다.》

고종이 골살을 찌프리며 진령군을 흘겨보는데 민비가 고종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상감마마, 무슨 얘기를 하고계셨습니까?》

고종은 귀찮은듯이 대꾸했다.

《김문현이한테서 또 장계가 올라와 그것을 읽고있었소.》

《신첩두 좀 들읍시다.》

민비가 이렇게 말하자 진령군이 당황한듯이 여쭈었다.

《마마, 제는 어찌 하시려구?》

노기를 띠운 고종이 진령군을 꾸짖었다.

《너는 국사에 간참말어!》

진령군은 겁결에 목을 움츠렸으나 다음순간 고개를 돌리고 입을 삐죽거렸다.

민비도 표표한 낯을 승지쪽에 돌리였다.

《나 몰래 잘두 노는구나.》

《중전마마, 그런게 아니오라…》

민비의 가시눈길에 찔리운 승지가 겁에 질려 중언부언했으나 민비는 그의 말을 더 듣지 않고 부채를 탁 펼쳤다. 승지는 억울한 눈길을 민영준에게 던졌다. 민영준이가 이번 장계는 민중전 모르게 상감마마한테만 올리라고 그를 위협했던것이다. 민영준이로서는 자기가 천거한 안핵사 리용태의 죄행이 적힌 이번 장계가 민중전에게 알려지면 자기 처지가 불리해질것이 뻔했기에 그런 조치를 취한것이요 승지로서는 조정을 쥐여흔드는 세도재상 민영준의 말을 거역할수가 없어 그러한것인데 공연히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 제가 죽을 고비에 빠지게 되였다고 울상이 되였다.

보료우에 앉은 민비는 자기 몰래 상감마마와 꿍꿍이를 하고있는 민영준이도 마뜩잖은 눈길로 쏘아보았다. 민영준이도 몹시 거북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나라의 기강이 이 모양이니…》

탄식하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린 민비는 홀연 따뜻한 미소를 띠우고 고

종에게 부드럽게 일렀다.

《상감마마, 종이장도 맞들면 더 가볍다 했소옵니다. 하물며 국정이 이처럼 다난한 때에…》

《…》

할 말이 없는 고종은 덤덤히 앉아있을뿐이였다.

민비가 승지에게 재촉했다.

《어서 읽어라.》

《네, 분부 듣자왔습니다.》 하면서도 승지는 눈을 들어 고종의 기색을 슬쩍 살피였다. 고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계의 내용을 다 들은 민비는 음울한 기색으로 잠자코있었다. 마음이 쇠쪽같아 웬간한 일에 대해서는 꿈쩍하지도 않는 민비지만 이번에 재차 터진 고부민란이 이전과 달리 형세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그는 온몸으로, 페부로 절감하고있었다.

그가 점도록 입을 다물고있자 초조해진 고종이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

《곤전, 어쩌믄 좋겠소?》

민비는 여름철의 변질된 물고기를 보듯 민영준에게 역겨운 눈길을 던지고나서 내뱉았다.

《신첩더러 물을게 있소옵니까. 저 〈금송아지대감〉 한테 물으시지요.》

아까부터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던 민영준은 그만 넙죽 엎드리더니 방바닥에서 이마를 떼지 못하였다. 감투우에 얹은 사모가 벗겨질 지경이였으나 그는 그것을 고쳐 쓸 엄두도 못내고있었다.

고종이 민영준의 꼴이 가긍해보였던지 두둔하는 투로 말했다.

《이제 전일을 따져 뭣하겠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의논이나 해야지.》

그제야 민비도 낯색을 풀며 신중하게 말했다.

《신첩이 걱정스러운건 민란이 커지면 왜인들이 구실잡아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가 하는것이옵니다. 벌써 〈천우협〉 이요, 뭐요 하면서 왜인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아니 곤전, 그건, 그건 무슨 말씀이요?》

고종이 사뭇 놀라는 기색으로 물었다.

《그것두 저 〈금송아지대감〉한테 물으시오이다.》

민비가 이번에도 민영준이를 바라보며 비양기어린 소리를 했으나 벌써 그 어조에 랭기는 없었다.

절처봉생, 죽을수가 생기면 살수도 나진다고 고개를 쳐든 민영준이가 황황히 주어섬겼다.

《중전마마의 고명합신 분부를 받잡고 소신이 그간 알아본데 의하면 왜인들이 부산에서 야꾸쨔, 우리 말로 망나니들이옵니다. 야꾸쨔들로 〈천우협〉이란 협객무리를 무은것도 사실이오며 그들이 전봉준이에게 폭약이며 무기, 귀중품들을 섬겨바치면서 그 휘하에 가담하려고 움직이고있는것도 어김없는 사실이옵니다.》

《응?》

고종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이번엔 그가 노염기어린 눈길로 민영준이며 민비를 바라보았다.

《나라가 이렇게 제개비집안처럼 되여서야…》

고종이 자탄하며 한숨을 내쉬자 민비가 얼른 위로했다.

《마마, 달리 생각마옵시오. 신첩이 사실여부를 알아보고 품달하려 했소옵니다.》

《곤전더러 한 말이 아니요.》

민비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태도로 고종에게 말했다.

《상감마마,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어쩌믄 좋겠소.》

고종은 난감할 때 하는 버릇대로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다졌다.

《세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사람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누구를 내려보내는것이 좋겠소.》

민비는 일단 무슨 일이 제기되면 우물쭈물하거나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는 그런 형의 인물이 아니였다. 그는 정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신속히 결심을 내리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시체말로 실천주의자였다.

그 누구의 의견이나 주장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견대로만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그 녀인의 개성적특징이였으며 여기에 그의 장점과 결점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 누구의 의견을 듣거나 말미를 두고 생각해봄도 없이 즉석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

《홍계훈이 말고 믿을만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계훈이로 량호초토사를 삼아 장위영의 병정 몇대를 거느리고 곧 남도로 내려가게 하시되 원세개에게 청하시여 인천에 와있는 청국군함을 빌어타고 빨리 가게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오이다.》

민비의 이 말이면 조정의 결정이요 국왕의 어명과 같은것으로서 상소할수도 없으며 취소할수는 더욱 없는것이였다.

《옳소, 곤전말씀이 옳소.》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종의 긍정으로써 민비의 말은 곧 국왕의 비답으로 되였다.

의기소침하던 고종은 활기를 띠우고 민영준이에게 분부했다.

《민대감.》

《예이.》

민영준의 눈도 생기를 띠고 반짝였다.

《빨리 원세개한테 가서 군함을 의뢰하라.》

《알겠소이다.》

7

고부 중산리로 가는 들길로 흰두루마기에 백립을 쓴 전봉준이 걸어가고있었다. 애마 《백호》의 고삐를 쥔 태봉이와 몇명의 농민군이 그를 수행하고있다.

그들은 모두 근엄한 표정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전봉준은 오늘 그곳으로 한성에서 내려온다는 왜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였다. 최경선 참모를 비롯한 여러 두령들이 왜인들이 무슨 간계를 꾸미는지 어찌 알겠느냐며 전봉준의 앞길을 극력 말렸으나 전봉준은 끝끝내 길을 떠나고말았다. 요즘 《천우협도》라고 하는 일본랑인들이 농민군들속에 많이 가담하고있는데 그들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도 한양에서 온다는 일본인을 꼭 만나야겠다는것이 전봉준의 생각이였다.

전봉준이가 태봉이쪽에 고개를 돌렸다.

《태봉이 녀동생이 그곳 강주사네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지!》

《예.》

태봉은 누이동생 태순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대뜸 눈시울이 뜨끔해졌다. 얼마나 보고싶은 동생인가. 이 순간 태봉은 바로 동생과 만나게 하기 위해 전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떠났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전봉준에게 말고삐를 권하였다.

《대장님, 이 말을 타십시오.》

전봉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사양했다.

《아닐세. 다 타면 몰라라 내 혼자야 무슨 멋에 타겠나. 그리구 말타면 견마잡이하고싶다고 사람이 좀 방자해지는 법일세.》

태봉의 머리에는 문득 얼마전부터 알고싶던 말이 떠올랐다.

《참 대장님, 우리들을 왜 동학군이라고 하오이까?》

한동안 아무말없이 걷던 전봉준은 푸른 하늘가에 눈길을 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는것이 많고 또 오래동안 서당훈장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가르쳐온 전봉준은 이야기도 무척 사리있고 재미있게 잘하였다.

《동학군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동학이란 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른 농민군들도 슬금슬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동학이란 말그대로 동방의 학문, 다시말해 우리 조선의 학문이란 뜻인데 이것은 서학 즉 천주교(카톨릭교)에 대립하여 붙인 이름일세.

오래동안 량반자들의 통치사상으로서 나라의 질곡으로 된 공자의 유학이나 서방침략자들의 앞잡이로 기여든 천주학은 우리 나라와 백성을 망국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려고 하였지. 바로 이러한 때 경상도의 몰락한 시골량반출신인 최제우선생이 1860년에 썩어빠진 세상을 저주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념원과 조선사람은 타국에서 들어온 남의 교리를 믿으며 살것이 아니라 자기의 넋과 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동학을 창조하였네.

동학의 기본뜻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것이고 동학의 목적은 〈척양척왜〉, 〈제폭구민〉의 구호밑에 〈보국안민〉, 〈포

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을 실현하는것일세.》

전봉준이 말하다말고 태봉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는데 좀 어정쩡해하는 표정이 어려있었다.

《동학의 구호에 어려운 한자말이 많은데 내 다시 풀어서 말해주지.》

전봉준은 다시금 하늘가에 눈길을 준채 말을 계속했다.

《〈인내천〉 다시말해 사람이 곧 하늘이란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귀중하다는 뜻이고 〈척양척왜〉, 〈제폭구민〉은 양놈들과 왜놈들을 몰아내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자는것이며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옳은 덕을 천하에 펼치여 백성을 널리 구제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나 극락에 갈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땅우에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하자는것일세. 알만 한가?》

전봉준의 말을 듣고있는 태봉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의 물결이 일고있었다.

《선생님, 동학이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그럴테지. 그래서 처음 경상도일대에서만 맴돌던 동학이 오늘은 온 나라 백성들속에 널리 퍼지고있다네. 그러니 동학군이란 동학을 믿는 동학도들로 이루어진 군대란 소리가 아니겠나. 하지만 오늘 우리 호남창의대장소에 모인 군대는 동학도보다 일반농군들이 더 많다네. 그러니 실상 우리는 농민군이고 우리가 벌리는 전쟁은 농민전쟁이라네.》

태봉의 얼굴은 흥분으로 벌겋게 상기되였고 매눈같은 날카로운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있었다.

《선생님, 우리 이 전쟁에서 꼭 이깁시다.》

《그래야지, 이기고말고.》

입을 꾹 다문 전봉준의 얼굴에도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불타고있었다.

그들일행이 강주사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해가 장바 두기장이나 되게 솟아오른 늦은 아침이였다.

서울에서 온다는 왜인들도 아직 당도하지 않았고 집주인들도 보이지 않아 어쩐지 초상난 집처럼 썰렁해보였다. 태봉이는 녀동생 태순이

를 찾아 여기저기, 이방저방 헤매였으나 종시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새벽까지는 있었는데 그뒤로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도대체 이 애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가슴이 아프도록 옥죄였고 주먹이 으스러지게 쥐여졌다. 강주사네 떨거지들을 만나면 당장에 쳐죽이고싶어 도끼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그 도끼로 강주사의 대가리를 바스는 심정으로 고간자물쇠를 짓조겼다.

태봉이가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데 자기를 찾는 전봉준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태봉이, 거 부엌에 가서 랭수 한그릇 부탁하게.》

태봉이가 부엌으로 다가가니 뒤채아씨가 벌써 놋대접에 맑은 물을 정히 떠들고 부엌문턱을 나서고있었다. 강주사네 식솔들이 다 피신한 줄로 알고있던 태봉은 뒤채아씨한테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도 뒤채아씨를 알고있었다. 더우기 그가 자기 동생 태순이를 불쌍히 여겨 옷도 지어주고 먹을것도 몰래 가져다주군 하여 평소에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있었다.

《아씨, 물은 제가…》

태봉이가 물대접을 제가 가져가려고 손을 내밀자 뒤채아씨는 태봉이에게 싱그레 웃어보였다.

《대장님한테 내 손으로 물 한그릇 떠올리고싶어서…》

토방아래서 전봉준에게 올리는 뒤채아씨의 랭수대접을 태봉이가 받아들고 섬돌계단으로 올라가 사랑방문턱앞에 앉아있는 그한테 전했다. 그릇의 물을 반나마 마시고 주는 놋대접을 이번에도 태봉이가 받아서 뒤채아씨한테 넘겨주었다.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전봉준의 인사말에 뒤채아씨가 할끔 눈길을 들어 준수한 전봉준의 용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옮겼다.

서울에서 온다는 일본인들이 한낮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아 태봉이네는 물론 전봉준이도 여간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았다. 태봉은 그따위 왜놈은 만나서 무얼 하느냐며 백산으로 돌아가자고 보채였으나 전봉준은 묵묵부답으로 돌부처처럼 움쩍하지 않았다. 그는 덩지 큰 짚낟가리가 아니라 땅에 깊이 뿌리박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였다. 그런 사람

은 그 어떤 비풍에도, 태풍에도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드디여 번대머리에 감투를 쓴 청지기가 달려오더니 사랑채 섬돌아래에 읍을 하고서서 일본손님들이 오셨다고 아뢰는것이였다.

일본인은 두명이였는데 하나는 중키에 머리를 높이 깎은 담차보이는 사내였고 또 하나는 키가 작달막하고 몸집이 똥똥한 작자였다. 그들은 로상에서 조선사람들의 공격을 받을가 걱정되여서인지 조선옷인 통영갓에 도포를 입고있었다. 그들을 일본류학생인 강주사의 아들 강치도가 안내하였다.

전봉준은 그들을 사랑방에서 앉은 모양새 그대로 맞이하였다. 그의 곁에는 다른 농민군들은 다 자리를 피하고 오직 태봉이만이 남아있었다.

방에 들어온 왜인들은 잠시 인사차림을 어떻게 할지 몰라 거북스러워하였다. 전봉준이가 손세로 앉으라고 해서야 그들은 조선식으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나는 전봉준이라 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전봉준이가 먼저 자기 소개를 하자 중키의 담차보이는 왜인이 자기는 야나기 곤스께이고 곁의 키작은 사내는 한성에서 무역상을 하는 다까하시라고 소개하였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오?》

《하, 저는 랑인입니다. 선생께서 저희들의 부탁대로 몸소 왕림해주시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야나기 곤스께라고 소개한 사내가 이렇게 말하고나서 목례로 감사를 표시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진정 감격해하는 표정이 뚜렷이 나타나있었다. 그는 실상 오까모도 류노스께였는데 흑막속의 인물로 행세하기 위하여 야나기로 변성명하였던것이다.

《당신은 랑인이라는데 랑인도 생업이 있어야 먹고 살게 아니요?》

《뭐 특별히…》

오까모도는 겸손하게 또 머리를 갑삭였는데 전봉준은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번뜩이는것을 보고 이 작자가 보통왜인이 아니라는것을 직감하였다.

오까모도 역시 전봉준의 영준하게 생긴 모색이며 빛발치는듯 한 눈빛, 굵고도 예리한 목소리 등을 통해 그가 인걸은 인걸이구나 하는 생

각을 하고있었다. 오까모도는 《천우협》의 첩자들을 믿을수가 없어 자신이 직접 전봉준의 인끔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서 여기 고부까지 말을 달려왔던것이다.

전봉준이 또 입을 열었다.

《한마디 더 물읍시다. 당신도 〈천우협도〉요?》

《아닙니다.》

오까모도는 서둘러 대꾸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만나자는 목적은 뭐요?》

전봉준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오까모도는 일순 당황해하였으나 인차 온화한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선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 저도 설명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선생의 선성을 듣고 오래전부터 흠모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돕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먼길을 찾아왔습니다.》

《도와주겠다? 어떻게?》

전봉준은 두눈을 쪼프릴사 하고 오까모도를 주시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듯 한 눈빛이였다. 하지만 세파에 닥달된 오까모도 역시 그쯤한 물음과 눈빛에 주눅이 들 위인이 아니였다.

그는 천연스럽게, 하면서도 진심과 진정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무엇으로든 다.》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동행한 이 다까하시상은 무역상입니다. 얼마전에 바로 이 강주사한테서 다량의 쌀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집 아들인 강치도군도 인정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치도가 얼른 긍정했다.

《때문에》 오까모도가 말을 계속했다. 《이 다까하시상은 당신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 … 부대조건이 없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오까모도는 전봉준이 앞으로 한무릎 나앉으며 각근하게 말했다.

《선생은 조선의 태조대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태조대왕이라니, 리성계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고려왕조가 근 500년의 력사후에 국정이 어지러워졌을 때 그것을 뒤집어엎고 새 왕조인 조선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리씨조선도 500년의 력사가 흘러 망조가 들고있습니다. 당신은 리씨왕조대신 전씨왕조를 세울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오까모도는 전봉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전봉준이도 그의 눈을 마주 쏘아보았다. 그는 비로소 《천우협》이며 이 서울에서 온 왜놈을 비롯하여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놈들의 속심을 어렴풋이나마 간파할수 있었다. 이들이 노리는것은 바로 자기를 부추겨 조선에서 내란이 커지게 하고 그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얻자는 수작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놈들의 속심을 좀더 알기 위해 태연하게 대화를 계속했다.

《당신은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해 깊이는 모르는것 같소. 리성계는 자기의 야심과 야망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고 왕권을 찬탈한 역적이요.》

오까모도는 자기 말이 통하지 않자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연 그는 또 조선력사를 끄집어내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망명하고있는 김옥균씨는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허나 그는 소수 개화파청년들에게 의거하다보니 청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 〈3일천하〉로 실패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방대한 민중의 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민중의 신망도 대단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한성을 공격하여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울수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전봉준은 저도 모르게 폭소를 터뜨렸다. 조선력사를 아는체 하는 이 왜놈의 의도가 이제는 너무도 뻔드름하게 들여다보였던것이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가소로운 놈들이다.

《왜 웃으십니까?》

오까모도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갑자기 당신네 일본속담이 생각나서 웃었소. 메뚜기란 놈은 다섯가지를 할수 있으나 어느 하나도 재간은 못된다, 뛰지만 빨리 뛰

지 못하고 날지만 높이 못 날고 기지만 땅우로만 기고 헤염치지만 오래 못 치고 파지만 깊이 못 판다. …

그건 그렇고, 야나기선생. 내 진심으로 충고하건대 당신이 조선력사를 공부하려면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시오. 당신은 방금 김옥균이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원인이 소수혁신청년들에게 의거했기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요. 실패의 원인은 바로 당신들, 일본인들이 그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를 버리고 달아났기때문이요. 그리고 말이 난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당신네 일본은 어찌하여 정치망명객인 그를 10년동안 그토록 박해하고 학대하고있소? 그가 일본에 무슨 죄를 졌다고 사람 못살 열대의 오가사하라섬이나 곰도 얼어죽는다는 북해도에 정배를 보내는가 말이요. 그를, 김옥균선생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우리는 그를 높이 받들고 그가 지향한 나라의 근대화를 기어이 실현할것이요. 이제 우리가 발표하려는 폐정개혁안은 사실상 10년전에 김옥균선생이 작성공포한 정부정강을 참작하여 만든것이요. 분하오, 통분스럽소! 김옥균선생의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아마 당신들, 일본보다 더 강대하고 더 부유하고 더 문명한 나라가 되였을것이요.》

절규하듯 부르짖는 전봉준의 눈굽에서 물기같은것이 번뜩였다.

오까모도는 어쩐지 전봉준의 앞에서 머리가 숙어짐을 느꼈다. 그가 자기의 적이라는 생각에 앞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조선의 참된 애국자로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마쳐왔던것이다.

오까모도는 할 말이 없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당부했다.

《선생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도 류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한성에 있는 일본인려관 파성관으로 련락해주십시오.》

《알겠소.》

서울에서 왔다는 일본인과의 면담은 이렇게 끝나고말았다.

그러나 전봉준은 오늘의 면담을 통하여 왜놈들의 의도를 알수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소득인가.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을 확인시켜준 일이 얼마후에 또다시 생겼다.

전봉준이 대신 오까모도와 다까하시를 전송하러 밖으로 나갔던 천태

봉이가 강치도를 개처럼 질질 끌고 전봉준이앞에 나타났다.

태봉이가 강치도에게 자기 동생 태순이의 행처를 모르는가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어데 심부름 보냈을테니 인차 돌아올것이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강치도는 태봉이 자기에게 일본지폐를 여러장 꺼내주며 자기 말을 들으면 팔자를 고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놈의 속내를 알기 위해 무슨 말을 들으라느냐고 물었더니 강치도가 하는 소리인즉 전봉준대장의 일거일동을 살폈다가 자기에게 알려주면 된다는것이였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사람들도 큰 상을 줄것이라고 하더라지 않는가.

격분하여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버선발로 섬돌아래로 내려온 전봉준은 끓어앉은 강치도의 코앞에 날이 시퍼런 장검을 내대고 웨쳤다.

《이놈! 이 칼날아래 죽고싶지 않거든 이실직고하거라. 왜놈들이 나를 부추기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예, 예, 목숨만…》

강치도는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것만은 약속한다.》

《고맙소이다. 왜인들이 전대장님을 충동질하는것은 장차 이 나라에서 내란이 커지면 청국이 개입할것이고 그러면 일본도 개입하여 청국과 전쟁을 한 후 조선을 자기들이 먹어치우자는것이옵니다.》

《음.》

전봉준은 괴로운 숨을 톺았다. 내 생각이 틀림없었구나, 아, 간악하고 간특한 왜놈들!…

사랑방에 주위사람들을 물리치고 전봉준과 태봉이 두사람이 마주앉았다.

전봉준은 흥분하면 늘 그렇듯이 눈이 열기로 번들거렸다.

《태봉이, 자네는 이길로 전주에 가야겠네. 내 서간도 써주겠지만 거기에 있는 오선생에게 〈천우협〉의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쫓아버리라고 이르게. 우리가 왜놈들의 장단에 놀아날번 했네. 그리고 내 자네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몇달후에는 전주를 가로타고앉아야 하겠으니 내응외합할 준비를 하라고 이르게.》

《예, 그런데 그 왜놈들을 아예 죽여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봉이도 격분하여 울뚝거렸다.

《아니, 벌써 그런 불집은 일으킬 필요가 없네. 그러지 않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왜놈들에게 언질을 주지 말아야 하네.》

《알겠소이다.》

전봉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전주까지 길이 먼데 혼자 가면 관병놈들에게 걸릴수 있으니 누구 데리고 떠나게. 녀자면 좋겠는데, 그럼 피난가는 내외간으로 위장할수 있을테니 말일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도 쉽게 대답하는 태봉이가 의아쩍게 생각되였으나 전봉준은 따져묻지 않았다.

8

태봉이가 《백호》를 끌고 옥절이네 집 뜨락에 들어서니 기다린듯이 방문이 열리며 옥절이가 얼른 토방에 뛰여나왔다.

《말발굽소리를 듣고 태봉이 네가 온줄 알았어.》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는 옥절에게 태봉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너 나하구 어데 좀 가자.》

태봉이의 느닷없는 말에 옥절이의 눈이 호동그래졌다.

《어데?》

《전주성에.》

《어머, 그 먼데…》

《그래, 갈테냐 안 갈테냐?》

《바늘 가는데 실 안 갈가.》

좋아서 해죽거리는 옥절이에게 이번에도 태봉은 데퉁스럽게 내뱉았다.

《아직은 바늘두 아니고 실두 아니다.》

《흥, 어쨌든 너는 내 서방이야.》

《자, 그럼 빨리 차비해라. 참 그리구 이 〈백호〉를 할아버지에

게 좀 맡기고 가자.》

등에 바랑을 진 태봉이와 괴나리보짐을 든 옥절이가 고개길로 걸어가고있었다.

뒤떨어지는 옥절이를 돌아보며 태봉이가 짜증을 부렸다.

《그렇게 여드레 팔십리걸음을 하다간 볼장 다 보겠다.》

그랬어도 옥절이는 여전히 느린 걸음을 걸었다.

《좀 빨랑빨랑 걷지 못해.》

버럭 소리지르는 태봉이에게 옥절이가 사정했다.

《머리가 아파서 그래.》

《머리는 왜?》

《저번때 역졸놈의 방망이에 얻어맞은 다음부터 자꾸 어지럼증이 생겨서 그러지 않니.》

《업구갈가?》

《행길에서 정신없는 소릴 하는구나.》

옥절이가 태봉이에게 눈을 곱게 빨았다.

때마침 어데선가 길을 잡는 벽제소리가 들려왔다.

《에라께라 물러께라…》

태봉이가 목을 뽑아들고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고개아래로 하늘소 한마리가 지나가고있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태봉이가 히쭉 웃더니 무작정 고개아래길로 뛰여갔다.

견마잡이가 이끄는 하늘소에 량반댁도련님이 타고 앞에는 길라잡이가 가고있는데 농군들이 황급히 길가옆에 엎드리였다.

길라잡이가 회초리를 휘두르며 거드름스럽게 갈도소리를 질렀다.

《에라께라! 물러께라! 에라 선 놈은 모두 앉거라! 무안사또댁 도련님 행차시다.》

농군들이 엎드린채 이마너머로 하늘소를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뉘댁 행차라오?》

《무안사또댁 도련님이라고 하지 않소.》

《피난가는 모양이군.》

하늘소가 언덕굽이를 돌아서자 불쑥 한 젊은 사나이가 나타나 앞을 막았다.

하늘소가 흠칠 놀라 멎어서고 길라잡이가 젊은이에게 호통쳤다.

《야 이놈, 너는 웬놈이관데 량반댁행차를 막아서는거냐!》

스적스적 말없이 다가오는 젊은 사나이, 그는 태봉이였다. 그는 다짜고짜 길라잡이에게 주먹을 내질렀다.

길라잡이가 길가녁으로 허궁 날아가 떨어졌다.

태봉이가 키 작달막한 견마군에게 하늘소에 앉아있는 자기 나이또래의 량반자를 가리키며 엄하게 물었다.

《이게 누구라구?》

《예, 예. 무안군 말라꽹이사또댁 뚱뚱보도련님인가 하오이다.》

들창코인 키작은 견마잡이가 익살스럽게 고아바쳤다.

《무안군수 아들놈이라…》

하늘소곁으로 다가간 태봉은 우에 앉아있는 젊은 량반자에게 호통쳤다.

《어서 내려!》

그랬어도 무안군수의 아들이란 녀석은 명색이 량반이라 버티고있었다.

《썩 내리지 못해!》

태봉이가 다시금 버럭 고함을 질러서야 마지못해 젊은 량반은 뚱뚱한 몸에 고개를 오연하게 쳐들고 하늘소안장에서 내렸다. 그는 내리는 참으로 태봉이에게 눈을 부라리였다.

《너 이놈, 이게 무슨 버릇없는짓이냐?》

《아따, 상기 기는 살아서…》

《비키지 못하겠느냐!》

《어랍쇼.》 하며 태봉은 무안군수의 아들에게 한발 다가서며 위협했다.

《저놈처럼 되지 않겠거든 고분고분해!》

그제야 길가녁에 찔 너부러진 길라잡이를 보고 무안군수의 아들은 눈이 데꾼해졌다.

비실비실 일어서던 길라잡이가 태봉이를 보더니 겁기에 질려 얼른 꿇어앉았다.

태봉이가 고개길에 대고 옥절이에게 소리쳤다. 그가 의아한 기색으로 발벰발벰 내려오더니 태봉이앞에서 멎어서며 턱으로 하늘소를 가리켰다.

《웬거야?》

그런데 태봉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들창코견마군이 익살을 부렸다.

《젊은 아씨 모실 행차 등대했나이다.》

《무슨 실없는 소리야?》

옥절이가 낯선 사내의 익살에 언짢게 눈을 흘겼으나 들창코녀석은 여전히 우스개소리를 했다.

《아씨, 어서 닝큼 타시오이다.》

《싫어!》

그러자 태봉이가 짐짓 눈을 부라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싫다니? 그 몸으로 줄창 걸어갈테야? 그러지 말고 어서 타.》

그제야 옥절이도 못이기는척 하늘소안장에 올라탔다.

익살쟁이들창코견마군녀석이 옥절이가 앉은 안장을 바로잡아주며 제법 가사도 곡조도 그럴듯하게 노래가락을 뽑았다.

지는해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데
흔들흔들 마주오는 량반댁의 하늘소행차
이게 무슨 횡재일가 미안하나 도련님대신
수모받던 천민아씨 보란듯이 태워보세 태워보세

그사이 량반자와 길라잡이한테로 걸어간 태봉은 그들에게 위협기 어린 소리로 침을 놓았다.

《이놈들, 관가에 우리를 고변했다간 네놈들을 나무통속에 장을 담글줄 알어라. 관속의 송장이 된단 말이다. 이 짐승은 돌려보내줄테니 기다려라.》

《예, 예.》

길라잡이는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기만 했다.

발길을 옮기던 태봉은 다시 길라잡이한테로 걸어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를 홱 나꾸채가지고 견마군한테로 돌아왔다.

《가자!》

《예잇.》

태봉의 호통소리에 견마군이 하늘소잔등을 고삐로 때리며 걸음을 옮겼다.

사뭇 기분이 좋아진 태봉은 견마잡이앞에서 회초리를 휘두르며 호기있게 벽제소리를 질렀다.

《물러까라! 물러까라! 에라 물러까라!》

그러는 태봉이를 웃음을 물고 바라보던 들창코녀석이 그를 소리쳐불렀다.

《저, 이보시우.》

태봉이가 뒤돌아보자 그는 손을 저었다.

《이리 좀 오시우.》

태봉이가 들창코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는 미소를 띠우며 일깨워주는것이였다.

《갈도소리는 그렇게 치는게 아니웨다.》

《어떻게 하우?》

《〈에라께라! 물러께라! 에, 선 놈은 모두 앉거라!〉 이렇게 하는거외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태봉은 들창코가 가르쳐준대로 흉내를 내였다.

《에라께라! 물러께라! 에, 선 놈은 모두 앉거라!》

태봉은 뒤돌아보며 들창코에게 눈을 끔쩍였다.

《어때, 비슷하우?》

들창코도 만족스러운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됐쉐다.》

태봉이는 다시 회초리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왕청같은 소리가 튀여나왔다.

《없어져라, 꺼져라. 에, 량반놈들은 다 뒈져라!》

태봉이는 춤추듯이 어깨까지 움씰거리며 걸어갔다.

태봉의 흥겨운 기분에 감염된듯 견마군도 그와 걸음을 맞추며 춤추듯이 걷는다. 들창코녀석이 또다시 청높은 소리로 건드러진 노래가락을 뽑았다.

걸음걸음 날개돋혀 천리길도 지척일세
수모받던 천민아씨 길라잡이 흥겨웁다
해님도 벙긋벙긋 즐거웁게 웃는구나
량반없고 귀천없는 좋은 세상 살아보세 살아보세나

들창코녀석의 노래가락에 맞추는듯 하늘소의 네발굽도 자못 흥청거리는듯싶었다.

하늘소잔등에서 흔들리우는 옥절이는 기급한 소리를 지르면서도 얼굴은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웃고있었다.

전주성에 다달은 그들은 오선생이란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오선생은 점잖은 선비인데 전봉준대장과 여간 자별한 사이가 아닌듯싶었다. 그는 전봉준의 서간을 신중히 보고나서 전봉준선생의 당부대로 일을 처리할터이니 념려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태봉이에게 말하였다.

태봉이와 옥절은 오선생네 집에서 점심 한끼를 얻어먹고는 곧 돌아섰다.

제 7 장

풍운아의 최후

1

조선에서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찾아왔다는 서기의 말을 들은 무쯔외상은 처음 한동안 그의 말뜻을 리해하지 못한듯 멍청히 앉아있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벌에 쏘이기라도 한듯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오까모도가 귀국하다니?! 내가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의 머리에는 일순 자기와 오까모도의 처 야에와의 관계를 알아차린 그가 안해의 일로 갑자기 귀국하지 않았을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그의 얼굴에는 차츰 의혹에 뒤이어 불안과 공포의 표정이 짙어갔다. 이것은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응당한 심리적파동이였다.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지른 그는 마치 온실처럼 종려수며 몬스테라, 선인장화분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에 눈길을 주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난국에 처한 사람들이 항용 그렇듯이 그도 이 경우를 어떻게 모면할것인가 하고 머리를 쥐여짰으나 아무런 묘안도, 대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패사나운 사무라이출신인 오까모도가 결투를 요구할지, 아니면 그 어떤 배상금이라도 요구할지 모른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사태를 수습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가 자기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그 사실 (자기와 야에와의 치정관계.) 을 신문지상 같은데 공개하는 경우엔 모든것이 끝장이다. 가뜩이나 무능한 정부라고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있는 정부의 최고각료인 외무대신의 추문사건은 무쯔자신의 정치적매장은 말할것도 없고 어쩌면 이 일로 내각까지 총사직당할지 모른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또다시 자

문했으나 대답은 여전히 찾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치정문제와 같은 시시한 일로 하여 자기의 운명은 물론 정부까지 파국적사태에 직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심만은 확고했다. 오까모도 이 자식, 내 손탁에서 자라난 네가 그런짓을 한다면 없애버릴테다. …

《저, 각하…》

기다리기 지루해진 서기가 자신을 망각하고있는듯 한 무쯔에게 결론을 재촉했다.

어쨌든 오까모도를 만나고보자,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이 생각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무쯔는 서기에게 오까모도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하고나서 자기의 회전의자에 가서 앉았다. 어떤 경우든 외무대신의 체모를 잃어서는 안될것이 아닌가.

잠시후 방안에 들어온 오까모도는 허리를 90도 직각으로 꺾으며 깍듯이 인사하는것이였다.

《각하, 그간 귀체만강하셨습니까?》

그의 행동을 긴장하게 주시하던 무쯔는 대뜸 불쾌감을 느꼈다. 이건 뭐야, 놀리는거야… 그러나 무쯔는 지금 자기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것, 자기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오까모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한마디 던졌다.

《오까모도군, 그런데 기별도 없이 별안간 웬일인가?》

《각하, 량해하십시오.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각하에게 급히 보고할 일이 생겨서… 극비문제여서 전보나 인편에 부탁할수가 없어 불원천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까모도의 태도에는 평소와는 다른 아첨기와 함께 비굴성까지 엿보였다.

그제야 무쯔는 자기가 공연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허거픈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장기환자들에게는 피해망상증의 증세가 있다고 의사들이 말하군 했구나 하고 자기로서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큰소리로 웃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의아쩍게 쳐다보는 오까모도에게 친절하게 손짓했다.

《오까모도, 앉으라구. 뭘, 첨 만나는 사람처럼.》 무쯔는 안락의자에

앉는 오까모도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조선에서의 일은 어떻게 되여가나?》

오까모도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안락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편안히 젖히면서 말하였다.

무쯔는 그의 말을 듣는것이 아니라 좀전에 그가 왔다는 보고를 듣고 당황하고 지어 불안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던 자신에 대해 쓰겁게 되새기고있었다. 어쩌면 《면도칼 무쯔》라고 불리우는 랭혹하고 랭철한 자기가 그쯤한 일에 그렇게 처신했단 말인가. 그건 그렇고, 야에 그 계집이 미친듯이 자기에게 달라붙고 한두번 데리고 놀아보자던 자기 또한 점점 야에에게 빠져들어가니 야단 아닌가. 아무튼 야에는 참 매력적인 계집이야, 오까모도와 같은 놈팽이가 자기 계집의 진가를 알게 뭐람. …

오까모도는 무쯔의 태도를 보고 제 말을 듣고있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그제야 제 생각에서 깨여난 무쯔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까모도의 곁의자에 가앉으며 친절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조선에서 고생하는 자네에게 상금이랑 듬뿍 주자고 했는데 군비충당으로 요즘 정부에 자금이 긴장해서 그리 됐으니 량해하게.》

무쯔의 이 말은 상금 그자체보다 자기가 오까모도는 물론 그의 집에까지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반응은 즉시에 나타났다.

《그 말씀도 드리려던 참이였습니다. 각하, 늘 이렇게 돌보아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처도 얼마나 각하에 대해 고마와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렸는가?》

《예, 어제 밤 도착하는 즉시로. 밤중에 각하를 방문하면 실례될것 같아 집에서 하루밤 지냈습니다.》

《음.》

무쯔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오까모도의 말에 대한 응답인것이 아니라 야에 그 계집은 인물도 곱지만 령리한 계집이란 말이야 하는 자기 속생각의 표현이였다.

《참, 본론을 계속 말하라구.》

《예.》

오까모도는 자기가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전봉준이를 만나보았는데 그는 물론 동학농민군들속에서 김옥균의 인기가 대단히 높으며 그의 갑신정강의 많은 내용들이 전봉준이 제기하고있는 폐정쇄신개혁안에 포함되여있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김옥균이를 그들속에 파견하면 우리 일본은 별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것이며 더욱 좋기는 김옥균이를 조선정부에 박아넣으면 앞으로 일청전쟁이나 조선정복에서 한몫 단단히 하리라는것이였다.

《역시 자네는 현명한 사람이야.》

오까모도의 어깨를 다시 두드려주고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무쯔는 팔짱을 끼고 마루바닥을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오까모도의 앞에 와선 무쯔는 평소의 그 신중한 기색으로 말했다.

《자네 마침 잘 왔네. 정부도 바로 자네와 같은 생각을 하던 참일세. 며칠전에 조선대리공사인 스기무라서기관한테서 지급전문이 왔는데 그는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김옥균이를 시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네. 그러나 그의 리용가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리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스기무라의 말대로 빨리 없애버려야겠네. 몇달전에 홍콩주재 우리 령사 나까가와한테서 통보가 왔는데 조선주재 청국대표 원세개와 대립되여 홍콩에 피신해있는 민씨일파의 우두머리였던 민영익에게 김옥균이를 암살하기 위해 우리 일본에 잠입해있는 리일식으로부터 김옥균의 암살을 도와달라는 편지가 왔다는거요. 리일식뿐아니라 김옥균의 자객들은 수두룩하오. 이런 사정도 알고 〈천우협〉 때처럼 이번에도 자네가 김옥균이와 사업을 해주게. 잊지 말건 시간이 급하다는 사정일세. 먼저번에도 말했지만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세.》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오까모도의 표정은 엄숙했다.

방에서 나가려는 오까모도를 멈춰세운 무쯔는 우묵한 눈확에 예리한 빛을 띠우고 몇마디 더 강조하였다. 그는 김옥균이를 파악하려면 우선 내무상각하를 만나보라면서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내무상 이노우에백작은 조선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조선통이라고 하면서 그는 벌써 10여

년전부터 김옥균이와 접촉하고있는데 그자를 아주 말짼 인간이라고 하더라면서 이렇게 끝을 맺았다.

《하지만 자네가 김옥균이를 우리 사람으로 돌려세운다면 그건 몇개 사단의 군대를 얻는것과 같네. 오까모도, 제국을 위해 공을 세우게.》

2

자객 홍종우는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책상우에 훌 던지며 같은 자객인 리일식에게 뇌까렸다.

《리선생, 이젠 이 물건짝두 거치장스러워 못 가지고 다니겠소.》

리일식은 후렁후렁한 일본식하오리차림이였고 홍종우는 하이칼라머리에 봄철에 맞는 청회색양복을 쭉 뽑아입은 멋쟁이였다.

리일식이가 너무 조급해말라고 타이르니 홍종우는 한손을 바지주머니에 지르며 더욱 울뚝하여 내뱉았다.

《김옥균이가 뭘 그리 큰 인물이 돼서 주저하는거요.》

《큰 인물이야 큰 인물이지.》

홍종우가 아무리 큰 인물이래도 깜장콩알 한알이면 알아볼텐데 뭘 그러는가고 또 게정을 부리자 리일식은 10년전에도 조정에서 장갑복이며 지운영이란 사람에게 위임장까지 주어 김옥균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말았다고 말하였다.

《그때야 그자의 주위에 그의 패당들이 득시글거렸으니 어려웠겠지만 지금이야 외토리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소. 더우기 요즘은 조선에서 건너온 오까모도 류노스께까지 그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고있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홍종우의 눈이 대뜸 커졌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이 옥균이를 단단히 써먹자는것 같소. 더우기 요즘 전라도에서 민란까지 터졌는데 이제 전봉준이와

김옥균이가 손을 잡으면 일은 간단치 않소.》

그제야 사태의 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한 홍종우도 머리를 끄덕였다.

《자, 그러니 부지하세월이 아닙니까?》

《어쨌든 탕개를 늦추지 말고 그를 계속 따르시오.》

홍종우는 좀 주밋거리더니 낯에 비굴한 웃음을 띠였다.

《저,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건 걱정마오. 오사까 제58은행의 대표자인 오미와씨에게서 옥균의 암살성공후에는 배가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5만엔을 차관받기로 했소. 우선 당신에게 1만엔을 줄테니 용처돈으로 쓰시오.》

그제야 홍종우의 입은 헤벌쩍해졌다. 홍종우는 프랑스의 빠리에 류학갔던자인데 귀국도중 일본에 들려 리일식을 만나 그의 심복이 된 놈이였다. 그는 일본에서 망명하고있는 김옥균이를 암살해치우면 뭉치돈과 함께 높은 벼슬자리에 천거해주겠다는 리일식의 말에 대뜸 응하였다. 프랑스의 문명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원래 미천한 출신인 그에게는 돈이나 높은 관직만이 필요하였다. 하기에 자기 나라도 빨리 문명국으로 만들려는 김옥균이와 같은 애국자를 죽이려고 날뛰였던것이다.

이때 조선의 궁성에서도 민비와 민영준이사이에 김옥균의 문제를 가지고 론의가 벌어지고있었다.

민비가 하사한 주안상을 앞에 놓고 앉은 민영준의 얼굴에는 황송함과 송구스러움 그리고 까닭모를 불안과 울분이 뒤섞인 착잡한 표정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그의 기색을 살펴보던 민비가 민망스러운듯 한마디 핀잔을 주었다.

《마시라는 술은 마시지 않고 왜 저녁 굶은 시에미상을 하고있나?》

그제야 민영준이도 볼부은 소리를 했다.

《중전마마, 소신은 이 술을 감히 마실수 없소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갑신의 혼백들이 지켜보고있는데 소신이 어찌 맘편히 술이나 마실수 있겠소이까?》

민비도 신중한 기색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분명 민영준이가 무슨 속에 품은 소리를 하려는 모양이라고 짐작이 갔던것이다.

아닐세라 민영준은 술상옆 장판에 부복하며 울먹이는 소리로 아뢰는 것이였다.

《일본에서 리일식이로부터 소신이 왔사온데…》

《리일식이?…》

민비는 처음 듣는 이름이기라도 한듯 민영준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일본에 자객으로 가있는 우리 사람 말이옵니다.》

《그래서?》

《그의 서간에 의하면 요즘 일본사람들의 움직임이 실로 심상치가 않다 하옵니다. 얼마전에 부산에서 〈천우협〉이란 자객단체를 조직하여 남도 전봉준의 폭도들을 도와주더니 요즘은 서울에 있던 일본거류민들의 두령노릇을 하던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일본으로 건너가 김옥균이와 부절히 접촉하고있다 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겠사옵니까? 지금 왜인들은 김옥균이를 부추겨 전봉준이와 합세시키려고 하고있사옵니다. 그렇게 되면 형세 실로 막급하게 되옵니다.》

민비는 갑자기 접이부채를 탁 펼치며 활활 젓는데 울기가 오른 얼굴에서 눈빛이 유난히 번뜩이였다.

《적실하냐?》

《자객 홍종우한테서도 같은 서간이 왔소옵니다. 마마, 부디 통촉해 주옵소서.》

민비는 다시 접이부채를 탁 펼치여 활활 저으며 이새로 내뱉듯 독살스럽게 뇌였다.

《간특한 왜인들, 10년전에는 김옥균이들을 내세워 우리 신하들을 살륙하더니 오늘은 또…》

《마마, 저 갑신의 역적들을 하루빨리 도륙을 내야지 지금처럼 방임해두었다간 정말 큰일나옵니다.》

《그러니 일본에 있는 놈들을 어쩐단 말이냐?》

《방법이 있소옵니다, 마마.》

부채를 탁 접는 민비의 눈에 살기가 어리였다.

《말하거라.》

《일본정부에 우리의 뜻을 강하게 전하고 또 청국에도 의뢰하여 그들도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하옵니다.》

《알겠다. 외아문을 통해 일본공사관에 우리 뜻을 또다시 전하도록 할터이니 너도 원세개를 통해 청국에 우리의 뜻을 알리도록 하거라.》

《마마, 황송무지로소이다.》

《됐다. 이젠 일어나 술이나 들거라.》

민비의 눈길은 민영준의 주안상에 가있어도 그의 머리속은 피바람이 불던 10년전, 갑신정변의 그날에로 줄달음쳤다.

김옥균이를 령수로 하는 젊은 개화파들이 개국진취,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 임금 고종은 물론 민비 자기도 그들을 동정하고 지지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전 임금인 철종왕의 사위인 금릉위 박영효며 령의정 홍순목의 아들인 홍영식이를 비롯하여 거의나 뜨르르한 가문의 출신들이였다. 개화의 열망으로 불타던 그들은 한성에 근대적기관들인 박문국 (출판기관) 을 설치하여 《한성순보》와 같은 신문을 발간하였으며 순경국 (경찰기관) , 치도국 (도로건설기관) , 우정국 (체신우편기관) 을 설치하여 근대적개혁을 추진시켜나갔다.

당면한 개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더우기 개혁의 지반인 광주특별군영의 신식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별입시》의 자격으로 고종과 민비를 알현한 김옥균은 외채구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날 결심을 아뢰였다. 그의 우국충정에 감복한 민비는 그에게 약주상까지 차려주어 고무하였다.

그런데 민비의 크나큰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전해에 옥균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조선국왕의 위임장이 있으면 300만엔정도의 차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본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김옥균의 국왕위임장이 위조문건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로 차관을 거절하였다는것이였다. 이노우에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는 김옥균이로 하여금 일본놈들이란 안팎이 다른 족속이며 그들이 떠드는 《원조》란 한갖 헛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하였다고 했다. 아무튼 이 일로 하여 옥균에 대한 민비의 신임도 떨어졌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김옥균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실망하거나 좌절당하지 않았으며 뒤떨어진 나라를 개혁하려는 결심이 더욱 굳세여질뿐이였다.

그때 나라의 앞길을 두고 절절히 하소하던 옥균의 목소리가 지금도 민비의 귀전에 쟁쟁히 울리였다.

《…량위전하, 옳은 정략을 세워 선진문명국들의 문물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민지를 개발한다면 우리도 불과 10년안에 부국강병을 성취할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되면 국력은 강해지고 국권 또한 떳떳이 서게 되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국위를 떨칠수 있을것이오니 시급히 통촉하옵소서. …

소신은 그저 이 땅에 부국강병한 자주독립국을 일떠세우고 량위전하를 받들어 금상전하는 대황제폐하로, 중궁전하는 대황후폐하로 부를 그날을 학수고대할뿐이옵니다. 금상마마! 중궁마마!…》

옥균의 얼굴은 충정으로 불타고 그의 눈굽에 뜨거운 눈물이 글썽거렸다. 감동된 고종과 민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갑신(1884)년 10월 17일 야밤중에 김옥균이며 박영효들이 잠자리에 든 민비와 고종을 깨우더니 청군이 반란을 일으켜 사세가 위급하니 속히 경우궁으로 옮겨야겠다고 아뢰였다. 당황한 고종과 민비는 그들이 이끄는대로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18일 아침 문안차로 경우궁으로 찾아온 경기감사인 자기의 심복 심상훈으로부터 지난밤에 김옥균이를 비롯한 개화파들이 우정국준공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으며 자기의 세력지반이요 수족노릇을 하던 수구파 거두들을 숙청하고 개화파정부를 구성했다는것과 청국군대의 반격이 있게 될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두눈을 쪼프린 민비는 입술을 옥물었다. 그는 개화파들이 서울에 주둔하고있는 청나라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임금의 호위를 맡게 할 때부터 그들을 언짢게 여겼는데 자기의 심복노릇을 하던 수구파의 거두들을 죽이고 정권을 가로챈것을 알게 되자 심중에서 격랑이 일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은 젊은 개화파들이 권세를 독차지했을뿐만아니라 임금까지 그들을 동조하고있다, 게다가 경우궁의 수비를 일본군대가 맡고있다, 그런데 그들의 병력은 한개 중대, 120명에 불과하다, 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려면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이 경우궁으로부터 공격에 유리하고 방어에 불리한 넓은 창덕궁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타산한 민비는 곧 암약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왕실의 제일 웃어른인 조

대왕대비를 꼬드겨 좁고 불편한 경우궁으로부터 넓고 편리한 창덕궁으로 돌아가자고 고종에게 떼를 쓰도록 하였으며 환관들과 궁녀들로 하여금 소란을 피우도록 하였다. 난처한 처지에 놓인 고종은 다께소에 공사에게 창덕궁으로 이전해도 청군의 공격을 능히 견제할수 있는가고 문의하였다. 경솔한 다께소에는 정예한 일본군은 청군을 물리칠수 있다고 장담함으로써 결국 어가(왕의 행차)는 창덕궁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개화파는 불리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왕궁안팎의 경비사업을 조직한 후 지체없이 개혁을 단행하고 김옥균이 구상하여온 새 정부정강을 작성하여 10월 19일 아침에 공포하고 한성시내 각곳에 내붙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에 원세개의 지휘밑에 1 500명의 청군이 창덕궁으로 침공해오고 다께소에가 본국의 지령에 따라 배신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방어력이 미약해진 개화파의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리우고말았다.

그 살벌하고 음산하고 불안하던 당시를 회억하던 민비는 이를 갈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왜놈들에게 업혀돌아가는 옥균이를 용서할수가 없어.》

그는 이처럼 김옥균이를 몰리해, 오해하고있었다.

그러던 민비는 문득 생각에 잠겨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를 일이다.》

그는 얼마전에 홍콩에서 보내온 민영익의 비밀서한 한통을 받았다. 민비의 조카로서 한때 민씨들의 우두머리노릇을 하던 민영익은 청국장수 원세개와 대립되여 홍콩에 피신해있으면서 민비를 위해 정보수집을 담당하고있었다.

민영익은 편지에서 쓰기를 일본에 있는 자객 리일식으로부터 자기에게 김옥균암살계획을 통보해왔는데 자기는 이 사실을 홍콩주재 일본령사에게 알렸고 홍콩령사는 본국 외무성에 알렸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일본정부는 근 두달전부터 김옥균암살계획을 알고도 방치해두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더우기 일본에 있는 자객 홍종우의 통보도 그 내용이 자못 심중하였다. 그의 통보에 의하면 리일식이가 김옥균의 암살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오사까 제58은행의 대표자인 오미와에게 은밀히 위임장을 제시하고

암살성공후에는 배가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5만엔을 지출받았다는것이였다. 한 은행이 5만엔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외국인에게 출자하는데 있어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민비도 잘 알고있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이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도대체 어느것이 일본의 진짜얼굴인가, 김옥균을 써먹자는것이 그들의 의도인가 아니면 그를 없애치우자는것이 그네들의 본심인가. 민비는 간사한 웃음을 곧잘 띠우는 왜인들의 표정이나 작태를 보고는 그들의 속심을 알수 없다는것을 이미전부터 알고있었다. 아무튼 그는 김옥균이를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한껏 내세우고 무엇이든 아끼지 않지만 자기를 반대하거나 엇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것이 그 녀자의 성격의 량극단을 이루는 개성적특질이기도 하였다.

3

오까모도는 두번째로 김옥균의 숙소를 찾았다. 오늘로써 그에 대한 자신의 최종결심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외출하려던 참인지 김옥균은 곤색와이샤쯔에 받쳐 아래우에 흰 양복을 입고있었다.

손님이 왔으므로 외출을 단념한 그는 저고리를 벗어 말코지에 걸었다.

김옥균은 일본청년인 와다 그리고 중년의 조선사람인 리윤고와 함께 살고있었다. 와다는 김옥균이가 근 10년전 오가사하라섬에서 류배살이할 때 사귄 청년인데 그때 열살남짓한 소년이던 와다는 자기를 혈육처럼 사랑해주는 김옥균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후부터 친부자간같이 계속 함께 지냈었다.

또한 리윤고는 김옥균의 장거에 감복하여 그를 찾아 조선에서 일본으로 온 사람인데 지금껏 곁에서 시중을 들고있었다.

오까모도와 단둘이 남게 되자 김옥균은 그에게 차를 권하고나서 말했다.

《오까모도선생은 지금 나를 증오하고있을것입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오까모도는 짐짓 놀라는 시늉을 하였다.

《내가 일본을 증오하고있는데도…》

《김선생이야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생의 망명경위와 망명후 생활에 대해 마저 듣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보니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집니다.》

김옥균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김선생의 일신담은 〈수호지〉나 〈삼국연의〉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김옥균은 오까모도가 흥미만으로 자기 일신담을 듣고싶어한다고 믿지 않았다.

《오까모도선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싶다니…》 문득 말을 끊은 김옥균이가 의미심장한 눈길로 오까모도를 쳐다보았다. 《선생이 내 생활에 흥미를 가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순간 오까모도의 낯색이 좀 붉어졌지만 로회한자라 태연하게 대꾸했다.

《선생과 사귀고싶어 그럽니다. 선생은 풍운아가 아닙니까?》

《풍운아?… 불행아지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김옥균은 회억에 잠기였다.

오까모도는 사색에 잠긴 김옥균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전봉준이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인상을 김옥균에게서도 느낄수 있었다. 김옥균이도 전봉준이와 같은 그런 비범한 인물, 명사였다. 조선은 참으로 인걸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 이런 나라를 정복한다는것이 진정 힘겨운 일이라는 전률에 가까운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다.

《나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비밀이 없는 사람인데다 매일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에게도 꺼리낌없이 말합니다.》

김옥균이가 천천히, 그러나 서리발같은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화파가 목숨을 내걸고 정변에 일떠선것은 렬강의 침습으로 망국의 비운에 처한 나라를 시급히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우리는 막강한 청국과 그에 의거하고있는 수구파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기꺼이 응해나섰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의 전과정은 자기 리익을 위해서는 어떤 신의도 원칙도 헌신짝같이 내던지는 일본위정자들의 비렬한 본성과 고유한 체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까모도는 김옥균이가 자기를 규탄하는듯싶어 속이 언짢았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잠시후 눈길을 드니 김옥균은 추억에 잠긴듯 한 표정으로 창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깊은 사색이 깃든듯 한 희고 넓은 이마, 끝없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눈빛,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준수한 용모에도 세월의 자취, 산전수전 다 겪고 세파에 부대껴온 흔적이 때이른 주름살이며 흰 머리칼오리들에 력력히 나타나있었다.

김옥균이가 오까모도에게 눈길을 돌렸다.

《나의 망명경위와 망명생활에 대해 듣고싶다… 괴로운 추억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 괴로운 추억을 가슴깊이 묻어두고 있습니다. 인생과 력사의 교훈이니까요.》

자신의 망명경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그의 눈빛은 날카로왔고 흰 얼굴색은 울분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변에 성공한 그때 개화파앞에는 두가지 큰 애로가 놓여있었다. 그 하나는 무기고에서 꺼낸 모든 무기들이 녹이 쓸어 쓸수 없는것들이였고 다른 하나는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일본군대를 그 이상 더 왕궁에 머물러두는것은 청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수 있으므로 철병하겠다는것을 제기해온 사실이였다. 이것은 실로 가장 준엄한 시각에 정변을 파탄시킬수 있는 용서할수 없는 배신행위였다.

사방에서 청군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민비며 조대왕대비는 환관과 궁녀들의 옹위속에 북묘쪽으로 허둥지둥 달아나고있었다. 한 무예별감의 등에 업힌 임금 고종도 민비네들을 따를 잡도리를 하고있었다. 그를 가까스로 만류시킨 김옥균은 다께소에한테로 달려갔다.

날이 어두워오고 진눈까비가 어지럽게 흩날리고있었다.

그는 정렬한 일본군대들앞에 서있는 다께소에한테로 급히 다가갔다.

《정녕 철수하겠단 말이요?》

사납게 힐문하는 김옥균에게 다께소에는 중언부언 변명했다.

《사정이… 사정이 어쩔수 없지 않소.》

다께소에는 얼마전에 인천에 도착한 정기우편선 《찌또세마루》를 통해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의 지령을 받았는데 이노우에는 청프간에 정전이 이루어졌으니 더이상 조선내정에 개입하지 말라는것이였다. 안남문제로 청국과 프랑스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후 청국이 몰린 때에는 개화파를 적극 두둔하던 일본이였다. 이처럼 일본은 청국과 프랑스의 전쟁형편을 보아가며 조변석개식으로 조선문제를 다루었던것이다.

김옥균은 배신과 좌절, 실패와 절망의 괴로움으로 목을 비틀었다. 그는 얼굴의 진눈까비를 손바닥으로 쓱 쓸어내리며 탄식하듯, 타매하듯 부르짖었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가지 않거늘 내가 또 속았구나.》

그는 다께소에의 면상을 찌르듯이 손가락을 내질렀다.

《가라! 배신자! 철면피한들!》

다께소에와 일본병정들은 허겁지겁 달아났다.

이미 고종은 민비를 뒤따라 북묘쪽으로 가고 없었다.

김옥균과 갑신정변객들은 인천으로 가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일본정기우편선 《찌또세마루》의 어둑시그레한 선창에 김옥균이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리규완, 신응희, 정란교 등 망명객들이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선장 쓰지가 이들한테로 들어왔다.

《누가 김옥균이요?》

《나요.》

하고 대답하는 김옥균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쓰지가 한마디 했다.

《한성에서 당신들을 체포하러 관리들이 왔소.》

망명객들의 낯색이 대번에 굳어졌다.

이때 갑판에서는 외무대신 조병직이와 외무협판인 도이췰란드인 고문 묄렌도르프가 다께소에를 공박하고있었다. 그들은 김옥균을 비롯한 7명의 대역부도죄인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

대한 국제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다께소에의 지시를 받고 선창으로 내려온 서기관이 안됐지만 기선에서 내려야겠다고 김옥균에게 말했다. 김옥균의 눈에서는 불이 일고있었다.

선장실에서는 선장 쓰지가 다께소에공사와 비난절반, 설복절반의 언쟁을 벌리고있었다. 조선망명객들이 배에서 내리면 죽는다는것을 그래, 공사각하는 모르는가고 들이대는 쓰지의 말에 다께소에는 국제문제이니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고 고개를 쳐들었다. 쓰지는 조선망명객들이 혹시 앞으로 우리 일본에 쓸모가 있을지 알겠는가고 다께소에를 설복시키고나서 갑판으로 나갔다.

목숨이 경각에 이른 개화파망명객들은 갑판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다. 여차하면 자결할 비장한 각오로 박영효는 눈을 감은채 배에다 단도를 대고있었다.

선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귀하, 당신들이 찾고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배에는 없다는것을 엄숙히 언명하는바입니다.》

묄렌도르프가 대뜸 어성을 높였다.

《당신 누구요?》

《귀하들이 승선한 〈찌또세마루〉 선장임을 정중히 알려드리는바입니다.》

조병직이가 끼여들었다.

《우리는 당신과 상대하지 않겠소. 일본공사를 찾으시오.》

선장이 야유조로 시까슬렀다.

《이 배와 관련한 일체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바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장의 권한으로 귀하들이 시급히 하선하실것을 권고하는바입니다. 일단 출항하면 나는 귀하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질수 없습니다.》

어찌할바를 모르는지 조병직과 묄렌도르프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하선을 독촉하듯 때마침 《붕》하고 힘찬 고동소리가 울렸다.

황급히 다랍프로 내려가는 조병직과 묄렌도르프의 발자욱소리가 들렸다.

김옥균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박영효는 손에 쥔 칼을 떨어뜨렸다.

일본에 도착한 그들은 도쿄의 뒤골목에 있는 허술한 집 한칸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집단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다. 살길을 찾아 흩어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가는 비가 축축히 내리는 어느날 저녁, 김옥균은 미국으로 떠나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이를 전송하기 위해 비에 젖어 모든것이 번들거리는 도쿄 우에노역구내에 서있었다. 조국의 개화를 위해 생사를 걸고 거사를 단행한 동료들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그의 심정은 외롭고 괴롭고 울적하기만 하였다.

김옥균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국은 예서 배길로 수만리, 부디 먼길에 몸성히들 가시오.》

《이 사지판에 김형을 홀로 두고 떠나려니 우리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광범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들거렸다.

《미국에 가서도 고국만은 잊지 마시오.》

김옥균의 뜨거운 당부의 말을 귀따갑게 울리는 발차기적소리가 삼켜버렸다.

그는 승강대에 오르는 제일 나이어린 서재필의 손에 돈을 쥐여주었다.

《아니?!》

놀라는 서재필에게 김옥균이 따뜻하게 일렀다.

《먼길에 보태쓰오.》

《…》

미국으로 가는 일행은 감동에 겨운 눈길로 김옥균을 바라볼뿐 입들을 벌리지 못했다.

드디여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떠나갔다. 하지만 이 리별이 결국 그들과의 마지막결별로 될줄은 옥균이도 아직 몰랐다. 아무튼 갑신정변의 주역중에서 김옥균이 혼자 남은셈이였다. 하지만 그는 실의와 좌절을 몰랐다. 개화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그의 신심과 의지는 더 굳세여질뿐이였다. 그러나 김옥균에 대한 일본정부의 박해도 더욱 가혹해졌다.

일본정부청사에서 외상 이노우에와 내무상 야마가다사이에 김옥균의 문제를 두고 언쟁이 벌어지고있었다.

늘 하는 버릇대로 웃몸을 제낄사 한 건방진 태도로 이노우에가 야마가다를 공박하였다.

《김옥균이가 우리 일본에 계속 있게 되면 청국 및 조선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근원으로 될뿐만아니라 국내치안에도 저해를 준다는것을 그래, 내무상인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왜 모르겠소. 한데 김옥균이 그자가 어찌 강경하게 나오는지 어디 손쓸수가 있어야지.》

야마가다도 골살을 찌프렸다.

《어쨌든 국외로 추방하시오. 그다음에야 조선에서 자객을 보내여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지 않소.》

《김옥균이가 그걸 모를것 같소? 그자는 자기를 추방하는 경우 우리 내무성의 비행을 국내신문뿐아니라 외국의 신문들에까지 공개하겠다고 위협해나서오. 그렇게 되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되오?》

이노우에가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당신에게도 무슨 안이 있을테니 그걸 좀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야마가다가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며 말했다.

《에, 김옥균이를 저 멀리 오가사하라섬에 보내여 그곳에 억류해 두자는것이요.》

《오가사하라…》 이노우에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태평양상의 그 열대섬에… 음, 그게 좋겠소.》

이리하여 김옥균은 열대에 가까운 절해고도인 오가사하라섬에서 2년간 류배생활을 하였고 뒤이어 제일 추운 북쪽의 홋가이도의 삿뽀로에서 간난신고를 겪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혹한속에서도 그의 우국충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몇해전에 삿뽀로에서의 정배살이가 끝나 도꾜로 올라오게 되였다.

그는 새로운 의욕을 품고 재기하기 위해 활동을 맹렬하게 벌렸다. 그는 정변거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산경영에도 손을 뻗쳤고 산림불하에도 뛰여들었다. 허나 이 모든것은 일본정부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모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게다가 지난날 호의적으로 대하던 민권운

동의 주창자들인 후꾸자와, 고또오, 도야마 미쯔루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면서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 김옥균을 랭대하였다.

이런 말을 한 김옥균은 오까모도를 주시하면서 물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떤 결심을 내렸을것 같습니까?》

《일본을 떠나렵니까?》

이렇게 되물은 오까모도 역시 생각깊은 표정이였다.

《그렇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일본에 의거하여, 일본을 리용하려 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사하려던 나의 의도는 하나에서 열까지 쓰디쓴 실패만을 맛보았습니다. 일본은 애당초 조선의 독립이나 근대화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저지, 방해하기만 하였습니다.》

김옥균과 헤여진 오까모도는 곧 무쯔외무상과 이노우에내무상을 찾아갔다.

《그래, 전혀 가망이 없던가?》

무쯔의 물음에 오까모도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노우에가 랭혹하게 씹어뱉듯이 뇌까렸다.

《개자식!》

그러자 생각에 잠겨있던 무쯔도 랭혹하게 내뱉았다.

《개자식이라… 아니 개보다 못한 자식이지, 개도 제 상전을 알아본단 말이요.》

무쯔의 말에 오까모도가 낯에 쓰거운 웃음을 띠였다.

《각하, 김옥균이는 언제한번 일본을 상전으로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그는 시종 일본을 누르고 올라서자는 작자입니다.》

이노우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니 개자식이지.》

《그는 곧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오까모도가 한마디 귀띔했다.

이노우에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무쯔를 건너다보았다.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무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속에 김옥균이가 일본을 떠나는 기회에 그를 제거해버리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그들은 그 계획토의를 계속했다.

《한성의 스기무라서기관한테서도 그를 빨리 없애는것이 우리 일본에 유리하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무쯔가 신중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하자 이노우에가 제꺽 호응했다.

《그래, 그를 조선과 청국에 미끼로 던져주는것도 좋지.》

무쯔가 오까모도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오까모도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무쯔는 명령식으로 말했다.

《오까모도, 이 일도 자네가 먼저처럼 도야마와 의논하여 처리해 주게.》

《알겠습니다.》

4

마차가 일본주재 청국공사관앞에서 멎어서자 마차문이 열리며 회색양복에 검은 구두를 받쳐신은 김옥균이가 땅에 내려섰다. 그는 지금 일본주재 청국공사 왕봉조를 만나러 오는 길이였다. 작년 9월 청국정부의 실권자인 리홍장이 당시 일본주재 공사를 하던 자기 아들 리경방을 통하여 조선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김옥균이 청국을 방문하도록 초청장을 보내여왔는데 조선수구파의 지지자인 그의 의도를 알수가 없어 옥균은 응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일본에 더는 있을 필요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청국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뚱뚱한 몸에 다부산자를 입은 호인형인 왕봉조공사는 김옥균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김옥균이 의자에 앉자 왕봉조는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그래, 결심이 되였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김옥균은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왕봉조는 선자리에서 두손을 맞부비며 다시 물었다.

《그래, 언제 떠나렵니까?》

《려비가 마련되는 차제로 떠나겠습니다.》

《우리 북양대신 리중당 (리홍장의 호) 로야나 그의 아들 리경방

은 반갑게 맞이할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봉조에게 김옥균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리경방이 도꾜에 공사로 와있을 당시 김옥균은 그와 친근하게 지냈다. 그러기에 왕봉조가 신임공사로 도꾜에 오게 됐을 때 리경방은 그에게 김옥균의 거처를 종종 방문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던것이다.

왕봉조가 다시금 두손을 맞부비며 입을 열었다.

《한데 대인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김옥균로야께서 우리 청국행을 하실 땐 무슨 목적이 있을텐데요?》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김옥균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신중한 기색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동방정략을 리중당로야와 의논하고싶습니다.》

《동방정략?…》

《그렇습니다. 조선, 청국, 일본 등 아시아나라들은 공동의 발전과 유미렬강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서로 동맹하며 이에 있어서 일본은 자기의 침략적야망을 버려야 한다는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내가 집필한 〈흥아의 의견〉에서 체계적으로 론술하였는데 나는 이 사상을 〈삼화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왕봉조공사는 옥균의 말을 심중한 표정으로 듣고있었다.

흥분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김옥균은 손세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둘째로, 나는 복잡한 우리 조선의 정국을 고려에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개화의 새시대를 불러오기 위해 고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국에 가는것이 유리합니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책동을 앉아서 볼수만은 없습니다. 이 이상 일본에 머물러있다는것은 무의미하며 나라의 위급한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깨닫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시행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리홍장로야를 만나는것이 다분히 모험적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습니다.》

왕봉조는 김옥균의 웅심깊은 말에 침묵을 지키였다.

오사까 3정목에 있는 자객 리일식의 숙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으슥한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어스크레한 불빛아래서 현양사 사주 도야마 미쯔루와 조선의 자객 리일식이와 홍종우가 구수밀의를 벌리고있었다.

이미 오까모도를 통하여 김옥균이를 처리할데 대한 일본정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도야마가 지금 그 계획을 자객들에게 말하는중이였다. 리일식이며 홍종우는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도야마가 말을 마치자 리일식은 감복하여 떠벌였다.

《도야마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김옥균의 자객으로 내가 여기 오사까 3정목에 자리잡고 청국으로 다니는 약종상이라고 광고한지도 오래되였고 그사이 조선에서 또 자객으루 파견된 권동수, 권재수형제를 옆에 끼고 게다가 이 홍종우군까지 우리 일에 개입시키고도 여적 기회가 없어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사람들인 오미노와 가와구보와도 결탁했으나 역시 성사하지 못한것은 일본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우려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됐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음흉한 눈길로 지껄이는 리일식을 지켜보던 도야마가 한손을 내저었다.

《오미노와 가와구보는 이 일에 개입시키지 마시오. 일본사람들이 끼우면 안되오.》

홍종우가 제꺽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내가 혼자서 해치울수 있습니다.》

도야마가 홍종우에게 멸시조로 말하였다.

《당신은 세계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빠리류학생이라는데 문명의 물을 많이 먹은 당신이 살인업에 끼우기가 주저되지 않소? 더우기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말이요.》

《류학생이면 뭘합니까? 량반출신도 아닌 내가 장차 한자리 하려면 이런 공로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어쨌든 실수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오.》

《걱정마십시오.》

홍종우들과 헤여진 도야마는 곧장 김옥균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료정으로 그를 데리고갔다. 김옥균의 행동여하를 최

종적으로 알기 위해서였다.

각상을 놓고 김옥균과 마주앉은 도야마는 샤미셍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게이샤들을 물리쳤다.

《나가! 나가!》

미닫이문이 닫기자 김옥균에게 낯을 돌렸다.

《그래, 김상은 기어이 청국으로 가겠단 말이요?》

《가겠소. 아니, 가야 하오.》

김옥균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의가 어려있었다.

도야마는 지금 조선에서 내란이 터졌는데 이런 기회에 다시 정변을 단행하면 꼭 성공할수도 있지 않느냐고 김옥균을 꼬드겼다.

《그런 까닭에 가려는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대꾸한 김옥균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간절한 눈길로 도야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도야마상,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응?…》

《막상 떠나자고보니 려비가 문제구려.》

《려비…》

《후꾸자와씨가 한 2 000엔, 이시이씨가 근근히 1 000엔을 마련해주었는데 그것으로야 어림이나 있소. 도야마씨는 〈현양사〉의 사주인데다 광산들도 경영하고있는 갑부가 아니요?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얼마나?》

《최소한 4 000엔정도는 더 있어야겠는데…》

《4 000엔이라…》

천천히 되뇌이며 속궁냥을 굴리던 도야마는 지금은 현금이 없는데 오사까에서 조달하면 안되겠는가고 말하였다.

김옥균의 낯색이 대번에 밝아졌다.

《안되다니, 오사까에서든 어디서든 돈만 마련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소.》

도야마는 며칠후에 오사까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자리를 떴다.

도야마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온 김옥균은 기쁨에 들떠있었다. 제일 걱정거리이던 려비가 해결되였으니 이제는 이 지겨운 일본땅을

훌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휘파람을 불며 려행준비를 하고있는 김옥균을 와다는 웃음을 물고 바라보았고 리윤고는 시무룩한 기색으로 일손만 놀렸다.

《아버진 꼭 소학생들이 원족가는 날 같군요.》

와다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였다.

《그래, 난 지금 소학생의 동심 한가지다.》

이렇게 대꾸한 김옥균은 다시 와다에게 당부하였다.

《와다, 래일 저녁차로 오사까역에 도착한다고 도야마씨에게 전보를 쳐라. 나는 청국공사관에 다녀와야겠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옥균의 기분에 감염된 와다도 즐겁게 응수하며 밖으로 뛰여나갔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리윤고는 걱정스러운 기색이였다.

《선생님, 정말 청국으로 가시렵니까?》

《가려네.》

《아니할 말루 호박쓰고 돼지굴에 들어가는 격이 아닙니까?》

그 말에 옥균은 호방하게 대척했다.

《〈불입호혈이면 부득호자〉라, 범의 새끼를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릴세.》

그랬어도 리윤고는 위구심을 놓지 못하였다.

5

한편 외무대신 무쯔의 방에서는 오까모도가 김옥균의 차후행동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무쯔에게 보고하고있었다.

무쯔는 자못 만족스러운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그러니 오늘 도꾜를 떠난단 말이지.》

《예, 래일 저녁 오사까역에서 김옥균이는 도야마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아, 일이 착착 계획대로 되는구만. 하지만 자네도 방심해서는 안되네.》

무쯔는 오까모도에게 옥균이를 뒤따라 상해로 가서 그가 살해되는 즉시 그의 시체를 일본으로 실어와야 한다고 지시를 주었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김옥균을 살해한 청국과 조선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것은 일청전쟁과 조선강점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하는 늘 1석2조식으로 일하시는군요.》

오까모도가 아첨기어린 기색으로 이렇게 말하자 무쯔는 우묵한 눈을 쪼프리며 악에 받친 소리로 뇌까렸다.

《그래야만 후진국인 우리 일본이 유미를 따라앞설수 있단 말이야!》

이때 서기가 방에 들어서더니 외상각하의 딸 찌요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고 알려주었다.

《찌요?!…》

너무 뜻밖의 일이라 무쯔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당돌한 계집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온단 말인가.

《기다리라고 이르게.》

그러나 찌요는 서기가 방에서 나가기도 전에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는것이였다.

오까모도나 서기는 물론 외상인 무쯔자신도 찌요의 너무도 방자하고 오연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왔느냐?》

무쯔는 당장 잡아먹을듯이 딸을 노려보며 물었다.

《어떻게 오다니요, 아버지를 만나러 왔지요.》

아버지의 성난 가시눈길을 태연히 마주 쏘아보며 이렇게 종알거린 찌요는 권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안락의자에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우로 치째질사 한 눈초리, 반들거리는 이마, 꼭 다물린 작은 입, 얼굴생김새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의 차림새가 더욱 희한했다. 아직 모든 일본녀인들이 구식옷차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찌요는 파마머리에 빨간 비로도원피스를 입고 발에는 굽높은 흰 구두를 신고있었다.

딸의 차림새를 찌프린 눈길로 쏘아보던 무쯔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난 바쁘다.》

《난 한가해요.》

찌요는 한다리를 간들거리며 비양기어린 소리로 대꾸했다.

무쯔는 오까모도에게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눈짓했다. 서기와 함께 오까모도가 응접실로 나가자 찌요가 또 조소어린 어조로 물었다.

《저 사람이 오까모도 류노스께지요?》

《그렇다.》 이렇게 대척한 무쯔는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어서 말하고 빨리 가거라.》

그러자 찌요는 야멸차게 말했다.

《아버지와 한가지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래요.》

《계약?!…》 무쯔는 열이 올라 꽥 소리쳤다.

《제 아비와 계약을 맺는 딸년도 있느냐?》

《어찌겠어요. 아버지가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그런 방법을 쓸수밖에…》

《그래, 네 요구란 뭐냐?》

무쯔는 좀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류학 보내달라는거지요 뭐.》

《안돼! 조선엔 안 가겠다면서 류학을 보내달라, 흥.》

무쯔는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그러자 찌요도 새파래진 낯색으로 쏘아붙였다.

《좋아요, 그럼 난 아버지의 뒤생활을 세상에 공포하겠어요.》

《뭐, 내 뒤생활?!…》

《그래요, 방금 나간 오까모도의 처 야에와 아버지의 관계를 말이예요. 그리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제 딸까지 첩자로 조선에 보내려 한다는것도…》

《엉?!》

무쯔의 우묵한 눈확속의 눈이 커다래졌다. 녀식도 자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도 얄밉고 고약한 딸년이 또 어데 있겠는가.

찌요는 해물거리는듯 한 눈길로 무쯔를 바라보며 입을 계속 나불거렸다.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 아버지의 처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외무대신은 고사하고 얼굴도 쳐들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계약을 체결하자는거예요. 나를 류학보내는 조건으로 이 사실을 일체 비밀에 붙이자는것을 말이예요.》

딸에 대한 격분과 분노로 무쯔의 창백한 낯빛이 열병환자처럼 벌

겋게 달아오르고 우묵한 눈확속의 눈이 증오로 번뜩였다.

하지만 로회한 정치가인 무쯔는 인내성이 있었으며 또 자기의 감정을 숨길줄도 알았다.

잠시후 《후—》하고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내쉰 무쯔는 딸쪽에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엔 자애롭고 온화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정이 어려있었다.

《그래, 류학을 보내주마.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니 계약이 성립된셈이군요.》

《그렇다고 하자.》

《하지만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리면 계약이 파기된다는걸 잊지 마세요.》

《며칠후에 오까모도군이 상해로 가는데 그때 너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

《고마와요.》

딸이 떠나간 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무쯔는 초인종을 울렸다.

서기에게 오까모도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무쯔는 그가 방에 들어서자 자기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분부했다.

《오까모도군, 자네한테 한가지 개인적부탁을 하려네.》

《말씀하십시오.》

표정이 착잡한 무쯔를 바라보며 오까모도도 자못 긴장된 어조로 말했다.

《김옥균의 일로 상해로 갈 때 우리 딸년을 데려다주게. 흥, 류학을 가겠다누만.》

《알겠습니다.》

오까모도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상해로 가던 길에 그년을 처리하게.》

《예? 처리… 하다니요?!…》

오까모도는 무쯔의 말뜻이 리해되지 않아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자 무쯔는 오까모도의 앞에 떡 마주서더니 사납게 소리쳤다.

《처리란 말도 모르는가? 김옥균이처럼 처리하란 말이야!》

《예?!…》

오까모도는 무쯔의 의외의 말에 더욱 놀랐다. 자기 친딸을 죽이다

니?!…

《내 말뜻을 아직 모르겠는가!》

《아, 알겠습니다.》

오까모도의 대답소리는 여전히 어정쩡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라이 집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골육상쟁이라는데 대해서만은 명백히 깨닫고있었다.

6

김옥균의 일행이 탄 렬차는 드디여 오사까역에 도착하였다. 일행이라야 일본청년 와다 그리고 청국공사관에서 통역 겸 안내인으로 소개해준 오보인, 이렇게 세사람이였다.

역홈을 빠져나온 김옥균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쯤 가로등밑에 밤색코트에 중절모자를 쓰고 서있는 도야마를 발견한 옥균은 기쁨에 겨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던 그의 걸음이 문득 멈추어졌다. 도야마가 리일식이며 홍종우들과 부절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던것이다. 홍종우가 자객이란것을 도야마가 모른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것에 주저할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간 김옥균은 도야마와 반갑게 인사했다.

《도야마상, 약속대로 역으로 나와주어 감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런데 리일식과 홍종우는 거북스러운 기색으로 뒤전으로 물러서고 도야마도 여느때 달리 심드렁한 표정이였다.

《한데 나는 약속을 지킬수 없어 안됐구만.》

도야마의 말뜻이 얼른 리해되지 않아 옥균은 좀 얼떨떨한 어조로 되물었다.

《약속을 지킬수 없다는건?…》

《당신의 려비 말이요. 그걸 해결할수 없구만.》

그제야 도야마의 말뜻을 완전히 깨달은 김옥균은 아연하여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 뭐요?!》

《사정이 그렇게 되였소.》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그럼, 난 가봐야 하겠소.》

도야마는 아무런 인사표시도 없이 훌쩍 자리를 뜨고말았다.

김옥균은 앞이 아뜩하여 눈을 감아버렸다. 땅이 흔들리는것 같아 몸도 비틀거렸다. 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때 리일식이가 김옥균의 곁으로 접근해왔다. 그는 김옥균에게 왜 그러는가고 사뭇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의 말도 들리지 않는듯 김옥균은 대답을 못했다. 한참만에야 김옥균은 장탄식을 하였다.

《저런 왜놈들을 믿고, 저런 왜놈!… 아!…》

《김선생,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제야 리일식을 발견한듯 옥균은 가슴을 두드리며 하소연을 했다.

《여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소? 약속은 신의요, 도덕의 기초건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그럽니까?》

《려비를, 청국에 가는 려비를 여기 오사까에서 조달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언약하고는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더냐 하는 판이니 난 어쩌면 좋단 말이요. 오도가도 못하게 됐으니 말이요.》

《듣고보니 딱하게 됐군요.》

리일식은 자못 동정을 표시하며 혀까지 찼다.

그러는 리일식을 바라보던 김옥균의 머리속에는 문득 그가 상해쪽으로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참, 당신도 약종상을 한다 했지요?》

《예, 한데 려비는 얼마쯤이나?》

《4 000엔, 4 000엔이면 되겠소. 당신 좀 마련해줄수 없겠소? 내 어떻게 해서든 리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소.》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옥균은 리일식을 붙잡고 늘어졌다.

《4 000이나 가지고 무얼 하겠습니까? 적어도 1만엔정도는 있어야지.》

리일식이 아량있게 너그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더욱 좋지요.》

홍종우에게 의논조로 수군거리던 리일식이가 김옥균에게 다시 고

개를 돌렸다.

《내가 상해에 있는 은행에 영업자금을 좀 예금해둔것이 있는데 그 돈이라도 빌려드릴가요?》

《좀 도와주시오.》

《한데 은행구좌가 내 명의로 되여있지 않아 돈을 찾으려면 수속이 여간 까다롭지 않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가요?》

리일식이가 다시 홍종우에게 가서 몇마디 의논하더니 김옥균에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홍종우군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상해 북동문밖 함채가에 있는 천풍보호를 통하여 돈을 찾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절처봉생 아, 죽을수에 들면 살 수가 난다더니, 허허…》

이제야 시름이 풀린듯 김옥균은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와다와 오보인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무쯔의 사무탁우에 놓인 전화기에서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신경을 자극하는 그 소리에 무쯔는 눈살을 찌프렸다. 서기가 종소리가 작게 울리도록 고쳐놓으면 며칠 안 가서 다시 본래대로 소리가 커지군 하였다. 아예 다른 전화기로 바꾸어치워야지 하고 무쯔가 생각하고 있는데 서기가 방문을 열고 경보국장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나 무쯔요.》

정객들이 전화할 때 흔히 그러듯이 무게있고 느릿느릿한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외무대신각하. 경보국장이 말씀드립니다.》

《말하시오.》

무쯔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척했다.

그러자 경보국장은 큰일이나 난듯이 덤벼치며 말했다.

《오사까부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망명객 김옥균이가 이와다 산뻬이로 변성명하고 청국으로 도항할 의도로 오늘 고베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체포하랍니까?》

그제야 긴장해진 무쯔는 송화구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웨쳤다.

《김옥균이가 청국으로 가는것은 정책상 매우 적당한 조치이니 이를 방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오. 알았는가!》

《하!》

송수화기에서 울리는 경보국장의 긴장하고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니 빳빳하게 차렷자세를 취하고 서있는 그의 거동이 보이는듯싶었다.

통화를 끝낸지 몇분 안되여 또다시 전화기가 몸서리를 쳤다.

(젠장, 이거야!…)

무쯔는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벗겨들었다.

송수화기에서 호들갑스런 계집의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무쯔외무대신각하!》

(가만, 이건 누구야? 야엔가? 그의 목소리같진 않은데…)

무쯔가 대척을 안하자 상대편에서 또 말을 뗐다.

《아버지, 내 목소리를 벌써 잊었어요? 나 찌요예요.》

(덜된 년!)

속으로 이렇게 욕하면서도 무쯔는 회심의 미소를 띠우고 부드럽고도 자애에 넘치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오, 너냐? 지금 어데서 전화를 거느냐?》

《고베예요. 1시간후에 배가 떠나요. 그래 작별인사를 하려고 전화해요.》

《상해로 가느냐?》

《아니예요, 윈으로 가요.》

《오, 음악의 도시, 세계음악의 거장 모짜르트도 거기서 활동했다지.》

《아버지도 음악에 조예가 깊네요.》

《유명한 음악가가 될 찌요의 아버지가 아니냐? 허허… 아무튼 공부 잘하고 오너라. 기다리겠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몸조심해요, 굳빠이.》

팔짱을 끼고 등글회전의자에 앉은 무쯔는 아래입술을 쑥 내밀었다.

잠시후 무쯔 무네미쯔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서기에게 지시를 주었다.

《이제 곧 조선공사와 청국공사에게 19일에 일본을 떠난 김옥균이가

21일 오후에 상해에 도착한다는것을 련락하여 그들이 주재국인 조선정부와 청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게.》

서기가 나가자 무쯔는 집무탁우의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내무대신방에 대라.… 내무대신각하십니까? 제 무쯔입니다. 김옥균이가 드디여 일본을 떠났습니다.》

송수화기에서는 이노우에의 능갈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상해에서 쉑스피어의 비극이 막을 올리겠구만. 이게 바로 정치가 아니겠소. 이런 정치의 련속으로 력사가 창출되는게지, 흐흐.》

무쯔는 이노우에가 습관적으로 볼우의 칼자리를 쓰다듬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일청전쟁을 앞두고 김옥균이를 적절하게 써먹는것 같소.》

7

고베항에서 려객선 《사이꾜오마루》를 탄 김옥균일행은 드디여 상해로 가는 배길에 올랐다. 그들 일행은 홍종우까지 합하여 이제는 4명이였다.

밤의 어둠속을 달리는 《사이꾜오마루》선실의 불빛들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물우에 비쳤다.

운명의 배길을 가는 김옥균…

이때 운명의 배길을 가는 또 한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일본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의 첩의 딸 찌요였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에는 별빛 한점 없고 배전에서는 무시무시한 검은 파도만이 출렁거렸다.

긴 복도를 걸어 찌요의 방앞에 이른 오까모도 류노스께는 주위를 살펴본 후 손기척소리를 냈다.

《누구세요?》

찌요의 목소리가 선실에서 울렸다.

《나다.》

《오까모도아저씨예요?》

《우리 갑판에 나가 바다바람을 쏘이지 않겠니?》

《춥지 않을가요?》

《외국류학을 간다는 처녀가 그쯤한 바람을 두려워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니?》

《좋아요, 옷을 입고 곧 나가겠어요.》

얼마뒤 검은 외투에 흰 목도리를 두른 찌요가 얼굴에 활짝 웃음을 피우고 호실에서 뛰여나왔다. 찌요는 나오는 참으로 오까모도의 팔에 매달렸다. 진한 향수냄새와 분내가 풍기였다.

《누가 보면 우리를 련인인가 하지 않을가요?》

《나야 네 아버지벌인데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예요.》

이러며 찌요는 참말 련인들처럼 오까모도의 팔을 꼭 끼였다.

이 순간 오까모도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뜨끔해지면서 량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천진한 처녀를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가 죽여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명령이니 어쩔수 없지 않는가. 더우기 아버지의 부탁이니 별도리가 없었다.

갑판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세찬 바다바람에 옷자락이 벗겨질듯이 펄럭거렸다.

《아! 시원해요. 찬바다바람을 맞으니 피가 더 끓는것 같아요.》

희열에 넘쳐 소리친 찌요는 배전으로 다가가 밑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무섭군요.》

《무섭긴…》

이러며 오까모도는 찌요의 곁으로 스적스적 다가갔다.

그가 찌요의 곁에 이르자 처녀는 좀 주밋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오까모도아저씨, 제 부탁 하나 하려는데 들어줄래요?》

《무슨 부탁?》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편지를 하나 드릴테니 그것을 가지고계시다가 제 일신상에 무슨 불행이 생긴 다음에 뜯어보세요. 그전에는 절대로 개봉하지 않겠다는걸 흔히 말하는 일본남아로서 저와 약속하세요. 아니, 맹세하세요.》

오까모도는 처녀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꾸했다.

《그렇게 하지.》

찌요는 외투주머니에서 편지봉투 같은것을 하나 꺼내더니 오까모도에게 주었다.

오까모도는 약속을 지킨다는 표시로 그것을 받아 코트의 속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고마와요.》

찌요는 해죽이 웃었다. 오까모도는 어둠속이여서 그것을 보았다기보다 느꼈을뿐이였다.

《찌요, 날 원망하지 말아라.》

《예?! 무슨?…》

찌요는 의혹에 차서 중얼거렸다.

오까모도는 별안간 처녀를 번쩍 안아올렸다. 찌요는 오까모도가 자기를 애무하느라 그러는줄 알고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찌요, 목이 아프구나.》

《그래요?》

처녀가 자기 목에서 팔을 푸는 순간 오까모도는 그를 배전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찌요의 기급한 비명소리를 세찬 파도소리가 삼켜버리고말았다.

찌요의 선실로 되돌아온 오까모도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처녀의 사품들을 그의 트렁크에 전부 담아가지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복도의 선창을 연 오까모도는 찌요의 트렁크마저 바다속에 던져버리고말았다. 이제는 처녀의 종적에 대해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천천히 자기 호실로 돌아왔다.

또 한가지 일을 해제꼈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내쉰 그는 코트를 벗어 옷걸개에 걸었다. 그 순간 코트의 속주머니에서 한쪽귀를 삐죽이 내민 편지봉투가 그의 눈을 찔렀다. 찌요가 준 편지였다.

자기 일신상에 무슨 불행이 생긴 경우에만 뜯어보라고 했었지, 이제는 찌요가 이 세상에 없으니 개봉해도 약속을 지키는셈으로 되겠군. 오까모도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편지봉투를 아무렇게나 찢고 속지를 꺼내였다. 작고 단정하게 쓴 처녀의 글씨였다. 한자를 섞어가며 가다까나 (일본자모) 로 쓴 글씨만 보아도 찌요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것이 대뜸 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문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천

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오까모도 류노스께선생께

오까모도선생, 선생이 이 글월을 보시고 저를 방자스러운 년이라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까닭모를 불안속에 모대기고있는 저로서는 제 심정을 토로하는것으로밖에 마음을 달랠 방도가 없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오까모도선생, 저는 저의 아버지 무쯔외무대신의 급작스러운 호의에 의혹과 불안, 지어 공포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결코 이런 호의를 베풀 자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선가 보니 권력이나 금전, 혹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데 저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는것은 오직 권력과 쾌락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녀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불행에 빠뜨렸는지 선생은 아마 다는 모르실겁니다. 그가 부심하는것은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의 그늘밑에서 더 많은 녀인들을 희롱할것인가 하는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쯔는 애국심이 높고 자기 직무에 성실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갖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권력의 노예이며 쾌락의 도구일뿐입니다.

한가지 비밀을 말씀드릴테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오까모도선생을 조선에 보내놓고는 뒤에서 선생의 안해 야에와 치정놀이를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고 성실한 인간이라면 어찌 제국을 위해 타국에서 고심분투하는 자기 부하의 안해와 그따위 너절한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

여기까지 읽은 오까모도는 저도 모르게 벌떡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아귀에서 편지장이 휴지처럼 구겨졌다.

이번에 집에 갔을 때 이전과 달라진듯 한 야에의 태도를 보고 느낀 의혹이 바로 이것이였구나.

무쯔, 더러운 자식! 주제에 외무대신이라고… 야에, 이 쌍년! 네년도 어디 두고보자. 그는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문득 무엇이 타는듯 한 냄새를 느낀 오까모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언제 떨어졌는지 발밑에 떨어진 담배불이 주단을 태우고있었다. 그는 구두발로 주단에 붙는 불을 비벼 꺼버렸다. 불이 꺼진지 오랬으

나 그는 그냥 그것을 구두발로 짓뭉개고있었다. 무쯔와 야에에 대한 복수심이 그렇게 표현되였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얼마간 진정된 그는 다시 침대에 걸터앉아 편지장을 집어들었다.

《제가 이런 추문까지 로출시킨다고 선생은 저를 야비한 년이라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의 안해 야에도 곧 버림을 받게 되겠기에 미리 알려드리는겁니다. 무쯔는 자기가 데리고 놀던 녀자들을 마치 발씻은 물을 버리듯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쥐버리는 인간입니다. 발 씻을 물은 언제 어디서나 구할수 있고 그것은 새 물일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권력뿐입니다. 그 권력을 위해 그는 지금 조선이나 청국을 침략하려고 〈분투〉하고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저의 아버지 무쯔에 의해 이제 조선사람들이나 청국사람들이 겪을 불행과 고통을 생각하면 저도 제국국민의 한사람이긴 해도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세상에 딸이 제 아버지에 대해 이런 고소장을 쓰는 일이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처녀인 저로서 저의 부친의 비행에 대해 더는 보고있을수만 없어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 제 일신상에도 무슨 불행이 닥칠듯 한 예감이 들기에 이런 글월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튼 제 심정을 다 쏟아놓으니 가슴이 좀 후련해집니다.

오까모도선생, 용서하십시오.

그럼 이만 총총히… 찌요 드림.》

그런데 찌요라는 이름앞에 지워버린 글자가 있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쯔라는 성이였다. 아버지를 얼마나 증오했으면 그 아버지의 성까지 지워버렸겠는가.

오까모도는 편지장을 손에 든채 한동안 멍청히 앉아있었다. 자기가 섬기는 무쯔에 대한 생각, 자기가 사랑하는 야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없이 꽃나이에 죽은 찌요에 대한 생각, 그를 죽인 살인자인 자신에 대한 생각… 무어가 무언지 모르게 그저 머리속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했다. 그는 트렁크속에서 독한 위스키병을 꺼내들고 병채로 꿀꺽꿀꺽 마시였다. 그리고는 그대로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이튿날 아침 깨여나니 침대밑에 구겨진 종이장과 봉투가 있었다. 그것이 찌요의 편지라는데 생각이 미친 그는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

려고 선창을 열었다. 찬바다바람이 확 쓸어들어왔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편지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느낌이 가슴을 쳤다. 선창을 다시 닫은 오까모도는 구겨진 편지장을 책상우에 놓고 손다림질로 반듯하게 펴놓았다.

려객선의 침대에 누운 홍종우가 슬며시 고개를 돌려 건너편 침대에 누운 김옥균이를 살피였다. 어느 기회에 암살을 감행할것인가, 정작 좋은 기회가 차례지고보니 은근히 가슴이 더 떨리였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 립신양명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는 야심의 목소리만은 가슴속에서 계속 울리고있었다.

자기를 살피는듯 한 예감을 느낀 김옥균이가 고개를 돌리자 홍종우가 황급히 머리를 돌리는것이였다. 김옥균은 온밤 잠들지 못하고 홍종우를 경계하였다.

이튿날 아침 옥균은 와다와 함께 갑판으로 나갔다. 바다의 날씨는 음산하였다. 그는 와다에게 자기들과 동행하는 홍종우가 자객이니 잠시도 그에게서 경계의 눈길을 떼지 말라고 당부했다.

드디여 동양최대의 항구도시 상해의 전경이 바다 저끝에 나타났다. 거의 모든 승객들이 갑판에 떨쳐나와 점점 가까와지는 상해의 전경을 관망하였다.

상해를 바라보는 김옥균의 가슴도 희망으로 부풀어올랐다.

상해시내에 들어선 옥균의 일행은 두대의 마차를 타고 려관으로 가고있었다. 앞마차에는 김옥균과 오보인이 탔고 뒤마차에는 와다와 홍종우가 타고있었다.

오보인이 저쯤 앞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거리가 미국조계인 철마로인데 저기 보이는 〈동화양행〉이 일본인 요시지마가 경영하는 려관입니다.》

《일본인려관이라구요?》

옥균은 상해에 와서까지 일본인려관에 든다는것이 어쩐지 께름하고 불쾌하게 생각되였다.

《려관비가 눅은데다 괜찮은 곳이기에…》

오보인이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김옥균은 호방한 웃음으로 오보인의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풀어

주었다.

《우리야 손님이니 주인인 오서기가 이끄는대로 해야지요, 허허.》

《동화양행》 앞에서 마차가 멎어서자 현관에서 달려나온 사환군이 깍듯이 인사한 후 김옥균의 트렁크를 들었다.

려관의 대기실의자에 앉아있는 김옥균에게 오보인이 다가와 2층의 1호, 2호, 3호 세 방을 예약했는데 방배치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김옥균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1호실에는 자기가 들고 2호실에는 오보인선생이 들고 3호실에는 홍종우와 와다가 들도록 하자고 대답했다.

김옥균의 1호실에 들어온 와다가 가방과 트렁크를 옷장안에 넣었다. 옥균은 만또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홍종우와 헤여질 때까지 그를 단단히 감시해야 한다고 와다에게 다시금 강조했다.

이튿날 아침 식당에 나타난 홍종우는 어제까지 입고있던 양복대신 화려한 조선비단저고리를 입고있었다. 그것은 품이 좁은 양복보다 후렁후렁한 조선저고리에 권총을 휴대하기가 편리했기때문이였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홍종우와 마주앉은 김옥균은 신문을 보고있었다. 이때 은근히 주위를 살피던 홍종우가 손을 품속으로 가져갔다.

《여보, 홍군.》

갑자기 김옥균이 찾는 소리에 홍종우가 흠칠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긴 왜 놀라시오.》

《예, 아닙니다.》

홍종우의 대답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오전중으로 천풍보호에 가서 돈을 찾도록 하시오.》

《예, 그리하리다.》

홍종우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린 김옥균은 오보인에게 식사한 후 청국다부산자나 한벌 사다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자기 호실로 돌아온 김옥균은 침대에 누워 《자치통감》을 읽고있었다. 와다가 옥균의 구두를 닦고있었다.

이때 문을 열고 홍종우가 방에 들어섰다.

김옥균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벌써 갔다왔소?》

《천풍보호의 주인이 외출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갔다와야지요.》

《그리하시오.》

이렇게 대답한 김옥균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자치통감》을 읽었다.

그런데 홍종우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공연히 서성거렸다.

홍종우의 손이 또다시 품속으로 가고있었다.

이때 또다시 김옥균이 몸을 일으키며 와다를 부르는 바람에 홍종우는 손을 얼른 움츠렸다.

《와다, 아래층에 얼른 내려갔다오너라.》

닦던 구두를 놓고 와다가 몸을 일으켰다.

《려관주인에게 사람을 보내여 〈사이꼬마루〉 선장을 불러오도록 해라. 오후에 우리 함께 마차를 타고 상해거리구경을 나가자, 좋지?》

《아, 좋아요!》 하고 소리친 와다는 기쁨에 겨워 방에서 뛰여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홍종우는 품속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엉?!》

자기를 향한 총구를 본 김옥균은 놀라 대뜸 굳어졌다.

《땅!》

되알진 총성이 울렸다.

옥균은 총알을 맞고도 침대에서 뛰쳐일어나 복도로 달려나갔다.

홍종우는 그를 따라나가며 그의 등뒤에 대고 연방 발사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김옥균의 표정은 증오로 굳어졌다. 드디여 그는 복도바닥에 피를 흘리며 픽 쓰러지고말았다.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총소리를 듣고 되돌아올라온 와다는 쓰러진 김옥균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울부짖었다.

《오또상 (아버지) ! 오또상 (아버지) !》

이렇게 나라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위해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풍운아 김옥균은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민비가 건청궁의 향원못가를 거닐고있었다. 아직 대기는 쌀쌀했으나 어디나 봄의 기운이 완연했다.

묵은 풀사이로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나무가지들에도 가시같

은 파아란 새움이 뾰족뾰족 싹트고있었다.

문득 봄은 처녀와 같이 따뜻한 계절이고 여름은 어머니와 같이 후더운 계절 그리고 가을은 과부와 같이 쓸쓸한 계절이며 겨울은 계모와 같은 쌀쌀한 계절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지겨운 겨울이 물러가고 약동하는 새봄이 왔건만 어쩐지 민비는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았다. 그는 방금전에 외아문으로부터 김옥균이가 상해에서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사변이 발생한 직후 상해주재 일본총령사는 본국 외무성에 보고함과 함께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 통보하였으며 일본외무성은 곧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 지시하여 조선정부와 원세개에게 련락을 취하도록 하였다는것이였다.

10년간이나 절치부심하던 《역적》이 죽었다면 참말 십년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없어진것만치나 시원해야겠는데 민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동안이나 자기가 어쩌지 못한 일을 일본과 청국이 개입해서야 끝장을 볼수 있었다는 사실이 민비의 자존심을 심히 건드렸던것이다.

어디 이번뿐인가. 청국이나 일본의 개입이 없으면 무엇 하나 제 손으로 할수 없는것이 지금 민비자신의 처지였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였다. 민비는 자기의 이런 생각, 이런 심리가 큰 나라들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기의 정략과 모순된다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기에 더욱 괴롭고 의기가 저상되기만 하였다.

이때 온 낯에 희색이 가득한 민영준이가 관복자락을 걷어쥐고 풀밭을 꿰질러 뛰여오고있었다. 민비앞까지 반달음쳐온 그는 선절을 하고나서 급히 입을 열었다.

《중전마마, 〈대역부도죄인〉 옥균이를 죽였습니다.》

민비는 영준이를 쌀쌀한 눈길로 쏘아보며 뇌까렸다.

《네가 죽였느냐?》

《예?!…》

민영준은 희소식을 듣고도 도리여 낯색이 표표해진 민비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등신들이냐!》

그제야 민비가 이 소식을 이미 알고있다는것을 깨달은 민영준은 게면쩍은 표정으로 잠시 덤덤히 서있었다.

《옳소옵니다, 일본과 대국 (청국) 이 아니면 상기도 옥균이는 활개치며 다니고있을것이옵니다.》

이렇게 여쭌 민영준은 느릿느릿 발길을 옮기는 민비의 뒤를 따랐다. 잠시후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옥균이를 없애도록 해준 일본정부에 무슨 감사를 표시해야겠는데…》

《그래야 되겠지.》 심드렁하게 말한 민비는 잠간 생각에 잠기더니 또 말을 뗐다. 《일본의 호의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과 함께 이번 사변은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모든 장애를 일시에 제거한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김옥균의 시체와 자객 홍종우는 청국군함 〈위원〉 호에 실려 인천항으로 오고있다 하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면 기선 〈한양〉 호에 실어 서울 양화진으로 이송함이 어떠하올지?》

《그리하려무나.》

민비의 말에 힘을 얻은 민영준이가 또 입을 열었다.

《〈대역부도죄인〉 옥균이는 부관참시 (시체에 다시 참형을 가하여 머리, 팔다리를 토막내는 가혹한 형벌.) 에 처하고 홍종우는 어찌하올지?》

민비는 김옥균의 부관참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객 홍종우에 대해서만 지시했다.

《대감벼슬이야 주어야지.》

《하오나 홍종우는 본시 출신이 미천하여…》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예, 그리하겠소이다.》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두운 밤, 서울 양화진에서는 김옥균의 시체에 가혹한 참형이 가해졌다. 그는 두번 죽는셈이였다.

력사적사실은 우리 나라가 낳은 진보적정치가이며 애국자인 김옥균이 일본침략자들을 비롯한 내외반동들에 의해 살해되였다는것을 여지없이 폭로하고있다.

그러나 김옥균이 피살된 후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으니 놈들은 오까모도 류노스께로 하여금 김옥균의 시체를 인계받도록 했으며 《김옥균우인회》를 조직하느니, 추도회를 하느니, 비석을 세우느니 하며 력사앞에 저지른 자기들의 죄과를 은폐시키려고 하였고 청일전쟁을 앞두고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과 청국에 대한 전쟁열을 부채질하는데 리용하였다.

김옥균의 개화사상은 그후 갑오농민전쟁과 갑오부르죠아개혁, 자유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제 8 장

전 주 입 성

1

련무당에서 왜놈들과 격술시합이 있은 이후 병무는 아정의 집에서 눈치료를 계속하고있었다. 그는 홍역관과 더우기 아정의 정성으로 이제 얼마후에는 붕대를 풀게 되였다. 그사이 병무와 아정의 사이는 성춘향과 리몽룡사이만큼이나 가까와졌다고 해야 할것이다.

서로 마주앉은 두 청춘남녀의 얼굴에 어린 행복에 겨운 미소는 줄곧 사라지지 않았다.

아정은 그사이 눈을 보지 못하는 병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데 버릇된 아정은 자기가 리화학당에서 배운 영어를 눈치료를 받느라 무료하게 달포를 보내는 병무에게 배워주려고 작정했다. 그가 이런 의향을 말해주자 병무는 대뜸 도리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영어를 배우면 세계를 아는것과 같아요. 영어는 영국뿐만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하고있거던요.》

《그렇기때문에 싫다는거요.》

《예?!》

《미국놈들이라면 치가 떨리오.》

의아해하는 아정이에게 병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원래 외독자가 아니요. 나에겐 병옥이란 누이동생이 있었소.》

처음 듣는 소리여서 아정이도 어지간히 놀랐다.

《그래요?》 아정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요.》

《그럼?》

《잃었소.》

《잃다니? 아이가 무슨 물건짝이라고 잃는단 말이예요.》

굳어진듯 까딱 움직이지 않던 병무는 이윽고 수심과 격분에 찬 억양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병옥은 후어머니 공씨가 병무의 아버지 엄형국에게 시집와서 낳은 아이였다. 그 애는 걸음마를 뗄 때부터 《아빠》, 《아빠》 (오빠란 소리를 그렇게 불렀다.) 하면서 병무를 따랐는데 그 해죽거리는것이 너무 귀여워 그 애를 한나절만 보지 못해도 입맛이 다 없어지군 했다.

그 애가 6살났을적이였다. 그때 병무는 산속의 계원사에서 본격적인 무술훈련을 할 때라 집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어린 병옥이가 오빠에게 먹을거랑 빨래한 옷가지랑 가져다주군 하였다. 병무는 밤이며 머루, 다래와 같은 산열매를 한짐씩 골박아 지워보내주거나 다람쥐나 솔부엉이를 조롱속에 넣어보내주군 하였다. 그리고 어린것이 밤길을 걷게 될가봐 산속에서, 오빠곁에서 더 놀겠다고 떼를 쓰는것을 억지로 산아래 큰길까지 데려다주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 하루 사색이 된 어머니 공씨가 그를 찾아오더니 간밤에 병옥이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것이였다. 병무는 그길로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찾아 온 서울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외다리뱅이인 아버지까지 쌍지팽이를 짚고나섰다. 하지만 서울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처럼 6살짜리 조그만 계집애를 드넓은 한양천지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

말끝에 병무는 불같은 한숨을 내쉬였다.

아정이는 남의 일 같지 않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병무의 말에 귀를 강구었다.

《그래, 끝내 못 찾았나요?》

호기심도 없지 않은 기우에 잠겨 아정이가 다그쳐물었다. 그는 마치 진담기담이라도 듣는듯싶었다.

《성미두, 콩밭에 서슬치겠소. 이제 다 말하지 않으리.》

이렇게 말하고나서도 또 한참 묵묵부답으로 있던 병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어느날 점심요기를 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장에 들려 송편 몇개씩 사먹는데 그들의 사정을 전해들은 송편장사군아바이가 하는 말이 요

즘 서울에서 어린애들이 잃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게 아무래도 양놈들이 하는짓같으니 양놈들이 많이 사는 정동에 가보라는것이였다. 그들은 그길로 정동으로 달려갔다. 마침 정동의 초입에서 싸리광주리에 양딸기를 한가득 담고 앉아 팔고있는 안로인을 만나 어린 처녀애를 보지 못했는가고 물어보았다, 물론 가둑나무잎에 싸주는 딸기도 얼마큼 사면서. 그랬더니 그 안로인이 며칠전에 한 양인이 조선계집애를 데리고 가는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생김새며 입은 옷가지며 말하는것이 신통히도 병옥이가 틀림없었다. 그들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그 양놈이 어떤 놈인가고 물었다. 했더니 그 안로인은 자기가 대주었다는 말을 절대 루설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나서 그 양놈은 미국놈인데 조선에서 10년나마 살아 조선말을 아주 잘한다는거며 직책은 미국공사관 1등서기관에 선교사이기도 하며 제중원병원의 의사노릇도 하는데 중전마마의 전속의사로서 신임이 두터워 궁성에도 마음대로 드나든다는것이였다.

때마침 조금후에 회색여름양복을 쭉 뽑아입고 나비넥타이에 검은 중절모를 쓰고 흑단목개화장을 든 키가 큰 양놈이 저쯤 앞을 지나가는데 딸기장사군 안로인이 저놈이 바로 미국놈 알렌이라고 수군거리는것이였다. 그들은 알렌한테로 뛰여가 우선 꾸벅 절을 하였다.

알렌은 그들의 인사에 점잖게 중절모를 들었다놓고나서 물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6살난 계집아이를 잃었기에…》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알렌선생이 며칠전에 우리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 하기에…》

《누가 그런 생소리,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알렌이란 미국놈은 참말 조선말을 잘하였다. 알렌은 다시 중절모를 들었다놓고나서 말했다.

《나는 시간이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찰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가 흑단목개화장을 내짚으며 걸음을 옮기려 하자 언제 모여들었는지 수십명의 조선사람들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들속에서 미국놈들을 절규하고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 수백명이나 되였다. 조선사람들의 포위속에 든 알렌은 겁

에 질려 쩔쩔매면서도 고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서울에 현대적인 병원을 세워 여러분의 병을 보아주는 의사입니다.》

그러자 한 녀인이 알렌의 앞으로 썩 나서며 되게 꾸짖었다.

《이 오랑캐놈아! 네가 뭐 의사야?!》

이렇게 소리친 녀인은 대중을 향해 영탄의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놈은 감기에 걸린 우리 아이를 전염병이라고 제중원에 입원시켜놓고는 며칠후에 죽었다고 하면서 시체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놈이 우리 아이를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렌놈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졌다.

《저런 양코배기는 죽여야 해!》

《미국놈들을 다 내쫓자.》

《〈척양척왜〉의 구호대로 왜놈과 양놈들은 우리의 원쑤니 끝까지 싸워 물리치자.》

군중들의 함성이 높아지는 속에 병무가 좀전에 만났던 딸기장사군로친이 사람들을 헤가르고 앞으로 나섰다.

《나는 여기서 매일 딸기를 팔기때문에 양놈들의 일거일동을 잘 알고있쉐다. 이 알렌이란 미국놈이 며칠전에는 이 아주머니의 딸 (그는 병무의 후어머니 공씨를 가리켰다.) 을 홀려서 데리고 가는것을 나는 보았쉐다. 그런데 그 애가 잃어졌다고 이 아주머니와 오라비라는 젊은이가 며칠째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이 미국놈들이 조선아이들을 훔쳐다 무얼 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젊은이가 제꺽 큰소리로 대답했다.

《팔아먹지요. 우리 애들을 노예로, 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돈벌이를 하는 짐승같은 놈들입니다.》

어린애들을 잃은 부모들은 너무도 통분하여 엉엉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미국놈들을 질타하였다.

《이 오랑캐 미국놈들아, 우리 애를 내놓아라!》

《아이고 병옥아, 너는 지금 어디에 팔려가있느냐!》

격분한 군중들은 알렌놈에게 썩은 닭알이며 도랑창의 감탕이며 돌멩이며 손에 잡히는대로 던지였다.

오물을 뒤집어쓴 알렌놈의 꼬락서니는 당장에 꼴불견, 괴물이 되여버렸다. 하지만 이미 지은 죄가 막중한 알렌은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때 순검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강제로 운집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그통에 알렌은 가까스로 몸을 빼여 제 소굴로 도망쳤다.

그러나 미국놈들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였으며 더욱 커졌다.

이에 당황한 조선봉건정부의 외아문에서 미국공사 딘스모아에게 각서까지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정부의 통고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미국침략자들이 조선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행동을 계속 감행하자 인민들의 격분은 터지고야말았다. 1888년 5월부터 서울에서 폭동이 시작되였다. 궐기한 인민들은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정동을 포위하고 미국놈들의 활동을 봉쇄하였으며 미국공사관에 쳐들어갈 만단의 태세를 갖추면서 놈들의 앞잡이들을 처단하고 미국놈들을 단죄하였다.

당황망조한 미국침략자들은 인천에 정박해있던 군함 《에쎅스》호에서 해병대를 서울에 끌어들여 반미투쟁에 일떠선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6월 한달동안 계속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질겁한 놈들은 조선정부에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할것을 강요하여나섰다. 결국 인민들의 투쟁은 미국놈들과 결탁한 봉건통치배들의 탄압으로 진압되였다. …

《그래, 동생 병옥이는 끝내 찾지 못했나요?》

아정이가 격분과 안타까움이 엇섞인 표정과 어조로 따지고들자 병무는 울분에 찬 기색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알렌놈이 아직 서울에 있나요?》

《언젠가 보니 더 활개치며 다니더구만. 동학의 기치대로 〈척양척왜〉해야겠는데 난사는 난사요.》

병무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미국놈들한테서 병옥이를 꼭 찾아야 해요.》 의분에 넘쳐 이렇게 말한 아정은 병무의 손을 꼭 잡았다. 《병무씨, 병서에도 적을 이기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음흉하고 교활

한 미국놈들의 속내를 알자고 해도 그놈들의 말을 몰라서야 되겠나요.》

아정이의 곡진한 말에 병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배운걸 복습하자요.》

아정이 이렇게 말하자 병무는 엄살부리는 아이처럼 머리를 긁었다.

《또 땀깨나 흘리게 됐군.》

아정은 그러는 병무의 무릎을 툭 치며 사뭇 정숙하게 말했다.

《점잖게 처신해요. 등잔불은?》

《램프.》

병무도 서당훈장앞의 생도처럼 자세를 바로가졌다.

《문은?》

《도.》

《방은?》

《룸.》

《그럼 〈이것은 나의 방입니다.〉라고 말해봐요.》

그러자 병무는 또다시 장난기 심한 소년처럼 딴전을 부렸다.

《이것이 왜 내 방이요? 아정씨 방이지.》

《정숙하란데두.》

아정은 눈을 곱게 흘겼다.

《디스 이즈 마이 룸.》

《아주 잘해요, 발음도 좋고.》

아정의 칭찬을 들은 병무는 사랑의 충동으로 저도 모르게 아정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순간 아정이 역시 몸을 흠칫 떨더니 병무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살며시 뽑았다. 아미를 숙인 아정이도 숨결이 높았다.

이윽고 자신을 다잡은 아정이가 병무를 정찬 눈매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일렀다.

《병무씨,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리성을 되찾은 병무도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루종일 방안에 누워있으려니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겠소.》

《역경을 역리용할줄 알아야 해요. 참된 장수는 지인용을 겸비한 댔어요. 강한 힘에 깊은 지식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한 아정은 문득 벽시계를 쳐다보더니 놀라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이참, 이야기장단에 눈약시간을 잊을번 했네.》

이때 사랑방에서 초약을 써는 남편과 마주앉은 아정의 어머니 정씨가 은근스럽게 말했다.

《요즘 저 애들의 사이가 색다르지 않우?》

《색다르긴, 의당 그렇게 되는게지.》

《령감두 저 총각이 맘에 드우?》

《초불을 들고 다녀도 찾기 힘든 사위감이야.》

《나두 그렇쉐다.》

며칠후 붕대를 푼 병무는 아정이와 함께 거리를 거닐었다. 오래동안 눈을 보지 못하다가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니 천지개벽을 맞는것만 같았다.

《잘 보여요?》

곁에서 걷던 아정이가 병무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응, 세상에 새로 태여난것 같소.》

기쁨에 겨워 벙글거리는 병무를 바라보는 아정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였다.

둥그런 얼굴에 먹으로 찍어놓은듯 한 눈섭, 쌍까풀이 진한 영채로운 눈, 선이 뚜렷한 입이며 코며 참으로 사내싸게 생기면서도 잘난 모색이다.

아직까지 아정은 병무처럼 잘생긴 사내는 보지 못했다.

아정은 웃음을 띠운채 병무의 차림새도 은근히 살펴보았다. 로총각이여서 태머리를 뭉그려넣은 감투우에 전이 좁은 검은 갓을 쓰고 가슴에 청색실띠를 띤 소매좁은 도포를 입은 병무는 어느 세도재상집의 학식많은 점잖고 름름한 도련님모색 그대로였다. 그런데 용력은 또 어떤가. 근 10년나마 산속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예를 닦은 그는 갈범처럼 힘이 세고 사납고 날파람스러웠다. 그 뛰여난 무예는 조선은 물론 일본사무라이들도 당할자 없었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장수라고도 할수 있는 병무였지만 성미는 더없이 착하고 무던하였다.

(그런데도 어머닌 내가 사내복이 없을게라고 지청구를 하군 했지, 흥.)

아정은 저도 몰래 또 웃음발을 피웠다.

《뭘 자꾸 실없이 혼자 웃군 하오?》

저도 웃음을 띠우며 병무가 아정이를 굽어보았다.

《도련님.》

여전히 웃음을 가무리지 못한채 아정이가 병무를 마주보았다.

《대원위대감의 용단으로 쇄신을 단행하여 우산처럼 크고 넓던 갓테도 좁아지고 치마처럼 너풀거리던 도포소매자락도 좁아지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천이 절약되니 좋아 활동에 편리하니 좋아…》

그러자 병무가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아정씬 새것을 동경하는 아가씨인데 완명고루한 찰완고라고 말을 듣는 대원군을 존경하오?》

《크고 단 참외가 있나요. 그나마 대원위대감께서 단행하신 서원철폐며 호포법이며 여러 개혁들을 대원군반대파들이 다 뒤집어놓고 있으니 야단이예요.》

말끝에 아정은 한숨을 내쉬였다.

한동안 침묵속에 걸음을 옮기던 병무가 문득 입을 열었다.

《아정이, 우리 저 점포에 좀 들리기요.》

병무가 가까이에 있는 점포를 가리켰다.

《점포에?》

아정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동안 나한테 정성을 다한 아정씨에게 무슨 기념품이라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소?》

점방에 들어서는 그들을 보고 중로배 점방주인이 반색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아가씨들의 치장감도 있고 자, 여기 또 글공부하는 도련님들의 문방구도 있소이다.》

병무의 눈길은 저도 모르는 사이 매대에 진렬되여있는 가락지들을 훑고있었다. 정월대보름날 광대에게 옥가락지를 뽑아준 후 오늘까지 아정의 희고 갈죽한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없었다.

진렬대에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옥가락지, 비취가락지, 자나노가락지, 호박가락지, 밀화가락지, 자마노가락지 등 쌍으로 된 희귀한 가락지들이 많았고 여러가지 반지들도 많았다.

아정이가 병무를 은근살짝 훔쳐보았다. 돈이 적은 병무는 망설이

는 기색이였다.

아정의 눈에 매대에 놓인 값이 눅은 인형이 안겨왔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인형아기가 눈을 호동그랗게 뜨고 아정이를 쳐다보고있었다.

《병무씨, 나 저 인형.》

병무는 의아해하며 아정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 장난감?…》

점방주인이 얼른 인형을 집어 아정이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병무와 아정이를 야릇한 눈길로 갈마보았는데 그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여나왔다.

《미리미리 다 장만해두는게 좋지요.》

아정이가 아연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건 무슨 뜻으로?…》

점방주인이 곰살궂게 웃으며 말했다.

《옥동자가 태여나든 귀동녀가 태여나든 이런게 꼭 있어야 하거던요.》

《아이참.》

아정이가 얼굴을 붉혔다.

그러는 아정이를 보고 점방주인이 정색해서 말했다.

《다른 점방에서는 기모노 (일본녀인옷) 를 입은 왜놈들 인형을 팔지만 우리 점방에서는 조선의 아기들만 팝니다요. 뼈도 조선, 피도 조선. 이 뼈, 이 피는 살아도 죽어도 조선의것이 되여야 할 조선의 아기들을 위해서 말이외다.》

인형을 손에 든 아정은 점방주인에게 허리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점방을 나서자 병무가 아정이를 핀잔했다.

《무엇이 고맙다는거요, 애기를 낳으라는 소리가?》

《아이참, 병무씨두… 한갖 점방주인이지만 우리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요. 피도 조선, 뼈도 조선. 이 피, 이 뼈는 살아도 죽어도 조선의것이로다. 인형을 팔면서도…》

병무도 생각깊은 표정이였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 독립정신마저 희미해지는가보오.》

《그래요, 10년전 김옥균선생의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지 않았어도 나라형편이 이 지경으로 되진 않았을거예요.》

병무는 저으기 놀라 사위를 둘러보며 수군거렸다.

《아정씬 개화파를 지지하오?》

《그래요, 개화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듣자니까 전라도의 동학군들속에서 지금도 김옥균선생의 넋이 배회하고있다고 해요.》

병무는 념려스러운 눈길로 아정을 바라보며 나직한 소리로 추궁했다.

《김옥균이는 〈모반대역부도죄인〉으로 처형되였으니까 말 조심해.》

아정은 혼자소리로 한숨처럼 뇌였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곳 없고…》

병무가 말머리를 돌렸다.

《참, 그 태봉이란 광대가 전라도내기라고 했지?》

아정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는 기필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에 참가했을거예요. 그가 동학군에 참가했으면 볼만 할거예요.》

병무가 또 화제를 바꾸었다.

《아정이, 오늘은 보름날인데 남산기슭에서 달구경하지 않겠소?》

잠시 생각에 잠기던 아정은 이어 병무가 사준 인형아기를 품속에 꼭 껴안았다.

《좋아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속삭여보자요.》

소원… 아, 참말 아정이 자기에겐 얼마나 소원이 많은가, 사랑하는 병무씨와 한생을 행복하게 살고싶은 소원, 외국에 류학하여 마음껏 배우고싶은 소원, 하여 자기의 뼈,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조선에 깡그리 바치고싶은 소원…

하지만 아정은 여직껏 류학을 가고싶다는, 어쩌면 최도고아저씨의 도움으로 그것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병무에게 하지 않았다. 할수도 없었다. 아직은 꿈에 불과한 류학이란 소리를 서뿔리 꺼낼수도 없었고 또 설사 그것이 실현된다 해도 최소한 4~5년은 걸릴 그 긴 세월을 병무가 기다려줄지도 의문스러웠던 까닭이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해진 아정은 말없이 걸음만 옮겼다. 가리마를 반듯하게 타서 등뒤로 땋아드리운 칠칠한 까만 태머리, 연두색

삼회장저고리밑으로 몸을 휘감은 빨간 꼬리치마, 살짝살짝 옮기는 꽃수를 놓은 당혜, 아정의 희고 맑은 어여쁜 얼굴이며 우아한 차림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정이뿐아니라 그곁에서 걸음발을 같이하고있는 선비차림의 젊고 름름한 병무한테서도 행인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정말 부러운 천상배필이라고 여겼다.

2

태봉이가 애타게 찾는 그의 누이동생 태순이는 서울의 일본인려관 파성관에서 일하고있었다. 강주사네가 자기 집에 쌀을 사러 온 다까하시에게 팔아넘겼던것이다. 그래서 태순이는 파성관의 심부름군이 되였는데 새벽부터 물을 긷고 불을 때고 그릇을 가시는 고역은 강주사네 집에서보다 더 고달팠다. 게다가 때때로 왜놈들의 술심부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오늘도 약국상 다까하시, 머리를 붕대로 처맨 미야께의 술심부름을 들고있었다. 흰 바탕에 알락달락한 무늬가 새겨진 기모노를 입히고 얼굴을 화장까지 시킨 태순이는 마치도 일본의 동기 (어린 기생) 처럼 이쁘장했다. 방문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태순은 때때로 그들이 시키는 음식그릇이나 술병을 날라와야 하였다.

《그러니 전봉준의 부대에서 〈천우협도〉들이 전부 쫓겨났단 말인가?》

다까하시가 미야께에게 묻는 소리였다.

《그렇소, 겨우 계룡산속에 숨어있다가 여기로 왔소.》

미야께는 몸서리치듯 몸을 떨었다.

《그래 전봉준이한테 죽은 우리 사람들은 없소?》

다까하시가 근심스러운 호기심을 품고 물었다.

미야께는 머리부터 저었다.

《어, 없소.》 이렇게 대답한 미야께는 저도 이상한지 되물었다.

《왜 우리 〈천우협도〉들을 한사람도 죽이지 않고 내쫓기만 했을가

요?》

다까하시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였다. 전봉준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천우협》이 조선의 내란을 부채질하여 국제적분쟁, 즉 청군과 일본군을 조선에 개입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알았을것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인 《천우협도》들을 죽이면 이것을 구실로 일본이, 일본군이 동학군진압에 진출하리라는것을 전봉준이가 타산하지 못했겠는가. 조선에서 여러해 살면서 조선의 내정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있는 다까하시는 자신의 추측이 틀림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임오군란이며 갑신정변 등 조선의 사변들을 상기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슬기롭고 용감하며 지혜롭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정한론》자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조선을 그렇게 쉽게 정복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상기한 다까하시는 자기가 정계나 군부가 아닌 장사에 손을 뻗친것이 백천번 잘한 타산이였다고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비웃음이 어린 눈길로 미야께를 건너다보았다.

눈확이 어웅하게 꺼지고 입술이 허옇게 조갈이 난 그의 볼이며 턱에는 구레나룻이 거밋하게 덮여있었다.

《산속에서 여러날 굶었겠구만.》

동정인지, 조소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표정과 어조로 다까하시가 이렇게 물으니 미야께는 도리여 제편에서 성난 기색으로 대꾸했다.

《굶은게 대수요, 목숨이 붙어있는것만두 천만다행이지.》

다까하시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어려있었다.

《이제 오까모도가 오면 혼나게 됐군.》

미야께는 또다시 벌컥 성을 냈다.

《그게 어디 내 잘못이요?》

《하긴 나두 전봉준이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만만치가 않더군. 큰일을 칠 인물이야.》

머리를 끄덕거린 다까하시는 식탁우를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 정말 게걸이 들었구만.》 이렇게 빈정거린 다까하시는 태순이쪽에 턱을 쳐들었다. 《야, 오뎅 (남새볶음) 한그릇과 사시미 (물고기회) 두접시, 마사무네 (일본술) 한병을 더 가져와!》

《예.》

가는 소리로 대꾸한 태순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더니 뒤걸음으

로 문밖에 나갔다.

음침한 눈길로 태순이의 거동을 눈여겨보던 미야께가 다까하시에게 눈길을 돌렸다.

《저 어린 계집은 어데서 왔소?》

《돈을 주고 사왔지, 조선계집애야.》

다까하시는 방어회를 초장에 발라 입에 넣으며 심상하게 대꾸했다.

《조선계집애요? 몇살났소?》

《열세살이라던가.》

《이자 나가는걸 보니 꽤 곱살하게 생겼던데.》

이렇게 뇌까리는 미야께를 다까하시가 조소어린 눈길로 건너다보며 비양스럽게 뇌까렸다.

《자네 독신으로 살더니 계집한테 환장을 했구만. 저런 비린내나는 어린것한테까지 눈독을 들이는걸 보니.》

《비린것은 뭐 맛이 아닌가요.》

미야께는 큰 입을 쩝쩝 다시며 기갈이 난 놈처럼 지껄였다.

《그럼 게이샤들과 밤을 새면 되지 않나.》

《내 수입으로야 어디 그럴수가 있나요. 속담에두 사내는 월급에 구애되고 계집은 또 그 무엇에 구애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이런 수작을 하고있을 때 술병과 료리그릇들을 담아들고 들어온 태순이가 그것을 술상우에 차려놓고는 다시금 문앞에 무릎을 꿇고 오도카니 앉았다.

태순이에게 눈길을 박은채 미야께는 울분에 찬 어조로 넉두리하듯 뇌까렸다.

《다까하시상은 조선에 와서 부자가 되여 떵떵거리고 살지만 나는 이게 뭐요. 알거지신세가 아닌가 말이요. 오까모도대위님은 조선에 가면 계집도 얻고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게 뭐가 있소.》

다까하시가 동정어린 기색으로 미야께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이제 다 생길테니 걱정말게. 우리도 처음에야 자네나 같았지. 그러니 조선을 완전히 먹어치우기 위해 제국의 시책에 더 충성을 다하란 말이야.》

미야께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턱을 쳐들었다.

《그런데 오까모도상은 왜 아직 오시지 않소?》

미야께의 말에 다까하시가 술잔을 기울이고나서 대꾸했다.

《김옥균의 문제도 다 처리했으니 여기에 곧 나타날거네. 어쨌든 자네는 일청전쟁의 도화선이 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야 하네.》

《알고있수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다.

초불을 켜놓은 태순이가 술상을 거두었다.

놈들의 눈과 얼굴에 술꽃이 피여 불카해지고 혀꼬부라진 소리들을 했다.

《이제는 가자구.》

다까하시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상을 치우는 태순이만 줄곧 지켜보고있는 미야께는 일어설념을 안했다.

《난 좀 있다 가겠소.》

그의 속심을 짐작한 다까하시가 한마디 충고하였다.

《맘대로 하게, 하지만 소문나지 않게 하라구. 가뜩이나 조선놈들이 우리 야마도족을 미워하는 판에…》

그가 가버린 다음 방에 홀로 앉아있는 미야께의 눈은 술기와 음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오늘밤 어떻게 하면 어린 조선계집애를 건드릴가 하는 생각에 옴해있었다.

(비린내?… 흥, 통채로 삼켜도 비린내가 나지 않을게다.)

다까하시가 하던 소리를 되새기던 미야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하녀들 방에서 고년을 이 방으로 끌어와야 할텐데… 그렇지, 술을 또 가져오라든가 담배를 사오라든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될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제는 하녀들 방으로 가자, 그까짓 천한 조선계집애때문에 마음을 썩이다니…

복도로 나선 미야께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복도끝에 있는 하녀들 방쪽에 고양이걸음으로 다가갔다. 하녀들방앞에 이른 그는 방안의 동정에 귀를 강구었다. 쌕쌕거리는 계집애의 잠결소리밖에 들리는것이 없었다.

미야께는 소리나지 않게 살그머니 미닫이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여러 하녀들이 동거하는 방에 조선계집애 혼자서 자고있지 않는가. 그는 비로소 다까하시가 여러 하녀들을 다

른 방으로 쫓아버리고 조선계집애 혼자서 자도록 해놓았다는것을 깨달았다.

(다까하시상, 고맙소!)

속으로 이렇게 뇌인 미야께는 자신있게 방으로 들어가 뒤손질로 미닫이문을 꼭 닫았다.

창문으로 보름달빛이 넘쳐들어오는 방안은 낮처럼 밝았다.

계집애는 일에 지쳐 묶어가도 모르게 잠에 곯아떨어져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후ㅡ》 숨을 내불고나서 잠든 계집애곁으로 다가간 미야께는 그 애를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계집애는 홑이불 하나를 덮고 자는데 푸르스름한 달빛을 받은 그 애의 얼굴은 어찌 아름다운지 선녀같기도 했고 요정같기도 하였다. 까만 머리칼, 가는 눈섭, 눈은 감았으나 밖으로 뻗은 길고 진한 속눈섭, 야들야들한 볼, 게다가 너무 곤해서 빨간 입술을 벌리고 자는 그 애의 입에서 진주처럼 하얀 이발이 달빛에 구슬처럼 반짝거렸다. 눈요기라 하더니 보는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지경이였다.

문득 계집애가 《끙》하며 한다리로 홑이불을 걷어차버리는것이였다. 그러자 짧은 속치마사이로 두다리통이 다 드러났다. 하얗고 통통한 것이 제법 계집냄새를 풍기였다.

미야께의 가슴은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눈요기만으로는 참을수가 없었다. 놈은 처녀애의 희고 매끈한 다리를 애무하듯 슬슬 쓸어만지였다.

《누구예요?!》

갑자기 처녀애가 눈을 번쩍 뜨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가만있어!》

위협기어린 소리로 나직이 말한 미야께는 제 몸에 걸친 하오리를 벗기 시작했다.

놈이 누군지 알아차린 처녀애가 벌떡 웃몸을 일으켜앉으며 또 소리쳤다.

《나가라요!》

미야께는 다짜고짜 처녀애를 부둥켜안았다.

그 순간 처녀애는 두손에 힘을 주어 손톱으로 미야께의 두눈을 콱 허비였다.

《악!》

미야께는 창졸간에 찔린 눈이 너무도 아파 두손으로 눈을 감싸며 매삼질쳤다.

그사이 처녀애는 창문을 활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속치마에 맨발바람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였다.

좀 있더니 뒤에서 왜놈이 지르는 악청이 울렸다.

《이년 서라!》

태순이는 더 힘껏 뛰였다. 무엇인가에 걸려 속치마가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쳐 맨발에서 피가 흘렀으나 그는 아픈줄도 몰랐다.

뒤에서 따라오는 왜놈의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오빠!—》

태순이는 속으로 울부짖으며 달렸다.

《서지 않으면 죽인다!》

왜놈의 악청과 함께 놈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태순이는 눈을 감고 울며 달렸다.

이때였다.

누군가 자기의 두어깨를 꽉 붙잡으며 소리쳤다.

《이 애, 왜 그러니?》

태순이는 숨을 할딱이며 눈을 떴다.

달빛이 자기앞에 서있는 두사람을 밝게 비치고있었다. 한 젊은 사람과 아가씨가 의혹에 찬 표정으로 자기를 굽어보고있었다. 그들이 조선사람이란것을 깨달은 태순이는 지옥에서 구세주라도 만난듯 그들에게 매달렸다.

《도련님! 아가씨! 날 살려줘요. 뒤에서 왜놈이, 왜놈이!…》

순간에 모든것을 알아차린 젊은이 (그는 엄병무였다.) 는 태순이를 아가씨 (그는 홍아정이였다.) 에게 맡기고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여오는 왜놈을 향해 마주 걸어갔다.

불시에 자기앞에 나타난 젊은이를 본 미야께는 멈춰서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다레까? (누구야?) 》

《나다.》

벌써 두손을 뭉그러쥔 병무가 미야께한테로 가까이 다가갔다.

《나니 (뭐야) ?》

미야께도 격술자세를 취하며 또 소리쳤다.

놈의 코바투 다가선 병무는 허리춤에 두손을 짚고 낮으나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왜놈들의 본성은 죽어야 고쳐지겠구나. 먼저번에는 내 발에 네 골통이 깨졌지만 오늘밤에는 숨통이 끊어질줄 알아라! 》

그제야 비로소 병무를 알아본 미야께는 겁에 질려 슬슬 뒤걸음질을 하더니 갑자기 홱 몸을 돌려 줄행랑을 놓았다.

《더러운 왜놈의 자식!》

놈의 뒤에 대고 한마디 내뱉은 병무는 아정이와 태순이곁으로 다가왔다.

아정이가 속옷바람인 태순이를 꼭 그러안고 물었다.

《너 어데서 사니?》

《파성관… 왜놈려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저 왜놈이 오늘밤…》

태순이는 울먹이며 대꾸했다.

《왜놈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인피수육 (사람가죽에 속은 짐승.) 같은 놈들이 어쩌면 이 어린것을 다…》

아정이는 자기가 치욕을 당하기라도 한것처럼 분하고 억울하여 태순이를 품에 끌어안고 소리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태순이도 아정이의 품속을 파고들며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 왜놈들의 수모를 받아야 하는가, 아!》

혼자소리로 부르짖는 병무의 눈에서도 달빛에 번쩍이는것이 보였다.

얼마뒤 병무와 아정은 태순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보았다.

《너 집은 어디냐?》

《집이 없어요.》

《그래두 가족중에 누가 있겠지?》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는 어데서 뭘하니?》

《전라도광대예요.》

《광대? 이름이 뭐냐?》

《태봉, 천태봉이라구 해요.》

《뭐, 태봉이가 네 오빠라구?》

이렇게 놀란 소리를 하는것은 병무였고

《원 세상에, 세상이 넓고도 좁다더니…》

하는것은 물론 아정이였다.

오늘밤에 달구경나왔기에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쩔번 했는가.

이어 병무와 아정은 태순이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였다. 아정은 덮어놓고 자기 집에 데리고가서 함께 살겠다고 했고 병무는 아정이네 집엔 이미 이월네가 있는데 또 태순이까지 더 부살이시키겠는가, 자기 집엔 아이도 없고 더우기 자기는 태봉이한테 빚을 진 처지니 자기가 태순이를 데리고있겠다고 고집했다.

그래도 아정이는 응하지 않았다. 인정이 남달리 깊은 그 녀자는 자기의 품에 안겨 아직도 새처럼 어깨를 파들파들 떨고있는 어린 태순이를 차마 내놓을수 없었던것이다.

한숨을 내쉰 병무는 사정하듯 간절하고 절절하게 말했다.

《아정이, 나는 이 애가 우리 병옥이가 살아서 돌아온것 같아 그러오. 집에 데리고가면 어머니, 아버지도 여간 기뻐하지 않을거요.》

령리한 태순이는 생면부지의 이 오빠, 언니가 무엇때문에 다투는가를 알자 낯선 이들이 너무도 고마와 흑흑 느껴울었다.

《알겠어요.》 아정이도 한숨을 내쉬였다. 《그럼 당분간 그 집에 두었다가 차후에 또 의논합시다.》

이리하여 태순이는 엄병무네 집에서 병옥이인양 귀염과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였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운명의 희롱이라고 하지만 태순이의 처지를 어찌 희롱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3

서울에 다시 온 오까모도 류노스께는 자기가 없는 사이 제국정부의 커다란 기대속에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애를 써 꾸려놓은 《천우협》이 전봉준이로 하여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였다는것을 알고 깜짝 놀

랐다. 그는 즉시로 미야께를 비롯한 《천우협》 관계자들을 불러다놓고 온갖 분풀이를 다하였다.

그러나 오까모도는 전봉준이가 자기와의 회견을 통해 《천우협》의 본질과 취지를 알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천우협》이 일망타진되였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미야께는 본국에 갔다오더니 갑자기 더 포악하고 사나와진 오까모도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다. 자기 처 야에와 무쯔외무대신의 치정관계를 안 다음부터 그가 가끔 이런 광증을 부린다는것을 미야께가 어찌 알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리성으로 행동은 절제해도 감정까지 조절할수는 없는 법이다.

김옥균의 시신인도문제로 상해에 체류하고있는 사이 오까모도는 고민과 번민, 고뇌와 오뇌속에 며칠을 보내였다.

그러나 도쬬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사색도 정립되고 행동도 절제할수 있었다.

그는 무쯔외무대신에게 김옥균의 시체를 청국측이 함선 《위원》호에 실어 조선에 이미 보낸 뒤여서 그것을 넘겨받을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무쯔는 그것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니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무쯔는 자기 딸 찌요는 어떻게 처리했는가고 물었다. 오까모도가 상해로 가는 배길에서 밤바다에 처넣었다고 하니 무쯔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것이였다.

《각하, 그런데 찌요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주더군요.》

오까모도는 찌요의 편지를 무쯔에게 넘겨주었다.

무쯔는 말없이 봉투에서 속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오까모도는 그의 표정을 주시했다.

편지를 읽는 무쯔의 눈은 커지고 낯색이 붉어지고 숨결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은 그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오까모도에게 뻔뻔스럽게 물었다.

《자네도 읽었나?》

오까모도는 무쯔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예.》

《용서하게, 야마도남아답게.》

《저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고맙네, 아니, 훌륭하네. 용서하는것보다는 잊어버리는것이 훨씬 낫지.》

오까모도는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무쯔의 눈앞에서 찌요의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유리재털이에서 편지종이가 재로 변하는것을 지켜보던 무쯔가 오까모도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까모도도 손을 내밀었다. 무쯔는 오까모도의 손을 힘을 주어 잡더니 한참 흔들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의 머리속 생각은 서로 달랐다. 오까모도는 찌요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무쯔란 인간은 철면피한 인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무쯔는 오까모도의 비굴성과 저렬성이 도리여 불쾌하게 생각되였다. 이런 경우 서양인들은 권총결투를 하는 법이지, 그러나…

《자, 이것으로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였네.》

무쯔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오까모도도 답례를 하였다.

《저는 각하만 믿습니다.》

《고맙네.》 기쁜 기색으로 말한 무쯔는 자기 자리에 가앉더니 말을 이었다. 《자, 이젠 일을 하자구. 사내들이란 시시한 일에 골머리를 쓰지 말아야 하네.》

(남의 가정을 파괴시킬짓을 하고도 시시한 일이라구?)

하지만 다음순간 오까모도는 무쯔의 말을 긍정했다. 그렇다, 계집때문에 골머리를 쓴다는것은 시시한짓이다, 사내는 보다 큰일에, 대의에 머리를 써야 하는 법이다.

무쯔와의 관계는 이렇게 정상상태를 유지하였지만 야에와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제는 남의 계집이라는 께끈한 생각이 들면서 마주보기조차 싫어졌다. 그래서 집에서 자지 않고 유곽에 가서 두 계집을 량팔에 끼고 하루밤을 새우고는 곧장 한성으로 오고말았다.

그는 무쯔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으로 향하였다. 마차의 차창으로 밖을 바라보니 서울은 여전히 무사태평하였다. 봄빛이 완연하여 나무들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살구며 복숭아, 진달래꽃이 만발하였다. 게다가 노랑저고리에 분홍색치마를 입은 처녀들이며 남색꼬리치마를 휘휘 둘러감은 아낙네들로 하여 거리가 더욱 화려해보였다.

오까모도는 심술사납게 아래입술을 쑥 내밀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짝거리며 사는가 보자, 우리 제국의 군화에 짓밟혀 개처럼 설설 기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때 오까모도의 심리는 시에미역증에 개옆구리를 찬다는 조선속담 그대로였다. 자기 가정의 불미스럽고 불쾌한 일로 하여 생긴 울화증을 그 누구한테든 털어버리고싶었던것이다.

공사관에서 스기무라서기관을 만난 오까모도는 몇마디 인사말뒤끝에 역증을 부렸다.

《무쯔각하는 당신이 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고 상당히 노하셨소.》

스기무라가 울컥하여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이 가량가량한 그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있었다.

《오또리공사가 휴가차로 귀국하여 부재중인 조건에서 나는 림시대리공사로 할바를 다하고있소.》

오까모도는 자기가 공연히 역증을 부렸다는 후회를 하며 언성을 낮추었다.

《그건 나도 아오. 무쯔각하는 당신이 원세개를 만나 청국군대가 조선에 출병하도록 리면공작을 벌리라는 지시요.》

스기무라는 여전히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런 중요한 지시를 왜 대리공사인 나에게 직접 하지 않고 당신을 걸쳐서 내리는지 모르겠구만.》

《서기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있을 때가 아니요. 륙군성과 해군성에서는 조선출동준비를 갖추고 대기중이요.》

《당신이 원세개를 한번 만나지 않겠소?》

스기무라는 여전히 꿰진 소리를 했다.

《서기관, 이건 조선에 10여년간 근무하여 조선통이라 불리우는 당신에 대한 정부의 신임이란걸 잊지 마시오.》

스기무라는 아무런 공적직무가 없으면서도 대리공사요 서기관인 자기 일에 늘 간참해나서는 오까모도가 아니꼬와 역증을 부렸지만 조선에 와있는 청국대표인 원세개와의 사업은 응당 자기가 할 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오까모도가 자리를 뜨기 바쁘게 자기도 청국공사관으로 떠나갔다.

마침 원세개는 한가하게 신문장을 뒤적거리고있었다. 그는 반가운 기색으로 스기무라를 맞아주었다.

조선문제로 하여 마찰이 잦은 청국과 일본인지라 두 나라의 대표로 조선에 상주하고있는 원세개와 스기무라의 관계도 미묘하고 복잡하였다.

《동학란때문에 좀 의논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스기무라가 편발을 하고 다부산자를 입은 늙은 청국공사관 관리인이 가져다놓은 차잔을 들며 이런 말을 하자 둥그런 얼굴에 눈이 큰 원세개도 차잔을 들며 묘한 웃음을 띠웠다.

《일본이 바빠할 일이야 뭐 있습니까?》

《왜요, 저 동학군의 구호가 뭔지 압니까? 척왜입니다. 우리 일본을 물리쳐버리겠다는것이 그네들의 목적인데 이제 그들이 한성에 진입하면 우리 거류민들의 신변안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한모금 마신 원세개는 여전히 묘한 웃음을 띠우고있었다.

스기무라가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청국군대가 빨리 조선에 진주하여 동학군을 평정해달라는것입니다.》

원세개가 이번에는 쓰거운 웃음을 소리없이 웃었다.

《그러니 일본은 남의 불에 게를 굽자는겁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 일본은 국내가 안정되지 않아 타국에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무슨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그런건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견불일치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우리가 대군을 출병하면 일본도 가만있지 않을텐데.》

원세개는 스기무라의 표정을 슬쩍 치떠보았다. 스기무라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원세개를 마주 쳐다보았다.

《글쎄, 거류민보호로 한개 중대 그러니 한 백명 출동할가. 그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원세개는 신중한 표정을 짓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어쨌든 이것은 나로서 결심할수 없는 신중한 문제고 또 지금 조선정부군이 동학군을 〈토벌〉하러 내려갔으니 출병문제를 거론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4

전주감영 선화당에 전라감사인 김문현이와 량호초토사로 서울에서 내려온 홍계훈이가 마주앉아있었다. 그들은 비단보료며 안석, 사방침이 있는 좋은 자리를 서로 양보하느라고 맨마루우에 깐 초물주단, 강화화문석우에 앉아있었다.

홍계훈의 전직은 전라도병마절도사 겸 친군장위영 정령관인데 그 군직에 어울리게 체통이 우람하고 거쿨졌다. 그에 비하면 전라도관찰사인 김문현은 턱에 염소수염이 난 빼빼 마른 상에 몸집도 체소하여 볼꼴이 없었다.

《원로에 고생이 많았겠소이다.》

홍계훈의 눈치를 살피며 김문현이 거북스럽게 인사하자 홍계훈은 무뚝뚝하게 인사말도 별로 없이 전쟁형편부터 물었다.

《한데 듣자니 고부백산과 황토현에서 싸움이 있었다면서요?》

《면목이 없소이다.》

김문현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좀 자상히 말씀허시우.》

낯색이 거머무트름한 홍계훈은 여전히 뚝한 태도였다.

《백산에 진을 친…》

《백산싸움에 대해선 알고있으니 며칠전에 있었다는 황토현싸움에 대해서 말씀허시우.》

관직으로 보면 관찰사인 김문현이가 웃사람이지만 패장이다보니 시르죽은 상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피장파장이지요. 영장 리광양이 별호군과 보부상대 수천으로 황토현에 진을 친 동학군을 공격했는데 되려 적들의 야간기습으루 다 녹아나구말았쉐다. 800이나 되는 감영군이 죽구 600정두 넘는 총통을 빼앗겼지요, 후—》

김문현은 불같은 한숨을 내쉬고나서 턱수염을 꼬았다.

홍계훈이 그에게 눈을 흘겨붙였다.

《원, 바지저고리같은것들, 양총을 가지고 그 오합지졸들한테 떼죽음을 당해?》

김문현이 손을 내저었다.

《아, 그렇게 말할게 아니웨다. 강약이 부동이라구 워낙 폭도들의 군세가 엄청나게 많은데다 죽을둥살둥 모르고 덤벼드니 관군은 애당초 얼쳐버리고말지요. 게다가 수괴 전봉준이가 감언리설로 관군과 보부상들을 꾀여내는고로 싸우기도 전에 투항하거나 도망치는자들이 부지기수웨다.》

《지금 비도들의 형세는 어떻소이까?》

《호남일대가 벌둥지 쑤셔놓은것 같지요. 고부, 태인을 들이친 동학군은 이어 정읍과 흥덕, 고창, 무장을 또 들이쳐서 원을 지경밖으로 들어내고 창고를 터쳐 빈민들한테 쌀과 피륙을 나누어준다, 토지와 노비문서를 불태운다, 옥을 깨고 죄수들을 풀어준다, 뭐 행패가 랑자한데 백성놈들은 되려 살판이 났다구 전봉준이를 구세주처럼 떠받들지요. 빨리 무슨 조처를 단단히 해야지 여차하면 여기 전주성두 무사치 못할것 같쉐다.》

《그래서 내가 내려오지 않았소이까.》

홍계훈이가 으시대는 투로 말했다.

《그래, 군세는 얼마나 됩니까?》

그 물음에 홍계훈이는 대답을 주저했다. 사실 그가 한성에서 끌고온 800명의 정부군중에서 농민군의 기세에 겁을 먹고 반수이상이 도중에서 도망치고 전주에 기여들었을 때는 겨우 470명이 남았을뿐이였다. 게다가 남아있는 병졸들마저 사기가 떨어져 도저히 농민군을 감당할 형편이 못되였다. 하지만 홍계훈은 김문현이앞에서 그런 기색을 내지 않고 천연스럽게 허풍을 쳤다.

《정병인 장위영군사 800에 덕국 (도이췰란드) 제 구르프포 2문, 기관포 2문이외다.》

《…》

김문현이는 그의 말이 미덥지 않은지 말없이 고개만 기웃거렸다.

김문현이 우려한대로 전봉준의 농민군은 전주를 장악하기 위해 남진을 계속하고있었다. 전주감영이 있는 전주성을 타고앉으면 호남일경은

다 농민군의 통제속에 들어올것이였다. 전봉준은 남진하기 위해 농민군을 좌영과 우영 두개의 대오로 나뉘여 좌영은 김개남이, 우영은 손화중이 령솔하도록 하였다.

전봉준은 농민군이 자기의 명분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한 규률을 세웠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말며 가축을 죽이지 말것이며 둘째로,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것이며 셋째로, 왜놈과 서양오랑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을것이며 넷째로, 장차 군사를 몰아 서울에 쳐들어가 권문세가놈들을 없애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농민군대오의 규률은 매우 째여있었으며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지지성원과 환영을 받았다.

한편 농민군의 승리적진군에 겁을 집어먹은 량호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과 맞서싸울 엄두도 못내고 전주성안에 처박혀있으면서 정부에 증원병을 보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외국군대를 청해올것을 애걸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배족적제기를 연방 하였다.

봉건정부도 당황하여 폐정을 개혁하며 탐관오리들을 처벌할데 대해 론의하는가 하면 전라감사 김문현이를 파직시키고 전 고부군수 조병갑을 정치범을 취급하는 의금부에 가두었으며 안핵사 리용태를 정배 보내는 등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농민군을 회유하기 위한 국왕의 《륜음》이란것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한테서 쓴맛을 볼대로 본 농민군은 봉건정부의 기만적조치에 왼눈도 팔지 않았다.

전주성에 들어박힌 홍계훈의 정부군은 농민군이 무서워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련무당에서 창검훈련하는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명색이 군대란것이 그런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할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마지못해 하는 훈련이라 열의가 전혀 없었다.

김문현이는 파직되였으나 아직 신임사또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있어야 했기에 늘 련무당으로 찾아와 홍계훈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뒤짐을 지고 병정들의 훈련을 지켜보고있는 홍계훈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사또, 이젠 출전해야 하지 않겠소?》

홍계훈이는 파직된 주제에 웬 참견이냐 하는 언짢은 눈길로 김문현이를 흘겨보았다.

《형세를 보면서도 그러오?》

《하면 언제까지 이러고있겠소?》

《적은 수만대군인데 우린 겨우 470명이 남았소. 흥, 어불성설두 유만부동이지.》

《하, 그러니 야단 아니요.》

홍계훈은 문득 자기 병정들에게 꿱 소리질렀다.

《야, 이놈들아! 그게 훈련이냐, 장난이냐!》

경군 (중앙군) 들이 찔끔하여 훈련의 도수를 높이였다.

그러자 홍계훈은 김문현이한테 고개를 돌렸다.

《걱정마오. 조정에 증원군을 요구했으니까 여차하면 청국에 원병을 요구할테요.》

파직된 지방관인 김문현은 그 말을 듣더니 흠칫하며 홍계훈을 다시 쳐다보았다.

《청국에?!》

《별수 있소? 우리 힘으룬 어쩔수 없는걸.》

《아니,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웨다.》

이때 감영의 한 사령이 전보장을 들고 나타나더니 망설이던 끝에 김문현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

김문현이 얼른 전보장을 받아읽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전보장을 홍계훈한테 전하였다.

《통제영 중군 황헌수가 장위영병정 300명과 강화병 500명을 이끌고 증원온다는구려. 에, 살았소.》

전보장을 읽는 홍계훈의 낯에도 화색이 돌았다.

《음, 기선 〈현익〉 호로 인천을 떠나 영광의 법성포로 온단 말이지, 됐소.》

김문현은 증원군이 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선자리걸음을 하던 홍계훈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만! 여기서 기다릴 까닭이야 없지. 우리가 먼저 장성쪽으로

나가 거기서 증원군과 합세하여 비도들을 쳐야지.》

또 생각에 잠기던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대관 리학승이에게 병정 300과 대포 두문을 주어보내야지. 그리고 각 고을 보부상대도 무어보내고…》

5

건청궁 록원의 나무사이길로 고종과 민비가 한가롭게 산책하고있었다. 날씨도 따뜻하고 얼마전까지 가지마다 꽃이 피여있던 나무들도 신록이 무르녹아 계절의 희롱도 무상해보였다.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 민비를 곁눈질로 보던 고종이 입을 열었다.

《요새 곤전의 모색이 말이 아니요. 눈에 피두 지구… 왜 또 불면증이요?》

민비는 시름겹게 말을 받았다.

《불면증이야 늘 그런걸요.》

《그럼 전라도민란때문에?… 과인도 요즘 그 일때문에 침수 들수가 없소.》

민비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종을 위로했다.

《신첩이 공연히 상감마마의 성려까지 흐리게 하여 죄송하옵니다.》

《10여년전 임오군란때처럼 경난을 겪지 않겠는지?…》

《과히 념려마옵시오. 홍계훈이가 내려가지 않았소이까?》

이렇게 말하는 민비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었다.

가물과 무더위에 모든것이 시들고 지쳐버린 임오 (1882) 년, 악몽같던 그해 여름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가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조야가 뒤숭숭하여 무슨 일이든 부르터질것 같은 불안속에 민비는 낮과 밤을 보내고있었다. 그것은 전해에 두차례에 걸쳐 군인들의 폭동기도사건이 있었고 이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체결한 《조미조약》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항의투쟁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속에 얼마전에는 백락관이란 충청도의 한

유생이 전에 볼수 없었던 견결한 상소투쟁을 벌리다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남산에 올라가 봉화를 지피는 단호한 행동까지 하였다.

그런데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마련이라고 일은 끝내 터지고야말았다. 일은 무위영, 장위영소속의 군인들속에서 일어났다. 열석달이나 군료를 받지 못한 왕심리, 리태원일대의 빈민출신군사들의 불만은 당장 터질 지경으로 커졌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달분의 쌀이 지불되였는데 그것은 물에 잠기여 썩은것이 아니면 쌀겨와 모래가 절반이나 섞인것이였고 그나마도 량이 차지 않았다. 더는 참을수 없어 군정들은 당장 도봉소고직이를 때려눕혔다. 이 소식을 들은 선혜청 당상인 세도재상 민겸호는 주모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격분한 군정들은 세도재상 민겸호의 집을 들부시고 《이왕 죽을바에는 원한을 풀고 나라를 위하여 거사를 하고 죽자!》고 웨치면서 결사전에 떨쳐나설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동별영으로 몰려가 무기고를 치고 무장을 갖추고 종로거리를 누비면서 전진하여 포도청을 습격하여 동료들을 구원한 다음 의금부를 습격하여 위정척사론자 백락관을 석방하였다. 폭동군인들은 백락관의 조종밑에 즉시 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으로 달려갔다.

이상의 사실이 이날 민비가 대충 들은 군란의 소식이였다. 그들이 대원위에게 갔다니 그 능청스럽고 엉큼한 늙은것이 이제 폭도들을 어데로 끌고갈것인가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노릇이였다. 그러니 자칫하다간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앉은벼락을 맞을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민비는 편전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그의 첫눈에 띄인것은 무료감에 잠겨 하늘을 쳐다보고있는 한 무예별감이였다.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한 그는 량쪽에 꿩깃을 꽂은 붉은 주립을 쓰고 청색단령에 실띠인 도아를 띠고 한손에는 칼집을 쥐고있었다. 검스레한 얼굴생김새도 근실하고 고박해보였다. 겉볼안이라고 그가 자기를 배반하지 않으리란것을 확신한 민비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홀연 자기앞에 나타난 민비를 본 무예별감은 그 무슨 염라대왕이라도 만난듯 몸이 굳어지고 눈알이 갈팡거렸다.

《네 이름이 뭐냐?》

민비가 나직이 물어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 밑둥잘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예, 무예별감 홍계훈이라 하옵니다.》

민비가 몇번이나 재촉해서야 겨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홍계훈은 허리를 꺼꺼부정하고 손을 맞잡은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계훈이, 너도 군란이 일어난 소식을 들었겠지?》

《예, 얼핏.》

《너 내 분부를 듣겠느냐?》

《예, 중전마마.》

《무슨 분부인지도 모르는데?》

《예, 중전마마의 분부오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겠소옵니다.》

문득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쳐다보는 홍계훈의 표정과 눈빛이 신통히도 충실한 사냥개가 주인을 쳐다볼 때의 그것과 방불하다는것을 민비는 느꼈다.

《명심해듣거라. 이제부터 군란을 일으킨 병정들속에 끼여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가 제때에 나에게 고하거라.》

《예, 중전마마.》

이후로 홍계훈이는 민비의 눈과 귀가 되였을뿐만아니라 수족노릇까지 한 다시없는 심복, 노복이 되였다. 그를 통해 민비는 군란의 동정을 손금보듯 알수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까지 구원될수 있었다.

와룡초대에서 타고있는 초불은 민비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도 짧게도 그려놓군 하였다. 창덕궁의 서온돌 편전의 보료우에 앉아 합문쪽을 바라보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렸고 그러다가는 다시 보료우에 앉아 합문쪽에 고개를 돌리군 하였다.

드디여 합문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조상궁의 목소리가 울렸다.

《중전마마, 무예별감 홍계훈 대령하였소옵니다.》

《어서, 어서 들라 해라.》

민비는 서둘러 대답했다.

벌벌 기여들어온 홍계훈은 민비앞에 채 이르지 못하고 부복했다.

《밖의 형세는 어떠냐? 어서 고하거라.》

홍계훈이가 전해주는 군란소식은 점점 더 험악한것이였다.

운현궁에서 나온 폭동군은 두 대오로 갈라져 한 대오는 서대문밖의 경기감영으로 밀려가 왜놈 세놈을 처단하고 감영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다음 일본공사관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다른 한 대오는 강화류수 민태호를 비롯한 조정중신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치성터》와 놀이터까지 까부시고 별기군병영인 하도감을 습격하여 합세한 별기군들과 함께 왜놈교관 호리모도공병소위놈을 처단하였다는것이다.

《일본공사관앞에서는 굉장했사옵니다. 〈일본공사관을 치자!〉, 〈왜놈들을 내몰자!〉고 웨치며 폭도들이 일본공사관으로 밀려들자 숱한 서울빈민들이 합세하였소옵니다.》

홍계훈은 민비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말하였다.

《좀 차근차근 자상히 아뢰거라.》

민비가 이처럼 일깨워서야 홍계훈은 손세까지 써가며 자기가 목격한것을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본공사관이 틀고앉은 건물은 《천연정》이란 현판이 걸려있는 조선기와집이였다. 오늘 낮부터 드디여 오기 시작한 비발은 공사관건물을 겹겹이 둘러싸고있는 폭동군중들의 얼굴로 줄줄이 흘러내리고 그들의 옷을 화락하게 적시였으나 그들의 의욕과 열기를 더욱 부채질할뿐이였다. 어떤 군정들은 공사관을 향해 총을 쏘았고 총이 없는 시민들은 기와장이며 돌멩이를 던졌다.

그들이 지르는 함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왜적을 치자!》

《왜놈들을 내몰자!》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도 이 거세찬 증오의 웨침을 가리우지 못했다.

어느덧 밤이 되였다.

공사관원들은 갈팡질팡하여 어쩔바를 모르는데 하나부사공사는 불안한 기색으로 방안을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이때 뒤문으로 해서 곤도서기관이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공사각하, 호리모도가 분명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구원군은 올 가망이 없는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겁기에 질린 곤도를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던 하나부사는 드디여 결

심을 내렸다.

《공사관원 전원을 본관에 집합시키라!》

《하!》

정렬한 공사관원들의 얼굴에 한껏 짙은 공포의 기색이 어려있었다.

하나부사가 곤도에게 물었다.

《몇인가?》

《전부 28명입니다.》

하나부사는 관원들을 일별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들으라, 우리는 위기에 빠졌다. 구원될 가망은 없다. 각자가 자신을 책임지라. 어떻게 해서든 포위를 뚫고 궁성에 들어가 조선정부의 보호를 받아야겠다. 모두 철저히 무장하라!》

하나부사는 곤도에게 따로 지시를 주었다.

《우선 기밀문건을 소각하라! 그리고 공사관에 불을 지르라!》

곤도의 눈이 커졌다.

《우리 손으로 우리 공사관에?!…》

《지르라! 그 값은 후에 몇십배로 받아낼수 있다.》

공사관원들은 총이며 칼 등으로 무장한 후 문건들을 태우고 제놈들의 공사관 구석구석에 석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다. 불길은 삽시에 목조로 지은 공사관건물을 휩쌌다. 이어 놈들은 불길과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속으로 한데 뭉쳐 총을 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로 일본공사관원들은 헐레벌떡거리며 달려갔다.

《하야꾸! 하야꾸! (빨리! 빨리!)》

하나부사가 그들을 독촉했다.

비발속에 웅건장중한 남대문의 위용이 거연히 안겨왔다.

일본공사관원들이 가까스로 남대문에 이르렀으나 남대문은 굳게 닫겨있었다.

관원들은 문을 두드리며 안타깝게 소리쳤다.

《모시! 모시!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나부사가 그들을 힐책했다.

《일본말을 하면 되는가. 그냥 두드리라!》

관원들이 두주먹으로 두드리다못해 어깨로 떠밀어도 굳게 닫긴 남대문은 불청객들에게, 강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에

잠긴 관원들은 진탕속에 털썩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다다께! (일어섯!) 》

하나부사는 악에 받쳐 그러나 낮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할수 없다, 인천으로 가자.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비속을 뚫고 어둠에 묻힌 거리를 천방지축으로 달리는 왜놈들의 몰골은 흡사 밤도깨비 한가지였다.

잠들수 없는 밤, 폭동군인들과 군중들은 무위영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있었다. 억수로 퍼붓는 장대비는 그들의 기세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그들은 왜놈들을 뒤쫓았다.

인천에 당도한 일본공사관원들은 인천관아에서 휴식하고있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벽에 기대여 졸고있었다. 하나부사가 초조한 시선으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날밝기를 기다리는것이다. 벽시계가 다섯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밖에서 경비를 서던 순사 두명이 피를 흘리며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응, 웬일인가?》

놀라는 하나부사에게 한 순사가 다급히 보고했다.

《각하, 조선놈들이… 서울에서 우리를 쫓아온 놈들이 여기 인천의 놈들과 합세하여 지금 우리를…》

밖에서 총소리, 함성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하나부사가 골을 싸쥐더니 이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전원 기상! 월미도쪽으로! 거기서 영국의 〈비어〉호에 오르자!》

마구 총을 란사하며 인천관아에서 빠져나온 왜놈들은 미명의 어둠속으로 천방지축으로 달아났다. …

폭동형세를 잘 살펴 계속 자기에게 알리라고 다시금 홍계훈이를 신칙하여 보낸 민비는 완자문을 활 열어제끼고 비내리는 밖을 내다보았다. 비풍이 몰려들면서 초불들이 꺼졌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민비는 불안으로 높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쌀때문에 시작된 군란이 이제는 폭동으로 변하여 걷잡을수 없게 번지고있다. 마치도 끌수 없는 산불과 같지 않는가. 폭도들은 일본사람들을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바다멀리로 쫓아버리고 그들을 끌어들

이는데 앞장선 세도재상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들도 짓부셔버렸다고 한다. 백성들의 일본에 대한 원혐이 이처럼 뿌리깊단 말인가. 그 원혐이 이것으로 멈추어졌다고 볼수 있을가. 아니다, 그 보복의 화살이 점차 이 구중궁궐에 들어앉은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안심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 위란을 극복할수 있을가?)

별안간 번개불이 번쩍 하늘을 헤가르고 꽈르릉! 천지가 무너지는듯한 뢰성벽력이 울렸다. 번개불빛은 민비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치였다.

번개치는 밤하늘에 불현듯 대원군의 모습이 우렷이 나타났다. 배심든든한 웃음을 삐주름히 띠운 고집스런 대원군, 능청스럽고 엉큼한 늙은이—

그러자 불현듯 어떤 생각이 민비의 뇌리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세상천지에 대원군밖에 없다, 그렇다, 이이제이, 적으로써 적을 제압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은 그때에 가서 보자, 지금은 이 구중궁궐은 물론 그속에 깊이 들어앉아있는 나까지 태워버릴수 있는 산불부터 꺼야 한다, 산불 역시 마주 불을 질러 꺼버리는 법이다, 불로써 불을 꺼버려야 한다.

그시로 민비는 자기 방을 떠나 고종이 있는 대조전을 향해 걸었다. 뒤따르려는 시녀들을 쫓아버린 그는 머리칼이며 옷이 화락하니 젖은채로 대조전의 복도로 걸어갔다.

그를 본 환관이 놀라움에 싸여 황급히 합문안에 대고 《상감마마, 중전…》 하고 아뢰는것을 민비가 한팔을 홱 내저어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민비는 제손으로 합문을 열어젖히고 편전으로 들어섰다.

아닌밤중에 비에 화락하니 젖은채로 시녀도 없이 불시에 자기앞에 나타난 민비를 보고 고종도 아연하여 입을 벌리지 못했다.

한참만에야 고종은 어정쩡하게 물었다.

《아니, 곤전. 이 밤중에 웬일루?!…》

고종의 앞에 앉은 민비는 여느때와 다름없는 안온한 소리로 말했다.

《상감마마, 속히 대원위께 입궐하도록 어명을 내리십시오.》

《아버님을?…》

《이 군란을 안정시킬 사람은 대원위밖에 없사옵니다.》

다음날 아침, 무위, 장어 두 영의 군인들은 물론 별기군전체가 인민의 편에 돌아서게 됨으로써 민가통치집단이 의거하고있던 마지막 아성

이 무너지게 되였다.

폭동군대렬은 일본 및 미국침략세력을 끌어들이기에 광분하였던 령의정 리최응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처단한 후 그길로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백명의 관료배들을 습격하여 살림집들을 파괴하거나 악질관료들을 처단하였다.

환관이 헐레벌떡 창덕궁 대조전으로 뛰여들어왔다.

《폭도들이 대궐을 범하고있소옵니다.》

고종이 아연해서 민비를 쳐다보는데 민비는 까딱 않고 한점만 쏘아보고있었다.

폭동군중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가까와졌다.

어지러운 발걸음소리와 함께 군정들이 대조전의 뜨락으로 쓸어들었다.

《왜놈들을 끌어들인 민중전을 찾으라!》하는 소리가 울렸다. 군정들이 합문을 열어젖히고 편전안도 기웃거렸다.

대원군이 그들에게 엄한 소리로 호령했다.

《이놈들아, 어디로 쓸어드는거냐?》

군정이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아뢰였다.

《저희들이 중전을 좀 뵙자고 그럽니다.》

대원군이 더욱 엄하게 호통쳤다.

《고얀놈들, 상감께서 계시는 곳도 몰라보느냐?》

군정들이 허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군정들이 사라지자 옆방에서 상궁옷으로 변복한 민비가 조용히 나오더니 부대부인을 보고 인사했다.

《어머님, 귀체…》

한쪽무릎을 세우고 안존히 앉은 민비는 뒤말을 흐리였다.

처음에 어리둥절해하던 부대부인은 다음순간 두눈이 커졌다.

《아니, 중전?!…》

고종도 몸을 피하지 않고있는 민비를 안타까와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곤전!…》

안타까움에 잠겨 재촉하듯 부르는 고종에게 다시 얼굴을 돌린 민비는 침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찍어 말했다.

《상감마마, 길흉화복은 인생의 항다반사옵니다. 화는 복의 씨요 복은 화의 씨이니 너무 성려마십시오.》

이 말은 분명히 고종만이 아닌 대원군도 들으라고 한 말임에 틀림없었다.

부대부인이 낮은 소리로 민비에게 성급히 일렀다.

《중전, 저 뒤뜰에 내가 타고 들어온 가마가 있소. 어서!》

민비가 몸을 홱 돌리더니 총총히 섬돌아래로 내려갔다. 또다시 군정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잠시 서서 어찌할바를 모르던 민비는 얼른 뒤뜰로 뛰여가 가마안으로 들어갔다.

몰켜오는 한무리 군정들의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아,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치더니 여럿이 가마쪽으로 달려온다.

가마속의 민비는 눈을 꾹 감았다.

가마를 에워싼 군정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민중전의 가마가 아니야?》

《들춰보게.》

누군가 가마휘장을 들친다. 그리고는 덴겁한 소리를 질렀다.

《누가 있네.》

《끌어내라!》

민비는 군정의 우악스런 손에 손목이 잡혀 밖으로 끌려나왔다. 그는 죽어도 국모로 불리우는 왕비답게 죽자는 생각으로 오연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때 여기로 지나가던 무예별감 홍계훈이가 문득 발길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군정들은 민비를 둘러싸고 여전히 웅성거렸다.

하지만 오연히 고개를 쳐들고있는 녀인의 도도한 기풍에 여기가 질린듯 그들은 어쩌지 못하였다.

그들이 왕비의 모색을 알리없는것이다.

홍계훈은 앞뒤를 가릴새없이 급히 걸어왔다.

《무슨 일이냐?》

홍계훈의 자못 엄엄한 태도에 군정들이 기연가미연가하는 심정으

로 물었다.

《아, 마침이요. 거기선 궁에 있으니 민중전을 알겠구려. 이 녀인네가 중전 아니요?》

민비가 얼른 홍계훈에게 의미있는 눈길을 보냈으나 그것을 간파못한 그는 당황하여 우물쭈물거렸다.

그러자 민비가 림기응변으로 짐짓 반색하는 표정을 띠웠다.

《오라버니!…》

그제야 정신이 든 홍계훈이도 민비의 뜻을 알아차리고 제꺽 둘러쳤다.

《여보게들, 이 앤 내 누이동생 홍상궁이네.》

군정들이 의심쩍어하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뭐, 누이동생?… 적실하오?》

《아, 그런 거짓말도 하나?》하고 군정들에게 말한 홍계훈은 민비에게 고개를 돌렸다.

《집에 가는 길이냐? 아, 이 험한 판에 변 당할려구 야단이냐? 자, 업혀라.》

민비의 태연자약한 거동에 힘을 얻은 모양 계훈이도 제법 능청을 떨었다. 민비는 위란한 속에서도 어리숙하게 생긴데 비해서는 속이 의뭉스러운 계훈이가 고맙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민비는 오라비앞에서 응석부리는 동생마냥 몸을 흔들었다.

《괜히 경치지 말구 말 들어라.》

계훈이는 마치도 판소리광대마냥 슬슬 잘도 꾸며댔다.

군정들은 흩어져갔다. 하면서도 미심쩍은듯 뒤를 돌아보는치들도 있었다.

홍계훈은 안도의 숨을 후—내쉬며 넙적한 손바닥으로 이마를 쑥 문다졌다.

그는 민비에게 등을 돌려대고 진정으로 권하였다.

《마마, 업히시오이다.》

민비는 군정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도 없소이다.》

그래도 민비는 업히려 하지 않았다.

《마마—》

《계훈아.》
《예.》
《이 가마를 깨버려라.》
《예에?》
《어서!》
《예.》
하면서도 홍계훈은 영문을 몰라 망설였다.
《아유, 등신같다.》
민비는 발을 구를듯이 짜증을 부렸다.
《예 예…》
홍계훈은 왁살스럽게 힘을 주어 사린람여를 깨뜨렸다.
《아예 납작하게 만들어라.》
《알겠소이다.》
홍계훈은 깨여진 가마를 다시 발로 짓뭉개버렸다.
민비가 사위를 날카로운 눈길로 둘러보더니 자기의 자그마한 갖신 한 컬레를 깨여진 가마곁에 벗어놓는것이였다. 그의 눈에 서글픔이 비끼는것을 계훈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제서야 홍계훈은 민비가 가마를 깨뜨리고 그곁에 신발을 벗어놓은 동기를 어렴풋이 깨달을수 있었다. 그것은 강이나 바다에 몸을 던지는 녀인들이 바위우에 신발을 벗어놓는것과 같은 행위라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드디여 홍계훈이가 민비를 업고 내달렸다. 등에 업힌 민비는 소리없이 흐느꼈다. 계훈의 두눈도 벌개졌다.
한편 폭동군인들과 한성부민들로 숲을 이룬 궁정뜰에서 대원군의 심복인 허욱이가 한손을 쳐들고 소리쳤다.
《상감마마께서 문무백관들에게 앞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정사를 국태공 대원위대감께 품결하도록 하라는 어지를 내리셨소. 마침내 대원위대감께서 다시 집정하셨소.》
《와!—》
군정들이 총과 창검을 높이 쳐들면서 환호를 올렸고 부민들도 두팔을 쳐들어 환성을 질렀다.
대원군이 인정전에서 신발뒤축을 끌며 거드름스럽게 나왔다.
환호소리가 더더욱 높아갔다.

이렇게 9년간에 걸치는 민비의 개국정치는 끝나고 정권은 다시 대원군에게로 돌아갔다. …

《어마마마…》

하는 소리가 앞에서 울렸으나 깊은 회억에 잠긴 민비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중추 장호원의 북망산 깊은 골짜기에 피신하여 고독과 불안과 공포에 찬 나날을 보내던 그 수난의 시기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다행히 청나라군대의 개입으로 환궁하여 다시금 국정대권을 틀어쥐게 되였지만 만일 청나라군대가 없었더라면 자기의 처지는 어찌될번 했는가. 상기하고싶지도 않고 꿈속에서조차 나타날가봐 무서운 악몽같은 그 《임오군란》. 그런데 남도에서 일어난 비도들도 서울로 쳐올라가겠다고 한다지 않는가.

《중전마마!》

다시금 울리는 소리에 비로소 상념에서 깨여난 민비는 고개를 쳐들었다. 자기의 며느리, 세자비 민씨가 근심이 자오록한 얼굴에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을 들어 자기를 보고있었다.

민비도 그 어떤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왜 그러느냐?》

《어마마마, 세자마마께옵소 열이, 몹시 앓으십니다.》

세자비는 당황하고 불안하여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차 임금이 될 세자가 앓다니?!…

《언제부터 그리됐느냐?》

《어, 어제밤부터…》

민비는 발칵 성을 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느냐?!》

《어의에게 알렸기에…》

민비는 눈을 꼭 감았다. 남도의 비도들때문에 근심이 산같은데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 화는 언제나 쌍으로 온다더니…

6

5월도 며칠 남지 않은 어느날 저녁 천태봉은 전주성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제 얼마후에 농민군이 전주성으로 입성할 계획이니 오선생을 만나 전주성의 형편을 알아오라는 전봉준의 명령을 받았던것이다.

그를 만난 오선생은 절호의 기회에 왔다고 무척 반가와하였다.

《자네 참말 때마침 잘 왔네. 지금 전주성은 텅 비다싶이 되였네. 감영군은 지난 싸움들에서 다 녹아났고 경군 (정부군) 도 성을 비우고 농민군을 쫓아갔네. 게다가 감사 김문현이는 봉고파직이 되였고 신임감사 김학진이는 상기 도임하지 않았네. 그러니 자넨 곧 전대장한테 가서 어서 주인없는 전주성을 차지하고 주인이 됩시라구 전갈하게.》

그러면서 오선생은 그사이 전대장의 계략대로 나무달구지들에 창이며 칼같은 병쟁기들을 감추고 성안으로 들어와 농민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으니 이제 전대장이 전주성에 오시기만 하면 몇놈밖에 없는 성안의 관군은 성안백성들의 힘으로 다 처리하겠다는것이였다.

《전주성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쌍수를 들어 전대장을 맞이할걸세, 허허…》

단정한 선비인 오선생도 무릎을 치며 껄껄 웃는것이였다.

태봉은 그의 말이며 태도를 보고 전주성을 어렵지 않게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대장님께 오선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소이다. 그럼…》

태봉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일려고 하자 오선생이 만류했다.

《이 사람, 저녁때인데 저녁도 들지 않고 떠나겠나. 래일 당장 성사시킬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 오선생은 집에서 이제 밥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릴테니 성안의 음식점으로 가자면서 태봉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봉이도 굶어서 길을 가느니 여기서 한술 얻어먹고 떠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여 그를 뒤따랐다.

장대끝에 술등이 매달려 데룽거리는 술청앞을 지나가던 오선생은 토

방에 너절더분하게 널린 신발들이며 열린 문으로 들여다보이는 방안의 손님들을 훑어보더니 먼데 갈데없이 여기에 들리자고 하였다.

《보아하니 술청안에 관군들도 더러 온것 같은데 그들의 상태를 자네 눈으로 직접 보고 가서 전대장께 말씀드리게나.》

오선생은 태봉이를 데리고 웃방으로 들어갔다. 웃방에는 성안사람들이 몇이 앉아있고 아래방에는 또 관군들 몇이 앉아 대작하고있었다.

웃방의 사람들은 오선생을 보자 모두 자리를 일어 정중하게 인사하는것이였다. 태봉은 오선생이 전주성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주인, 여기 술 두대접하구 장국밥 두그릇을 들여보내주오.》

오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늙수그레한 주인이 웃방으로 올라와 선절을 하며 곧 올리겠노라고 하였다.

오선생은 태봉이에게 아래방에서 술을 마시고있는 경군들을 보라고 눈짓하였다.

그의 눈짓에 따라 태봉이도 아래방에 눈길을 주었다.

초췌하게 생긴 경군이 불평을 부리고있었다.

《하루록봉이라는게 일문전 30문에 술값으루 20문뿐이니 이걸루야 살수가 있나.》

그러자 그의 앞에 앉아있는 작달막한 경군이 시름겨운 소리로 대척하였다.

《벌써 석달째 월봉을 받지 못했으니 한양에 있는 식구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소. …》

그들은 술맛도 없는지 별로 취하지도 않았다.

웃방에 있던 술군 하나가 오선생에게 말을 걸었다.

《오선생, 지금 삼남일대가 동학군천지이니 그들이 여기 전주도 들이치지 않을가요?》

오선생이 태연하게 대꾸했다.

《죄없는 백성들이야 걱정할게 있소.》

웃방의 술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오선생, 무슨 소린지 록두장군은 물론 그의 부하들도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합디다. 한데 그들이 쏘는 총은 총알이 관군을 따라가며 죽인다지 않소.》

오선생대신 다른 술군이 간참했다.

《그러게 황토현이나 완산싸움에서 관군이 전멸했다는게로.》

아래방의 동정을 은근히 살펴본 오선생이 또 입을 열었다.

《아니! 그렇지두 않소. 록두장군은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관군은 다 살려준다고 합디다. 동학군은 군률이 엄정한데 그 군률에 〈항자수대〉 즉 항복한자는 대접을 받는다, 〈추자물추〉 즉 달아나는자는 쫓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오선생은 태봉이에게 아래방을 보라고 다시 눈짓을 했다.

태봉이가 살펴보니 아래방의 경군들은 생각깊은 표정으로 웃방에서 하는 말을 듣고있었다. 키 작달막한 경군이 술대접을 들어 한모금 마시고나서 혼자소리하듯 중얼거렸다.

《그게 옳지, 뭣때문에 부모처자 남겨두고 아까운 목숨을 잃겠나.》

경군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전과는 농민군이 발전된 무기를 소유하고 군사적으로 훈련된 우세한 적들을 능히 격파할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고 강화되였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경군의 정예부대를 격파함으로써 정세는 농민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였다.

장성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한 경군이 령광에서 패잔병들을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 사기충천한 농민군은 전주를 향하여 진군을 다그치고있었다.

전주성은 당시 2 000여호가 사는 성시로서 전라도지방의 봉건통치의 아성이였다. 전봉준은 전주를 점령하고 호남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조선의 서울인 한성을 공격하려고 계획하였다.

농민군은 장성의 갈재를 넘었고 곧 정읍을 거쳐 양력 5월말경에는 태인현경에 들어섰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향해 노도와 같이 육박해들어가자 당황한 경군은 부랴부랴 농민군을 뒤쫓아 금구에 이르렀으나 농민군과 감히 싸워볼 엄두를 못낸채 닭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한편 장성전투의 소식에 놀라고 당황한 봉건정부는 리원회를 《량호순변사》로 임명하고 그에게 1 000명의 군사와 야포 2문을 주어 전주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놈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농민

군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드디여 농민군은 5월말에 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성안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완산에 지휘처를 정한 전봉준은 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명령하였다. 전주성의 형편에 대해 오선생의 보고를 통해 손금보듯 알고있는 그는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주성을 무혈점령하라고 령을 내렸다. 그의 령에 따라 농민군은 성을 둘러싸고 총포를 쏘아대고 북과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올리였다. 내응외합의 전술로 안에서 성문을 열 때까지 성안의 사람들을 고무하고 적들로 하여금 당황망조케 하려는것이였다.

이전 감사 김문현과 전주판관 민영승이는 성을 지켜보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군졸들과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저항을 시도하였다.

오선생을 비롯한 농민군지지자들은 성문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군졸들속에 끼여 그들에게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언젠가 술청에서 함께 술을 마신 키 작달막한 경군과 꾀죄죄하게 생긴 경군군졸이 마침 문루에 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간 오선생은 은근스럽게 말했다.

《그래, 자네들이 성밖의 저 많은 농민군을 막아낼상싶은가!》

《글쎄 말이외다.》

작달막한 군졸이 근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자네들도 전봉준대장이 〈항자수대〉 다시말해 항복하는자는 대접을 받으며 〈추자물추〉 즉 달아나는자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령을 내렸다는 소리를 들었겠지?》

《들은것 같쉐다.》

이번엔 꾀죄죄하게 생긴 군졸이 대꾸했다.

《그러니 한양에 부모처자를 두고 여기서 아까운 목숨을 버리지 말고 둘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게. 항복하든지, 달아나든지. 그럴것없이 차라리 성문을 열어주면 전봉준대장한테서 상을 받게 될걸세.》

두 군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하더니 작달막한 군졸이 오선생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것을 보증할수 있소?》

《내 임자들한테만 말하네만 전봉준대장은 내 친구야.》

너무도 떳떳하고 의젓하게 말하는 오선생의 태도에 믿음이 갔던지 두

군졸은 또 서로 마주보았다.

《그렇게 하겠수다.》

두 군졸은 성문으로 내려가 제 동료들을 또 설복시키는 모양이였다.

오선생은 성안사람들에게 저항하는 놈들은 처치해치우라고 지시했다. 10여명의 젊은이들이 병쟁기들을 가지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성문에서는 군졸들이 아웅다웅하고있었다. 대다수의 군졸들은 문을 열어주자고 하는데 두세놈이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었다. 비도들을 돕는것은 역적질이라는것이였다.

오선생은 큰소리로 웨쳤다.

《저놈들이 역적이다. 없애치워라!》

그러자 성안의 젊은이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성문열기를 반대하는 군졸들에게 와 달려들어 단숨에 처단해버리였다.

때를 타서 다른 군졸들이 제꺽 성문을 활 열어제꼈다.

이때를 기다리고있던 전봉준은 순령수 태봉이에게 우렁찬 소리로 령을 내렸다.

《대취타하라!》

《알겠소이다.》

새납소리들이 울리고 북과 징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수천명의 농민군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일시에 열린 성문으로 밀고들어갔다. 그 기세가 어찌 맹렬했던지 김문현이며 민영승네는 물론 모든 군졸들이 무기를 쥐버리고 줄행랑을 놓았다.

온 성안의 백성들이 떨쳐나 입성하는 농민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선화당에 지휘처를 정한 전봉준은 우선 감영의 창고들을 열며 악질관리들과 부호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을 비롯한 성안의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제 9 장

새야 새야 파랑새야

1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자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제꺽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무쯔는 내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와이샤쯔단추를 채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꾜의 날씨가 늘 그렇듯이 흐릿했으나 벌써 6월이라 사꾸라도 한물 지고 이제는 신록이 무르익어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했다.

그의 집무탁앞에서는 서기가 내각회의에 가지고 갈 문건들을 그의 가방에 넣어주고있었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귀따갑게 울렸다.

무쯔는 턱짓으로 서기더러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예, 외무대신 무쯔각하의 방입니다. 계십니다.》

전화를 받던 서기가 송수화기를 든채 무쯔에게 말했다.

《웬 부인이 각하와 전화를 바꾸어달랍니다.》

좀 시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자리로 온 무쯔는 선채로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송수화기에서는 어딘가 귀익은 녀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 무쯔요.》

《아, 외무대신각하세요? 야에예요.》

무쯔는 저도 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조심성없이 아침부터 집무실에 전화하다니… 무쯔는 서기쪽에 슬쩍 눈길을 돌렸다. 눈치빠른 서기가 슬며시 방에서 나가는것을 본 무쯔는 서기도 무슨 냄새를 맡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가 대답이 없자 야에가 좀 조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여보세요, 제 말을 들어요?》

《듣소.》

《떠나갔어요.》

야에는 아마 남편이 집에 없다는것을 알려주느라고 전화하는 모양이였다.

《알고있소.》

《그런데 왜 오시지 않아요?》

야에의 목소리는 노염기어린듯도 했고 교태를 부리는듯도싶었다.

《좀 조심하라구, 야에. 아침부터 집무실에 전화를 걸면 어떡해.》

무쯔는 마뜩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그럼 어데다 전화를 해요, 집에는 부인이 있는데. 여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싫어졌어요?》

젠장, 전화로 못하는 소리가 없군, 교환수들이 다 듣겠는데. 그리고 당장 내각회의에 가야겠기에 긴말할 사이도 없었다.

《여보시오, 나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후에 만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한 무쯔는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덜컥 걸어놓았다.

통화가 끝난것을 알아차린 서기가 다시 방에 들어와 가방을 마저 꾸리였다.

무쯔가 양복차림을 끝내고 거울앞에서 빗으로 머리를 빗고있는데 또 전화종이 울렸다.

송수화기를 든 서기가 《예예.》하고 몇마디 하더니 무쯔에게 고개를 돌렸다.

《각하, 좀전의 그 부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없다고 하오.》

무쯔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송수화기에 대고 몇마디 하고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서기의 얼굴에 야릇한 웃음이 어리는것을 본 무쯔는 불쾌감을 느끼며 언짢게 물었다.

《문건을 다 넣었소?》

《예.》

서기는 아닌보살하며 공손히 대꾸했다.

마차를 타고 내각청사로 오면서 무쯔는 서기가 야에에 대해 눈치를 챘으면 갈아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에는 어쩐다? 아직은 좀더 두고 보자, 벌써 버리기에는 아까운 계집이니까.

내각청사의 원형회의탁에는 거의 모든 각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총리는 없었다. 총리가 나타나는 시간이 곧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였다.

무쯔가 빈자리에 가앉으며 여러 각료들에게 머리를 끄덕여 인사를 하는데 마침 총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자리에 가앉는것이였다.

굵다란 빠삐로스를 피워물며 의자등에 제빠듬히 기대앉는 총리 이또 히로부미의 낯색이 어두웠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각료들도 모두 침울한 기색이였다.

이윽고 이또총리가 빠삐로스를 손에 든채 발언했다.

《어제 중의원은 끝내 〈내각의 행위에 관한 탄핵상주안〉을 채택하였소. 이 상주안이 재결을 받으면 우리 내각은 무능하다는 책임을 지고 조기해체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쯔는 이제야 총리이하 모든 각료들이 기분나빠하는 태도가 리해되였다. 무쯔도 상주안이 채택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그닥 심중시하지 않았다. 정치란 주머니 많은 옷처럼 언제나 여러가지 묘안이 마련되기때문이였다.

내무대신 이노우에가 성난 기색으로 투덜거렸다.

《그렇게는 안될것이요.》

내각회의에 륙군성을 대표하여 참가한 참모차장 가와가미 소로꾸중장이 40대의 사나이답게 결기있게 한마디 하였다.

《무엇때문에 내각이 우물쭈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만이 내각도 제국도 구원할수 있지요.》

소로꾸중장은 신통히 자기 무쯔와 꼭같은 생각을 말하였다. 그러나…

《중장, 그걸 누가 모르오? 외교상의 출병구실을 찾지 못해 그러지.》

무쯔가 이렇게 설명하자 가와가미는 어이없어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거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군복쟁이들은 저렇게 단순하다니까.》

이노우에가 눈을 흘기며 뇌까렸다.

가와가미가 웃몸을 젖히며 군인다운 결기를 가지고 말했다.

《옳습니다, 우린 공격이냐, 방어냐 둘중의 하나이니까.》

그는 작년에 몇달동안 조선과 청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며 정탐노릇을 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참모부성원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정세의 변화를 탐지하도록 하였다. 그는 륙군성의 첩보관계책임자로서 그의 정보에 의해 륙군성은 조선에 대한 군사동원준비를 극비밀리에 진행하고있었다.

이또가 담배를 재털이에 눌러끄고나서 단호하게 언명했다.

《나의 결심은 이렇소. 우리 정부에 대한 중의원의 탄핵상주안을 기각시키기 위해 마지막수단으로서 의회해산에 관한 천황폐하의 칙서를 요청하자는것이요.》

거의 모든 각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무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죄송스러워하는듯 한 표정을 지으며 이또쪽을 바라보았다.

《총리각하, 제 생각을 말씀드리랍니까?》

《어서.》

이또는 겸허한 태도를 취했다.

《아까 가와가미참모차장도 언급했습니다만 오직 군사적행동만이 우리 내각이나 제국의 난국을 타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배경이 없는 정치나 외교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청국과의 전쟁만이 국민력량, 지어 국회까지 총동원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내각에 쏠리는 국민이나 국회의 반항의 눈길을 외부에 쏠리게 해야 한다는것은 정치에서 상식이 아닙니까.》

잠시 말을 끊은 무쯔는 이또총리에게 눈길을 주었다. 이또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계속하라고 고무하였다.

무쯔는 열띤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내각은 금년정초부터 조선에서 일어난 민란이 확대되여 그것을 기화로 조선에 출병하며 조선을 우리의 독점적지배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 갑오년에는 기어이 청국과의 전쟁준비에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대로 조선의 내란은 지금 수습할수 없을 지경으로 확대되고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중흥의 기회는 언제나 있기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호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은 우리 제국의 생명선입니다. 우선 시급히 거류민보호를 명목

으로 동학란이 확대되고있는 조선에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해병대와 함께 한개 혼성려단을 급파하며 이를 위해 전시최고통수부인 대본영을 설치하고 제5사단에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참모차장의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무쯔는 참모차장 가와가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다른 각료들의 눈길도 가와가미에게 쏠렸다.

대단히 만족한 표정을 띠운 가와가미는 우선 무쯔에게 가벼운 목례로 경의를 표시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외상각하의 결의에 대찬성입니다. 청국 리홍장관하의 정병이 4만인데 그중 3만가량을 조선에 파견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평양부근에서 일전을 벌려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을 모조리 우리 세력권으로 만드는것도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가와가미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각료들을 둘러보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각에 몇가지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제국황군은 4년전인 1890년에 청국과의 전쟁준비를 기본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륙군병력은 근위사단을 포함하여 7개 사단, 6개 헌병대, 혹가이도주둔전병 약 1만명을 합하여 현역군인 5만 3천명, 예비역까지 합하면 25만 6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각료들이 놀란 눈으로 가와가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와가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계속했다.

《해군은 25척의 군함에 10척의 수뢰정을 보유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군력이 또 얼마나 장성했겠는가는 제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모든 각료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호응을 표시했다. 그중에서도 이또총리가 제일 만족스러운 기색으로 무쯔와 가와가미를 바라보았다. 울적하던 내각회의의 분위기가 조선정복이 선차라는 무쯔의 한마디의 발언으로 명랑하고 활기에 넘치게 되였던것이다.

이또 히로부미는 득의만면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벽에 걸린 현액판을 가리켰다. 현액판에는 한문으로 《개척만리파도포국위우사방》이라고 갈필로 씌여져있었다.

《메이지천황의 저 어지를 보시오. 〈만리파도를 헤치고 국위를

만방에 떨치라〉. 제군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 내각요인들이 엄숙하게 서서 이또총리를 바라보았다.

이또는 랭혹한 표정으로 부르짖었다.

《우리 제국정부는 이미 천황폐하의 국권확장주의를 대륙정책으로 결정하였소. 드디여 대일본제국의 국위를 선양할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고있소. 제국은 조선반도를 정복하고 그를 발판으로 청국의 만주와 중원, 로씨야의 씨비리로 국권을 확장하여 나갈것이요. 야마도의 팔굉일우는 반드시 실현될것이요. 금년에는 조선에서 청국세력을 내몰고 조선을 우리의 독점적인 지배지로 만듭시다.》

《하!》

이날 밤 외무대신 무쯔의 집무실에서 무쯔, 참모차장 가와가미 소로꾸중장, 조선공사 오또리 게이스께가 밀의를 벌리고있었다.

《명치15년의 〈임오군란〉과 명치17년의 〈갑신정변〉 등 사변들은…》

방안의 주단우를 거닐면서 무쯔가 말하고있었다.

《우리가 청국을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청국보다 군력이 약하고 게다가 손을 늦게 쓴탓으로 두번 다 우리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출병은 반드시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조선에 출병한 청국군대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들이밀어야 하며 전격적이여야 합니다.》

무쯔가 가와가미에게 고개를 돌리니 그는 머리를 끄덕거리고있었다.

《이에 대해 군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가와가미가 손을 내흔들었다.

《전적인 찬동입니다. 군부는 이미 히로시마행재소에 계시는 천황폐하의 재결을 받아 대본영을 설치하고 제5사단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륙군대연습에 필요하다고 하여 일본우선회사 선박들까지 징발하여놓았습니다.》

무쯔의 우묵한 눈확속의 눈빛이 기쁨으로 번쩍였다.

《군부에서도 범연하지 않을줄은 알고있었습니다만 그처럼 면밀하게 준비하고있을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든 조선문제에 대해 정부와 군부사이에 이처럼 아무 의견상이도 없다는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

다.》

《〈정한〉은 우리 야마도의 숙원이 아닙니까. 마찰이 있을수가 없지요.》

가와가미가 이런 말을 하자 무쯔는 창백한 낯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열띤 소리로 뇌였다.

《옳습니다, 〈정한〉은 내자신에게 있어서도 일생일대의 념원입니다. 그런 숙원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숨을 쉬고있겠습니까. 그 숙원, 그 념원이 올해에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허…》

무쯔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거 내가 너무 미리 기뻐하는게 아닙니까?》

가와가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청군을 물리치는것쯤은 문제가 아니니 미리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무쯔는 오또리공사앞에서 멈춰섰다.

《오또리공사.》

《하.》

무쯔보다 나이가 열두살이나 더 먹은 늙은이인 오또리 게이스께공사는 무쯔앞에 바지에 두손을 딱 붙이고 섰다.

오또리를 바라보는 무쯔의 뇌리에는 모든 쾌락중에서 가장 큰 쾌락이 권력이라고 한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만족감으로 즐거워졌다.

《제국의 운명은 조선공사인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알고있습니다.》

오또리는 긴장감으로 굳어져있었다.

무쯔는 여전히 마음이 즐거웠다. 하지만 우정 엄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시국이 급변하여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을 사이가 없을 때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시오. 무슨 소린지 알겠소? 이건 만약 청국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단독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것이요.》

《알겠습니다.》

《우선 대리공사 스기무라에게 일본군의 출병을 조선정부에 통고

하라고 하시오.》

《하.》

무쯔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동된 가와가미중장도 한마디 하였다.

《우리도 제9려단장 오오시마소장을 혼성려단장으로 임명하여 인천으로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이 대대적으로 감행되게 되였다.

2

경복궁 동온돌 앞마당쪽으로 틀진 걸음을 옮기던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이들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세사람 다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가슴과 등에 쌍학흉배를 붙였으며 발에는 목이 긴 가죽신인 검은 목화를 신고있었다.

이들은 조정에서 혁신관료로 불리우는 개화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였다.

나라의 급속한 변혁을 위해 싸운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과는 달리 이들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 혁신관료들은 현존정권을 개량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변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동온돌 앞마당으로는 근심에 싸인 환관들과 궁녀들이 종종걸음치고있었다. 요즘은 저들만이 아니라 온 궁성안이 근심과 불안에 싸여 분위기가 무거웠다. 고종의 후계자인 세자 척이 중병에 걸렸던것이다.

세 관리들의 얼굴에도 측은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김홍집이 동온돌에서 나와 어데론가 급히 가는 한 젊은 내시를 불렀다.

《리내시, 이리 좀 오시게.》

리내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앞에 와서 읍을 하였다.

김홍집이 그에게 온화하게 생긴 둥실한 얼굴을 숙일사 하고 좀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동궁마마의 병환이 어떠신가?》

리내시가 공경스럽게 대척했다.

《병환이 더 깊어진것 같소옵니다.》

《저런…》

제일 나배기인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김윤식이 이러며 혀를 찼다.

이번엔 40대의 관료인 낯색이 검스레하고 눈빛이 번뜩이는 어윤중이가 내시의 곁으로 다가섰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미인 그는 어느해 여름에 사형장에 내버려둔 김옥균가족의 시체를 묻어주었다는 것이 드러나 벼슬에서 떨어진적도 있는 사람이였다.

《중전마마께서는 어찌하고계시나?》

《야단났어요. 마마께서는 수라, 침수 다 전폐하시고 동궁마마의 이마전을 지키고계시옵니다.》

김윤식이가 뒤짐을 지더니 선자리걸음을 하며 탄식했다. 그도 수구파의 박해를 받는 사람이였는데 수구파들은 그를 국왕폐립음모사건에 가담하였다는것으로 류배살이를 시켰다.

《허어, 이러단 큰일나겠소.》

《리내시는 지금 어데로 가던길인가?》

김홍집의 물음에 리내시는 또 공손히 대답했다.

《중전마마께서 제중원에 가서 안련(알렌)의사를 모셔오라 하옵기에…》

제중원이란 미국인 알렌 등이 세운 현대식병원이였다.

《어서 그리하시게.》

리내시는 선절을 하고나서 다시금 종종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그의 뒤모습을 쫓던 김홍집이 다른 두사람을 바라보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대감들은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동궁도 동궁이려니와 저렇게 심뇌하시다간 중전께서 견디여내지 못하십니다.》

말은 이렇게 했으나 김홍집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농민군의 전주성점령과 관련하여 열리는 오늘의 어전회의에 민비가 세자의 중병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게 말이외다.》

김윤식이 뒤짐진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의 얼굴에도 김홍집이와 같은 표정이 어려있었다.

김홍집이 먼저 발길을 뗐다.

경복궁 동온돌 복도로 왕진가방을 든 미국공사관 서기관이며 선교사에 의사이기도 한 알렌이 큰 키를 휘저으며 걸어왔다. 리내시가 그를 안내했다.

알렌이 합문밖에 이르자 조상궁이 안에 대고 조심스럽게 소리쳤다.

《중전마마, 안련의사가 등대하였나이다.》

《…》

합문안에서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조상궁이 좀 큰 소리로 다시 아뢰자 안에서 시름겨운 민비의 목소리가 나직이 울리였다.

《드시라 해라.》

궁녀들이 합문을 열어주자 알렌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노란 장판우에 세자 척이 두툼한 비단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젖은 수건이 얹혀있었다.

아들의 머리맡에 수심에 잠겨 앉아있던 민비가 알렌에게 근심어린 미소를 지어보였다.

《어서 앉으세요.》

알렌은 민비에게 조선식으로 머리를 깊이 숙인 후 그앞에 역시 조선식으로 바로앉았다.

《왕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다시 근심스러운 미소를 띠우고 이렇게 말하는 민비에게 알렌은 친절하게 대척했다.

《우리야 벗이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세자전하를 좀 보겠습니다.》

민비는 뒤로 물러나앉고 알렌은 세자가까이 다가앉아 그를 진찰했다. 그는 세자의 입에 체온기를 물리고나서 청진기로 환자의 가슴을 진찰했다. 이윽하여 그는 세자의 입에 물렸던 체온기를 뽑아보더니 자못 놀라는것이였다.

민비는 뒤전에서 기대어린 눈길로 알렌을 지켜볼뿐이다.

알렌이 민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폐염 같습니다.》

《폐염?!…》
민비가 저윽 놀라는데 합문밖에서 승지의 소리가 울렸다.
《상감마마 듭시오.》
민비와 알렌이 몸을 일으켜 방안으로 들어오는 고종을 맞았다.
알렌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말을 했다.
《전하, 안녕하십니까?》
고종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아는 내색을 했다.
《안련 오셨소.》
고종이 앓고있는 세자의 머리맡에 앉자 민비도 고종의 곁에 앉았다.
고종은 세자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허어, 불덩이로군.》
고종이 놀란 소리를 하자 민비가 또 나직이 여쭈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곤전의 안색도 말이 아닙니다.》
《신첩이 어미구실을 못한 죄 막중하옵니다.》
고종이 알렌쪽에 머리를 돌리고 당부했다.
《의술이 고명한 안련선생이 좀 힘써주시오.》
알렌은 고종에게 머리를 숙이고나서 말했다.
《전하,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도이췰란드에서 발명한 아스피린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약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린 고종은 민비에게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나가버리고말았다.

어전회의는 경복궁 인정전의 편전에서 열렸다. 일월병(병풍)을 둘러친 편전의 보료우에 고종이 근심어린 기색으로 앉아있고 그앞에 왼쪽으로부터 령의정 심순택, 판중추부사 김홍집, 좌의정 조병세, 우의정 정범조, 친군경리사 민영준 등 시원임대신들이 자리를 정하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왼쪽구석에는 도승지가, 오른쪽구석에는 자그마한 책상에 지필묵을 놓고 사관(력사기록관)이 앉아있었다.
김홍집은 나라의 중대사를 거론해야 하는 오늘의 회임장소를 옥좌가 놓이고 신하들도 시립하고 서있어야 하는 공식적인 전각으로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편전으로 택한 고종의 심리가 리해되였다.

이윽하여 고종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뗐다.

《경들도 알고있겠지만 동학비도들이 전주성을 함몰하였소. 전주는 우리 렬성도의 발상지일뿐더러 경기전과 조경묘를 모신 곳인데 실로 전고에 없는 변이요. 량호초토사 홍계훈이는 전보장계에서 청국에 차병하자고 주달하였는데 시원임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기색이다.

고종이 령의정 심순택에게 눈길을 주었다.

《수반인 령상부터 말씀을 하시오.》

조정의 수반일뿐만아니라 나이도 제일 좌상인 심순택은 가슴우에 드리운 흰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고나서 신중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전라감사의 전보장계등본과 량호초토사의 전보장계등본을 다 보았소옵니다. 감사된자 마땅히 죽기로써 성을 지켜 싸워야 할 일이온데 성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태조대왕의 위패를 모신 경기전과 신주를 모신 조경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니 이런 한심한자가 있사오리까. 참으로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심순택이 말을 끊고 고종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다른 중신들도 그를 따라 머리를 숙였다.

심순택이 다시금 수염을 쓸어내렸다.

《량호초토사가 청나라에 차병할 일을 주달하여온것도 또한 한심한 일이옵니다. 자국에 어엿한 병정이 있으면서 무엇하러 타국에 군대를 청하오리까? 전하, 통촉하옵소서.》

좌의정 조병세와 우의정 정범조도 머리를 숙였다.

《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조정의 제일 웃자리에 있는 3정승이 한본새로 타국에 원병함을 반대하니 좌중은 엄숙해졌다.

그러자 민가들의 우두머리인 친군경리사 민영준이가 발끈하여 3정승쪽에 대고 어성을 높였다.

《참 답답들 하오이다. 전주성이 비도들에게 떨어지고 지금 삼남에 창궐한 비도들이 여기 한양을 범하겠다고 병장기를 벼르고있는판인데 그런 셈평좋은 말씀들만 하십니까?》

심순택이가 민영준이를 언짢게 흘겨보며 힐문했다.

《그럼 대감은 차병하자는 홍계훈이의 장계를 따르자는거요? 으음.》

민영준이는 늙은 네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턱을 잔뜩 쳐들고 마주 힐책했다.

《별수 있소이까? 어험.》

심순택은 차병문제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벌이나 되는 민가두목 민영준이가 놀아대는 꼴이 불쾌하여 채머리를 떨며 소리쳤다.

《허어, 나는 불가(반대), 불가, 대불가요!》

고종은 늘 하듯이 창백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이윽고 고개를 든 고종의 눈길이 김홍집한테 가멎었다.

《판부사대감은 어찌 생각하시오?》

김홍집은 심정이 복잡했다. 민가네들이 저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어이 청국에 차병하려 할것은 뻔한 일이였고 그들에게 의거하고있는 국왕 고종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것은 대낮에 해를 보는듯 한 일이였다. 그러나 3정승이 결사반대하고있는바와 같이 외국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고종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이윽고 김홍집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외국에 차병하자는 말이 나온것은 만부득이한 일인줄로 소신은 생각하옵니다. 하오나 령상대감의 반대는 차병이후의 복잡한 사정에 기인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도 그런 념려가 없지 않은줄 아옵니다.》

《그러니 판부사대감은 어쩌자는거요?》

고종이 김홍집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런데 김홍집이 먼저 이번에는 민가일족의 우두머리들중의 하나인 민영달이가 입을 열었다.

《차병은 대국인 청국에서도 있은 일이옵니다. 〈태평천국란〉 때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청조정이 영국에 차병하였던 일도 있사옵니다.》

고종은 이번에도 김홍집에게 그것을 확인시켰다.

《판부사대감, 그런 일이 있소?》

《있긴 있사옵니다. 하오나 우리의 경우는 그와는 사정이 판 다르옵니다. 우리가 청국에 원조를 청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것이 아니옵

니다. 〈천진조약〉에 의해 청국은 출병에 앞서 이를 일본에 통고할터인즉 그 통고를 받고 일본이 가만있지 않을것으로 소신은 생각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홍집의 눈빛은 날카로왔고 어조는 강경했다.

《그러니 청국이 출병하면 일본도 출병한다 그 말이겠소, 대감?》

《그러하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심순택은 또 흥분과 격분으로 하여 채머리를 떨었다.

《하오면 이 땅은 청일량국의 전쟁터로 되옵니다. 아니, 아라사(로씨야)군대도 남하하고 영국도 극동함대를 인천에 파견하게 될지 모르오이다. 부디 통촉하옵소서.》

《음.》

고종은 또다시 이마를 문질렀다.

영달이가 조소를 띠우고 뇌까렸다.

《령상대감, 두억시니는 볼수록 커진다구 합디다. 원, 걱정두 팔자외다.》 민영달은 고종을 향해 계속 말했다. 《상감마마, 동학란은 내란이지 전쟁이 아니옵니다. 내란에 린방의 원조를 바라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청하지도 않은 일본이 설마 망동이야 하겠습니까.》

《설마… 그 설마를 믿을수 있나. 설마가 사람잡는다는데…》

혼자소리로 중얼거린 고종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김홍집은 문득 민영준이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주의가 미쳐 좌중을 둘러보았다. 방금전까지 기염을 토하던 그가 분명 자리에 없었다. 그가 왜서 자리를 떴는가?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인가.

그가 이런 기우에 잠겨있는데 불현듯 합문이 열리며 낯색이 표표한 민비가 오던 걸음새 그대로 방안에 들어오더니 고종의 옆 보료우에 앉는것이였다.

중신들은 황급히 부복하였다.

《중전마마께 문안드리오.》

민비는 신하들의 인사에는 대척도 하지 않고 쌀쌀하게 내뱉았다.

《어서 말씀들 하세요. 나도 들어봅시다.》

김홍집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는 민영준이 앉아있던 자리에 머리를 돌렸다.

종전까지 비여있던 그 자리에 또다시 민영준이가 앉아있었다. 고

개를 쳐든 그의 얼굴에 득의양양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왜들 말씀이 없으십니까?》

다시금 표독스럽게 뇌이던 민비는 별안간 폭탄터지듯 바락 고함질렀다.

《도승지!》

소리가 어찌 컸던지 편전안을 쩌렁 울렸다.

《에잇.》

도승지는 뎬겁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전주성이 비도들에게 떨어졌다는 변란을 왜 나한테 품하지 않았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쩔쩔매던 도승지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가까스로 입을 벌렸다.

《저 동궁마마께옵소 중환에 계시고 또 중전마마의 뇌심초사가 하 딱하기에…》

《흥, 구실은…》

이렇게 내쏜 민비는 차거운 눈길을 들어 중신들을 훑어보았다.

《대감들은 뭘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도들이 전주성까지 타고앉았는데 셈평좋게 갑론을박하고 왈가왈부하며 허송세월합니까! 비도들의 기치가 뭔지 대감들은 모르십니까? 〈구병입경〉, 〈진멸권귀〉입니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올라와 권문귀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것입니다.》

민비는 안타까움에 잠겨 하소하듯 절절하게 말을 계속했다.

《대감들은 벌써 저 임오의 군란과 갑신의 변란을 다 잊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신들이 폭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동학비도들은 대감들을 진멸,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는것입니다. 그래 눈을 펀히 뜨고앉아 생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고종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생각들 해보세요. 임오년의 군란때나 갑신년의 변란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었습니까? 대국이, 청나라의 군대가 아니였다면 어찌될번 했습니까? 폭도들이나 역적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이번도 같습니다.》

민비의 말을 듣는 민영준의 얼굴에 비양기어린 웃음이 떠올랐다. 그

는 언젠가 자기가 청국장수 원세개를 대인, 대인이라 하면서 섬긴다고 꾸짖던 민비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저도 청나라를 대국, 대국하면서… 하지만 그는 웃음을 가무리고나서 입을 벌렸다.

《대감들은 우리가 청나라에 차병하면 〈천진조약〉에 의해 일본도 우리 나라에 출병한다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전에 원대인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일본은 지금 내각과 국회사이, 야당사이에 국정을 두고 의논이 분분하여 저들의 거류민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낸다 해도 한개 중대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정도…》

민영준이를 불이 이는 눈길로 쏘아보던 어윤중이가 참을수 없었던지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비를 향해 읍을 한 자세로 섰다.

《전하, 청나라를 쳐물리치고 우리 나라를 혼자 집어삼키려고 10년동안 앙앙불락하면서 군비를 확장한 왜나라가 이번 기회에 절대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김홍집은 매사에 과단성있게 처신하는 어윤중이가 얼마나 미덥고 고마운지 몰랐다.

김홍집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량위전하, 우리 삼천리무궁화근역이 일본의 어육이 되는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도록 재삼재사 성려하옵소서.》

그러자 늙은 령의정 심순택이가 우들우들 떨며 또 몸을 일으켰다.

《중전마마, 부디 통촉하옵시오.》

채머리를 떨며 이렇게 뇌이는 그의 눈굽에 눈물이 질적히 고여있었다.

민비는 눈을 꾹 감았다. 하지만 그는 그 무슨 나라의 운명을 두고 재삼재사 심사숙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에 반발해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초지일관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녀인이였다.

김홍집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민중전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다. 오늘도 중병에 걸려 신고하는 아들 세자로 하여 다른 일에는 정신이 없을줄로 알았는데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아들도 무가내하고 정사에, 국사에 기어이 참여하여 독판을 치는 민비를 보고 김홍집은 그의 끝없는 권세욕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무서운 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종과 민비의 훈령을 받은 민영준이 청국공사관마당에 들어서니 마침 원세개가 자기 말에게 먹이를 주고있었다. 민영준은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급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원대인, 마침 계셨구료.》

《아, 민로야시오.》

허리를 펴는 원세개의 둥그런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느때와 달리 심각한 민영준을 흘끔 치떠본 원세개는 자기 애마의 고삐를 나무줄기에 비끄러매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민영준은 성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민영준은 력대 사대주의자들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사대주의자였다. 그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대국으로 섬기는 청나라에 의거하여 자기네 민씨정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썩 아래인 원세개를 부형처럼 섬기는 판이였다.

자기 방에 들어선 원세개는 민영준에게 의자를 권하고나서 말했다.

《민로야가 오리라고 믿었소.》

민영준의 얼굴에 의아해하는 기색이 어렸다.

《그건 어떻게?》

《전주가 동학군에게 떨어지지 않았소?》

《소식도 빠르군.》

혼자소리로 중얼거린 민영준은 원세개에게 간청했다.

《실은 그 일때문에 왔소. 원대인, 우릴 좀 도와주시오. 우리 국왕전하의 어명으로 귀국에 청병하러 왔소.》

《그래야지요.》

원세개는 응당한 일이라는듯 선뜻 응낙했다.

《아, 고맙소. 원대인은 늘 이렇게 시원시원해서 좋다니까.》

민영준은 너무 기뻐 입을 벌리고 웃었다.

《난 민로야가 좀더 일찍 올줄 알았는데.》

《지금 오는것두 의논이 분분한걸 꾹 눌러놓고 오는 길이요.》

《의논이 분분하다?》

원세개의 큰 눈에 의혹의 빛이 어렸다.

《청국이 출병하면 〈천진조약〉으루 일본두 출병한다는거지요.》

《일본? 일본은 걱정마오.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일본은 지금 국내사정으루 타국일에 관여할 형편이 못되오. 혹 출병하더라도 거류민보호로 한개 중대나 올가.》

《아, 그렇소! 거 반갑구료.》

민영준의 낯에는 다행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빛이 가득 비꼈다.

《왕비는 어떤 태도요?》

원세개의 물음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다.

《중전? 중전마마가 바로 청나라에 차병하라고 주장했소.》

《음.》

원세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떡거렸다.

《어서 북양대신 리중당(리홍장의 호)로야에게 전보를 치시오.》

《오늘이 며칠인가?》

《6월 초사흘이요.》

3

원세개를 통해 조선정부로부터 원병을 요청받은 리홍장은 즉시 륙해군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천진조약》에 따라 6월 7일 이 사실을 일본에 알렸으며 일본도 조선에로의 파병을 청국에 통보하였다.

6월 8일 직예제독 엽시초, 산서태원진총병 섭사성과 북양해군제독 정여창은 기선 《도남》, 《해안》, 《해정》에 1 500명의 군대와 산포 4문, 구포 4문의 장비를 싣고 충청도 아산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일본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대부분이 아산방면의 여러 지역에 머물러있었다.

한편 일본상비함대사령관 이또오는 군함 《마쯔시마》, 《지요디》에 륙해군을 싣고 6월 9일 인천에 침입하였다. 같은 날 군함 《야헤야마》호로 인천에 입항한 조선주재 일본공사 오또리 게이스께는 6월 10일 륙전대 420명과 야포 4문을 끌고 서울에 들어간다는것을 조선측에 통고하였다.

이런 사실앞에서 조선의 조정은 국상을 당한것처럼 벌컥 뒤집혔다. 고종과 중신들은 망지소조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군대를 들이밀고 있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편전에서 고종이 울상이 되여 이렇게 말하니 령의정 심순택이 채머리를 떨며 탄식하듯 뇌였다.

《애당초 차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이제 그런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소?》

고종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우의정 정범조가 고종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상감마마, 중전마마의 생각을 들어봄이 어떠하올지…》

《중전?…》

《소신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김홍집도 정범조의 건의를 지지해나섰다. 결자해지라고 나라가 이처럼 위급한 경우에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민비자신이 처리하라는 노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고종은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정작 못했을가 뉘우치며 제꺽 명하였다.

《도승지 듣거라. 중전더러 어전에 들라고 해라.》

《알아모셨사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도승지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시킨 김홍집이 고종에게 여쭈었다.

《상감마마, 소인이 대행하도록 해주옵소서.》

《판부사대감이?》 의아쩍은 표정을 짓던 고종은 이어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도록 하시오.》

김홍집이 민비의 처소인 건청궁 옥호루에 이르니 민비는 생각에 옴해 앉아있고 등뒤에서 어린 시녀가 그의 어깨를 자그마한 종주먹으로 두드리고있었다.

《이쪽.》

민비가 손을 들어 바른쪽어깨를 가리키니 시녀는 황급히 종주먹을 그의 바른쪽어깨로 가져갔다.

김홍집은 지금 민비가 어깨보다 마음이 더 쏘고 괴로우리라는것을 알

고있었다. 민비가 시녀더러 어깨를 두들기게 하는것도 실상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그것을 잊으려고 군손질을 하는것과 같은 경우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홍집은 민비앞에 부복하였다.

《소인 문안드리오.》

그제야 고개를 든 민비의 얼굴에 일순 당황하고 게면쩍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언제 오셨소?》

민비의 목소리도 여느때와 달리 풀이 죽어있었다.

《방금 왔소이다.》

민비는 등뒤의 시녀를 돌아보며 독촉했다.

《뭘하니? 대감님께 깃방석을 가져다드리지 않고…》

평소와는 다르게 수선을 떠는듯 한 민비의 태도를 보고도 김홍집은 민비가 몹시 옹색해한다는것과 그것이 차병문제에서 자신이 범한 죄책감에 기인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닐세라 민비는 어색한 웃음을 띠우며 입을 열었다.

《대감은 지금 차병일로 날 욕하고있겠지요?》

《소인이 어찌…》

《호—》

김홍집이 겸허하게 대척하자 민비는 한숨을 내쉬였는데 그것은 녀인의것과 같지 않은 불같은 한숨, 땅이 꺼질듯 한 한숨이였다.

자존심이 류달리 높은 민비의 이런 태도를 대하고보니 김홍집은 타매와 질책과 함께 그에 대한 련민과 동정심이 갈마쳤다.

그는 모든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공화제가 아니라 《어명》, 《어지》라고 하는 국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것이 결정되는 절대군주제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고종이나 민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김옥균의 개화파들도 정변을 단행하기 전부터 고종과 민비를 쟁취하기 위해 부심하였고 또 그것이 성사됨으로 해서 정변을 일으킬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과격급진파적인 그들이 민비의 수족들을 성급히 처단해버리고 그로 하여 민비가 개화파에 등을 돌려댐으로 하여 결국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있는 김홍집이였다. 고종에 대한 민비의 절

대적인 영향력을 잘 알고있는 그는 어떻게 해서든 민비를 움직여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믿고있기에 오늘도 도승지대신 자기가 민비의 처소에 먼저 왔던것이다.

《전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홍집의 말에 흐려있던 민비의 눈이 반짝 생기를 띠였다.

령리한 민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군 했다. 다만 자존심이 강하기에 타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제나름대로 분석하여 마치도 자기가 고안해낸듯이 말할뿐이였다. 민비의 이런 습벽도 알고있기에 김홍집은 회임에 앞서 그를 알현하기로 했던것이다.

그렇다. 민비를 어떻게 납득시키는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윽고 김홍집은 정색한 기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청, 일 량국의 출병이 우리 민란에 등대고있은즉 하루바삐 아니, 한시바삐 동학란을 평정해야 하옵니다.》

머리가 잘 도는 민비는 벌써 김홍집이 말하고저 하는바를 짐작한 모양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면 동학군과 화의를 하고 그들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하옵니다.》

김홍집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민비는 다그쳐물었다.

《그건 어떻게?…》

《동학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들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것이옵니다. 〈척왜〉, 〈척화〉를 주장하는 그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입니다. 동학군과 화의를 이룩하고 나라에 안정이 깃들면 일, 청 량국군이 우리 나라에 머무를 구실이 없어질게 아닙니까?》

김홍집의 말을 들은 민비는 눈을 간잔조롬히 뜨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그의 얼굴은 혈색좋은 처녀애들마냥 빨갛게 상기되고 눈은 류다른 광택으로 빛발쳤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신심에 넘친 어조로 뇌였다.

《대감, 어전으로 갑시다.》

앞장에서 결기있게 걸어오는 민비를 보고 승전색(승지)이 황급히 아뢰였다.

《중전마마께서 듭시오.》

궁녀들이 성급히 열어준 합문으로 민비는 오던 걸음 그대로 멈춤없이 내전으로 들어갔다.

중신들이 급급히 부복하였다. 민비는 그들의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중전마마, 문안드리오.》

중신들의 인사소리는 이전처럼 경의의 어조는 전혀 없이 마지못해하듯이 시들하게 들렸다. 오늘의 이 화단을 빚어낸 장본인이 민비이고보니 어찌 그러지 않으랴.

민비는 고종의 옆 보료에 가앉았다.

고종은 아무 말없이 덤덤한 기색이였다.

중신들이 앉아있는 편전안을 일별한 민비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아니, 왜들 이리 시르죽은 상을 하고있어요?》

고종이 못마땅해하는 기색으로 안해 민비의 말을 주대없이 그대로 따른 자신을 탓하는듯 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설마에 나라가 망하게 됐소.…》

이렇게 말한 고종은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하, 청하지도 않은 일본군이 계속 밀려드니…》

민비는 고종의 말에는 개의치 않고 민영준이에게 지금 우리 땅에 들어온 청일 량군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다. 민영준은 왜나라 군대의 수는 8천으로 근 1만에 가깝고 청나라군대는 2천 5백명뿐인데 그들은 왜군과 마찰이 두려워 모두 아산에 주둔해있다고 떨떠름하게 중얼거렸다.

민비는 민영준이를 탓하는지 아니면 그의 말을 믿은 자신을 책하는지 모를 개탄하는 투로 나직이 뇌였다.

《거류민보호를 위해 고작 한개 중대, 백명을 보낸다던 왜나라가 그것의 백배가 되는 1만명을 보냈으니 파렴치하기란…》

중신들은 짓숙인 이마너머로 민비를 언짢게 흘겨보기도 하고 입을 비쭉거리기도 하였다.

《불청객은 쫓아버려야 합니다.》

너무도 확신적인 민비의 말에 중신들은 물론 고종까지 《어떻게?》하는 호기심과 기대가 어린 눈길을 민비에게서 떼지 못했다. 영민한

민비의 머리속에서 엉뚱한 생각이 곧잘 떠오르군 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자면 지금 전주성에 머물러있는 비도들과 시급히 화의를 맺어 그들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중신들이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민비를 긴장하게 주시하였다.

민비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화의는 간단히 이룩될수 있습니다. 동학비도들도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이니만치 자기들이 일으킨 변란으로 하여 청, 일 량군이 진주했는데 척왜척화를 부르짖는 그들이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할 것 같습니까?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들은 전주성을 내놓고 흩어져갈것입니다.

우리가 화의를 이룩하고 나라에 안정이 깃들면 청, 일군이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을 구실이 없어질게 아닙니까?》

고종은 물론 모든 원로중신들이 감격과 감동에 겨워 머리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환희에 가까운 희열의 물결이 일었고 입에서는 찬탄의 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중전마마, 과시 현명한 대안이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중전마마!》

민비도 환히 빛나는 낯으로 말을 이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홍계훈이한테 전보를 쳐서 동학군과 화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홍집은 이 모든 광경을 히죽이 웃으며 바라보았다.

4

짚신감발을 하고 등에 괴나리보짐을 진 태봉이가 서울에 당도한것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한낮때였다. 음식점에 들려 장국밥 한그릇을 사먹은 그는 곧장 동소임 권벽의 집으로 갔다. 전봉준이가 그에게 권벽

을 통해 서울정세를 알아오라고 했던것이다.

그를 만난 권벽은 걱정스럽게 일렀다.

《자네 급히 전대장한테루 되돌아가야겠네.》

태봉이도 긴장되였다.

《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일두 큰 일이 생겼네. 오늘 외아문에 있는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저 조정의 쓸개빠진 대감들이 동학군을 평정해달라구 청나라에 차병했는데 글쎄 지금 청국뿐만아니라 왜놈들까지 우리 나라에 군대를 들이밀고있다네. 이거 정말 큰일났네.》

태봉은 대뜸 욱해서 소리쳤다.

《우리 일에 타국놈들은 왜 끼여들어요!》

《글쎄말이지. 불 난 집에 도적이 든다더니… 우리 나라를 먹으려구 이놈들이 전쟁을 할지도 몰라. 좌우지간 빨리 전대장에게 전하게.》

《알겠습니다. 전대장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태봉이는 권벽에게 절을 하고 자리를 일었다.

권벽의 집대문을 나선 태봉이는 빠른 걸음을 옮겼다.

그가 어느 골목을 지나가고있는데 저쯤 앞에서 곱게 차려입은 처녀애가 한 다리를 들고 깡충깡충 깨꾸막질을 하며 돌차기를 하고있었다. 나이는 태순이또래나 됐을가. 그런 처녀애들을 보기만 하면 혹시 태순이가 아닐가 하여 눈여겨보군 하는 태봉이지만 저렇게 잘 차려입은 애가, 더우기 서울장안에서 노는 애가 우리 동생일수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애는 태순이가 분명했다. 오매불망 그리운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을 어찌 잊을수가 있으랴!

《이 애, 너 태순이 아니가?!》

너무도 뜻밖의 감격으로 태봉이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묻자 처녀애는 잠시 올롱한 눈으로 태봉이를 쳐다보았다. 하더니 급기야 《으앙!》 울음을 터뜨리며 태봉이한테로 달려왔다.

《오빠야!—》

하늘같고 땅같은 오빠의 품에 안긴 태순이는 발을 구르고 조그만 종주먹으로 태봉의 가슴을 두드리며 기쁨과 설음에 겨워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태봉은 그저 가슴이 그들먹하여 귀여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냘픈 등어리를 어루쓸어주기만 하였다.

얼마후 마음이 다소 진정되였을 때 태봉은 동생의 그간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태순이의 두서없는 말을 통해서도 태봉은 그간 어린 동생이 겪은 고생살이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사람들의 집에서 걱정없이 살고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세상에는 왜놈들이나 강주사네와 같이 악착한 놈들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래 네가 살고있다는 고마운분들의 집은 어디냐?》

《이 집이야.》

태순이는 바로 옆에 있는 자그마한 대문이 달린 보통 기와집을 손을 들어 가리켜주었다.

《이 집이냐? 어른들이랑 오빠랑 계시냐?》

《아버지, 어머니는 계시는데 오빠는 어데 나갔어요.》하고 대답한 태순이는 제먼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뜨락으로 뛰여들어가며 소리쳤다.

《어머니! 우리 오빠가 왔어요!》

아래방문이 열리더니 흰저고리에 반물색치마를 입고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안늙은이가 마루에 나섰다.

《누구라구?》

공씨가 태봉이를 바라보며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다.

태순이가 공씨앞으로 태봉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우리 오빠예요.》

태봉이도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첨 뵈옵겠습니다. 제 태순이 오래빕니다.》

얼굴에 웃음을 활짝 피운 공씨는 무척 반가와하며 덤벼쳤다.

《뭘 그러고 서있나? 어서 올라오게.》

태봉이에게 이렇게 이른 공씨는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여보 령감, 태순이 오라버니가 왔군요.》

짚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선 태봉은 옷의 먼지를 털고나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아래목에서 무엇인가 깎고있던 엄하게 생긴 늙은이가 고개를 쳐들었다. 태봉이는 선채로 허리를 굽혔다.

《아버님, 귀체만강하십니까?》

늙은이의 얼굴에도 반색하는 웃음발이 피였다.

《태순이 오래비라구? 어서 앉게.》

《예.》

방웃녘에 괴나리보짐을 풀어놓은 태봉은 무릎을 꿇고앉았다. 방안을 얼핏 살펴보아도 살림이 넉넉치 못한 집이라는것이 알렸다.

《아버님, 어머님, 제 절을 드리겠습니다.》

《절은 무슨…》 하면서도 공씨는 엄초관의 곁에 가 앉았다.

이런 절은 별로 해본적이 없는 태봉은 막상 절을 드리려고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하지만 정성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두손바닥을 장판에 대고 머리를 깊이 수그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동생을 친딸처럼 보살펴주고계시는 어르신들께 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봉이는 가슴속에서 갑자기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엄초관이 너그럽게 말했다.

《이 사람, 그쯤한 일 가지고 뭘 그러나?》

공씨도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없던 딸이 생겨 우리가 되려 좋은데…》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군식구가 하나 더 불었으니…》

태봉이는 또 목이 꺽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공씨가 이웃에 홍역관네 집이라구 점잖은 사람들이 살고있는데 그 집에서, 더우기 그 집 딸이 태순이를 친동생처럼 돌봐주고있다고 하였다. 자기넨 그저 태순이를 끼고있을뿐이지 먹을거랑 입을거랑 죄다 그 집에서 가져다준다는것이였다.

세상에는 악착한 놈들만 있는것이 아니라는 생각, 남을 도와주고 남을 아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태봉은 마음이 후더웠다. 지금은 바빠서 들릴새가 없지만 다음에 와서는 꼭 홍역관이란 분의 집을 찾아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작정했다.

《한양엔 어떻게 올라왔나?》

엄초관이 묻는 소리였다. 아직 자기 정체를 로출시키면 안되겠기

에 태봉은 적당히 대꾸했다.

《그저 좀 볼일이 있어서.》

태순이를 통해 그의 집안사정을 잘 알고있는 엄초관은 측은한 기색으로 또 물었다.

《요샌 어떻게 살아가나?》

《그저 이 일 저 일 닥치는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문득 엄초관이 두눈을 쪼프리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참, 전라도서 동학란이 터졌다는데 임자도 혹시 동학군이 아닌가?》

《저같은게 무슨…》

고마운분들앞에서 거짓말을 자꾸 하려니 태봉이는 마음이 괴로왔다. 그래서 말머리를 돌렸다.

《아버님, 어머님, 리치대로 하자면 제가 태순이를 데리고가야겠는데 지금 내 처지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니 얼마간 더 데리고 계셔주십시오. 오늘은 빈손으로 들렸지만 다음에 올 땐 인사도 드리고 태순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공씨가 손을 홰홰 내저었다.

《무슨 소릴 하나. 이제 처녀꼴이 잡히면 여기서 시집까지 보내주지 않으리. 그래도 시골보다야 도회지에서 시집가는게 낫겠지.》

《…》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하고난 태봉이는 자리뜰 차비를 했다. 공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좀 있으면 우리 아들도 오겠는데 그 애도 만나보구 또 태순이와 하루밤이라두 자구 갈게지 왜 이러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급한 일이 있어 이 길로 떠나야겠습니다.》

《급한 일이란게 뭐게?》

한 다리가 없어 바깥출입을 잘못하는 엄초관은 궁금스러워하는 표정이였다.

태봉은 지금 청, 일군대가 우리 나라에 진주하여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는것이며 또 자기는 이런 사실을 빨리 농민군대장인 전봉준에게 알려야 한다는것이며를 툭 터놓고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태봉은 다시금 두 늙은 량주에게 절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조금만 더 앉아있었어도 병무를 만났을것이다.

5

전주감영 선화당에 앉아있는 전봉준은 하늘에 눈길을 박은채 무릎을 툭툭 치기만 하였다. 곁에 앉아있는 손화중이며 김개남, 최경선이도 침울한 표정이다. 그들은 방금 태봉이한테서 서울소식이며 나라에 닥친 위급한 정세에 대해 들었던것이다.

그들을 침울하게 만든 죄가 자기에게 있기라도 한듯 태봉은 자못 송구스러워하는 표정이였다.

전봉준이 두령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다들 좀 나가들 주시오.》

두령들이 자리를 피하자 전봉준은 태봉이에게 일렀다.

《자넨 어서 옥절이를 만나보라구. 무척 기다리더구만.》

《예.》

태봉이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태봉이마저 사라지자 전봉준은 신을 신고 천천히 섬돌계단을 내려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진정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의 의거가 이런 화단을 빚어내다니?!… 우리가 정부군과 계속 싸우면 외세가, 왜놈들이 어부지리를 얻을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목전의 승리를 두고 여기에 주저앉아버린단 말인가! 서울진격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

보리장마가 들려는지 날씨도 음산했다. 나무가지들이 세찬 바람에 설레였다. 뚝 소리를 내며 나무가지 하나가 부러져내렸다.

전봉준의 말을 듣고 옥절이한테로 온 태봉은 부뚜막에서 밥사발을 들고앉아 급하게 밥을 먹었다.

옥절이가 해죽해죽 웃으며 태봉이앞에 찬그릇들을 놓아주었다.

태봉이가 갑자기 목이 메여 끅끅거렸다. 그러자 옥절이가 그의 등을 두드렸다.

《범이 따라오나. 왜 그리 급해하누.》

태봉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꾸했다.

《급하다.》

《뭐가?》

《가시나들은 몰라두 돼.》

《흥, 말끝마다 가시나야.》

이렇게 토라진 소리를 한 옥절이가 은근스럽게 물었다.

《태봉아, 이젠 어델 가지 않지?》

《전대장님 모시구 한양으로 쳐들어간다.》

《그럼 나두 갈테야.》

《이놈의 가시나가 정신나갔어.》

옥절이가 앵돌아진 기색으로 등을 돌려댔다.

그러는 옥절이를 보고 태봉은 빙그레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옥절아, 나 이번에 한양 가서 태순이를 만났다.》

그러자 깜짝 놀란 옥절이가 홱 몸을 돌리더니 눈이 둥그래졌다.

《정말이야?!》

《아무렴. 그런 거짓말두 하겠니.》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

태봉은 태순이를 만난 경위와 그가 겪은 고생을 이야기하고나서 기막힌듯 한 표정으로 말을 맺았다.

《고생두 많았지. 그 어린게 글쎄…》

옥절이는 풀썩 주저앉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었다.

태봉이도 목이 메여 밥을 먹을수가 없었다. 그는 전봉준대장한테로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캄캄한 밤이였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에는 별빛도 없었다.

전봉준은 어둠속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걷고있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무토막에 걸터앉은 두 농민군이 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것이다.

《깐깐 5월 미끄렁 6월이라더니 세월두 빠르지. 이제 어청거리느라면 7월이 지나고 건들거리는 사이에 8월이 지나가겠군.》

《어느새 씨불임철두 지났네그려.》

《집에서들은 뭘 좀 심그기나 했는지 모르겠네.》

《뻐꾸기 우는 철은 지났으니 매미 우는 철에는 집에 돌아가게 될가?》

《그런데 여보게, 난 모를 일이 하나 있네. 왜 서울로 밀고올라가지 않고 이러고있는지?》

《글쎄말이야! 이 기세루 와짝 밀고올라가면 한양성두 전주성처럼 토담 무너지듯 할텐데…》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나부네.》

전봉준은 말없이 돌아섰다. 태봉이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대장님, 밤이슬이 내리는데 들어갑시다.》

《오, 태봉인가. 왜 쉬지 않고 나왔나?》

《쉬지 않아도 기운이 솟는걸요.》

《음.》

전봉준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였다.

전주성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완산에 자리잡은 정부군의 군영에서 홍계훈이는 전보문을 보며 혼자소리를 하고있었다.

《청국과 일본에서 드디여 원병이 왔단 말이지. 음, 동학군과 화의를 하라, 동학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들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도록 하라?》

홍계훈은 전보문을 보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는 워낙 아둔패기여서 깊은 궁냥을 할줄 몰랐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원병이 왔으면 동학군놈들을 쳐버리면 되는게지 그놈들과 화의를 맺으란건 무슨 소리야?!》

그는 여전히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 천막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리고 이어 말의 효용소리가 울리더니 한 군교가 천막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홍계훈이한테 두루마리를 주었다.

홍계훈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련락군교에게 물었다.

《신임감사 김학진사또는 언제 오시게 되나?》

《곧 도임하게 됩니다. 그전에 전봉준이와 화의를 맺으라는 분부올시다. 그 두루마리를 전봉준이에게 보내랍니다.》

전주감영 선화당의 섬돌계단으로 올라간 최경선은 하늘에 눈길을 박고있는 전봉준에게 종이두루마리를 주었다.

《홍계훈이한테서 글을 또 보내여왔습니다.》

전봉준은 두루마리를 시답잖게 받았다.

《또 이 전봉준이를 잡아바치는자에게는 후한 상을 준다는 소리겠지.》

《아니, 그런것 같지 않소이다.》

전봉준은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청, 일 량국출병은 조, 청, 일 3국외교문제의 분쟁을 초래하고 어쩌면 이 땅이 전쟁터로 될수도 있으므로 동학군은 심사숙고하여 화의에 응하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조정의 통치배들이 농민군의 애국심을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글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기에 전봉준의 가슴은 더욱 괴로왔다.

최경선이가 글을 읽는 전봉준의 표정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전봉준은 우울한 표정으로 최경선을 건너다보았다.

《최참모,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가보오.》

《예? 무슨 말씀이온지?》

《놈들의 화평에 응해야 할가보오.》

최경선은 대뜸 격해서 소리쳤다.

《전선생,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놈들의 얼림수에 넘지 마십시오.》

《내 말 듣소, 최참모. 우리가 전주성에 틀고있으면 저 흉악한 왜적들이 우리를 구실로 계속 기여들텐데 이것이 〈척양척왜〉를 하자는 우리의 뜻이겠소. 왜적들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잠시 화의에 응해야겠소.》

최경선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아, 저 오랑캐, 저 철천의 원쑤를 어쩌면 좋습니까!》

최경선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최참모!》

전봉준의 목소리도 걸그렁하였다.

정부군의 군막에서 홍계훈이가 희색이 만면하여 련락군교를 치하했다.

《수고했다. 그래 전봉준이가 화의에 응했단 말이지.》

련락군교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의당 조건이 있을테지.》

《여러가지 폐정개혁조항이 담긴 원정서를 조정에서 승낙하라는겁니다. 이겁니다.》

군교가 길다란 원정서를 꺼내놓았다.

폐정개혁의 요구조건을 훑어본 홍계훈의 낯색이 심각해졌다. 자기로서는 어느 한 조항도 마음대로 승낙할 형편이 못되였던것이다.

그는 농민군이 제기한 폐정개혁안을 즉시 조정에 올려보냈다.

고종의 편전에서는 몇몇 중신들이 모여 그것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옥신각신하였다.

《아니, 전운소를 폐지하면 쌀은 어떻게 한양으로 실어나른단 말이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노비문서를 태워버리면 노비가 할 일을 누가 한단 말이요. 으음.》

《더구나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부치라니 우리더러 졸지에 알거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요. 고약한지고.》

고종의 곁 보료우에 앉아 그들이 떠드는 모양을 사무러운 눈길로 지켜보던 민비가 드디여 입을 터쳤다.

《대감들두 참 답답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씨름하고있을 경황이 있습니까? 청, 일 량군이 이 땅에 진주하여 나라의 명운이 경각에 달렸는데 한담들만 하고있으니 참…》

민비는 중신들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나서 발치에 앉아있는 도승지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도승지 듣거라. 홍계훈이에게 즉시 전보를 쳐서 동학군들이 제기하는 모든 요구조건을 즉시 무조건 접수하고 그들과 한시바삐 화의를 맺으라고 하라. 그리고 동학군들이 전주에서 철수하여 집으로 돌

아갈 때까지 그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는것을 약속하도록 하라. 전주화의는 이달 초순중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알겠느냐?》

《알아모셨소옵니다.》

전주감영 선화당에 농민군의 두령들이 모여앉아있었다.

벽에 기대여 《척양척왜》, 《보국안민》, 《진멸권귀》라고 쓴 대장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전봉준이가 비장한 어조로 엄숙하게 발언하고있었다.

《이미 알고있는바이오나 정부군과 화의를 맺었으니 오늘로 전주성을 내주어야 하겠소이다. 허나 이것은 우리가 정부군에게 패했거나 우리 사정이 막부득하여 취해진 조치가 아닙니다. 대세를 관망하고 후날을 기약하여 우리스스로가 택한 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여 명줄을 이으려는 부패한 사대적인 조정의 책동으로 청, 일 침략군이 기여들어 나라의 안위가 심히 위태롭게 된 형편에서 우리가 전쟁을 계속한다면 결국 침략의 무리들에게 어부지리를 줄수 있습니다. 하ㅡ》

전봉준은 말끝에 불같은 탄식을 내뿜었다.

두령들도 비분강개한 표정이였다.

전봉준이 말을 계속했다.

《또 우리가 여기 전주성에 붙박혀있으면 기필코 피동에 빠져 큰 손실을 당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가 유리한 시기를 기다려 재기함이 옳은 처사일줄로 압니다.

그리고 조정은 우리의 폐정개혁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상 내 소신을 말씀드렸으니 무슨 할 말씀들이 있으면 하시오.》

모두 묵묵부답이다.

최경선이 문곁에 앉아있는 화식병에게 눈짓했다.

밖으로 나간 화식병이 쟁반에 술잔을 담아들고 들어와 모두에게 한잔씩 나누어주었다.

전봉준이 잔을 높이 들고 말하였다.

《자, 그럼 뒤날을 기약하여 이 잔을 듭시다!》

두령들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술과 함께 눈물을 삼켰다.

농민군들이 전주성에서 철수하고있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매여달려 떨어질줄 몰랐다.

수염발이 구름같은 늙은이가 전봉준의 손을 잡고 애소한다.

《전대장, 우릴 두고 떠나시면 어쩝니까!》

전봉준이 늙은이를 위무하였다.

《로인님, 우린 다시 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로인이 소매를 들어 눈굽을 훔치였다. 전주성 백성들모두가 떨쳐나 농민군을 바래워주고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

어린 처녀애들이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록두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전봉준이를 추앙하여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지는 노래였다. 애조를 띤 처녀애들의 노래소리가 전주성벽우로, 푸른 하늘가로 울려갔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록두밭에 앉지 말아
록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

제 10 장

왕 궁 습 격

1

6월에 접어들어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해볕은 밝고 따뜻했고 바람도 잠풍하여 신록이 무르녹는 궁성안의 무궁화가지들에도 방금 망울을 터칠듯 한 꽃송이들이 가득 피여났다.

이 좋은 날에 경복궁 강녕전에서는 전주화의를 경축하는 연회가 한창이였다.

여느때같이 상좌에 고종이 앉아있고 옆의 발뒤에는 민비가 앉아있었다.

각상을 하나씩 앞에 놓고 앉은 문무대신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웃음이 흐르고있었으나 유독 민비만이 생각깊은 표정으로 창밖의 무궁화 꽃나무를 바라보고있다.

고종이 흐뭇한 웃음을 띠우고 입을 열었다.

《전주에서 화의가 이루어졌으니 한시름 놓게 되였소.》

중신들을 대표하여 조정의 수반인 령의정 심순택이 고개를 숙이며 아뢰였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고종이 거북스러운듯 한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그게 어디 내가 받을 인사요.》

그러자 민영준이 아첨기 흐르는 얼굴을 쳐들고 얼른 대척했다.

《참, 중전마마께서 제때에 옳은 계책을 내놓으셨기에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줄로 아옵니다.》

우의정 조병세가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씀이요.》

그제야 중신들쪽으로 고개를 돌린 민비도 얼굴에 웃음을 피웠다.

《어서 많이들 드세요.》

《황공하오이다, 마마.》

중신들모두가 민비에게 경의어린 눈길을 주며 고개를 숙였다.

민비는 조롱기어린 웃음을 띠우며 또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볼수 없는 야릇한 표정이였다.

《이제는 왜인들이 닭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이 되였지요.》

모두가 통쾌한 웃음을 웃는 가운데 판부사 김홍집이 한마디했다.

《청일간에 군대철수문제로 곧 회담할것이라고 합니다.》

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당 그래야지요.》

한나절이나 걸려 벌어진 연회에서 거의 모든 문무대신들이 취하여 늙은 령의정 심순택이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자락을 너풀거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연회가 끝난 후 고종과 민비가 있는 편전으로 판부사 김홍집이가 찾아왔다.

그들에게 정중히 절하고나서 김홍집이 말을 꺼내였다.

《량위전하께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옵니다.》

고종과 민비가 의아한 기색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충청도 직산에서 금맥이 터졌소옵니다.》

김홍집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양의 도고 최일이란 사람이 금광개발권을 자기에게 윤허해주시면 리익금의 절반을 왕실자금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최일이로 말하면 한양은 물론 온 나라적으로도 손꼽히는 갑부인데 여느 장사치들과는 달리 충정이 높은 성근한 사람이옵니다.》

《…》

고종과 민비가 얼른 대척이 없자 김홍집은 좀 안달이난 기색으로 조급히 말을 계속했다.

《량위전하, 우리도 빨리 광산도 개발하고 기차도 달리고 공장도 세워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할줄로 아옵니다. 그래야 타국군대가 함부로 이 땅을 침노하지 못할것이 아니옵니까!》

다시금 민비의 얼굴을 쳐다본 고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히 말하였다.

《그리하라. 과인이 금광개발을 윤허한다고 최일에게 말하라.》

민비도 참녜했다.

《최일에게 직산금광개발을 다그치라고 하세요.》

《알아모셨소옵니다.》

김홍집이 부복하여 절하고 물러간 후 민비는 생각깊은 눈길로 고종을 바라보았다.

《상감마마, 동학군이 전주성에서 물러갔다고 하지만 상기도 삼남 각지에 웅거해있으니 언제 또 재기할지도 모르옵니다. 그러니 빨리 신임사또 김학진이를 전주로 내려보내여 그들을 위무해야 할줄로 아옵니다.》

고개를 끄덕거린 고종은 합문밖에 대기하고있는 도승지를 불러들여 신임전라감사 김학진이를 대령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김학진이가 네발걸음으로 기여들어오더니 고종과 민비앞에 부복하고나서 호인형의 길둥그런 얼굴을 쳐들었다.

고종이 그에게 분부를 내렸다.

《넌 한시 급히 전주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거든 전 전라감사 김문현이와 전 고부안핵사 리용태는 귀양보내고 전 고부군수 조병갑이는 의금부에 잡아들였다는걸 호남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김학진은 얼른 대척했다.

《백성들이 여간 시원해하지 않을겁니다.》

《아무튼 남도백성들이 다시 들고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처해라.》

고종이 다시 그루를 박자 민비가 눈가에 랭랭한 웃음을 담고 그의 말뒤를 이었다.

《그들이 렬성조의 이 조정을 반대하는것은 아니요. 그들은 단지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폐정쇄신을 요구하고 외적을 물리치자는것이니 사또가 잘 위무해주세요. 상감마마의 어지신 은총이 골고루 미치게 말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김학진은 다시 부복하며 저으기 감복한듯 한 소리로 아뢰였다.

2

전주화의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전봉준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오래동안 아버지와 떨어져살던 어린 자식들은 물론 늙은 어머니까지도 다시는 아들과 헤여지지 않으려는듯 늘 그의 곁에 붙어있었다.

오늘도 전봉준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강물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늙은 어머니가 강녘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들을 웃음속에 바라보았다.

물장구를 치는 여섯살잡이 어린 딸 해옥이에게 열살잡이 아들 해동이가 물을 끼얹었다.

해옥이가 울상이 되여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오빠가!…》

전봉준은 도리암직하고 해말쑥한 어린 딸의 얼굴을 볼 때면 불현듯 몇해전에 병으로 죽은 안해의 모색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뜨끔해지군 하였다.

《오빠가 우리 귀염둥이를 못살게 구는구나. 혼내주자.》

전봉준은 딸과 함께 아들에게 물을 끼얹어주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달아나는 해동이, 좋아라 《까르르》 웃음발을 날리는 해옥이, 그들을 보며 늙은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지었다.

이때 강뚝너머에서 말발굽소리가 울리더니 채찍을 손에 든 천태봉이가 최뚝우에 올라서서 물속의 전봉준에게 소리쳤다.

《대장님!—》

전봉준은 웃음이 채 사라지지 않은 얼굴을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빨리 나오십시오.》

태봉이가 강뚝에서 손을 저었다.

《어쩌다 애들과 함께 있는데…》

전봉준은 등뒤에서 시름겹게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

며 강녘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곁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태봉이가 급히 아뢰였다.

《신임사또가 대장님을 뵙자고 통지가 왔소이다.》

《신임사또가…》

나직이 되뇌인 전봉준은 다시 애들한테로 다가왔다.

《아버진 어데 갔다올테니 너희들은 더 놀다 들어오너라.》

《싫어, 싫어…》

해옥이가 뾰로통해서 몸을 흔들었다.

《해옥아, 내 이제 물고기를 잡아줄게.》

그래도 해동이가 헴이 들었다고 어린 동생을 달래였다. 해동이는 다부진 몸통이며 영채롭게 번뜩이는 눈정기로 하여 벌써 아버지를 닮았다는것이 력력했다.

전봉준은 어머니에게 걸어가 인사했다.

《어머님, 제 좀…》

《어서 다녀오게.》

운무가 서린 하늘중천에서 노고지리가 우짖었다. 초여름의 정취에 잠긴 전봉준은 이삭이 누렇게 익은 보리밭사이길로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말을 끌고가는 태봉이가 한가스러운 그를 재촉했다.

《대장님, 빨리 갑시다.》

《무어 급해서 그러나? 찾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으리.》

이렇게 말한 전봉준은 감개에 잠겨 다시 입을 열었다.

《태봉이, 이런 시조 알고있나?》

《무슨 시조 말이오이까?》

전봉준은 태봉의 말에는 대꾸없이 운률을 잡아 시조를 읊조렸다.

새별 지자 종다리 떴다
호미 메고 사립나니
긴 수풀 찬 이슬에
베잠뱅이 다 젖겠다
아이야, 시절이 좋을세면
옷이 젖다 관계하랴

태봉이가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 좋은 시조군요. 아닌게아니라 호미를 들고 저 밭고랑을 타고앉아 땀을 흠뻑 흘리고싶군요.》

《좋지.》

전봉준이가 사립을 열고 자기 집뜨락에 들어서니 멍석우에 앉아있던 최경선이가 얼른 자리를 일었다.

《오십니까?》

《예.》

《신임사또 김학진이가 전선생을 만나자는 기별이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일없을가요?》

《수만군사가 있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으니 이제 곧 가겠습니다.》

《그럼 시위대로 한 백명…》

전봉준은 손을 내저었다.

《공연한짓입니다.》

《그럼?》

《마음 놓으라는데두.》

눈에 따뜻한 웃음을 띠운 전봉준은 최경선의 팔굽을 가볍게 건드렸다.

전봉준은 단신으로 전주감영의 삼문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걸어들어가는 길좌우에 관병들이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들고 서있었으나 전봉준은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의 시야에 선화당의 현액판이 안겨오고 그아래 대청에 위엄스럽게 틀고앉은 신임 전라도관찰사 김학진이며 줄느런히 앉은 관리들도 안겨왔다.

눈을 간잔지런히 뜨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전봉준을 지켜보던 김학진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의 뒤에 앉아있는 관리들도 놀라는 기색이다.

침착하게 자신있게 옮겨지는 전봉준의 짚신발, 그의 준수한 용모며 영채를 번뜩이는 눈빛에 부닥친 김학진의 웃몸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수그러졌다.

드디여 섬돌아래에 멈춰선 전봉준의 입에서 우렁우렁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내가 호남창의소 대장 전봉준이요.》

여운있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김학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어서 이리, 이리루 올라오시오.》
전봉준은 섬돌계단을 한단한단 톺아올라오더니 마루아래에 놓여있는 김학진의 갖신곁에 자기의 짚신을 벗어놓았다.
서로 마주 선 전봉준이와 김학진은 두손을 쳐들어 읍을 하였다.
《자, 앉읍시다.》
김학진이가 꼭 같은 두장의 보료를 가리켰다.
전봉준은 보료우에 태연히 앉았다.
김학진은 짐짓 너그러운 웃음을 띠웠다.
《왕림해주어 고맙소이다.》
《피차…》
《한데 막하의 장수들은?…》
김학진은 의아쩍은듯 삼문쪽을 바라보았다.
《요란을 떨게 있습니까? 혼자 왔소이다.》
《아, 그래요.》
저윽 감동된 목소리로 말한 김학진은 손세로 좌우를 물리쳤다.
관리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물러갔다.
단둘이 남게 되자 김학진은 자못 엄숙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모처럼 오시라 한것은 관민이 협력하여 도안의 치안을 유지하고 정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소신을 말씀하시지요.》
《예, 우선 우리의 요구부터 들어주어야겠소이다.》
전봉준은 품속에서 봉투를 끄집어내더니 속지를 꺼내여 김학진에게 주었다.
《이게 뭔가요?》
《우리의 시정요강입니다.》
《음.》
마른 기침을 한번 깊은 김학진은 시정요강을 소리내여 읽었다.
《첫째, 관민이 협력할사.
둘째, 탐관오리를 엄징할사.
셋째, 횡포한 부호배를 엄징할사.
넷째, 불량한 량반들은 징습할사.

다섯째,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릴사.

여섯째, 천민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의 평량갓을 벗겨버릴사…》

김학진은 문득 눈길을 들어 전봉준을 건너다보았다. 그 눈길은 좀 갈팡거렸다. 전봉준이 내세운 시정요강이라는것이 너무도 도담하고 지어무엄하게 느껴졌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전봉준의 태도는 시종 태연하고 침착했다. 김학진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나서 다시 읽었다.

《일곱째,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가할사.

여덟째, 무명잡세는 거두지 말사.

아홉째,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사.

열째, 외적과 간통하는자는 엄징할사.

열한번째,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채무는 무효로 할사.

열두번째, 토지는 평균하여 나누어 경작케 할사.》

시정요강을 다 읽은 김학진은 《후—》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였다. 자기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상감마마도 승낙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였다.

《승낙할수 있소이까?》

전봉준이 따지듯 물었다.

이 순간 김학진의 뇌리에는 동학군이 제기하는 그 어떤 요구든지 다 들어주라고 하던 고종과 민비의 분부가 떠올랐다. 그렇다, 동학군이 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김학진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이대로 시행합시다.》

《허허, 신관사또는 대틀이외다.》

전봉준이 호탕하게 웃었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나오는가싶게 크고 웅글진 웃음이였다. 이윽고 웃음을 가무린 전봉준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이 시정요강을 집행하기 위한 집강소를 매 고을에 두어야겠습니다.》

《집강소?》

김학진이 어정쩡한 기색으로 물었다.

《관아의 힘으로는 이 폐정요강을 다 집행할수도 없고 또 도내의 관

아는 거의나 유명무실한 실상이 아니웨까?》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도내 53개의 고을에 둔 집강소는 여기 전주의 대도소에서 총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학진은 또 헌헌히 응낙하였다. 《대도소는 여기 선화정에 두도록 하시지요.》

《그럼 신관사또의 거처는?》

《나는 저뒤의 등천각에 자리잡으렵니다.》

《허허… 신관사또와는 일할 재미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것은 상감마마의 어지입니다.》

김학진의 말을 들은 전봉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의혹의 빛이 짙었다.

전주삼문밖의 아름드리 버드나무줄기에 천태봉이가 방을 붙이고있었다. 그것을 보려고 사방에서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방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무슨 방일가?》

《전봉준대장이 내놓은 폐정개혁요강일세.》

《뭐라구 했나?》

《자네같은 백정의 머리에서 평량갓을 벗겨버리겠다네.》

《히야!…》

《그리구 청춘과부의 개가도 허가하겠다네.》

《천지개벽이라두 되는가베.》

군중속에 끼운 장옷 쓴 젊은 녀인이 옷고름을 눈가로 가져갔다. 그는 뒤채아씨로 불리운 강주사의 며느리였다. 그의 눈에 어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태봉의 눈에서도 끓고있었다.

3

전주화의가 이룩됨으로써 서울은 물론 전국각지에 안정이 깃들었다.

동학군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급급히 피난을 갔던 사람들도 제집으로 돌아오고 닫아맸던 점포의 문들도 다시 열렸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어렸다.

하지만 조선의 내란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던 서울주재 일본공사 오또리 게이스께의 낯은 실망으로 이그러졌다. 그가 외무대신 무쯔 무네미쯔에게 보낸 전문이 《주조일본공사관기록》기밀 제130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청나라군대는 한성에서 철수하고 평온무사하다. 동학란도 정부사이에 화의를 맺었으므로 앞으로 전보를 알릴 때까지는 이 이상의 군대파견이 필요없다.… 불필요하게 많은 군대를 조선에 상륙시키면 외교상의 분쟁을 초래할수 있을것이다.》

오또리 게이스께의 이런 전보는 일본군부와 정부의 분격을 자아냈을 뿐이다.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오또리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초지일관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들의 주장인즉 청나라 군대는 산해관이나 대고에서 인천에 직행하면 12～13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일본군은 우지나항으로부터 인천까지 40여시간이 걸려야 하므로 미리 상당한 병력을 조선에 상륙시켜놓지 않는다면 일본은 사변이 일어날 때 선손을 쓸수 없게 된다는것이였다. 무쯔를 비롯한 정부의 요로들도 군부의 주장에 적극 호응해나섬으로써 조선에는 안정이 깃들었으나 일본군대는 계속 인천에 쓸어들었다. 6월 12일 혼성려단의 선발대 800명이 인천에 기여들었으며 이어 6월 15일에는 오오시마소장이 이끄는 혼성려단의 주력부대 8천명이 인천에 상륙하여 이튿날 려단사령부를 인천수진려관에 설치하였다.

일본의 횡포무도한 처사에 누구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것이 청국이였다. 조선주재 청국대표 원세개는 일본공사관을 찾아가 오또리공사와 마주 앉았다.

《참 뜻밖입니다.》

원세개가 인사말도 없이 대뜸 이런 말을 꺼내자 오또리의 낯에는 조롱기어린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평소에 자기 아들벌이나 되는 젊은 원세개를 눈아래로 굽어보는데 습관되여있었다.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오또리가 여전히 비양기어린 웃음을 가무리지 않고 이렇게 묻자 낯

이 벌겋게 상기된 원세개는 거친 말투로 내쏘았다.

《일본이 1만명이나 되는 대군을 파견하리라고는 참으로 뜻밖입니다.》

《〈임오군란〉 때나 〈갑신정변〉 때처럼 또다시 우리가 랑패를 보면 안되니까요.》

오또리의 너무도 로골적인 말에 원세개는 그를 찬찬히 바라볼뿐 입을 벌리지 못했다.

환갑이 지난 늙데기인 오또리 게이스께는 장신의 키에 번대머리인데다 행동까지 거칠어서 보매 외교관이라기보다 무관형의 인물이였다.

이윽고 오또리가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찾아온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건기침을 깊은 원세개는 정중하게 말했다.

《귀하도 보다싶이 조선의 내란은 평정되였으니 우리 량국군대가 주둔할 하등의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량국군이 동시에 철거하자는것을 제의하는바입니다.》

인차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오또리는 주밋거렸다. 그러자 원세개가 또 들이댔다.

《에, 량국군의 주둔은 조선측의 항의와 렬강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장차 심대한 외교분단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원세개의 사리있는 말에 오또리는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귀하의 제의에 류의하겠습니다. 본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답전이 오는차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세개는 두손을 합장하여 잠간 례를 표시하고는 곧 떠나가버렸다.

이날 오후에는 조선의 외무아문(외무성)에서 오또리공사를 호출하였다. 외무독판(외무대신) 조병직이가 자못 강경한 태도로 오또리에게 조선정부의 국서를 전달하였다.

《오늘 귀하를 호출한것은 일본정부의 오만무례하고 불법무도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정부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대한 병력을 인천항에 상륙시켰을뿐만아니라 우리의 서울인 한성에까지 제멋대로 진주시켰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심히 위반되는 침략행위라고 인정하

면서 조선에 진주한 모든 일본군대를 즉시 무조건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청국정부에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서를 귀국정부에 제출하여 즉각적인 회신이 있기를 촉구하는바입니다.》

오또리는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려 이마에 내배인 진땀을 훔쳤다.

《귀정부의 국서를 본국에 제출하겠습니다.》

도꾜의 날씨는 6월인데도 벌써 한여름철처럼 무더웠다. 그래서 내각청사의 회의실천정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선풍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정부각료들은 저마끔 손에 쥔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있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선 외무대신 무쯔가 한팔을 등뒤로 가져간 자세로 발언하고있었다.

《조선정부의 국서는 아주 강력한 문투인데 한마디로 말해 동학군이 완전진압되여 국정이 평정되였으므로 일본군의 진주는 무의미하며 즉시 철병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였습니다.》

총리 이또가 무쯔를 쳐다보며 이죽거렸다.

《처녀가 아이 낳고도 할 말이 있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야 되나.》

내무대신 이노우에가 한손을 내저으며 뇌까렸다.

《그까짓 조선정부는 상관하지 맙시다. 청국이 문제인데…》

그러자 군복의 앞가슴에 훈패를 가득 달고 앉아있던 군부의 우두머리로서 륙군대신인 야마가다 아리모도가 울기오른 낯으로 한마디 내뱉았다.

《청국과의 무력충돌을 불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을 연 사람들은 일본정계의 중추를 이루고있다는 총리 이또 히로부미나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 륙군대신 야마가다 아리모도였는데 이들은 모두 쵸수번출신으로서 사쯔마번의 패거리와 함께 명치유신이후 권력을 독차지하고 정계를 좌우지하였다. 이른바 이전 번벌정치는 도중에 야당정치 등의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이 패망한 20세기중엽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였다.

한동안 턱을 쓸어만지던 이또총리가 생각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동학군진압이라는 구실이 없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게 어떨가?

청나라정부에 대하여 〈일, 청 량군이 협력하여 우선 조선의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자. 이후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나 동양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 청 두 나라가 상설위원 약간명을 내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 고 제안하면 어떨가? 말하자면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삼잔 말이요.》

여러 대신들은 이또총리의 기발한 착상에 좀 어안이 벙벙한 기색이였다. 부채질을 멈춘 그들은 서로 마주 쳐다볼뿐 입을 벌리지 못했다.

자신의 발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흥분한 이또는 목을 빼들고 나비넥타이를 바로잡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단우를 거닐기 시작했다.

《에, 조선의 내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조선의 내정을 틀어쥐고 우리의 구미에 맞게 료리하자는것이요.》

무쯔가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질렀다.

《총리각하, 아주 그럴듯합니다. 만점입니다.》

이노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표시했다.

《정말 명안이요.》

그러나 륙군대신 야마가다 아리모도대장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한데 청나라가 우리의 제의에 응해나서지 않으면…》

이또가 걸음을 멈추고 야마가다한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럼 더욱 좋지. 청국을 제껴놓고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무쯔가 또 입을 열었다.

《총리각하, 오늘 내각결의를 그렇게 락착지읍시다. 그런데 제 생각엔 총리각하의 제안에 두가지 조항을 첨부했으면 합니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 제빠듬히 앉은 이또가 좀 으시대는 기색으로 무쯔를 건너다보았다.

《말해보.》

《첫째로.》 무쯔가 팔을 쳐들고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청국과 협상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선에 파견한 군대를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는것과 둘째로, 만약 청국정부가 우리 제안에 찬동하지 않을 때에는 일본은 독자적으로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을 강행시킨다는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내각결의를 청국에 통보할 때에는 그 두개 조항을 로출시키지 않는것이 좋겠소.》

이또의 말에 무쯔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약간 숙여보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16일 외무대신 무쯔는 일본주재 청나라공사 왕봉조를 만나 내각회의결정을 통보하고 그것을 본국에 전달하여 회답을 받도록 요청하였다.

청나라공사는 《우선 청, 일 량국이 군대를 철수시킨 후에 조선의 선후책을 론의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회담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무려 5시간동안 계속되였으며 마침내 집요한 무쯔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6월 21일 청국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공식회답을 보내여왔다. 거절리유는 다음의 세가지였다.

첫째로, 조선의 내란이 이미 평정되였으므로 청, 일 량군이 협력하여 이것을 진압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로, 조선의 개혁을 조선자신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는 없을것이며 셋째로, 《천진조약》에 《조선의 사변이 평정되면 청, 일은 각각 자기 군대를 철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청, 일 량군이 철수하는것은 응당하며 론의할 여지가 없다.

거절을 기다리고있은듯이 무쯔는 이튿날인 6월 22일 청국이 렬거한 모든 조목에 론박을 가한 공문을 청국공사에게 보냈다. 거기에는 현재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자기 나라 군대를 절대로 철수할수 없으며 이제부터 청국이 어떤 방향을 취하든 일본은 단독으로 자기가 세운 방침대로 나갈것이라고 씌여있었다.

무쯔자신도 후날 이것을 《청국정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외교단절통지라고 할수 있다.》고 하였다.

청, 일 량국의 교섭은 일본측의 거부로 결렬되여버렸으며 이제는 조선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힘에 의한 대결밖에 남지 않게 되였다.

4

한동안 안정치수를 긋던 서울의 정계기상도는 또다시 오르기 시작

했다.

병무는 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념두가 나지 않아 그저 아정이가 가르쳐준 영어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웃방에서 포개놓은 이불에 기대여 무릎에 펴놓은 책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유 스피크 잉글리쉬?(당신은 영어로 말할수 있습니까?)》

이때 아래방에서 목기를 깎던 아버지 엄초관이 묻는 소리가 울렸다.

《병무야, 너 산에 가려니?》

병무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자 좀 선선한 웃목의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던 공씨가 꿰진 소리를 했다.

《집안이 삼순구식하는데 그까짓 무술은 닦아서 무엇하노.》

《부인은 참견 마오.》

엄초관이 위엄있게 한마디 일렀으나 공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않았다.

《옛글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구 가정을 구제하고 그다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구 했대요.》

엄초관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부인이 〈대학〉(옛책)에 있는 식자를 다 외우구…》

《제 집안을 구제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구원한다는거요?》

이때 밖에서 주인 찾는 소리가 울렸다.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는 공씨의 뒤를 쫓던 엄초관이 아들이 있는 웃방쪽에 다시 눈길을 주었다.

《요즘 왜놈군대가 경인가도를 뒤덮구 멋대루 한양까지 진주하는걸 보니 대세가 심상치 않다.》

병무는 사이문을 열고 아래목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척했다.

《소문에 청나라와 왜나라사이에 전쟁이 일어날것 같다 하더이다.》

《나두 들었다.》 고개를 끄덕인 엄초관은 이어 아들에게 물었다.

《얘 병무야, 너두 이제는 군적에 몸을 두어야 하지 않겠니?》

《저두 생각중입니다.》

《그래야 할것 같다. 천일양병이 일일용병에 있다구 네 무예도 오늘같은 때를 기다려 닦은게 아니겠니.》

《예.》

이때 토방에서 공씨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병무야, 홍역관댁 문안하님이 널 찾아왔다.》

아버지에게 얼른 눈길을 준 병무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정이네 하녀 이월네가 얌전히 고개를 숙이며 고운 목소리로 아뢰였다.

《우리 주인 홍역관께서 도련님을 뵙겠다구…》

《무슨 일루?》

《쇤네 까닭을 모르오이다.》

병무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가보거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병무는 다시 이월네에게 고개를 돌렸다.

《곧 간다구 전갈해라.》

《알았소옵니다.》

이월네가 대문밖으로 나선 후 병무도 옷가지를 입고 집을 떠났다.

아정이네 집대문밖에 이른 병무가 주인을 찾기 바쁘게 대문이 열리며 반색하는 아정의 얼굴이 보였다.

병무가 눈으로 사랑방을 가리키며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가 물으니 웃음을 문 아정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영문을 알길 없는 병무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사랑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니 푸짐하게 차린 두리반을 가운데 놓고 앉아있던 홍역관과 도고 최일이가 그를 반겨맞아주었다.

《어서 오게, 기다리던중일세.》

이렇게 말하는 홍역관에게 병무는 방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다.

《선생님,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난 여전하이. 자, 어서 편히 앉으라구.》

병무는 최도고에게도 반절을 하고나서 장판의 노전우에 앉았다.

《한데 무슨 일루?》

병무가 의혹이 어린 눈을 쳐들고 이렇게 묻자 최도고가 웃음어린 낯으로 대꾸했다.

《오늘이 역관선생님의 생신날일세.》

그 말을 들은 병무는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저, 그런데 시생은…》

《그럴것 같아 이월네에게 일체 발설하지 말라구 했네.》

최도고가 말머리를 돌렸다.

《자네 참 대단한 격술가라더군.》

《괜한 헛소문입니다.》

병무는 열적게 중얼거렸다.

《온 장안에 소문이 짜하네.》

이렇게 말한 최도고는 거북스러워하는 병무의 곁으로 한무릎 다가앉았다.

《자네 나와 일할 생각이 없나?》

《저, 무슨 일이온데?》

《뭐 별일 아닐세. 이따금 심부름이나 해주면 되지.》

《…》

병무는 대답을 망설였다. 보나마나 최도고가 시키는 일이란게 장사일일텐데 어쩐지 시답지않아보였고 더우기 아버지가 응낙하실지 두렵게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러자 최도고가 너그럽게 웃으며 병무를 설복했다.

《내가 이래뵈두 뭍에서는 물화객주요, 물에서는 선상객주일세. 내 자네한테 월봉으로 매달 100원씩 주지.》

《…》

그래도 병무가 대답이 없자 최도고는 초조한 기색도 없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허, 이 사람, 100원이 적은 돈이 아닐세. 자네 조정의 월급표를 한번 들어보겠나? 조정의 수반인 정1품 령의정이 300원이요, 종1품 독판(대신)이 200원이요, 정2품 협판(차관)이 150원, 그아래는 80원에서 15원사일세.》

그러자 비난기어린 웃음을 띠운 홍역관이 최도고에게 핀잔을 주었다.

《허허, 장사군들이란… 언제 정부요로들의 월급까지 알아두었나. 그리구 젊은 사람을 장사길로 꼬드기지 말게.》

홍역관의 말에 최도고가 대뜸 낯을 붉혔다.

《아니, 개명했다는 홍역관도 그런 몽매한 소리를 하오. 오늘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였소. 그건 장사를 천시했기때문이요. 사농공

상이라 해서 선비, 농사군, 쟁인바치 다음으로 상인을 제일 하바닥쇠로 취급하구 또 수무짐전이라 해서 량반은 돈을 주무르지 않는다고 돈을 천시하다보니 나라가 거지꼴이 된거외다. 무릇 상업이란 물산이 유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의 이동이외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이 상인이구요. 상업이 활발해야 물산이 풍요해지고 살림이 윤택해지는 법인데 하, 이 조선의 고라리량반들은 손가락을 빨면서도 군자의 도만 외우고있었으니… 돈없는 사람이 천대받듯이 부력이 약한 나라가 업신받는거야 당연한 리치가 아니겠소.

상업을 장려하여 국내는 물론 먼 타국과도 교역을 활발히 벌렸더라면 우리 나라는 이미 부국강병국이 된지도 오랠것이외다.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외다.》

이렇게 열변을 토한 최도고의 얼굴은 울기가 올라 붉게 상기되였다. 그는 병무의 무르팍을 꾹 쥐며 부드럽게 일렀다.

《아무때건 저기 아래다방골로 나를 찾아오게.》

집으로 돌아온 병무는 한동안 착잡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젊은이였다. 굳잠에 곯아떨어진 병무는 새벽녘까지 내처 잤다.

문득 《꼬끼요!》하는 닭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여난 병무는 잠자리에 누운채 기지개를 켰다.

아래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게 우리 닭울음소리 아니요?》

《글쎄…》

다시금 닭울음소리가 울리고 그와 함께 공씨의 넉두리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저것까지 일곱마리가 다 수닭이구나.》

아버지도 입이 쓴지 《음.》하고 건기침을 툐았다.

《팔자 사나운 년은 마디에 옹이요, 닭알에도 뼈가 있다더니… 아이고.》

어머니 공씨가 끝내 울음소리를 냈다.

《이거 그만두지 못하겠소.》

《닭알이나 모아 팔아볼가 했더니 아이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병무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였다. 다

시 고개를 쳐든 병무의 얼굴에 오뇌가 어려있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병무는 방문을 열었다.

조반짓는 연기가 자욱히 어린 골목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그의 가슴에서 《가정을 구제 못하는자 어찌 나라를 구원하랴》하는 내심의 소리가 울렸다.

최도고의 집 솟을대문밖에 이른 병무는 잠시 망설였다. 대문짝에는 《천하태평춘》, 《사방무일사》란 단구가 붙어있었다. 그가 단구를 들여다보고있는데 등뒤에서 말소리가 울렸다.

《왔나?》

병무가 뒤를 돌아보니 최도고가 웃음띠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주밋거리는 병무의 어깨를 몇번 툭툭 두드린 최도고는 안에 대고 호기있게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대문이 얼른 열리고 청지기가 송구스럽게 허리를 굽히였다.

《쥔님, 빨리 갔다 오셨습니다.》

최도고는 청지기에게 대문에 붙은 단구를 가리켜보이며 일렀다.

《이 첩지를 떼버리게. 사방에 야단난 일뿐인데 무일사라니…》

최도고는 병무에게 대문안을 가리켰다.

《들어가세.》

최도고를 따라 그의 사랑방에 들어선 엄병무는 으리으리하게 차려놓은 가장집물을 눈이 둥그래서 둘러보았다.

그에게 앉으라고 손세로 가리킨 최도고는 문갑을 뒤적이며 말했다.

《자네 우리가 하는 일을 장사일로만 생각지 말게. 우리 나라를 부국강병국으로 만드는데 한몫 기여한다고 여겨야 하네. 하기에 국왕전하와 왕비전하께서도 우리의 광산개발을 윤허하셨을뿐만아니라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계시네.》

병무의 곁으로 다가온 최도고는 그와 마주 앉으며 말을 계속했다.

《자네 충청도 직산에 갔다와주어야겠네. 그곳에서 금맥이 터졌는데 우리는 거기서 금광을 개발하려는걸세. 가거든 금전촌에서 덕대노릇을 하는 온종일이란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에게 이 어음쪽을 주고 그곳에 당분간 머물러서 거기 형편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돌아오게.》

최도고는 병무에게 어음쪽을 넘겨주며 말을 이었다.

《2만 5천원짜리 어음일세. 그리고 이건 자네께 주는 선불금 100원일세. 갔다오면 또 생각해보지.》

갑자기 묵돈을 받아쥔 병무는 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는 최도고의 기색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다.

《도고어른은 원체 이렇습니까?》

《뭐가?》

《사람을 함부로 믿는 성미 말입니다.》

《믿지 않고야 큰일 못하지.》 흔연히 대척한 최도고가 말을 이었다. 《오늘 하루는 길 떠날 차빌 하고 래일 아침에 떠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고 최일의 집대문을 나선 병무는 집으로 가던길에 먼저 아정이네 집부터 찾았다. 자기가 충청도로 내려가 얼마간 있어야 할터이니 아정이도 그렇고 그의 부모들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야 도리일것이 아닌가.

아정이네 집 대문밖에 이른 병무가 좀 열적은 마음을 다잡고 주인을 찾으니 자박자박 신발끄는 소리에 이어 대문이 빠금히 열리더니 문안하님 이월네가 얼굴을 빠금히 내밀었다.

《아이, 도련님!…》

병무를 본 이월네는 사뭇 당혹한듯 뜨락으로 달려들어가며 소리를 쳤다.

《아씨, 마님, 도련님이 오셨에요.》

아래웃방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웃방에서는 아정이가, 아래방에서는 아정의 어머니 정씨가 밖을 내다보았다.

정씨가 성급히 마루를 나서며 이월네에게 일렀다.

《어서, 어서 모셔드려라.》

《예.》

대문께로 달려나가는 이월네를 보고 어쩔줄 몰라하던 아정이가 도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기쁨과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두손으로 감쌌다.

병무가 뜨락으로 들어서니 정씨가 손을 저으며 반색했다.

《아이구, 도령 얼굴 보기가 힘들구먼.》

병무는 점잖게 허리숙여 인사했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정씨는 절을 받는둥마는둥하며 웃방에 대고 소리쳤다.

《아정아, 엄도령 오셨다.》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온 아정이가 단정히 앉아 한 무릎을 세우고 절하였다.

《도령, 어서 올라가시우.》

정씨는 마냥 기쁜듯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정의 방으로 들어와 그와 마주 앉은 병무는 수틀에 낯을 돌렸다. 수틀에는 물우로 떠가는 한쌍의 원앙새가 곱게 수놓아져있었다.

병무는 원앙새를 가리키며 웃었다.

《이건 나구 뒤의건 아정씨.》

《아이참 도련님두…》

아정이는 수집은듯 아미를 숙였다. 그러던 아정이는 고개를 쳐들고 병무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는 정염의 불꽃이 어려있었다.

《도련님, 소녀 시조 한수 읊으랍니까?》

병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정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시조를 읊조렸다.

두눈에 고인 눈물
진주나 되량이면
청실홍실 길게 꿰여
님께 한끝 보내련만
…

병무는 그만 정애를 참을길 없어 아정의 희고도 작은 손을 덥석 잡았다.

《아정이.》

《병무씨.》

사랑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이들 청춘남녀는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듯 한 무아경속에 잠겨버렸다.

이윽고 자신을 다잡은 병무가 아정이에게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나

가자고 했다. 잠시 망설이던 아정이는 장옷을 쓰고 그를 따라나섰다.

마음이 마냥 즐겁기만 한 병무는 한발 떨어져 걷는 아정이를 돌아보았다.

《우리 점포에 들릴가?》

《거긴 뭣하러.》

《따라오.》

병무는 아정이를 이끌고 언제인가 인형을 산바 있는 그 점포로 들어갔다.

중로배인 점방주인이 그들을 반겨맞았다.

《어서 오시오.… 가만, 낯이 익다?… 옳지, 언젠가 인형아기를 사간 젊은이들이구먼.》

병무는 낯을 좀 붉히며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예,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젊은네들두 안녕하셨소?》

《저, 옥가락지 있나요?》

《있다마다.》

점방주인은 매장을 뒤적이더니 비취색옥지환을 꺼내여 병무에게 주었다.

병무는 그것을 받아 아정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꼭 맞는구만. 다음엔 금가락지를 사주지.》

병무와 아정이를 갈마보던 점방주인이 능청스럽게 물었다.

《화촉지연을 올리시려우?》

《예.》

병무가 시치미를 떼고 대척하자 아정은 부끄러워 어쩔바를 몰라하더니 몸을 돌렸다.

《몰라요.》

점방주인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때 벌써 남스럽지 않다 했지. 젊은네들은 개화군이구만. 난 우리 마누라쟁이를 낯도 코도 모르고 얻었지요. 하기사 어디 나뿐인가.》

점방문을 나서자 아정이가 병무에게 의아스럽게 물었다.

《저 병무씨, 돈은 어디서?…》

병무는 그저 벙글서 웃기만 했다.

《대답해요, 돈이 어데서 생겼어요?》

《왜 강도질했을가봐 그러오?》

《아이참, 무슨 말씀.》

《우리 어머니말씀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즉 가정을 구제 못하는자 어찌 나라를 구원하랴고 하던데 장차 아정이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먹여살리자면 지금부터 돈구멍수를 봐둬야 할게 아니요.》

《음, 별 실없는 말씀도…》

하며 아정은 눈을 곱게 흘겼다.

병무가 집에 돌아오니 후어머니 공씨가 아궁이앞에 쪼그리고앉아 불을 때고있는데 시름에 겨워 멍청히 불길만 바라보고있었다.

맹물이 끓고있는 가마곁의 바가지에는 한줌이 되나마나한 보리쌀이 담겨져있었다.

병무는 어머니에게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좀전까지 목기를 깎더니 지금은 한숨 쉬시는가부다.》

병무는 말없이 품속에서 돈을 꺼내여 공씨의 손에 쥐여주었다.

공씨는 와뜰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이게 웬 돈이냐?!》

병무는 정겹게 웃었다.

《어머니가 쓰시라는 돈입니다.》

더욱 놀란 공씨는 눈이 커졌다.

《아니, 대관절 이게 얼마냐?》

《원래는 백원이였는데 제가 먼저 얼마 좀 썼습니다.》

《뭐?… 백원?!…》

공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관절 이 많은 돈이 어데서 생겼느냐?》

아정이도 어머니도 돈을 보고 왜 놀라기만 하는가. 나한텐 돈이 생기면 안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 병무는 시무룩이 웃었다.

《벌었지요.》

《중말?》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합디까?》

공씨는 감격에 사무쳐 병무를 와락 그러안았다.

《네가 별안간 장원급제라두 했느냐?!》

공씨는 풀썩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물었다. 병무가 그를 일으켜세우며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돈을 보고 우는이는 어머니밖에 없겠어요.》

공씨는 코물, 눈물을 닦으며 동에 닿지 않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대견해서, 기뻐서…》

《어머니, 아직은 아버님한테 아무 말씀도 말아야 합니다.》

《응, 응…》

《제가 이젠 다달이 돈을 드릴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10년세월 산속에서 도를 닦더니 그게 은을 내는가보구나. 병무야, 넌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두 난 널 언제나 내가 낳은 친자식으로 여긴다.》

《저두 알아요.》

병무는 공씨에게 래일 아침 충청도 직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얼마간 머물러있어야 할것 같다고 말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5

상사람차림새로 짚신감발에 등에는 괴나리보짐을 지고 머리는 수건으로 동진 병무가 산길을 걷고있었다. 충청도 직산으로 가는 길이다. 버선등이며 감발에는 누런 흙먼지가 덮이고 얼굴은 뙤약볕에 검실검실하게 타버렸다.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산아래로 흐르는 넓고 푸른 강물이 굽어보였다. 마침 나루배가 물녘에 닿아 선객들을 부리고있었다.

달음박질로 나루터에 이른 병무는 마감손님으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배안에는 류랑민가족이 타고있는데 사공은 의외에도 방년의 처녀였다.

삿대질로 나무배를 강녘에서 끌어낸 사공처녀는 삿대를 놓고 노를 잡

았다.

이때 강기슭에서 왜가리청으로 지르는 소리가 울렸다.

《여, 나루배, 오라!》

강기슭에서 언제 나타났는지 서넛되는 일본군사들이 손저어 부르고있었다.

사공처녀는 낯을 찌프리며 배를 되돌려세웠다.

나루배가 기슭에 닿자 전기줄을 등에 지거나 어깨에 걸멘 왜군통신병들이 배전에 뛰여올랐다.

놈들을 보며 병무는 일본군대가 한양에 기여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언제 여기까지 손을 뻗쳤는지 모를 일이라고 놀라마지않았다.

사공처녀는 무심한 태도로 노만 저었다. 강물의 반사광이 그의 얼굴에서 아롱거렸다.

왜병들이 심심했던지 구레나룻이 거밋한 한놈이 사공처녀에게 지분거렸다.

《처녀가 어떻게 사공노릇을 하나?》

처녀가 잠자코 노질만 하니 왜병이 발칵 성을 냈다.

《대답도 안해, 방자한 년!》

그제야 사공처녀는 외면하고 대척하였다.

《아버님이 앓으셔서…》

《음, 효녀로군.》

《구레나룻》이 신푸녕스럽게 중얼거리자 넙적한 상판에 안장코인 다른 왜병이 음탕한 눈길로 사공처녀의 몸매를 훑어보며 이죽거렸다.

《제법 비징(미인)인걸. 벌거벗고 노를 저었으면 더 볼만 하겠는데.》

《그래그래, 볼만 하겠어.》 다른 놈이 맞장구를 쳤다. 《사공아가씨, 알몸으로 노를 젓지 않겠소? 그럼 돈을 줄테요, 많이.》

《허허…》

왜병들은 호색적인 웃음을 흘렸다.

사공처녀는 수통심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니 분노로 입을 옥물었다. 문득 그의 입에서 야무진 소리가 튀여나왔다.

《거기서 알몸뚱이로 쇠줄을 메고 다니시구려.》

사공처녀한테서 놀림을 당한 왜병들이 대뜸 노발대발해서 떠들었다.

《빠가! 건방진 조선년!》

《고노야로(짐승같은 년)!》

배전에서 일어선 왜병들이 살기띤 표정으로 사공처녀한테로 다가가더니 《구레나룻》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놋대를 놓아버린 사공처녀가 뺨을 감싸쥐였다. 처녀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또다시 주먹을 쳐드는 《안장코》의 손목을 병무가 틀어잡았다.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보는 《안장코》의 낯을 병무는 불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짓이요!》

병무가 놈들을 꾸짖자 《안장코》는 코웃음치며 뇌까렸다.

《이건 어디서 나불거진 개뼉다구야! 이 손을 놓지 못해!》

병무가 손목을 놓아주자 놈이 불시에 그를 후려쳤다. 병무의 눈에서 불꽃이 튀였다. 격분으로 얼굴을 찌프리며 그도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안장코왜놈이 허궁 날아 강물에 처박혔다.

《고라, 칙쇼(개자식)!》

다른 왜병들이 병무에게 욱 달려들었다.

좁은 배안에서 병무는 놈들과 격투를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그의 드센 주먹과 발길에 채워 강물에 떨어졌다. 그러자 한 놈이 총을 꼬나들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병무는 물속에 뛰여들었다. 거기에 대고 왜놈들이 총을 쏘았다.

충청도 직산땅에 들어선 엄병무는 움막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금전군 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어렵지 않게 이름이 별스러운 덕대 온종일의 집을 찾았다.

병무는 품속에서 어음쪽을 꺼내 온종일에게 주었다. 어음쪽을 받은 중년의 온종일은 병무를 이윽히 훑어보았다. 병무는 다시 품속에 손을 넣어 도고 최일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를 받아 읽어본 온종일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병무에게 말을 건넸다.

《도고어른은 편안하신가?》

《예.》

온종일은 의아한 눈길로 편지며 병무를 갈마보더니 물었다.

《한데 편지며 어음쪽이 물에 젖었구만. 자네 옷도 상기 눅눅한것 같구. 물에 빠졌댔나?》

《예.》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병무는 나루배에서 벌어진 일을 털어놓기가 싫어 그저 얼버무렸다.

《별찮은 일로 물에 빠졌댔습니다.》

《음.》 고개를 끄덕거린 온종일은 다시 물었다. 《그래 이곳에 얼마나 머무르려나?》

《글쎄요. 도고께선 덕대어른의 말을 따르라고 했소이다.》

《마침일세. 나를 좀 도와주게. 할 일이 산같으이.》

6

조선의 정세는 평온무사하니 당분간 군대파견을 중지해달라는 자기의 제기를 무시하고 본국(일본)정부가 계속 군대를 파견하는데 대해 긴장되여있던 오또리 게이스께공사는 외무대신 무쯔가 보낸 지령전보를 보고 와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령에는 이제부터 일본은 청국을 배제하고 단독행동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조선국내의 행정, 사법, 재정의 제도상 개혁, 개선을 실시하도록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인천에 있는 모든 병력을 한성에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무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과 같은 정세하에서는 내친 걸음으로 달려 청국과의 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전쟁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야 비로소 제국정부의 본심을 알아차린 오또리는 배에다 힘을 주며 뇌까렸다.

《요시(좋아)!》

그는 즉시 인천의 수진려관에 틀고있는 제9려단장 오오시마소장에게 전부대를 이끌고 서울에 올라와 만리창과 아현일대에 주둔시켜 무력을 과시하며 남산과 북악산에 포대와 진지를 구축하여 한성을 무력으로 제압해야겠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종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는데 접견은 수락되여 전례대로 경복궁 함화당에서 진행되였다.

룡상에 앉은 고종은 신중한 표정이고 발뒤의 민비도 심각한 기색이였다. 그들은 일본의 다대한 무력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주하는 사실을 두고 불안해하였으며 일본으로 하여 장차 예측할수 없는 사변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이 들어 공포에 휩싸여있었다.

단아래의 팔걸이의자에 앉은 오또리는 자못 정중한 자세로 그러나 위협조로 뇌까렸다.

《전하, 청국군은 조선의 독립권을 침범하여 파견된것이기때문에 그를 철수시키라고 청나라에 요구하십시오. 만약 조선이 그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 일본군이 하겠습니다.》

《…》

고종은 대답에 궁하여 고개를 짓수굿하고있었으나 민비가 대신 날카롭게 대꾸하였다.

《청나라군대는 우리가 동학란을 평정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허나 동학란이 평정된 지금 그들은 마땅히 철병할것입니다. 구태여 일본군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오또리는 눈을 흡뜨고 발뒤의 민비를 무례하게 주시하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이후 또다시 조선에서 내란이 일어나 동양의 평화유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종이 울컥하여 내쏘았다.

《공사, 공사는 일국의 사신으로서 남의 나라일에 이래라, 저래라 훈시를 하는거요? 언어도단이요. 빨리 서울에 있는 일본군이나 철수시키시오!》

오또리는 고종의 요구에는 대척하지 않고 그를 무례하게 쏘아보며 좀 이죽거리는듯 한 태도로 말했다.

《전하, 이것은 본사신의 요구인것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결의입니다.》

《…》

고종이 또다시 대답에 궁해지자 오또리는 위협적으로 뇌까렸다.

《내정개혁안을 접수하느냐, 마느냐는 조선정부의 자유입니다. 허나

우리 제국정부는 반드시 관철하고야말것입니다. 전하, 결심을 말씀하십시오.》

고종이 딱해하며 민비를 돌아보았다. 민비가 태연한 기색으로 림기응변을 취했다.

《전하, 치료받을 시간입니다. 어서 편전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고종을 앞세우고 자리를 뜨는 민비를 쏘아보던 오또리는 주먹을 부르쥐였다. 빈방에 홀로 남은것을 의식한 오또리는 훌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보료우에 앉은 고종과 민비를 마주하여 몸을 바로하고있는 문무중신들은 침울한 기색으로 말들이 없었다.

고종은 외무독판 조병직이를 바라보며 울적한 어조로 물었다.

《독판, 왜나라공사가 내놓은 내정개혁안이란게 어떤것이냐?》

조병직이 무릎걸음으로 나와 부복하며 아뢰였다.

《예, 5개 조항에 각각 여러가지 구체적안들을 첨부하여 그 합계는 총 26개항목이옵니다.》

중신들이 놀란 눈길로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민비가 랭정한 표정으로 조병직에게 분부했다.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추려서 품하세요.》

조병직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나서 말하였다.

《예,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개정하여 인재를 등용하라는것과 재정과 법률을 개정하라는것, 민란을 진압하고 군사, 경찰을 설치하라는것, 교육제도를 확정하라는것, 뭐 이러루한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달 7일까지 회답을 달라 하옵니다.》

민비가 어처구니없는듯 잠시 허거픈 웃음을 짓더니 표표한 기색으로 내뱉았다.

《남의 제상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더니…》

고종이 민비한테 고개를 돌렸다.

《중전, 어찌하면 좋겠소.》

《시원임대신들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대꾸한 민비는 령의정 심순택한테 눈길을 주었다. 《령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순택은 가슴앞에 드리운 구름발같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쳐들고 뇌였다.

《소신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옵니다.》

령돈녕부사(왕실친척들을 돌보는 관직의 우두머리) 김병시가 걱정어린 표정으로 심순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그렇게 단마디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외다.》

《허허, 이 사람이…》

김홍집이 김병시를 두둔해나섰다.

《령부사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일본의 제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로서 내정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소신들이 이미 루차에 걸쳐 성상전하께 주달했습니다마는 병폐로 되고있는 국정은 꼭 혁파하여 자수자강해야 합니다.》

심순택이 김홍집이한테 눈을 흡뜨고 어성을 높여 힐책했다.

《판부사, 대국도 못하는 개화를 하자는거요?!》

《령상대감, 언제까지 청국의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저 왜국이 우리를 업수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울분에 찬 김홍집의 말을 들으며 울기가 어린 표정을 짓고있던 고종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뇌였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모욕을 당하고있으니 나라형편을 가히 알수 있소. 말하기조차 부끄럽소.》

고종을 쳐다보며 김홍집이 다시 절절히 아뢰였다.

《전하, 옛글에 이르기를 〈거문고의 가락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뜯어서 고쳐야 한다〉고 하였소이다. 하물며 국정에 개혁하지 않아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무엇때문에 굳이 낡은 법에 매달려있겠습니까! 이번 호남의 민란도 여러가지 폐단에 그 까닭이 있지 않소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제기한 폐정개혁요구를 들어주어야 민란이 재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의 급선무로는 백성들이 믿고 감동할수 있는 개혁조치를 취하는것이옵니다.》

우의정 정범조도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을 열었다.

《변란을 일으킨 호남백성들은 말할것 없거니와 간고한 형편으로 말하면 전국이 다 같소옵니다. 이래가지구서야 나라가 어찌 나라구실을 하겠습니까. 맹자는 말하기를 백성을 보존하는것이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오니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는것보다 더 급선무는 없는줄로 아옵니다.》

민비가 랭랭한 표정으로 좌중을 쏘아보며 성이 나서 내뱉았다.

《경들은 백성, 백성하는데 누군 뭐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듣기가 심히 불쾌합니다.》

중신들이 송구스럽게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움츠렸다.

《중전, 경들도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어색한 웃음을 띠우고 민비를 달랜 고종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 이만들 합시다. 판부사대감은 좀 남으시오.》

《알겠소이다.》

고개를 숙이는 김홍집이를 언짢게 흘겨보며 자리를 인 령의정 심순택은 복도에 나서자 뒤짐을 지고 걸으며 꿰진 소리를 했다.

《엄처시하에서 살기 참 힘드웨다.》

그가 민비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우의정 정범조가 웃는 얼굴로 대척했다.

《그래두 민중전이 있으니 나라의 기강이 이만큼이라두 유지되는 거지요.》

《한데 상감께선 김홍집이같은 개화파에 기울어지는게 아니요?》

좌의정 조병세의 념려스러운 말이였다.

《이꼴저꼴 다 보기 싫쉐다.》

신푸넝스러운 기색으로 이렇게 내뱉은 심순택은 넓은 관복소매자락을 휘저으며 씨엉씨엉 걸어갔다.

한편 편전에서는 고종과 민비, 김홍집이 사이에 화기애애한 대화가 진행되고있었다.

민비가 손수 다반에 차잔을 받쳐들고 들어와 고종과 김홍집에게 권하였다.

김홍집은 허리를 반쯤 펴고 송구스럽게 차잔을 받았다.

《황송하옵니다.》

고종은 자기곁에 앉는 민비에게 자리를 좀 내주고나서 김홍집에게 눈길을 돌렸다.

《일본이 내정개혁안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일 잡도리인데 무슨 방책이 없겠소?》

《어차피 내정개혁은 해야 하는것만큼 그럴바엔 우리스스로가 주동이 되여야 합니다.》

오래동안 가슴속에 꿍져두었던 소신을 펼쳐놓는양 김홍집은 거침없이 말했다.

민비도 커다란 기대를 안고 김홍집의 말에 관심을 돌렸다.

《좀 자상히 말씀하세요.》

《예, 그간 소신이 생각한바로는 교정청같은 국정개혁기구를 내오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자는것이옵니다. 하오면 일본도 어쩌지 못하리라 생각하옵니다.》

《음, 교정청…》 고개를 끄덕이던 고종은 민비를 돌아보았다. 《곤전의 생각은 어떠시오?》

《판부사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민비까지 김홍집의 말을 긍정해나서자 고종은 신뢰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부하였다.

《조병직이만으로는 외무일을 감당할수 없으니 경이 외무총리를 맡아 이 난국을 수습하기 바라오.》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7

《오늘은 량단간에 결판을 지어야겠소.》

마차를 타고 경복궁으로 가던 오또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채 스기무라서기관에게 씹어뱉듯이 말했다.

《간단치 않을겁니다.》

스기무라의 넘려스러워하는 말에 오또리가 또 내뱉았다.

《우리의 내정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두.》

그들이 광화문을 지나 의례장소인 함화당대문밖에 이르니 벌써 숱한 마차며 교자 그리고 말들이 줄느런히 서있었다.

멎어선 마차에서 내리는 오또리를 거들어주며 스기무라가 입을 열었다.

《다른 나라 공사들은 벌써 다 왔군요.》

《그래두 접견은 우리가 맨먼저 해야지.》

땅에 내려선 오또리는 틀진 걸음으로 함화당안으로 들어갔다.

옆구리에 문건철을 든 스기무라가 그의 뒤를 따랐다.

편전에 있는 고종과 민비에게 외무독판 조병직이가 부복하여 아뢰였다.

《량위전하, 일본공사까지 다 입궐하였사옵니다. 하온데 맨 마지막에 온 일본공사가 먼저 알현하겠다고 하옵니다.》

민비가 야멸스럽게 내쏘았다.

《제일 늦게 와서 먼저 알현하겠다? 렴치가 곰발바닥이군.》

고종도 쓰거운듯이 중얼거렸다.

《군사를 등대고 전횡을 부리는거지요.》

입술을 옥물고 생각을 굴리던 민비가 랭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 이제는 우리도 국제관례를 따릅시다.》

《국제관례라니?》

고종이 얼떠름해서 물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공사의 알현은 물론 연회석이나 기타 행사들에서 나라순위를 영어의 자모순으로 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 와있는 공사들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베트순서로 보면 아메리카 즉 미국이 맨먼저이고 다음이 챠이나 즉 청국, 다음 도이췰란드 즉 덕국, 다음 잉글리쉬 즉 영국, 다음 프랑스 즉 법국, 다음 이딸리아 즉 이태리, 그리고나서야 쟈펜 즉 왜나라입니다. 그뒤에 오스트리아와 루씨 즉 오지리와 로씨야가 놓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젖혀놓고 앞장에 서군 하던 왜나라가 맨 꼬리를 차지하게 되겠군. 허허…》

고종이 즐거운듯이 웃자 민비도 미소를 지었다.

《오또리공사가 앙앙불락할겁니다.》

《그 꼴 참 볼만 하겠소, 하하…》

고종이 통쾌하게 웃으니 고개를 숙이고있던 조병직이도 키득키득 웃었다.

《독판대감.》

민비가 낮으나 날카로운 어조로 부르자 조병직은 급히 웃음을 삼

키였다.

《당장 나가 알현순위를 공포하세요.》

《분부받자왔습니다.》

뒤걸음으로 물러가는 조병직을 바라보는 민비의 눈에 야릇한 웃음이 비꼈다.

섬돌계단을 성이 나서 뛰여내리는 오또리의 뒤에 대고 스기무라가 걱정스럽게 여쭈었다.

《각하,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대꾸도 안하고 대문밖으로 빠져나간 오또리는 마차에 훌쩍 올라탔다.

공사관으로 되돌아가는 마차안에서 오또리는 혼자소리로 뇌까렸다.

《이놈의 조선욥존(엽전)왕이…》

스기무라가 비웃는듯 한 소리로 한마디하였다.

《국왕이 아니라 민비가 꾸민 수작입니다.》

《왕비가?!…》

《그러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호가 문제라고… 제가 좀 생각해보았는데 조선국호의 표기를 씨(C)코레아대신 케이(K)코레아로 하면 조선은 우리 일본뒤에 놓이게 됩니다.》

《여보, 지금 어디 국호따위나 가지고 입씨름하고있을 때요?》

《…》

《이놈의 〈욥존〉들, 말을 듣지 않으면 짓뭉개버려야지.》

오또리는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스기무라는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로인정회담에서 보복을 가합시다.》

8

한여름의 후더운 대기속에 록음방초 우거지고 한가스런 매미의 울음소리가 소연한 남산기슭에 아담한 정각 로인정이 자리잡고있었다. 이 평화로운 정각에서 지금 총포성없는 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조선측대표들인 내무독판(내무대신) 신정희, 협판(내무차관) 김종한, 조인승이, 반대쪽에는 일본의 공사 오또리와 스기무라서기관이 긴장하게 앉아있었다.

이 회담은 조선의 내정개혁문제를 토의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강요에 의해 열린것이였다.

신정희는 일본의 부당한 침략책동에 대하여 강경하게 언급하고나서 본회담의 취지에 찬성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다른 나라의 내정개혁을 기한을 정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주권을 무시하는 내정간섭이요. 나는 본조사위원회 개최의 취지에 찬성할수 없으므로 다만 참고로 청취할 생각이요.》

이렇게 말한 신정희는 의자에 상체를 제끼고앉아 일본대표들을 쏘아보았다.

얼굴에 랭소를 띠운 오또리는 의자에 제빠듬히 앉아 발언하였다.

《이 회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내정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조선정부가 이를 실시할 의사가 있건말건 일본정부의 목적관철의 신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는바입니다.》

로인정회담에서 조선측은 이미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체로 개혁사업을 추진하고있으므로 내정간섭적인 일본의 개혁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였으며 비법적으로 주둔한 일본군대를 즉시 철수시킬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뻔뻔스럽게도 조선에서 내란의 화근이 가셔지지 않는 한 자기 군대를 절대로 철수할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리하여 3일간 계속된 로인정회담은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채 결렬되고말았다.

오또리는 조선정부가 일본이 제기하고있는 《내정개혁안》에 대해 전면거부할뿐아니라 일본군의 즉시철수를 강경하게 요구하고있는데 대해 골머리를 앓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청국대표 원세개도 내정개혁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조선에서 청, 일 량국이 동시철병을 먼저하고 연후에 《내정개혁》을 론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느것 하나 일본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 부심하던 오또리는 이런 사정에 대해 무쯔외무대신에게 급전으로 보고하였다.

무쯔는 오또리에게 보낸 답전에서 청국이 《내정개혁안》에 십중

팔구는 동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자기도 예견한바였다고 하면서 문제는 조선에 일본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청국과의 담판이 계속되는 기간은 어떤 구실을 쓰든지 우리 군대를 한성에 주류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군대 철병이 지연되는 리유로서는 폭동이 아직 계속되고있다는것을 안받침하기 위하여 공공연한 방법으로 공사관원 또는 령사관원을 실정조사라는 명목으로 폭동지역에 파견할것이다. 실정조사는 될수록 천천히 진행할것이며 또한 보고서는 평온한 상태와는 반대되는 사태를 특별히 강조하여 작성할것이다.》

외무대신 무쯔는 이처럼 조선문제에 대해 비렬한 술책까지 쓸데 대해 언급하고나서 오까모도 류노스께를 시급히 귀국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오까모도가 너무도 빨리 본국에서 되돌아와 오또리를 놀라게 하였다. 오또리공사의 방에 들어선 오까모도는 심각한 표정으로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외무대신각하의 친서입니다.》

오또리는 급급히 친서를 펼쳐보았다. 무쯔의 친필훈령이 오또리의 시야에 안겨왔다.

《오늘 일청간의 대전은 피할수 없는 형세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게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좋으니 전쟁개시의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훈령은 전보로 알리기 어렵기때문에 특별히 오까모도를 통하여 전달하니 전쟁과 관련한 나의 그리고 제국정부의 의도를 오까모도에게서 청취하기 바란다.》

무쯔의 비밀지령은 한마디로 어떤 구실을 쓰든 전쟁개시준비를 하라는것이였다.

오또리는 류다른 눈길로 오까모도를 건너다보았다. 한갖 랑인으로 알고있는 오까모도가 외무대신의 이런 심복이란 말인가.

오까모도가 짧은 상고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나서 여전히 신중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무쯔각하는 이제는 청국을 제쳐놓고 조선정부와만 상대하되 〈내정개혁안〉을 공갈과 협박의 방법으로 강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오또리는 손으로 주름살이 깊이 패인 이마를 짚었다.

오까모도가 주머니에서 담배곽과 성냥을 꺼내 앞차대에 놓더니 한가치를 뽑아 입에 물고는 드윽 성냥을 그어댔다.

일본을 대표하는 공사며 년장자이기도 한 자기에게 량해도 구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대는 오까모도의 건방진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지만 오또리는 지금 그런 기분따위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표정을 바꾸었다.

담배 한모금을 빨아 연기를 짙게 내뿜은 오까모도는 드디여 입을 열었다.

《〈내정개혁안〉은 단지 전쟁개시의 구실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기때문에 기어이 성사시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겠지.》

오또리는 머리칼도 없는 대머리를 쓸어넘기며 난감한 기색을 띠웠다.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자기가 얼마나 고심하고 부심하고 락심했던가.

《무쯔각하는 일청전쟁과 조선강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활한 수단, 고압적수단, 협박적수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요는 조선국왕을 일본군의 통제하에 두고 조선왕정의 권력을 마음대로 전쟁수행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명분도 없는 청군구축을 조선정부로부터 의뢰받으라는것입니다. 또한 친청세력인 민비일파를 제거하고 민비와 대결하고있는 대원군을 내세워 시종 일본편에 잡아둘수 있는 친일정권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까모도의 말을 듣는 오또리의 낯색은 점점 심각해지고 눈빛도 늙은이같지 않게 번쩍거렸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습니까?》

오까모도가 음험하게 그러나 능청스러움도 없지 않는 그런 표정을 띠우고 물었다.

《글쎄…》

오또리는 다시금 번대머리를 긁었다.

오까모도가 오또리 가까이 상체를 숙이며 귀속말하듯 수군거렸다.

《조선왕궁점령입니다.》

《엉?!…》

오또리는 흠칫 놀라며 긴 허리를 뒤로 젖혔다.

《그건 당신 말이요, 외무대신의 지시요?》

《허허…》

오까모도는 조소에 가까운 야멸찬 웃음소리를 냈다. 하더니 별안간 경건한 자세를 취하며 엄숙하게 뇌까렸다.

《제국정부의 아니, 천황폐하의 어지입니다.》

한편 조선의 정세추이를 예리하게 살피고있던 청국대표 원세개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느끼고 본국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조선에서 10여년간 상주하면서 제왕처럼 행세하던 그는 귀국이후 군부의 거물로 성장하여 신해혁명때에는 음모적으로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되였다가 1916년에 황제를 참칭하는 력사의 희비극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아무튼 그가 그렇듯 중국정계에서 장족의 발전을 할수 있었던것도 젊어서 조선정계를 조정하며 키운 권모술수에 힘 입은바 크다고 해야 할것이다.

9

하늘에서는 한여름의 태양이 작열하고 아미산정원을 채운 나무들과 덤불에는 신록이 무르녹고있었다. 그속으로 고종과 민비, 세자가 산책하고있었다. 그리고 일산을 든 궁녀들이며 도승지, 환관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문득 하늘을 쳐다본 고종이 뒤를 돌아보았다.

《도승지, 외아문에 가서 왜국공사와의 일이 어떻게 되였나 알아보라.》

도승지가 뒤걸음으로 물러가자 민비가 생각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왜인들은 피를 빨아먹는 거마리처럼 악착한데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과인도 걱정이요.》

《신첩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너무 심뇌마옵시오.》

총기로 눈빛을 빛내며 이렇게 말한 민비는 소매속의 흰 손수건을 꺼내 고종의 이마전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주었다.

고종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말없이 민비를 건너다볼뿐이다.

얼마후 도승지와 함께 조병직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고종과 민비에게 허리를 숙여 선절을 하고나서 아뢰였다.

《일본공사는 몹시 성을 내며 돌아가면서 래일 정오까지 책임적인 회답을 달라고 엄하게 말했소옵니다.》

《성을 냈다…》

고종이 불안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눈을 간잔조롬하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민비가 조병직이에게 나직이 일렀다.

《경은 이제 곧 일본공사관만 빼놓고 각국 공사들에게 하오에 입궐하라고 통지하오.》

《알아모셨사옵니다.》

조병직이 물러가자 고종이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다.

《곤전, 공사들은 왜 부르셨소?》

민비는 또다시 눈을 간잔조롬히 뜨더니 쌀쌀하게 뇌였다.

《제어지책을 쓰자는겁니다.》

《제어지책?》

《왜나라의 방약무도한 망동에 국제적인 항의와 압력을 들이대게 하자는것이옵니다.》

《음, 그게 좋겠군.》

민비의 의도를 알아차린 고종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흐리터분하게 흐려있었다.

하지만 팔걸이의자에 턱을 고이고 앉아있는 오또리 게이스께의 낯은 더 컴컴하게 죽어있었다.

스기무라서기관이 공사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볼이 부어 투덜거렸다.

《각하, 이번엔 로씨야공사 웨벨씨가 찾아왔습니다.》

《뭐?!》

오또리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도로 주저앉아버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뇌까렸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가? 영국공사, 덕국(도이췰란드)총령사, 미국공사… 좌우간 들여보내라.》

스기무라가 조심스럽게 방을 나간 후 오또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고뿌에 물을 부어 마셨다.

키가 큰 로씨야공사 웨벨이 방에 들어서자 오또리는 불시에 낯색

을 바꾸며 팔을 쩍 벌리고 반색했다.

《아, 웨벨공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뵙게 되여 반갑습니다.》

웨벨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웨벨에게 의자를 권한 오또리는 그와 마주앉으며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모처럼 우리 공관을 찾으셨습니까?》

웨벨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공사각하, 우리 로씨야는 일, 청 량국에 조선에서 철병할것을 권고합니다. 청국공사는 일본이 철수에 응하면 자기들도 곧 철수하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일본이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말을 끊은 웨벨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오또리를 주시하였다.

오또리는 걸맞지 않은 웃음을 흘렸다.

《이건 뭐 위협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통고하겠습니다.》

《공사각하의 책임적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웨벨은 알릴듯말듯 목례를 하고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리고말았다.

웨벨의 모욕적인 거동에 울기가 치받친 오또리는 그가 사라진 문쪽에 대고 주먹을 쳐들고 흔들었다.

《뭐 위협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이 씨베리곰같은 로스께야!》

낯이 벌겋게 상기된 오또리는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씩씩거렸다.

이때 거의 울상이 된 스기무라가 또 방에 들어섰다.

그를 쏘아보던 오또리가 시에미 역증에 개 옆구리를 걷어찬다는 격으로 왈칵 성을 냈다.

《또 뭐야?》

《각하, 불란서(프랑스)공사 꼴랭드 쁠랑시각하가…》

《뭐, 불란서공사가?!… 없다구 해라! 없다구!…》

발작적으로 소리친 오또리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싸쥐였다.

건청궁의 곤녕합에서 민비와 조상궁이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합문밖에서 《상감마마 납시오.》하는 궁녀들의 아뢰는 소리가 울렸다.

몸을 일으킨 민비와 조상궁은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공경스러운 태

도를 취하였다.

고종이 웃는 얼굴로 활기있게 방에 들어섰다. 민비가 나가라고 조상궁에게 손짓했다. 조상궁이 허리를 숙이고 얼른 자리를 피하였다.

보료우에 앉은 고종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곤전, 곤전의 제어지책이 은을 내였소. 각국 공사의 항의에 왜공사 오또리가 땀깨나 뽑았나봅디다.》

고종의 곁 보료우에 앉으며 민비도 밝게 웃었다.

《신첩도 들었습니다. 허나 간활한 왜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럴테지… 좌우지간 오늘 과인이 곤전곁에서 한잔 하려오.》

《예.》

민비가 기쁨에 겨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시름없이 마신 술에 거나하게 취한 고종은 민비의 부축을 받으며 침전으로 들어가 자리에 눕기 바쁘게 잠에 곯아떨어졌다.

하불을 덮고 어린애처럼 입을 벌리고 자고있는 고종을 측은하게 굽어보던 민비는 거울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풀어내렸다. 화장을 지우려고 얼굴을 쓸어만지던 그는 거울에 비낀 자신의 수심어린 모습을 보고 손길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이 자기자신과 마음속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나는 늘 고독감을 느낀다. 어째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것일가. 궁신들은 나를 존경심으로 대하고 상감마마는 나를 사랑하고있다. 그이는 마치도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나를 믿으며 따르고있다. 사실 내가 곁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이는 아마도 어찌될지 모른다. 내가 없으면 살수 없는 상감이다. 그래 그이는 성정이 유약한분이다. 가엾기두 하지. 그래서 더욱 그이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무언지 모르게 늘 불안하다. 내가 없으면 상감마마는 어찌되며 이 나라는 과연 어찌될고?!…)

중년기라 눈가며 입가에 몇줄기 가는 주름이 잡히긴 했어도 아직도 민비의 고운 얼굴에 애타는 눈물이 흘렀다. 민비는 자기를 더없이 신뢰하고 자기에게 의뢰하는 남편인 고종을 사랑하였다. 마치도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애무와도 같았다. 고종이 안해 민비처럼 속대가 굳은 강한 사람이였다면 아마도 민비는 그를 지금처럼 사랑하지 않

았을것이다. 그것은 동질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동성사이에 마찰이 생기는것과 같은 리치였다. 하기에 민비도 왕권의 상징인 고종을 보살펴주고 왕권이 지배하는 이 나라 조선을 일본의 독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부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10

유까다를 입고 누비돗자리우에 무릎을 꿇고 앉은 오또리공사의 두눈은 벌겋게 충혈되여있었다. 조선정부를 상대로 그가 진행한 감언리설과 회유기만, 위협공갈도 다 수포로 돌아간 지금 그의 가슴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만이 골수에 꽉 찼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벽을 주시하던 오또리의 시야에 벽에 걸려있는 일본도가 안겨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칼집을 벗겨들고 칼을 휙 비껴들었다. 불빛에 칼날이 번뜩였다.

그는 음험한 기색을 띠우며 혼자소리로 뇌까렸다.

《내 륙십이 넘도록 이 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자 보지 못했다.》

그는 칼을 세차게 휘둘렀다. 방안공기를 찢는 휙휙 소리가 아츠럽게 울렸다.

이때 인기척도 없이 방안에 들어선 오까모도 류노스께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주춤거렸다.

《공사각하! 웬일이십니까?!》

오또리는 돌아도 보지 않고 내뱉았다.

《오까모도상, 아무래도 이 칼로 피맛을 보여야겠소!》

《각하, 며칠만 더 참으십시오.》

《무엇을 더 참는단 말이요. 빨리 거사하라는 무쯔외무대신의 지시도 있지 않는가! 나는 조선왕궁을 타고앉기로 결심했소.》

《조선왕궁을 타고앉는것보다 그뒤의 친일정부수립이 더 긴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원군을 설복하고있는데…》

《아직도 말을 듣지 않는가?》

《좀처럼…》

《그런 일이야 조선에 오래 근무한 스기무라군이 해야 하지 않을가?》

《스기무라군은 공식인물이 아닙니까? 저는 흑막속의 인물이라…》

《대원군 아니고는 사람이 없소?》

《대원군은 비록 로구이나 아직 인망이 있고 또 국왕의 부친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민비를 견제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인물입니다.》

《음, 빨리 진척시키오.》

오까모도를 내보낸 오또리는 자기도 양복을 갈아입고 집무실로 나갔다. 오까모도에게 본국정부의 지령대로 조선왕궁을 타고앉을 자기의 결심을 말해놓고보니 그것이 마치도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된듯싶었다. 말로 통하지 않을 땐 주먹으로 다스려야 하는것은 세상사의 리치라고 그는 생각했다. 렬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조선국왕을 일본의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오또리 게이스께는 곧 도꾜의 외무성에 《조선왕국의 궁성을 일시 점령하겠음.》이라는 급전을 날렸다. 이에 대하여 외무대신 무쯔는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공사는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구실을 택하여 실행하도록 할것.》이라는 답전을 보내여왔다.

정부의 승낙을 받은 오또리는 즉시 오오시마려단장을 비롯한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 고위장교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였다.

정렬해선 장교들앞에서 오또리는 일장 훈시를 하였다.

《조선정부가 우리의 내정개혁안을 전면거부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오시마를 비롯한 일본장령과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오또리를 주시했다.

《왕궁의 점령! 이것이 유일한 대답이요.》

오또리의 말을 들은 장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윽고 머리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했다.

자못 근엄한 표정을 지은 오또리는 엄숙하게 뇌까렸다.

《조선왕궁의 점령, 이것은 일청전쟁의 전주곡이 될것이며 조선강점의 서곡으로 될것이요. 제군들!》

장교들은 굳어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

오또리는 숨을 갑시고나서 명령했다.

《조선왕궁 습격시간은 7월 23일 새벽 3시!》

《하!》

《그 시간까지 만전을 기하라.》

《하!》

미명의 어둠속에서 일본군병영은 출동준비로 부산스러웠다. 물론 비밀리에 진행하는 작전이라 큰 구령소리는 없어도 낮고 짤막한 호령에도 잘 훈련된 일본군대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대포의 《포장》을 벗기고 포탄들도 메여다놓았다. 마치도 역습으로 적진을 일망타진하려는 전쟁준비같았다.

오오시마려단장과 함께 부대의 출동준비를 시찰하던 오또리공사가 오오시마에게 넌지시 물었다. 키가 큰데다 만또까지 걸친 그는 외교관이라기보다 직업적인 군인같았다.

《한개 련대병력이면 충분할가요?》

《각하, 한개 련대는 만 천명입니다. 충분합니다.》

《왕궁점령에 이어 한성시내에 있는 모든 조선군대를 무장해제시켜야 하오.》

《작전하고있습니다.》

오또리는 대포를 굴리는 포병들을 보더니 다시금 오오시마에게 지시했다.

《저 대포는 왕궁으로 끌고가되 내 명령없이는 발포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오또리는 걸음을 멈추더니 강조하여 말하였다.

《마차도 여러대 대기시키시오.》

《마차는 어디에?…》

《무조건 집행하시오.》

《하.》

오또리는 한발 떨어져 따르고있는 스기무라서기관을 돌아보았다.

《왕궁점령과 함께 대원군을 입궐시키라고 오까모도 류노스께에게 지시하시오.》

《하.》

이때 오오시마려단장이 좀 념려스러워하는 어조로 말했다.

《각하, 이 사건은 큰 국제적문제인데 일없을가요?》

오또리는 오오시마의 한쪽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걱정마오.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도쬬의 외무성에 조선왕국의 궁성을 일시 점령하겠다는 나의 급전에 대해서 무쯔외무대신은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니 공사는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구실을 택하여 실행하도록 할것이라는 고무적인 답전을 보내여왔소. 알겠소, 려단장? 제국정부가 비준한 일이니 담이 크게 본때있게 해봅시다.》

마른 번개가 번쩍하더니 낮추 드리운 검은구름이 드러났다. 폭우가 쏟아지려는지 차고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다.

도적놈들은 이런 밤을 즐기는 법이다.

드디여 폭우가 쏟아졌다. 대포바퀴들이 굴러가고 누런 소가죽군화들이 물탕을 튕기며 달려갔다. 번개불에 총창들이 번뜩였다.

마차에 앉은 오또리공사와 오오시마려단장은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군마를 탄 장교들이 군도를 뽑아들고 병졸들을 몰아대고있었다.

11

건청궁의 민비침전에서 민비는 물론 잠옷바람으로 방안을 서성거리는 고종도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조는듯 가물거리는 와룡초대로 하여 방안은 더욱 침침하고 답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 중전께 왔으나 이 방도 답답하구려.》

《문을 열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고종의 태도를 보고 민비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오늘은 대서 가뭄끝에 장마가 지려나 봅니다.》

창문으로 누기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고종이 보료우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파인은 요즘 무엇에 쫓겨다니는 흉몽만 꾸는구려.》

《자고로 흉몽은 길몽이라 했소이다.》

《길몽?…》

민비의 말에 마음의 안정을 느꼈는지 고종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민비는 자지 않고 거울앞에 마주앉아 언제나와 같이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울에 비낀 민비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어려있었다. 그도 요즘은 꿈자리가 사나왔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녀인 다까하시 나쯔미가 그에게 귀띔해준 일로 인한 걱정거리일것이다.

며칠전 민비를 찾아온 그 녀자는 몹시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좌우를 살피는것이였다. 민비가 이 방에는 자기들 둘밖에 없다고 안심시켜서야 나쯔미는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왕비전하의 신변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것 같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민비가 캐여물으니 그는 자기 남편 다까하시에게서 들었는데 이제 일본군대가 무슨 사단을 일으킬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계속하여 그는 왕비전하의 측근에 일본사람들과 내통하는자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라고 덧붙여 충고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실로 민비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수 없었다. 자기의 염통을 뽑아 왜놈들에게 섬겨바치는 놈이 제 측근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던 민비였다.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일가. 그리고 무엇때문에 그따위 간세(밀정)질을 한단 말인가.

일본녀인인 나쯔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한다는것이 민비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다까하시부인, 정말 고마와요. 이런 위험한 일을 알려주어 무어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민비가 나쯔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자 별안간 그 녀자의 얼굴에 감격의 파문이 일어났다.

《왕비전하!…》

《왜, 무슨 말인지 어서 하세요.》

나쯔미는 울먹이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하! 소녀의 조상도 실은 조선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몸속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금시초문인 민비로서는 정녕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민비의 말을 들은 나쯔미는 얼마간 마음을 진정하더니 천천히 입을 여는것이였다.

《저의 본래의 성은 도고입니다. 일본풍습대로 지금은 남편의 성을 따라 다까하시라고 하지만 도고란 동국이란 뜻인데 동국은 우리 조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민비는 나쯔미의 말을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다.

나쯔미는 임진왜란때 도자기기술자인 조상이 왜놈들에게 랍치되여 왜땅으로 끌려온 후예라고 했다. 하지만 고국을 그리워한 그들은 한고장에 모여 살면서 조선사람의 생활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고있었다고 한다. 후에 왜놈들이 고마(조선)인들을 동화시키려고 조선사람부락을 해체해버렸지만 그랬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혈통을 꿋꿋이 지켜나갔던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쯔미의 말을 들은 민비는 감동에 겨워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념려스러운 기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나쯔미도 조심하세요.》

《념려해주어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저 심상하게 들었지만 오늘밤은 별스레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일본군대들이 사단을 일으킨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그닥 당황해할 일이 없다는 안도의 숨도 나갔다. 술한 청나라군대들도 있고 또 아라사(로씨야)를 비롯한 나라들도 있지 않는가. 그들이 아무렴 왜국의 전횡을 수수방관하지야 않겠지.…

그런데 자기 측근에 왜인들의 간세가 있다는 말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소리였다. 하긴 가끔 왕실내부사정에 대해 왜인들이 알고있는것

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그런 어수선한 생각에 잠겼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무렵이였다.

드디여 궁성의 동소문에 이른 일본군대들은 조선왕궁을 점령하기 위해 성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어둠속에서, 더우기 새벽의 랭기에 량팔을 겨드랑이에 지르고 서성거리는 조선수비병의 뒤로 접근한 왜병 한놈이 그의 갈비뼈짬을 칼로 찔렀다.

그가 쓰러지자 왜놈군대들은 동소문을 열어제꼈다. 욱 쓸어드는 총칼로 무장한 왜병들, 때마침 순라를 돌던 수문장 김만수가 그들을 발견하였지만 어떤 놈들인지 몰라 잠시 주춤거렸다.

장교의 호령소리가 들렸다.

《하야꾸! 하야꾸!(빨리! 빨리!)》

《엉?! 일본군이?!》

그제야 와뜰 놀란 수문장은 기급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이 궁성으로 쳐들어온다!》

그는 공중에 대고 총소리를 내였다.

왕궁시위대병영에서는 총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쓸어나왔다.

시위대부령(중좌)이 칼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지휘했다.

《궁성문부터 막으라!》

한무리의 병정들이 궁성문쪽으로 달려가자 이번에는 또 한무리의 병사들이 부령에게로 뛰여왔다.

《어느 부대요?》

부령의 성급한 물음에 산수털벙거지를 쓰고 등롱불을 든 한 군사가 얼른 대꾸했다.

《평양진위대요. 참령(소좌)입니다.》

《참령, 고맙소. 때마침 왔소. 왜놈의 수가 워낙 많아 애를 먹던 중이요.》

평양진위대 참령은 등롱불을 높이 쳐들고 웨쳤다.

《평양의 군사들은 내 령을 들으라! 죽기로 왜놈들을 물리치자!》

범포수출신들인 이 평양의 진위대 500여명은 민비가 만약의 경우를 타산하여 평양에서 불러올려 서울궁성시위대에 편입시킨 사람들이였다.

드디여 폭우가 쏟아졌다. 그속으로 불꼬리를 그으며 총탄들이 날았다. 총탄은 기와장을 부시기도 하고 석탑에 맞아 도탄되기도 했다.

죽음의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불줄기를 날리는 총탄도 왜적과의 싸움에 나선 평양진위대용사들의 의기를 꺾지 못하였다. 석등이나 석탑, 전각기둥에 의지하여 사격하는 그들의 완강한 저항에 적들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워낙 범잡이를 하던 포수들이라 그들의 사격은 백발백중이였고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경회루앞마당에서 말을 타고 전장을 관망하던 오또리공사와 오오시마려단장은 정황이 예상외로 긴장되는데 초조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었다.

그들의 곁으로 물탕을 튕기며 말을 탄 련대장이 달려와 보고했다.

《려단장각하, 적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합니다. 자칫하면 퇴각하는 길밖에…》

《무슨 소리를 하는가!》 련대장의 말을 끊어버린 오또리공사는 군인처럼 군도를 높이 들고 명령했다. 《려단장, 국왕의 침전부터 점령하라!》

《하!》

말등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한 오오시마는 곧 련대장에게 한개 대대를 즉시 건청궁으로 진출시키라고 지시했다.

《국왕의 침전인 건청궁으로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뇌까린 오또리공사는 칼을 휘두르며 앞서 달렸다.

한편 총소리에 놀란 고종과 민비는 침전 한구석으로 몰려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앞에서 궁내대신도 안절부절 못하였다.

《왜군이 얼마나 되느냐?》

고종의 겁기어린 물음에 궁내대신이 어정쩡하게 대꾸했다.

《한 수천명은… 대포까지 끌고왔소옵니다.》

《우리 군사들은 무얼하고있느냐?》

그제야 다소 용기를 되찾은 궁내대신이 얼른 대척했다.

《우리 군사들은 궁성을 지키기 위해 죽기로 싸우고있습니다. 더우기 평양진위대병사들은 말그대로 호랑이 한가지입니다.》

《평양진위대?》

고종은 민비를 돌아보았다.

《궁성방위가 허술한것 같아 그들을 불러올렸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참, 그런 일이 있었지. 잘했소. 평양사람들은 옛적부터 외적과의 싸움에 한몸 아끼지 않지.》

《그래서 평안도사람들을 가리켜 〈맹호출림〉 즉 사나운 범이 수풀에서 뛰여나오는 형국이라 하지 않소이까.》

궁내대신이 한마디 참네했다.

고종이 손을 들어 합문밖을 가리키며 엄명했다.

《너는 빨리 나가 왜적들을 물리치도록 해라! 빨리!》

그러나 궁내대신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군도를 든 오또리공사가 장화발로 성큼 침전에 들어섰다.

망지소조한 고종과 민비는 서로 짝 부등켜안으며 오또리를 쏘아보았다.

《이게 뭐요?! 공사!》

잠시후 고종이 오또리를 질책하자 두다리를 쩍 벌리고 군도를 짚고선 오또리는 여유작작하게 뇌까렸다.

《전하, 본관은 위험에 처한 귀국의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 입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이…》

오또리를 멸시에 차서 쏘아보던 민비가 총알처럼 내쏘았다.

《너무도 무엄합니다, 공사!》

민비의 도고한 태도에 오또리가 좀 어안이 벙벙해있는 사이에 민비는 페부를 찌르는듯 한 어조로 날카롭게 소리쳤다.

《주권국왕의 앞에서 일개 공사에 불과한 당신의 태도는 너무도 불법무도하고 불학무식하오! 당장 칼을 치우시오.》

《불쾌하다면 치우겠습니다.》

랭소를 띠우고 이렇게 지껄인 오또리는 칼집에 절컥 칼을 꽂았다.

밖에서는 총성이 더욱 격렬해지고있었다.

민비는 오또리를 노려보며 당장 일본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청국군대를 부르겠다고 위협하였다.

오또리는 여전히 랭소를 띠운 기색으로 왕궁안의 소요가 밖에 알려지면 피차에 리롭지 않을것 같아 전선을 차단하였다고 뇌까렸다.

평소에 온화한 고종도 이 순간만은 울컥하였다.

《뭐, 뭐요?! 일개 공사가 신성한 궁성의 전화선까지 제멋대로 절단

하다니?!…》

오또리는 여전히 태연한 기색이였다.

《전하, 이제는 청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귀국의 힘으로 독립자주권을 회복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우리가 도우러 온것입니다.》

《공사, 우리는 청나라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압박은 당신들, 바로 일본으로부터 오고있습니다.》

민비의 맵짠 소리에 오또리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량위전하, 이건 본 사신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대일본천황폐하의 어지라는것을 정중히 알려드리는바입니다.》

고종의 눈에서도, 민비의 눈에서도 비분의 눈물이 끓고있었다.

궁성밖의 총성에 귀를 기울이던 오또리가 고종에게 강박하였다.

《전하, 속히 발포중지명령을 내리셔야겠습니다.》

고종이 침묵을 지키자 오또리는 보다 강경한 태도로 뇌까렸다.

《조선군이 계속 발포하면 우리는 부득이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건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경복궁이 북악산밑의 재로 변합니다.》

《…》

《좋습니다. 전하가 불응하신다면 우리는 부득이…》

이렇게 지껄인 오또리는 곁의 오오시마려단장을 돌아보았다.

《려단장!》

《하!》

《제1포로 경회루를!》

《하!》

그제야 고종이 눈을 흡떴다.

《가만, 그건 안되오!》

《전하, 량단간에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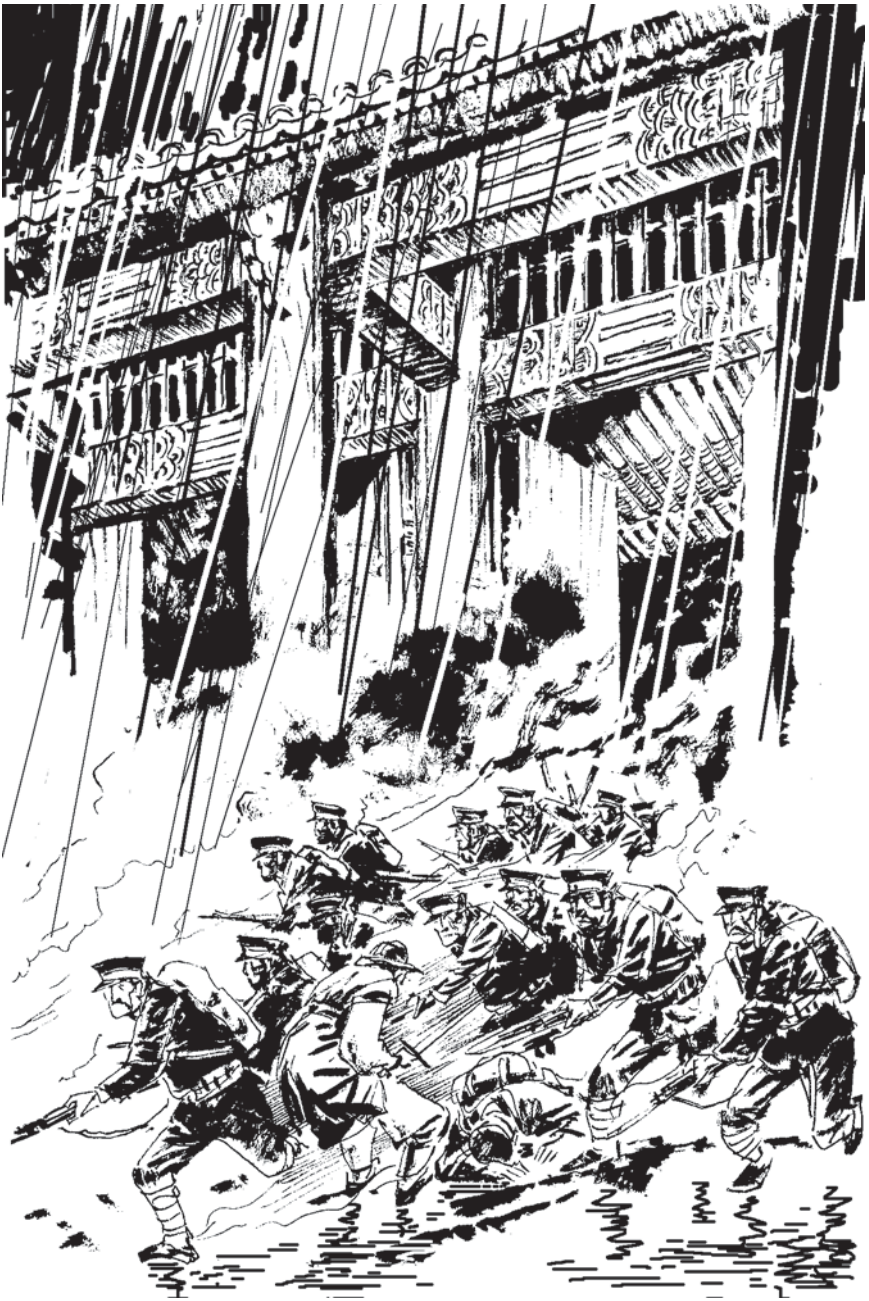
《…》

고종은 괴롭게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민비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있었다.

오또리는 고종과 민비를 노려보며 려단장에게 씹어뱉듯이 뇌까렸다.

《더이상 우리 병사들을 희생시킬수 없소. 려단장, 집행하라!》

고종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중지명령을 내리겠소. 하되 일본군도 함께 철수하시오.》

《우선 발포중지명령부터 내리시오.》

이때 건청궁밖에서는 조선군병사들과 왜놈군대들사이에 치렬한 백병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총알이 떨어진 조선병사들은 량손에 칼을 갈마들고 적들속에 뛰여들어 치고 찌르고 베여넘겼다. 이것은 침략과 반침략, 정의와 부정의 아니, 인간과 야수들간의 대결이였다. 조선군사들의 용맹스런 모습에 혼비백산한 왜놈군대들은 비실비실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적들은 궁문밖으로 도망칠 케를 보고있었다.

이때 궁내대신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조선군사들을 지휘하고있는 부령한테로 급히 다가왔다.

《부령, 발사를 중지하시오!》

《뭐요?!》

부령보다 그곁에 있던 평양진위대의 참령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상감마마의 어지요. 싸움을 중지하지 않으면 궁성이 요정나오.》

《아니, 남의 나라 궁성에 쳐들어온 저 왜놈강도들을 그냥 둔단 말이요?!》

《한시가 급하오. 빨리 명령을 내리시오.》

《아!…》

참령이 군도로 곁의 석등을 내리쳤다. 군도가 아츠러운 금속성을 내며 부러져나갔다.

궁내대신이 불안하고 조급한 기색으로 재촉했다.

《어서!》

부령이 비분에 떨리는 소리로 가까스로 소리쳤다.

《사격… 중지!…》

《엉, 이게 무슨 소리야!》

놀라는 조선군사들이 엉거주춤하고 지휘처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사격소리가 뜸해지고 조선군사들이 결김에 총대를 집어던지거나 군복을 벗어던지며 울분을 토하였다.

맨땅에 주저앉은 병정들이 불줄기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먹으로 땅을 쳤다.

《아! 총을 가지고도 싸우지 못하다니!…》

다시금 검은구름이 몰려드는 경복궁은 번개속에 몸부림치듯 했다.

이 혼잡속에 왜놈군대들이 궁전의 이 방, 저 방으로 뛰여들어 강도질을 하였다.

번쩍하는 번개불빛과 함께 절규하듯 《꽈르릉!》 터지는 우뢰소리, 번개불빛에 무기고에서 총을 한아름씩 안고나오는 왜놈병정들의 몰골이 로출된다. 대포를 끌어내는 왜놈들, 도자기며 수병풍 등 보물들을 안고나오는 왜놈강도들의 자태가 낱낱이 드러난다. 놈들은 무기며 귀중품을 마차에 실었다.

략탈을 지휘하는 려단장 오오시마소장이 웨쳤다.

《무기가 얼마나 되는가?》

련대장이 얼른 보고했다.

《30문의 대포와 8문의 기관포, 신식보총 2 000정입니다.》

《빨리빨리 실으라!》

다시금 번개불이 번쩍이고 뛰여다니는 왜놈강도들이며 덤비다가 귀중한 도자기를 땅에 떨구어 산산쪼각내는 놈들이 환히 드러났다.

사방으로 휘뿌려지는 고려청자기며 리조백자기의 파편들, 군화에 짓밟히는 미술작품, 서예작품…

《선두차부터 인천으로 직행하라!》

려단장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 국보를 실은 마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던 오오시마가 뇌까렸다.

《마지막마차는 내 군막으로 가라!》

굴러가는 마차바퀴, 바퀴…

이처럼 리조 500년간 귀중히 보관되여온 국보적인 문화유산들과 값진 보화들 그리고 방금 수입한 수많은 신식무기들을 하루밤사이에 강도 왜놈들에게 깡그리 략탈당하고말았다.

궁성안은 수라장이 되고 무궁화꽃은 왜놈들의 군화에 무참히 짓밟혔다.

건청궁의 섬돌계단으로 오오시마려단장이 장화에 칼자루를 부딪치며 급히 뛰여올라갔다. 내전의 복도로 성급히 걸어온 그는 앞을 막아서는 환관을 활 밀어제끼고 내전으로 뛰여들어갔다.

고종과 민비앞에 버티고 선 오또리공사에게 다가간 그는 공사의 귀에 대고 궁성의 무기와 보물을 마차에 실어냈다고 조용히 보고하였다.

고개를 끄덕인 오또리는 고종과 민비에게 사죄나 하듯 자못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국왕전하, 왕비전하, 그럼 본관은 물러가겠습니다. 침수 안녕히 하십시오.》

오또리공사와 오오시마려단장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물러가자 고종이 울분을 터뜨렸다.

《뭐 침수 안녕히 하라고? 에익!》

고종은 주먹으로 곁의 탁자를 내리치고 민비는 표표한 기색으로 앞을 쏘아볼뿐이다.

그들이 사라진 뒤 얼마후에 시위대정령(대좌급)과 궁내대신이 고종앞에 부복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상감마마, 왜놈들이 무, 무기고를 다 털어갔습니다.》

궁내대신은 민비앞에 부복하여 가슴을 쳤다.

《중전마마, 저 횡포한 왜놈들이 왕실의 보물들을,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였던 국보까지 다 훔쳐갔소옵니다.》

고종은 실신한듯 눈길이 공허하고 민비의 얼굴에서는 비분의 눈물이 끓고있었다.

자기 집무실로 돌아온 오또리공사는 새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젖은 머리를 빗질하며 자기를 초조하게 쳐다보는 스기무라서기관에게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됐소, 아주 잘됐소.》

《그렇습니까? 하긴 공사각하께서 진두지휘하셨는데…》

오또리는 손에 쥐고있는 빗으로 전신실쪽을 가리키며 언명했다.

《조선왕궁이 점령되고 국왕이 우리 손에 장악되여있다는 사실을 빨리 본국에 알려야겠소.》

《예.》

《그리고 다음단계로 빨리 친일정부수립문제를 추진시켜야겠소.》

《그래야지요.》

《대원군은 어찌 되였소?》

《저 운현궁에 간 오까모도한테서 아무 기별이 없는것으로 보아…》

오또리가 벌컥 화를 냈다.

《서기관, 뭣들 하고있는거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입궐시키시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4년 7월 23일부에는 오또리공사가 도쬬의 무쯔 무네미쯔외무대신에게 보낸 전신 기밀 제136호에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이 나라의 폐정개혁을 위해 대원군의 입궐은 처음부터 바라고있던 바이나 대원군은 나는 너무 많이 늙어서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입궐을 거절하기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어 힘으로 대원군을 끌고가겠음.》

구름속의 아침해가 공사의 집무실에 비껴들었다.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던 오또리공사는 만족에 겨워 거듭 되뇌였다.

《됐소, 아주 잘됐소.》

벙글거리는 오오시마려단장과 스기무라서기관의 앞에서 걸음을 멈춘 오또리는 손벽을 쳤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하녀가 쟁반에 축배잔을 받쳐들고 들어섰다.

각기 축배잔을 들자 오또리가 엄숙하게 말했다.

《제군들!》

모두가 축배잔을 들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제군들은 명치유신의 지사들처럼 제국의 공신들로 력사에 길이 남을것이요. 우리가 조선궁성을 점령한 목적은 우선 조선국왕을 우리 일본군의 통제밑에 두고 조선왕정의 권력을 우리 마음대로 전쟁수행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소. 더우기 대의명분이 없는 청군구축을 조선정부로부터 의뢰받자는것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친청세력인 민비일파를 제거하고 민비와 대결하고있는 대원군을 내세워 시종 일본편에 잡아둘수 있는 친일정권을 조작하자는데 있소. 명치유신처럼 력사는 밤에 창출되는 법이요. 지난밤을 영원히 추억합시다.》

말을 마친 오또리는 축배잔을 높이 쳐들었다.

남의 나라 궁성을 비법적으로 습격점령하고 남의 나라 임금과 왕비를 죄인처럼 감금하고 남의 나라 궁전의 신식무기들과 값진 보화들을 깡그리 략탈하고 만족하여 축배잔을 드는 이런 왜놈들이 날강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1부 끝

편집후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제의 적대시정책, 재침야망이 나날이 극심해지고있는 환경에서 지난날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의 왕후 민비까지 야수적으로 학살한 놈들의 잔인성, 악랄성, 침략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편력사소설 《숙적》(1, 2부)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소설은 우리 나라가 내우외환으로 시달리던 19세기 말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고 근대적발전을 지향한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말살하였을뿐아니라 한 나라의 왕비마저 참혹하게 학살한 력사의 류례없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인륜적만행을 통하여 놈들은 우리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소설가 김정민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해방동이로 세상에 태여난 그는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지만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부럼을 모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였다.

당과 조국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필자는 장차 력사소설작가로 어머니조국에 기여할 열망밑에 민족고전학습에 열중하면서 기량을 련마하여나갔다.

처음 문예출판사(당시) 소설편집원으로 배치되였을 때 그는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많은 장, 중편소설들을 담당편집하였으며 이 과정에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선배작가들을 통해 문학적수양을 쌓아나갔다.

이 세상 만물에 생을 주고 꽃을 활짝 피워주듯이 한 인간의 자그마한 문학적재능마저 귀중히 헤아려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1982년에 필자를 전문작가대렬에 세워주시였다.

작가는 왕성한 창작적정열에 넘쳐 장편력사소설 《망이》(제1부)를 비롯하여 력사소설들인 《대원군》(제1～3부), 《홍범도》(상, 하) 등 많은 소설과 예술적산문들을 창작발표하였다.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데 끝이 없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으로 작가는 그후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창작생활을 하게 되였다.

장군님의 신임과 사랑에 감복된 작가는 우리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꽃피우기 위해 일심전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를 소설로 옮길 과업을 받았을 때는 그 창작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을 창작할 때에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언제나 전사, 제자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새벽길》(하)이 나왔을 때는 그 창작적성과를 작가에게 다 돌려주시여 조선로동당창건 50돐기념 문학축전상을 수여받도록 해주시였으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장편력사소설《망이》(제1부)와 단편소설 《생의 축복》의 사상예술적성과도 높이 평가하시여 문학창작상을 수여받도록 해주시였다.

이번에 새로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장편력사소설 《숙적》(제1, 2부)은 지난날 우리 나라가 수난과 치욕의 력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반동통치배들때문에 국력이 약하고 군력이 약했기때문이며 외세의 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겨줄것이다.

작가는 말한다.

《저의 성장과 작가생활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꽉 차있는 참으로 축복받은 삶의 나날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써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필자는 당의 작가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오늘도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투지만만한 기세로 창작사업에 전념하고있다.

(편집부)

장편력사소설 **숙 적** (제1부)

저 자 **김 정 민**
편 집 **김 원 선**
표지, 삽화 인민예술가 **차 형 삼**
교 정 **안 순 영**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99(2010)년 5월 10일
발 행 주체99(2010)년 5월 15일

ㄱ-06162 값 230원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0
D P R Korea
ISBN 978－9946－22－331－5